

2021년도 불국사 월산문도회·대각사상연구원 학술세미나

월산 대선사 사상의 재조명



| 일 시 | **2021년 9월 9일**(목요일) 오후 1시

| 장 소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 불교문화회관

| 주 최 | 불국사 월산문도회

| 주 관 |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대각사상연구원

| 총도감 | 종상큰스님(불국사 관장)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유튜브 생방송**

식 순

【 1부 】 삼 귀 의

사 회 : 정수스님(불국사 승가대학장)

(13:00 – 13:30)

반야심경

인사말씀 - 보광스님(대각사상연구원장)

환영사 - 성타큰스님(불국사 회주)

축 사 - 내빈

사홍서원

【 2부 】 주제발표 및 1:1 지정토론

(13:30 - 16:30)

사 회 : 홍사성(불교평론 주간)

[기조발제] 종우스님(불국사 주지)

[제1주제] 월산큰스님의 생애사

▶ 발표 : 김광식 (동국대 교수)

▶ 토론 : 정수스님 (불국사 승가대학장)

[제2주제] 월산 큰스님의 중도선사상(2)

▶ 발표 : 보광스님 (대각사상연구원장)

▶ 토론 : 성웅스님 (불국사 부주지)

[제3주제] 불국선원 건립의 사상적 의미와 특징

▶ 발표 : 혜명스님 (동국대 경주 불교학부 교수)

▶ 토론 :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제4주제] 불국사의 강학 전통

▶ 발표 :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 토론 :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제5주제] 월산 대종사와 <법보신문>

▶ 발표 : 이재형 (법보신문 편집국장)

▶ 토론 : 이필원 (동국대 경주 파라미티칼리지 교수)

【 3부 】 종합토론 및 총평

(16:30 - 17:00)

총 평 : 덕민큰스님(불국사 승가대학원장, 기림사 주지)

목 차

1. 기조발제

<발표> 종우스님(불국사 주지)	9
-------------------------	---

2. 「월산큰스님의 생애사」

<발표> 김광식(동국대 교수)	15
------------------------	----

<토론> 정수스님(불국사 승가대학장)	45
----------------------------	----

3. 「월산 큰스님의 중도선사상(2)」

<발표> 보광스님(대각사상연연구원장)	49
----------------------------	----

<토론> 성응스님(불국사 부주지)	81
--------------------------	----

4. 「불국선원 건립의 사상적 의미와 특징」

<발표> 혜명스님(동국대 경주 불교학부 교수)	85
---------------------------------	----

<토론> 김호귀(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115
--------------------------------	-----

5. 「불국사의 강학 전통」

<발표> 한상길(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117
------------------------------	-----

<토론> 이재수(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159
------------------------------	-----

6. 「월산 대종사와 <법보신문>」

<발표> 이재형(법보신문 편집국장)	163
---------------------------	-----

<토론> 이필원(동국대 경주 파라미타칼리지 교수)	191
-----------------------------------	-----

7. 월산 대종사 연보

.....	197
-------	-----

월산큰스님의 업적을 생각하면서

- 대중사의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하며 -

종우스님 - 불국사 주지

1. 월산큰스님의 위상

월산(月山)큰스님은 조계종단 및 금오문중을 대표하였던 대중사(大宗師)로서 한국불교 및 조계종단에 큰 영향을 끼치신 스님이었습니다. 특히 은사이신 금(金)자 오(烏)자 큰스님을 모시고 조계종단을 재정립한 불교정화운동에 헌신하신 것은 청사에 길이 남을 발자취입니다.

그러나 저희 문도들이 그간 수행과 지혜가 부족해서 대중사님의 행적, 사상, 영향 등을 바르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비석과 부도탑을 조성하고, 매년 추모 다례제는 지내 왔으나 큰스님의 역사, 지성, 업적 등을 바르게 정립하는 학술적 작업은 그간에는 소홀하였습니다. 다행히 2년 전에 대각사상연구원과 협력하여 최초의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성과물이 권위가 있는 등재학술지인 『대각사상』에 수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큰스님의 학술적 조명이 시작되었음을 다행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큰스님의 가르침은 조계종단, 경북지역 불교, 불국사 및 불국사 선원 등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한국 현대불교사에 큰스님들이 많이 등장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들의 스승이셨던 월(月)자 산(山)자 큰스님은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에 투철하신 고승이었던

습니다. 특히 선(禪)에 대해서는 일가견을 갖고 계시고 실참수행을 하신 수행자이셨습니다.

나아가서 큰스님은 동화사, 신흥사, 법주사 등 본사급 사찰의 주지 소임을 보시고, 조계종단의 총무원장 및 원로회의 의장을 역임하셨고, 말년에는 불국사의 재건 및 불국사 선원 창설 등을 하신 이사(理事)에 능통하신 대종사이었습니다. 이렇듯이 다양한 소임을 보시면서 위법망구(爲法忘軀)하는 자세로 종단과 불교의 위상을 수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큰스님의 수행, 사상, 행적은 대단하였지만 저희들이 부족하여 큰스님의 역사 찾기에 게을렀기에 큰스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사부대중에게 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세미나를 기점으로 저희들은 스님의 역사를 찾아서 그를 한국불교 및 조계종단의 역사에 편입하는 사업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저는 큰스님의 생애의 특성만을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이나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앞으로는 저희 문중스님, 인연이 있는 사부대중 및 학자님들의 검증을 받아서 객관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2. 월산큰스님의 행적 및 사상

1) 생애와 선사상

월산큰스님의 생애는 일제말기, 해방공간, 6.25 전쟁기, 불교정화운동의 공간, 종단 안정기, 불국사 주석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하의 막바지에 석왕사를 거쳐 망월사에서 입산 출가를 하신 스님은 금오스님을 은사로 삼고, 만공스님과 동산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수행의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남은암, 봉암사, 적천사 등지에서 수행에 철저하였던 수좌들과 진리의 세계, 그리고 깨달음의 세계에서 치열한 정진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금오큰스님을 시봉하면서 불교와 종단을 바르게 정립한 불교정화운동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였습니다. 치열한 8년간의 고투 결과, 종단은 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사급 사찰에서 사찰의 가람수호, 수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지금은 불교정화운동의 가치에 대한 중도들의 신뢰가 후퇴한 감이 있지만, 종단을 위한 애정과 헌신은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큰스님께서는 총무원장, 종회의장, 원로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1981년에 스님은 조계종단의 종정으로 추대 및 물망에 올랐으나 그런 자리에 결코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종단 소임을 마치고는 경주의 불국사에 돌아오셔서 입적하시는 그날까지 불국사의 사격 향상, 수행풍토 조성, 경주불교의 기반 조성을 위해 고생을 하시다가 열반의 길로 가셨습니다. 이런 행보가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 정리가 미흡하였지만, 이제는 문헌적 근거 및 증언에 의해 정리되길 기대합니다.

월산큰스님의 수행은 철저하고, 지독하였다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큰스님께서는 당신의 수행과 사상에 대하여 많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월산큰스님의 사상으로는 선사상을 우선적으로 거론해야 할 것입니다. 스님은 평생을 참선 정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처의 유명한 선사들을 찾아 구도의 문답을 하신, 열정적인 선사이었습니다. 말년에도 큰스님께서는 불국사 선원에서 후학을 따듯하게 제접하시고 수좌들에게 참선의 깊은 뜻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월산큰스님의 선사상은 화두를 통해 증득한 중도사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큰스님께서는 참선을 강조하셨지만 다른 수행 방법을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공적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중도사상을 구현하셨습니다. 즉 살아있는 실천적인 선사상이었습니다. 현대불교사에서 중도사상은 성철스님도 강조하셨지만 월산스님의 중도사상은 스님의 불교사상의 전체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월산큰스님의 사상은 중도사상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점은 우리 후학들이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하여, 반드시 역사에 남겨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월산큰스님의 생애에서 주목할 것은 종단에 대한 헌신이라고 봅니다. 스님은 늘상 당신만의 개인, 문중 문도를 떠나서 불교 및 종단을 위한 일에는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해방공간 당시에 성철스님, 청담 스님, 자운스님 등과 함께 봉암사 결사에 참가하신 이래 은사인 금오큰스님과 함께 종단 재건, 식민지 불교 잔재의 척결을 위해 등장한 불교정화운동이 최일선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렇게 정화운동이 성사가 되어 종단이 안정이 되자 큰스님께서는 법주사, 신흥사, 동화사의 주지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학원의 이사로도 계셨습니다. 그 후에는 총무원장, 원로회의 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보를 감에 있어서 큰스님은 당신의 안위, 문종이익을 철저히 배격하셨습니다. 소임을 위한, 문종을 위한 행보를 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지금은 중앙에서 종단 소임을 보고 있으나, 월산큰스님과 같은 결단, 헌신, 지혜가 그립습니다. 지금은 전 종도가 우러러보는 큰스님의 존재를 찾기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오스님, 월산스님 뿐만 아니라 최근세 큰스님들이 종단을 위해 헌신한 내용, 사례 등을 수집하고, 정리한 일화집 같은 것을 펴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문종 중심의 역사 찾기를 하고 있지만, 이를 지양하고, 참다운 종단 차원의 큰스님의 역사를 찾고, 알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2) 경주지역 불교 안정화 : 불국사의 선원, 승가대

월산큰스님의 업적 중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불국사의 발전과 경주불교에 기여하신 것입니다. 이 점은 저희 문손들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기록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제 강점기에 경주지역의 본사는 기림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1960년대 초반부터 불국사는 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산스님이 불국사 주지로 오시면서 불국사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대작(大作) 불사도 성사되었고, 사격(寺格)도 고양되었으며, 그런 기반에서 경주가 불교문화의 본거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불국사 선원을 창건하신 큰 열정으로 선 수행의 토대를 굳건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국사 선원에는 많은 수좌들이 수행을 해서, 한국 현대선원 역사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조실로서 수좌들을 직접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 시절 불국선원에서 수행하신 스님은 범룡스님, 혜정스님, 일타스님, 송담스님, 대원스님 등이었습니다. 물론 스님의 참선 가르침은 법주사, 대승사, 복천암 등의 선원에서도 구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불국선원이었습니다.

한편 큰스님께서는 불국사의 선방 불사를 하신 이후에는 경주지역의 불자들에게 선을 전파하셨습니다. 큰스님은 경주에 시민선원을 세워서, 대중들에게 선의 진수를 알려주기 위해 노심초사 하였습니다. 지금은 명상, 참선, 템플스테이가 자연스러운 용어가 되었지만 월산큰스님이 계신 시절에는 그런 말 자체가 희소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큰스님은 선각자 이었습니다.

그리고 큰스님께서는 불국사에 승가대를 세우셨습니다. 예전에는 강원, 승가학원이라고 불렸습니다. 불국사에는 본래 1910년대에 강원이 있었으나 식민지 불교라는 혼란과 본사로 지정되지 못한 형편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큰스님께서는 그런 역사적 전통을 복구하여 불국사를 경북지역 불교의 중심으로 만드셨습니다. 불국사 강원에는 운기스님, 상묵스님, 덕민스님 등 명성이 있는 강주스님의 헌신을 통해서 전통이 구현되어 역사적인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불국사의 선원과 승가대(강원)에 대한 단독적인 논문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매우 아쉬웠는데 오늘 그에 대한 논고를 발표한다고 하니 대단히 기쁩니다.

3) 언론 창달, 『법보신문』 창간

월산큰스님은 불교 언론에 기여하신 점을 역사에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종단 기관지인 『불교신문』 밖에 없었던 황무지 시절인 1988년에 『법보신문』을 창간하고 운영하신 것이었습니다. 불교 언론의 기반이 척박한 시절, 큰스님께서는 과감하게 『법보신문』을 창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언론 사업을 운영하시고, 후원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법보신문』이 독립하여 불교 언론의 선두에서 매서운 언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보신문』에는 월산큰스님의 수행, 선사상, 불교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정리하여 역사적인 기록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여튼 이런 행보에 나타난 월산큰스님의 결단, 헌신, 후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문화사업, 언론사업을 하겠다고 결단한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의 큰스님의 공로, 업적을 정리하고 온고이지신의 마음으로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3. 마치면서

오늘 저는 불국사와 대각사상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 추진한 세미나 즉 ‘월산대종사 사상의 재조명’을 발표하는 학술 행사에서 저의 소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저의 발언은 부족한 측면이 많을 것입니다. 추후 이 방면의 전문적인 학자들의 냉철한 분석, 연구로 정립되길 기대합니다. 저희 문도회에서는 추후에도 이런 학술 사업을 주관하고, 후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산큰스님의 흠어진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학술적 정리, 계승, 추모를 할 수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격언을 유의하여 월산큰스님에 대한 작은 자료라도 찾기를 제언합니다.

제가 중앙의 종단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다른 사찰과 문종들은 학술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불국사는 조금 미진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오늘 이런 자리에 서 보니 우리 불국사도 그런 학술 사업에 자부심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불국사를 사랑하는 사부대중의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월산큰스님의 선양 사업에 애정 어린 고견을 해주시면 저부터 그를 청취하고 앞장을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산큰스님의 생애사

김광식 - 동국대 교수

• 목 차 •

I. 서언

II. 생애, 역사의 조명

1. 수행기(1943~1954)
2. 불교정화운동 참여, 종단 활동(1954~1974)
3. 불국사의寺格 고양기(1974~1986)
4. 불교사상(중도) 회향기(1986~1997)

III. 결어

I. 서언

본 고찰에서 살필 고승은 月山큰스님(1913~1997, 이하 월산으로 약칭)이다. 월산은 조계종단 재건의 역사인 불교정화운동의 주역이었던 金烏의 법을 받은 큰스님으로 널리 알려졌다. 월산은 조계종단의 총무원장, 원로회의 의장을 역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북지역 불교를 상징하는 불국사의 주지 및 선원 조실을 역임하였다. 이는 월산이 한국 현대불교와 조계종단의 중요한 고승이었음을 말해주는 단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교 학계에서의 그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은 미약하였다.

월산에 대한 생애사 전반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려면 그에 관련된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고, 그 연후에 수집된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여 서술해야 한다. 그런데 월산의 자료집은 월산문도회가 1998년에 펴낸 법어집인 『월산선사 법어집』¹⁾이 유일하다. 요컨대 월산에 대한 역사를 정리하여 서술을 하려면 법어집의 내용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월산을 만났던 수많은 사부대중들이 전하는 이야기도 참고해야 한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필자가 찾을 수 있는 자료만을 갖고 월산의 일대기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이 글의 한계가 노정된다. 다만 2019년에 대각사상연구원과 불국사·월산문도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학술세미나(주제 : 월산대종사의 생애와 삶)에 발표된 다양한 논문이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²⁾

하여튼 필자는 이 고찰에서 월산의 생애사 전반을 정리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첫째 수행기(1943~1954), 둘째 불교정화운동 참여 및 종단 활동기(1954~1974), 셋째 불국사의 사격 고양기(1974~1986), 넷째 불교사상(중도) 회향기(1987~1997)로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이 같은 서술은 그의 생애사에 대한 성격 및 활동이 대별되었다고 필자가 보았기에 그렇게 시론적으로 시도하였다. 미진한 측면은 지속적인

1) 『月山禪師法語集』, 월산문도회, 1998.

2) 논고들은 『대각사상』 32집(2019)에 특집으로 수록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오문종의 위상과 성격(김순석), 월산큰스님의 생애와 사상(김광식), 월산큰스님의 선사상(1)(보광스님), 근현대 불국사의 사격(한상길), 월산큰스님과 불국사 선원(석길암) 등이다.

자료수집 및 탐구로 보완해 가고자 한다. 이 글이 월산, 월산문도, 불국사 등의 역사에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II. 생애, 역사의 조명

1. 수행기(1943~1954)

월산은 1913년 5월 1일(음력), 함경남도 신흥군 동상면 원풍리에서 출생하였다. 유년 시절에는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하고, 신식 학문도 배웠다. 청소년기에는 문자 이전의 소식, 인간의 본래 모습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³⁾ 서당과 학교에서의 공부를 마치고 나서, 입산하기 이전 청년기에는 망국의 한을 안고 외국(일본과 중국)을 왕래하였다. 20대 후반에는 만주에서 무관의 생활에 관여하였다.⁴⁾

그러나 1943년(31세)에 과거의 ‘풍운아’⁵⁾ 생활과 결별하고 출가의 길을 갔다. 이에 대한 내용은 『법어집』의 연보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부친이 사망하신 후, 석왕사 노승인 양안광 스님 소개로 치악산 상원사 전금초 스님을 찾아 당시 수행 승단의 현황을 알게 됐고, 망월사로 소개 서찰을 받게 되었다.⁶⁾

즉 부친의 별세에 충격을 받아 인근 사찰인 석왕사로 갔다. 석왕사에서 노승려(조실, 양안광)를 만났는데, 그 노승의 소개로 원주 치악산 상원사의 전금초를 찾아가서 만났다. 거기에서 망월사로 가라는 소개 서찰을 받았다. 그래서 1944년 해방 직전, 망월사를 찾

3) 「行狀」·「年譜」, 『月山禪師法語集』, 월산문도회, 1998.

4) 성타스님 증언. 무관학교의 부대장을 역임하였다고 한다.

5) 선원빈, 「스님을 찾아서-佛國禪院 祖室 月山大宗師」, 『법륜』 98호(1977.4), p.43.

6) 위의 「연보」, p.369.

아간 월산은 거기에서 망월사 주지인 춘성을 만났고, 그의 안내로 금오를 은사로 하여 수계(사미계)를 하였다. 즉 1944년에 정식으로 출가(수계)를 하였던 것이다.

한편 월산의 석왕사 행은 우연이 아니었다. 월산의 상좌인 성타는 재가시절에도 佛緣이 있었고, 불심이 많았던 삼촌의 권유로 석왕사를 찾아갔다고 필자에게 증언하였다. 그래서 석왕사를 찾아 갔는데 그때에 道人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였던 것이다. 이런 증언을 고려하면 월산의 출가는 우연이 아니고, 부친의 별세 후 출가하겠다는 강열한 자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행적은 월산이 살아생전에 회고한 증언에서 확인된다. 즉 2009년에 『선문화』와의 대담에서 행한 월산의 발언이다. 그는 다음과 같다.

내가 불교와의 인연을 맺게 된 데는 안변 석왕사를 자주 찾은 데서 비롯되었다. … (중략) … 내가 출가하기 전에도 집에 있을 때 방 가운데에 좌복을 깔고 좌선을 했는데 그때 참선이 무엇인지 모르고 명상에 들었습니다. 훗날 출가하여 금오스님으로부터 그 공부가 바로 참선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 (중략) … 석왕사와의 인연은 참으로 각별했지요. 내가 불문에 들어와 최초로 출가한 절이요, 불법이 무엇인지를 만나게 된 곳이 바로 석왕사였기에 더욱 석왕사의 인연이 각별했지요. 내가 석왕사에서 약 1년간 있었는데 일본 군인들의 무장해제까지 내가 직접 해주었어요.⁷⁾

월산의 석왕사 인연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온다.⁸⁾ 이렇듯이 월산은 석왕사 - 상원사 - 망월사를 거쳤는데, 망월사에서 금오를 은사로 삼고 계를 받고 정식으로 출가하였다. 그리고 나서 월산은 당대의 선승인 만공이 주석한 수덕사로 가서 수행하였다. 「연보」에서는 공양주 소임은 만공 회상에서 한 것으로,⁹⁾ ‘이뵈고’ 화두를 만공에게서 받았던 것

7) 최석환, 「인물탐험 : 월산대선사, 덕숭산 선맥 이어온 큰스승 月山 선사」, 『선문화』 2009년 4월호, pp.51-53.

8) 그런데 최석환은 월산은 석왕사에서 1년간 행자로 있다가 8·15 해방이 되자, 금오를 따라서 망월사로 가서 수계를 하였다고 하였다. 최석환, 「인물연구 : 불국선원 조실 월산선사」, 『불교춘추』 3호(1996.5), p.17. 이런 내용은 문도회 차원에서 검증이 요청된다.

9) 최석환도 위의 글에서 만공 회상에서 공양주 소임을 한철 하였다고 월산이 증언한 것으로 기술했다. 그 당시 승려인 김현기가 월산과 함께 공양주, 채공을 1년간 하였다고 증언했다. 김현

으로 나온다.¹⁰⁾ 이런 행적은 월산이 말년에 『불교춘추』와의 대담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월산은 만공에게서도 이 화두를 받았지만, 금오에게도 이 화두를 받아 말년까지도 놓치지 않고 지녔다고 한다.

그 후, 월산은 수덕사를 떠나 만행 수행을 하였다. 그러면 수덕사를 떠나, 어디로 가서 수행을 하였는가? 그 대상처는 남은사(보길도), 봉암사(문경), 범어사 등이었다. 필자가 보건대 그는 수덕사를 나와서 보길도 남은사로 갔다고 본다.¹¹⁾ 1946년 만공이 입적하자, 수덕사에서 정진할 명분이 없자, 남방행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남은사에서 함께 정진한 대종은 비룡, 서암,¹²⁾ 경산,¹³⁾ 도광,¹⁴⁾ 도천 등의 수좌들이었다. 월산은 탁발을 하면서 남은사에서 정진을 하였다.

그 이후 월산은 1948년에는 남은사에서 나와 수좌들이 결사 정진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봉암사로 갔을 것이다. 지금껏 봉암사 결사에 대한 역사에서 성철, 청담, 자운, 보문의 행적에만 유의하였다. 필자는 여기에서 봉암사 결사의 주역인 성철의 기록에 월산의 이름이 나온 2건의 자료 즉 성철의 구술 증언을 제시하겠다.

봉암사에 들어 간 것은 정해년(丁亥年), 내 나이 그때 36세 때입니다. 지금부터 36년 전입니다. 봉암사에 들어가게 된 근본 동기는, 죽은 청담스님하고 자운스님하고 또 죽은 우봉스님하고, 그리고 내 하고 넷인데, 우리가 어떻게 근본 방침을 세웠느냐 하면, 전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임시적인 이익관계를 떠나서 오직 부처님 법대로만 한번 살아보자. 무엇이든지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해서 ‘부처님 법대로만 살아보자’ 이것이 願이었습니다. 즉 근본 목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처소는 어디로 정하나? 물색한 결과 봉암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기는 오대산 한암스님의 좌탈입망 장면을 촬영한 육군소위의 정훈 장교이었다. 『현대불교』 1999.10.13, 「20세기 그 현장 그 인물 1 : 한암스님 좌탈입망 촬영 김현기 스님」.

10) 위의 최석환 글에도 만공에게서 이 뒷고 화두를 받았다고 나온다.

11) 위의 최석환 글, 「인물연구 : 불국선원 조실 월산선사」, p.17.

12) 이 청, 『서암 큰스님 평전 : 태어나기 전의 너는 무엇이었나』, 북마크, 2009, p.256, 「연보」.

13) 박원자, 『청정율사 경산스님의 삶과 가르침』, 동국대출판부, 2018, p.134.

14) 김광식, 「도광의 구도와 보살행」, 『한국 현대선의 지성사 탐구』, 도피안사, 2010, p.731.

때에는, 우봉스님이 살림 맡고, 보문스님하고 자운스님하고, 내하고 이렇게 넷이 들어갔습니다. 청담스님은 해인사에서 가야총림(伽倻叢林)한다고 처음 시작할 때에는 못 들어오고, 서로 약속은 했었지만 … (중략) … 그 뒤로 향곡(香谷), 월산(月山), 종수(宗秀) 젊은 사람으로는 도우(道雨), 보경(寶鏡), 법전(法傳), 성수(性壽), 혜암(慧菴), 종회의장 하던 의현(義玄)이는 그 때 나이 열서너댓살 되었을까? 이렇게 해서 그 멤버가 한 20명 되었습니다.¹⁵⁾

위의 기록에 나오듯이 월산은 봉암사 결사의 현장에 있었다. 이 내용은 봉암사 대중이었던 혜암의 회고에도 월산이 나온다.¹⁶⁾ ‘부처님 법대로 살자’고 표방한 수행인 봉암사 결사에서¹⁷⁾ 정진은 그가 불교정화운동, 종단의 소임자를 맡을 때에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¹⁸⁾

월산은 봉암사결사가 해체되자 6·25전쟁 기간에는 부산으로 피란을 갔다. 그는 범어사, 금정사, 선암사(부산) 등에서 정진을 하였다. 월산은 1950년 범어사 금어선원에서 정진을 하면서도,¹⁹⁾ 금정사 선원장으로²⁰⁾ 있었다. 그리고 1951년에는 선암사 주지 소임을 보았다. 이에 대해 그 현장에 있었던 종원과 월산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그래서 비구승들이 선암사를 얻었지요. 맨 처음에는 노장님 월산스님이 주지였고, 그 후에는 향곡스님, 석암스님이 후임 주지이었을 것입니다.²¹⁾

15) 「1947년 봉암사 결사」, 『수다라』 10집, 1995, p.115.

16) 「혜암스님을 찾아서」, 『고경』 2호(불기 2540년 여름호), p.19.

17) 김광식, 「봉암사 결사의 전개와 성격」, 『한국 현대불교사 연구』, 불교시대사, 2006, pp.103-110.

18) 월산은 당시 봉암사 원주를 본 보경과 친근하게 지냈다고 한다. 그래서 보경이 머물던 사찰인 부산 감로사에 자주 왕래를 하였다고, 보경의 상좌인 혜총(감로사 주지, 전 포교원장)은 필자에게 증언했다.

19) 『근대선원 방함록』, 조계종 교육원, 2006, p.360의 범어사 금어선원 수좌명단에 淨桶 소임으로 월산이 나온다.

20) 『월산선사 범어집』의 화보에 1950년 동안거 해제 당시, 금정사 선원에서 수좌 대중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나온다.

21)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8, p.267. 당시 대중으로 금오, 성철, 홍경, 무불, 강석주, 자운 등이 있었다. 주지 발령은 이종욱 총무원장이 하였는데, 영암스님의 부탁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가 젊었을 적에는 다들 화두를 들고 공부를 했지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부산 선암사에서 오래 지냈지요. 육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내원사에도 있었고²²⁾

즉 선암사(부산)에 있다가 내원사(양산)로 가서 정진을 하면서 6·25전쟁의 어려움을 겪었다. 선암사에는 6·25전쟁 기간에 아주 유명한 선방(소림선원)이 있었다. 당시 그곳에서 출가한 인환도 월산이 거기에서 수행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²³⁾ 월산의 후임으로 향곡이 선암사 주지로 있었는데 그 무렵 유명한 수좌(지월, 서옹, 홍경, 무불, 향곡, 설봉, 도광, 운문 등)가 수행을 하였다. 월산은 그후 1952년 무렵은 통영의 용화사 도솔암의 효봉 회상에서 수행을 하였다. 당시 효봉의 시자인 일관(박완일)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그때 도솔암에 누가 계셨냐면 탄허스님, 소구산스님, 최월산스님, 손경산스님, 성수스님, 박비룡스님, 운경스님, 범룡스님, 김지견도 우진이라는 이름의 수좌로 한철 났었지.²⁴⁾

이렇듯 남방에서 수행을 하였다. 그는 그 무렵 목포의 정혜원에서 은사인 금오를 만났고, 완도에서 다시 금오를 만나 금오에게 받은 ‘돌멩이’ 화두를 들고 정진하였다.²⁵⁾

한편, 1953년 무렵에는 청도의 적천사 도솔암에서 홀로 수행을 하였다.²⁶⁾ 월산은 생전에 상좌들에게 “청도 토굴생활은 소림굴의 달마 대사가 면벽하였던 그때의 심정 이었다”고 회고하면서,²⁷⁾ 제일 인상이 깊은 수행처를 말할 때에는 적천사를 언급하였다. 그런데 그의 적천사 토굴 수행의 始末의 기간은 분명치 않다. 홀로 수행 시 그는 양식이 떨어지면 대구로 나와 탁발을 하여 해결하고, 다리 밑의 거지들에게 보시하였다고 한다.²⁸⁾ 이

22) 『월간 海印』 31호(1984.9), 「불국선원을 찾아서 : 염화실의 미소- 월산」.

23) 『처처에 나툰 보살행 : 석암스님의 수행과 가르침』, 석암문도회, 2011, p.74.

24) 『22인의 증언을 통해 본 근현대 불교사』, 선우도량, 2002, p.356.

25) 박부영, 『금오선사 평전』, 불교신문사, 2016, p.117. 박부영은 그 시점을 1950년이라고 서술하면서, 월산은 금오를 모시고 남은사로 가서 함께 정진을 하였고, 화두 정진에 대한 지도를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광은 1946년으로 보고 있다. 위의 보광 논고, p.94.

26) 월산의 맞상좌인 종원스님은 1953년 무렵, 적천사 도솔암으로 월산스님을 찾아 갔다고 필자에게 회고했다(2019년 4월 15일, 대구 수성구 정토사에서).

27) 위의 최석환 글, 「인물탐험」, p.55.

런 수행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치열한 정진이였다. 그런데 월산의 비문(고은 지음)에 의하면 적천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나온다.

경북 적천사에서 정진중 禪機가 열려 한 消息을 얻었으니, 凡夫가 곧 부처이며 煩惱가 곧 菩提이니 앞생각이 迷하면 범부였으나 뒷생각에 깨치면 곧 부처이며 앞생각이 경계에 집착 할 때는 곧 번뇌였으나 뒷생각이 경계를 여의면 곧 보리라 이르셨다.²⁹⁾

이처럼 월산의 오도는 적천사에서 있었다. 때문에 적천사는 월산 생애사에서 주목할 사찰이라 하겠다.³⁰⁾ 그가 토굴, 선원에서의 수행을 마치고 종단 현장으로 나온 것으로 1954년 봄 무렵이었다.

지금껏 살핀 바와 같이 월산은 1943년 입산, 출가한 이후 거의 10년 동안 선원, 토굴 등에서 치열한 정진을 하였다. 그의 정진은 주로 화두 참선을 통한 운수행각이었다. 이는 그의 은사인 금오, 만공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2. 불교정화운동 참여, 종단 활동(1954~1974)

월산은 195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불교정화운동에 참여하였다. 그가 지방의 토굴에서 수행을 하다가 정화운동에 참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불교정화운동의 핵심적인

28) 위의 최석환 글, p.55.

29) 이지관, 「경주 불국사 성림당 월산대선사비문」, 『한국고승비문총집』,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0, p.1339.

30) 월산의 오도의 시점, 장소에 대한 문도회 차원에서의 설명은 부재하였다. 2019년 9월 1일, 불국사 불교문화회관(경주)에서 열린 세미나(대주제 : 월산대종사의 삶과 사상)에서 철산스님은 다음과 같이 필자에게 발언하였다. 즉, 월산스님은 월서스님이 남지장사 주지를 하던 무렵에 남지장사의 산내 토굴에서 수행을 하다가 깨달았다는 것이다. 필자가 『月棲禪師 圓鏡錄』(2005)의 연보를 찾아보니 월서스님은 1962년 7월 15일에 남지장사 주지에 취임하였고, 1968년 3월에는 법주사 재무국장을 맡았다. 이런 이해를 하면 1962~1967년경에 월산스님은 2차로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월산스님은 1961년에 동화사 주지를 하였는데, 동화사 주지를 하면서 말사인 남지장사의 토굴에서 수행 정진을 하는 과정에서 깨달았지 않았는가 한다. 이런 깨달음에 대한 점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

주역인 그의 은사인 금오에서 비롯되었다.³¹⁾ 지금부터 금오·월산의 행보를 찾아서 그 전후 사정을 제시한다.

금오는 1953년 5월, 선학원의 조실로 추대 받았다. 불교정화운동의 근거이었던 선학원의 조실이였음은 금오가 정화운동의 중심에 서게 된 배경을 말해준다. 불교정화운동이 이승만대통령의 유시(1954.5)로 본격화되기 이전 종단 내부에서 자체적인 정화의 움직임이 있었다.

1952년 수좌 이대익이 당시 교정(종정)인 송만암에게 수좌의 전용 수행도량의 제공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만암은 통도사와 불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종단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종단은 만암의 지시를 수용하여 18개 사찰(동화사, 직지사, 신륵사, 보문사 등)을 비구승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18개 사찰의 주지는 사찰의 양도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비구승들은 분노하였다.

바로 이럴 즈음 금오는 조계사에서 열린 주지회의에 법문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자 금오는 그 법회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금오는 선학원 조실이었는데 주지(대처승)들에게 법문을 하면서 종정인 만암이 지시하고, 종단이 결정한 사찰 양도를 조속히 실천하라고 계송으로 촉구하였다.³²⁾ 선학원으로 돌아온 금오는 태고사에서 있었던 일을 대중(대월, 월산, 범행, 법흥, 정영, 지영 등)에게 전했다. 이러 전후 사정을 들은 승려들은 협의 끝에 종단의 주지회의에 선학원 수좌인 대월, 법흥, 정영 세 명을 대표로 선출하였다. 이들은 주지회의에 가서 비구승 수행 전용을 위한 사찰 할애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³³⁾ 그러자 대처승은 사찰 할애의 주장을 하는 비구승을 회의장에서 내쫓았다.

이때부터 비구승들은 선학원에서 회의를 갖고 불교정화에 뜻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전

31) 김광식, 「정금오의 불교정화운동」, 『불교학보』 57, 2011.; _____, 「불교정화운동에서 금오선사의 역할」, 『金烏스님과 한국불교』, 금오선수행연구원, 2011.

32) 『월서선사 원경록』, 월서선사법어집 간행위원회, 2005, pp.416-418, 「큰스님의 '한 말씀'」.

33) 『금오집』, 1977, p.181.

국 수좌들은 1953년 가을, 선학원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러나 정화 대책을 정하지 못하고 동안거 결제로 인해 연고 수행처로 돌아갔다. 그래서 정화의 열기는 잠시 주춤하였다.³⁴⁾

위와 같이 1953년에 선학원에서 불교정화가 태동이 시작될 때에³⁵⁾ 월산은 금오의 지근거리에 있었다. 금오는 선학원과 팔달사(수원)에도 가서 주석하였다. 그때 월산도 팔달사에 함께 있었거니와 그 정황은 금오의 상좌인 이두가 회고한 내용에 나온다.

나(필자 주, 이두스님)는 큰스님을 뵈시고 팔달사에 도착했다. 그때 주지인 범행스님이 34세의 젊은 때였다. 범행스님은 아주 예쁜 젊은이의 인상으로 기억된다. 그때 나는 김송월의 약을 먹고 병을 얻어 냉증 소화불량 여러 가지의 병객으로 한 여름을 살았다. 툭툭하게 큰스님 시봉을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때 월산스님도 처음 뵈었다. 그해 여름에 종단의 정화시비가 짝 트는 것이 신문에 나타났다.

그때 교단에 교정인 송만암 스님께서 통도사 모임에서 대처승으로 인해서 종단이 말할 수 없이 부패 타락했으니 종단은 정화가 필요하고 만일 정화하지 않는다면 불교는 끝내 망하고 만다는 담화와 교시를 하셨다는 기록을 어떤 유인물을 통해서 읽었고 그 유인물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난 것을 읽었다. 절에 온지도 얼마 안 되지만 그때 나는 종단에 대해서 우물 안에 개구리 격이었다. 결제중인데 비오는 날 범어사 청풍당에 계시는 지효스님이 큰스님과 월산스님을 뵈고자 찾아 오셨다.

그때 스님들 이야기 말씀을 들으니 곧 종단에 정화싸움이 일어난다는 짐작이 갔었다. 종단에 대처승은 중이 아닌데 이들이 종단의 실세가 되어 가지고 지금 종단을 다 말아 먹고 정작 출가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종단과 무관하게 소외되어 있어서 한국불교는 지금 숨 넘어 가고 있으니 우리들이 나서서 바로 잡지 못한다면 이제 불교를 구할 길이 없어질 것이다. 불교를 망치는 대처승을 몰아내는 투쟁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밤이 새도록 아주 진지했기에 미구에 종단싸움이 곧 시작될 것을 믿어졌었다. 선학원에 모여 선학원 운영에 관계를 달리 해야 하고 종단 정화에 관한 모든 일을 상의하기 위해 어떤 스님과 어떤 스님을 벌써 내통해서 합의를 이미 끝냈다는 것이다.³⁶⁾

34) 강석주·박경훈, 『불교근세백년』, 1980, 중앙신서, pp.239-240.

35) 범행은 1952년 경, 선학원에서 월산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금오선수행연구원, 『금오스님과 불교정화운동』 2권, 2008, pp.156-159.

36) 위의 장이두 회고록, 「¹⁸ 금련사 토굴」.

위의 내용은 자생적인 불교정화가³⁷⁾ 있었던 1953년 5월부터 이승만 유시가 있었던 1954년 5월 20일 이후까지 금오 주변의 정황을 전한다. 범어사 수좌인 김지효가 금오와 월산을 찾아왔다. 그래서 그들은 불교정화의 당위성, 추진 원칙, 방법 등에 대해 대화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월산은 금오의 지근거리에서 불교정화의 이념, 실행에 대해 고민하였을 것이다.

1954년 6월 선학원에 각처의 비구승들이 모여 들면서 불교정화에 대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강구되었다. 그 결과 금오가 ‘불교 정화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에³⁸⁾ 추대되었다.³⁹⁾ 금오가 정화 추진체의 위원장에 추대된 날은 1954년 6월 21일이었다. 여기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금오가 왜? 불교정화를 본격화 하는 최초 조직체의 책임자로 추대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필자는 금오가 수행자들의 수행도량의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노력하였던 진정성을 당시 수좌들이 신뢰하였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 금오의 행동하는 실천성이 부가되었다.⁴⁰⁾ 즉 수좌를 이끌던 지도자,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이었다.

금오가 책임자로 있었던 불교교단 정화 대책위원회는 선학원에서 불교정화운동을 본격 추진하였다. 1954년 6월 20일, 기존 교단(대처측)의 회의를 지켜보면서 정화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했다. 당시 교단 집행부는 기존 종현의 구도에서 개선만을 의도하였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敎化僧으로 표방하고, 수좌들에게는 48개 사찰을 제공하겠다는 미온적 대책을 표방했다. 그러자 선학원 수좌들은 분노하면서 본격적인 정화 실천으로 나갔다.

마침내 정화운동의 추진을 결정하는 대회인 전국비구승대표자 대회가 8월 24~25일, 선학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불교정화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⁴¹⁾ 대회에서는 65명의 수좌가 참여하여 교단정화, 도제양성, 총림창설을 결의하였다. 이는 교단 정화의 기본 방향의 수립이었다. 대회에서 금오는 종현제정 위원 및 정화 추진 대

37) 김광식, 「만암의 불교정화관」, 『조계종단의 개혁과 정화의 제문제』, 중도, 2018.

38) 『한국근현대 불교자료전집』 권68, p.421, 「비구승단 발족약사」.

39) 위의 장이두 회고록과 같음.

40) 『금오스님의 불교정화운동 2』, p.88, 초우 증언.

41) 김광식, 「전국비구승대표자 대회의 시말」,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책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바로 이 대회에 월산도 참가하였다.⁴²⁾ 지금까지 이런 점은 월산문도회에서도 주목하지 않았다.

월산은 대회 참가 승려의 자격을 심사하는 전형위원의 5인(문일조, 채동일, 최월산, 정금오, 윤월하), 종헌의 제헌위원을 선출하는 전형위원 7인(윤월하, 소구산, 이순호, 대흥, 이대의, 김향곡, 최월산), 추진위원의 전형위원(채동일, 대흥, 문일조, 윤월하, 최월산, 박범룡, 이법웅), 대책위원의 선출위원(이순호, 이동현, 신소소, 이법웅, 최월산, 채동일, 이법흥)으로 활동하였다. 여기에서 월산이 대회의 실무진으로 활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회의 회의록에 월산의 소속이 영월 법흥사로 나오거니와 이는 그 무렵에는 법흥사에 머물면서 수행을 하였음을 추론케 한다. 불교정화운동은 1954년 9월 28~30일, 선학원에서 개최된 전국비구승니대회로 이어졌다. 이 대회에서는 비구측이 준비한 신종헌이 통과되었고, 종단 집행부가 새롭게 선출되었다. 금오와 월산은 종회의원으로 피선되었다.⁴³⁾ 이때, 금오와 월산의 소속은 팔달사(수원)로 나온다.

불교정화운동은 1955년 8월 12일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승려대회를 기점으로 일단락되었다. 이로써 비구측은 교단 재정립을 기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비구승이 종단을 주도하고, 대처승은 종단 외곽으로 구축되었는데 이런 변화를 당시 공권력 및 국민들이 동의하였다. 이때에도 금오와 월산은 종회의원으로 재추대 되었다.⁴⁴⁾ 금오는 종단 감찰원장과 봉은사 주지로 발령이 났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월산은 금오를 따라 봉은사에 머물렀다.

지금껏 살펴보았듯이 월산은 불교정화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운동 중심부에서 활동하였다. 이는 그의 은사인 금오가 정화운동을 추진한 연고에서 나온 것이었겠지만, 그 자신도 토굴 수행을 하면서 느꼈던 정화에 대한 소신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래서 그는 비구승대표자대회, 전국비구승니대회, 전국승려대회에 전부 참석하였다. 대회에서는 주어진 역할을 하고, 종단 비구승 대표로 참여하고, 종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대해 이두는 효봉, 동산, 금오, 청담을 정화운동의 원력보살이라고 부르면서 중년 세대의 보살로

42) 위의 책, p.446.

43) 민도광, 『한국불교 승단정화사』, 1996, p.72.

44) 위의 책, p.547.

월하, 경산, 지효, 구산, 월산을 거론하였다.⁴⁵⁾ 요컨대 월산은 1950년대 중반부터 종단을 대표하는 수좌이었다.

하여튼 월산은 조계종단의 역사에 중요한 불교정화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래서 그는 조계종단을 재정립케 한 주역으로서 정화운동이 일단락이 된 이후 여러 사찰에서 주지 소임을 보았다. 그가 맡았던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57년 : 법주사 주지

1958년 : 조계종단 재무부장⁴⁶⁾

충북 종무원장⁴⁷⁾

1959년 : 신흥사(설악산) 주지⁴⁸⁾

1961년 : 동화사 주지⁴⁹⁾

1962년 : 비상종회 의원

감찰원장⁵⁰⁾

1968년 : 법주사 주지⁵¹⁾

법주사 불교전문강원 원장⁵²⁾

45) 위의 「장이두 회고록 24, 봉은사 생활」

46) 정화기념관의 재정 모금으로 곤욕을 치루었다고 한다.

47) 설석우(동화사) 조계종 종정의 「葬儀彙報」에 충북종무원장으로 조사를 한 내용이 나온다.

48) 『대한불교』 1호(1960.1.1) p.2, 「광고」. 그런데 월산이 주지 취임을 한 일자는 알 수 없다. 월산에게 신흥사 주지를 인계한 인물은 동성(강원도 종무원 재무부장, 건봉사 주지, 내장사 조실 등 역임)이다. 安東星, 『普己出發錄』, 배달정사, 2000, p.208. 월정사 주지를 역임한 장희찬은 1959년 9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신흥사 주지로 근무하였다. 『오대산의 버팀목-만화 희찬선사의 수행과 가르침』, 오대산 월정사, p.801. 해인사에서 단식을 하던 고은(당시 법명, 일초)은 1959년 11월 20일의 일지에서 “설악산의 월산스님한테서 격려전보가 왔다. <축단식 최월산> 산중 소식 무상 신속도 하구나.”라 했다. 고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행복, 1994, p.90.

49)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8, pp.495-460. 월산이 동화사의 주지 시절 헌신적인 도량관리, 신도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었다는 회고가 당시 대중이었던 현욱의 증언이 있다.

50) 『대한불교』 1962.12.1, 「근하신년」.

51) 『대한불교』 1969.5.25, p.1, 「광고」. 성정스님(청도, 약사사)은 1968년 월산스님이 법주사 주지가 되어 법주사 강원을 개원시키면서 정호경 강백을 초청하였다고 회고하였다. 『황악일지록』, 관음문도회, 2018, p.306.

52) 『대한불교』 1968.5.12, p.2, 「광고 : 법주사 강원 개강 공고」. 『대한불교』 1978.3.19, p.2,

1969년 : 총무원장

법주사 선원 조실⁵³⁾

1970년 : 한국종교협의회 회장⁵⁴⁾

이처럼 그는 그가 정열을 다해 조계종단의 안정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의 행보, 의식, 지향 등을 다 거론할 수 없다.

이 기간에 주목할 내용은 그의 수행 및 전법이다. 월산스님은 1961년에 동화사 주지를 한 이후(1965~1967?) 말사인 남지장사의 토굴에서 정진하면서 깨달았다는 증언이 있다.⁵⁵⁾ 그러나 그 시점은⁵⁶⁾ 단정할 수 없지만, 이를 인정한다면 월산의 두 번째 오도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1968년 9월 말, 월산은 금오에게 법을 받았다. 그 당시 금오는 입적(1968.10.8)하기 10일 전이었는데 상좌들을 법주사로 불러 모았다. 그 자리에서 상좌 및 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월산은 당당하게 법을 받고, 금오로부터 전법을 부촉 받았다.⁵⁷⁾ 요컨대 깨달음을 거친 직후에 금오의 법을 전수받았던 것이다.

지금부터는 1969년 9월에 총무원장에 취임하여 1970년 7월에 총무원장 소임을 본 기간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불과 10개월에 불과한 시기이었지만, 그 기간에

「교육현장을 가다 : 법주사 강원」.

53) 『대한불교』 1969.12.7, p.2, 「선원과 강원 소개」.

54) 『대한불교』 1970.3.1, p.3, 「한국종교협의회 창립, 회장 월산스님」.

55) 2019년 9월 1일, 경주 불국사 불교문화회관에서 열린 세미나(대주제 : 월산대종사의 삶과 사상)에서 철산(대승사)은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즉, 월산은 월서가 남지장사 주지를 하던 시절에 남지장사의 산내 토굴에서 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을 겪었다는 것이다. 『月棲禪師 圓鏡錄』(2005)의 연보에 월서는 1962년 7월 15일에 남지장사 주지에 취임하였다가, 1968년 3월에는 법주사 재무국장을 맡았다고 나온다. 그렇다면 1964~1967년경에 월산은 남지장사에서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월산은 1963년 경 각화사 동암에서 월단, 월국과 함께 정진을 하였다. 김광식, 『오대산 버팀목-만화희찬선사의 수행과 가르침』, 월정사, 2011, p.281.

56) 월산은 1962년 무렵에는 소요산 자재암에서 수행을 하였다. 자재암의 토굴인 백운암에서 정진을 하였다고 한다. 당시 자재암 주지는 할복 6비구이었던 권진정 이었는데, 당시 자재암의 대중이었던 자월(이광준 박사, 동국대 65학번)이 필자에게 한 증언이다.

57) 박부영, 『금까마귀 계수나무 위를 날고』, 불교신문사, 2016, pp.181-83.; 『금오집』, 1974, pp.188-189.

월산은 어떤 판단과 현실인식으로 종단 운용을 하였는가에 주목한다. 그래서 이 기간의 월산의 고뇌, 지성, 대안을 들추고자 한다.

이런 전제에서 우선 월산이 총무원장에 취임하기 직전인 1969년 8월, 『대한불교』에 2회(1969.8.10 ; 1969.8.17)로 나누어 기고한 글 「比丘는 다시 再검토 할 때가 왔다 : 宗團은 四部大衆의 것」이 주목된다. 글의 내용은 당시 종단사의 내면을 보여준다. 또한 그 에 대한 월산의 인식을 이해할 수 있다. 월산은 이 글에서 조계종단 내부의 무질서, 반승가적 활동, 무이념 등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월산은 법주사 주지임을 분명히 밝히고, 종단의 좌표를 개진하였다. 조계종단 역사에 이렇듯이 공개적으로 종단을 비판한 고승은 거의 없다. 이는 월산이 금오의 정화정신을 계승하고, 정화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애종적인 차원의 결단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나온 월산의 인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단은 사부대중의 것임을 천명했다. 둘째, 승려는 권력과 명예에 매몰되고 종단의 고혈을 빨아먹는 신도의 사이비성을 강력 비판하였다. 셋째, 정치승의 행태와 사무승의 관료의식을 비판하였다. 넷째, 재산관리인으로 전락된 비구승의 현실을 비판하였다. 다섯째, 비구승들은 기본자세를 정비하고, 수행에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여섯째, 종도의 대의기구인 종회는 해산하고 이해 및 공리를 초월한 종단의 이념을 재정립해야 함을 강조했다.

월산은 이 주장을 공개적으로 기고한 직후에 1969년 9월 7일에 총무원장에 취임하였다.⁵⁸⁾ 월산이 이렇게 의도치 않게, 총무원장이 된 것은 청담의 종단 개혁주장 및 종단 탈퇴 선언을 하였던 종단 사정에서 기인한다.⁵⁹⁾ 당시 월산은 청담의 종단 탈퇴 선언(1969.8.12.) 직후, 교단 혁신(종회 해산, 사부대중 중심 종회 조직)을 주장하였다.⁶⁰⁾

그렇다면 총무원장에 취임한 월산은 어떤 정책을 구현하려고 하였는가? 그는 취임 직전에 종단의 모순, 정체성이 혼미한 승려들의 행태를 강력 비판한 당사자이었기에 그의 행보, 노선은 흥미롭다. 총무원장에 취임한 월산은 솔직하게 그의 포부를 개진하였다.⁶¹⁾

58) 『대한불교』 1969.9.28, 「총무원 신임간부 진산식」.

59) 김광식, 「이청담과 조계종 유신재건안 연구」, 『새불교운동의 전개』, 도피안사, 2002.

60) 『조선일보』 1969.8.24, 「재연된 불교 분규」.

그 포부는 첫째, 사부대중 중심의 화합승단을 만드는 것이었다.⁶²⁾ 이를 위해 승려와 신도가 합동으로 일을 추진하는 기구도 설립하겠다고 하였다. 둘째, 종단원력으로 불교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피력하였다. 셋째, 각 분야별의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것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포부이었다.

이런 전제하에서 1969년 9월 등장한 월산 집행부는 1970년대를 맞이하는 종단 행정을 수도하는 종단, 일하는 종단으로 표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승려자질 향상, 중앙교육원 설립, 사찰재산의 효율적 관리, 불교회관 건립 추진, 사회봉사 활동 강화, 정보 자체보존 관리 능력 강화 등을 설정하였다.⁶³⁾ 이런 지향은 그가 『대한불교』 1970년 1월 1일에 기고된 신년사에서 찾아 볼 수 있다.⁶⁴⁾ 즉 그 이전부터 추진된 종단 3대사업(도제양성, 포교, 역경)의 지속이었지만, 새로운 시대인 70년대 불교를 준비하려는 철저한 기획이었다.⁶⁵⁾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월산집행부는 이와 같은 기획을 거의 추진하지 못했다. 출범 10개월 만에 도중하차를 하였기 때문이다. 월산의 총무원장 재임 시절에는 곤혹스러운 종책, 사건 등이 연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는 봉은사 땅(10만평) 매각 사건,⁶⁶⁾ 해인사 수좌들의 구들장 사건,⁶⁷⁾ 청담의 탈종 및 정화정신을 종단에 직접 구현해보겠다는 의지 구현,⁶⁸⁾ 선암사(순천) 분쟁,⁶⁹⁾ 태고종과의 소송⁷⁰⁾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61) 『대한불교』 1969.9.21, 「총무원장 취임 시책」.

62) 『법륜』, 1970년 4월호, p.11, 「총무원장 치사-대중과 더불어 사는 불교」. 월산이 전국신도회 11차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행한 치사이다.

63) 『대한불교』 1970.1.11, p.1, 「1970년대 종단행정 계획-5일 총무원 시무식서 발표」.

64) 그 내용은 화합 강조, 불자의 자질 향상, 3대사업의 실천, 불교회관 건립 등이었다.

65) 월산, 『법륜』, 1970년 1월호, 「중흥위해 끊임없는 정진을」; 『법보신문』 2018.6.11, 「5대 총무원장 월산스님」.

66) 『대한불교』 1970.3.29, 「봉은사 문제,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 「광고 : 해명서」; 『대한불교』 1970.7.5, 「10만평 처분 허가 : 봉은사 문제 일단락」.

67) 『대한불교』 1970.1.11, 「해인사 소란사건 : 전말」; 보월, 「雜想 ; 海印波紋」, 『대한불교』 1970.2.22(상)·3.1(하).

68) 김광식, 「청담의 '나의 고백'과 불교근대화」, 『마음사상』 8, 2010.

69) 『대한불교』 1970.2.8, 「선암사 분쟁, 그 전말을 알아보면」.

70) 『법륜』 19호(1969.12), 「총무원장 최월산 담화문-종단 소송의 승소에 즈음하여」. 월산은 이

은 대형 사건이 터지자 월산은 고뇌하였다. 월산은 총무원장을 맡아서 그의 소신에 의거하여 종단을 이끌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그는 자리를 홀연히 떠나 방하착의 자세로⁷¹⁾ 종단 중심부에서 내려왔다.⁷²⁾ 월산은 1970년 7월, 총무원장에서 퇴임하였다. 그의 후임은 종정을 역임한 청담이었다. 청담이 정화운동을 직접 추진하려는 구도가 반영되었다. 그는 상원사 조실로 수행을⁷³⁾ 하다가, 그의 거처인 법주사로 돌아와 정진을 하는 수행자가 되었다.

3. 불국사의 寺格 고양기(1974~1986)

월산은 10여 년간의 다양한 종단 소임을 거친 이후인 1974년 6월에는 불국사 주지에 취임하였다. 그가 불국사 주지에 취임한 시점은 불국사(주지, 범행) 복원불사가 일단락된 직후이었다. 그런데 불국사는 경상도 지역 불교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사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하 불교에서는 본사로 지정되지 못하였다. 즉 기림사의 수말사의 위상이었다. 그러다가 불교정화운동 당시인 1959년에 首寺刹로 지정되었다가, 1962년 통합종단 출범을 계기로 교구 본사제가 부활하면서 불국사는 11교구 本寺로 자리 잡게 되었다.⁷⁴⁾ 그러다가 1969년, 정부의 도움을 받아 복원불사를 추진하여 마침내 1973년 7월 3일, 복원 준공식을 거행하였다.⁷⁵⁾

그런데 복원불사를 마친 직후, 불국사 내부에서 분규가 일어났다. 그는 복원불사 과정에 바르지 못한 집행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주지(범행)의 승용차 구입, 관람료로

담화문에서 불교정화운동과 통합종단의 정당성을 입증해 준 대법원 판결(1969.10.23)에 대한 소회를 피력하였다. 그래서 이를 기점으로 불법 본연의 질서, 청정화합의 강화(和同), 종단과 업의 완수로 나가자고 호소하였다.

71) 그는 “내 소임이 아닌 것 같다”고 발언을 했다.

72) 『대한불교』 1970.7.19, 「임시 중앙총회, 월산 총무원장 불참 사퇴의사 표시」.

73) 김광식, 『처처에 나뉜 보살행-석암스님의 수행과 가르침』, 석암문도회, 2011, p.407. 당시 성림스님(통도사)이 입승 소임을 보았다.

74) 한상길, 위의 고찰, pp.156-162.

75) 『대한불교』 1973.8.19, 「복원 불국사」; 『대한불교』 1973.9.23, 「불국사 복원 회향법회 成了」.

농장 구입, 주지직의 매관매직, 비로자나불 이운, 불전금(기도금) 이운 등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⁷⁶⁾ 그러자 종단에서는 기존 주지인 범행을 해촉하고, 신임 주지로 황진경을 발령하였다. 그러나 분규는 지속되었다. 범행은 1968년 11월, 이른바 불국사의 주도권 갈등에서 나온 ‘사리병 사건’을 해소하는 구도에서 주지에 부임하여,⁷⁷⁾ 불국사 복원이 라는 대작불사를 성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규에 휘말렸다. 마침내 종단은 이해 당사자(범행, 황진경)를 물리치고, 합의를 거쳐 월산을 주지로 임명하였다.

총무원은 지난 22일자로 월산(62, 법주사 총지선원 조실) 스님을 발령, 임명하였다. 이에 앞서 총무원은 종무회의를 열고 21일 종무행정지도위원회(회장 서운스님)의 불국사 분규 수습을 위한 제안에 따라 이 보다 앞서 발령됐던 진경스님의 사표를 수리하고 전 불국사 주지 범행스님과 합의로 월산스님을 발령한 것이다.⁷⁸⁾

이렇듯이 불국사 住持에 취임한 월산은 불국사 사격을 고양시키면서, 불국사 문화의 향상에 노력할 과제에 직면하였다. 그래서 불국사 두 번째의 복원불사를 진두지휘 한 주역이 되었다.⁷⁹⁾ 이는 불국사를 본사 사격에 걸맞는 寺格의 고양, 수행도량 지향 등을 위해 헌신하였음을 뜻한다. 그가 추진한 불국사 불사는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사상적인 불사이었다. 불국사의 복원이 완료되면서 불국사에 수도장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은 그때에 강력하게 지적되었다.⁸⁰⁾ 그래서 불국사의 정신적, 사상적인 불사는 마땅히 추진되어야 할 불사였다.

이런 역사적 과제를 월산은 자연스럽게 추진하였다. 그의 지성적인 결단, 역사적인 행

76) 『대한불교』 1974.6.23, 「광고 : 해명서」.

77) 김광식, 「이청담과 조계종 유신재건안 연구」, 『새불교운동의 전개』, 도피안사, 2002, pp.440-442.; 김광식, 『아! 청담』, 화남, 2004, pp.58-59.

78) 『대한불교』 1974.7.7, 「불국사 주지에 월산스님」. 정식 발령 이전에 수덕사 토굴(전월사)에서 정진을 하였던 월산은 주지 직무대행을 맡았다고 「연보」(『월산선사 법어집』)에 나온다. 그러나 이에 대한 1차 기록은 아직 찾지 못했다.

79) 『대한불교』 1976.12.26, 「불사의 현장을 찾아-토함산 불국사」.

80) 『대한불교』 1973.8.19, p.3, 「복원 불국사」 내용 참조.

보가 평가받는 대목이다. 월산이 추진한 첫 번째 불사는 불국사에 강원과 선원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월산은 우선 강원의 개설을 추진하였다. 그가 주지에 임명된 것이 1974년 6월 22일이었는데, 1년 2개월 후인 1975년 8월 31일에 강원 개원식을 거행하였다. 그 보도기사를 제시한다.

제11교구 본사 불국사는 지난달 31일 주지스님을 비롯 대중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국사 승가학원 개원식을 가졌다. 강사는 法空스님. 이날 식은 총무국장 月性스님의 개식사와 교무국장 性陀스님의 강사 약력 소개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사 법공스님은 인사에서 “항시 도제양성에 염원이 되어오던 바 본사 주지스님의 원력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으나 중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주지스님은 격려사에서 “종단 백년대계를 위해 도제양성이 시급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원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금년에는 선원을 신축하고 내년에는 강원을 증축하여 명실공히 모범적인 선·강원을 이룩하여 도제양성과 수도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한 “말사에 1인 이상 학인을 의무적으로 강원예 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국사는 그간 강원이 신설되어 있었으나 실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다. 불국사 말사는 50여 개로 알려지고 있어 강원생을 적어도 60~70명 이상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⁸¹⁾

이렇게 월산 그는 강원 개원을 위한 불사를 조속히 추진하였다. 이는 종단 백년대계를 위해 도제양성의 차원이었는데, 불국사를 관광사찰에서 수도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전환하려는 월산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월산은 불국강원을 개원시키면서 곧 바로 불국강원의 건물을 새롭게 하는 불사에 착수 1978년 9월 10일에 준공시켰다.⁸²⁾ 불국강원의 강주는 박한영 강맥을 이은 운기 강백이었다.⁸³⁾ 운기는 취임 직후 바로 楞嚴班을 개설하여 강의에 나섰다.⁸⁴⁾ 이와 같은 행적에서 월산의 인재양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81) 『대한불교』 1975.9.7, 「불국사 승가학원 개원」. 불국강원의 첫 수료식은 1976년 4월에 있었다. 『대한불교』 1976.4.25, 「불국사, 승가학원 첫 수료식」.

82) 『대한불교』 1978.9.24, 「불국강원 준공식-10일 개강식도 함께... 강주에 雲起스님」.

83) 운기문도회, 『독보건곤 : 운기강백 행장기』 선운사, 2015 참고.

84) 『대한불교』 1978.11.12, 「불국강원 능엄반 모집」.

그 후 월산은 강원 개원 및 준공을 일단락을 한 직후, 사상적인 불사 차원에서 선원 개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이 무렵 그는 자신도 철저히 수행을 하였다. 그 단적인 예증이 통도사 선승인 경봉을 자주 찾아가 문답을 한 것이다.⁸⁵⁾ 월산의 경봉에게 배움 및 존경은 참회상좌의 인연으로 진전되었다.⁸⁶⁾

마침내 불국사 선원의 개원은 1976년 5월에 성사되었다. 강원 개설 후, 불과 1년 만에 개원을 하였으니 월산 그가 선원 개원에 쏟은 정열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선원 개원을 보도한 기사를 살펴보자.

제11교구 본사 불국사(주지 월산스님)는 지난 73년 복원불사에 이어 또 하나의 장엄한 佛國禪院을 완공, 지난달 29일 그 개원식을 성대히 봉행했다. 이날 개원식은 전 종정 고암스님, 통도사 극락암 조실 경봉스님, 수덕사 조실 벽초스님, 장로 대의스님, 전 종회의장 벽안스님, 규정원장 자운스님, 종회 부의장 혜정스님, 총무부장 월주스님 등 종단 대덕 스님을 비롯 3백여명의 스님들과 경주시장, 월성군수, 경주 경찰서 등 이 지방 내외 귀빈 1천여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불국사 총무 서인 스님의 사회로 성대히 거행됐다.

불국사 주지이며 불국선원 원장인 月山스님은 인사 및 경과보고에서 “禪이 왕성하면 불교가 왕성하고, 불교가 왕성하면 나라가 왕성한다는 취지 아래 불국사가 복원되었으나 禪·강원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 선원 건립에 뜻을 두어 직접 지휘·감독, 오늘의 선원이 건립되었다.”고 말했다. … (중략) … 토함산 상봉줄기, 불국사에서 정남쪽 5백m 지점 1천 3백여 평 대지에 건립된 건평 1백 56평의 불국선원은 지난75년 12월 착공, 1억여 원의 공비를 투여, 공기 5개월에 걸쳐 완공되었으며, 재래식 선방 구조와 중국 선방 양식을 절충한 새로운 구조의 특수한 선원으로 30명이 수행 정진할 수 있다. 현재 동 선원에서 28명이 정진중이며 선방 수용에 대한 일체 유지비는 석굴암(주지 월남스님)에서 부담한다고 한다.⁸⁷⁾

85) 경봉문도회, 『삼소굴 법향』, 통도사 극락암, 2020, p.453. 당시 경봉을 시봉한 강명철은 월산 스님이 경봉에게 ‘법건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경봉이 불국사에 가서 법문도 하고, 현판 글씨도 썼다고 본다.

86) 성타, 「대기대용에 능하셨던 큰스님」, 『삼소굴 법향』, pp.86-87. 경봉은 1892년생이고 월산은 1913년생으로 21년 차이가 난다. 이는 은사뻘 이었고, 배움에는 나이와 지위 고하를 묻지 않는 것이 구도의 세계에서는 보편적인 이해이다.

87) 『대한불교』 1976.6.6, 「佛國禪院 역사적 開院」.

월산이 선원 개원을 서두른 것은 선의 왕성은 불교와 국가의 왕성으로 직결된다는 소신이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禪을 현대화 하고 대중화 하여 재가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참선을 통해 국민성을 개선하고 계발해야 한다는 것이 月山 스님의 평소 신념. 스님은 불국사 복원이라는 대역사가 마무리 지어지자 큰절에서 정남쪽 5백m 지점의 1천3백여 평의 佛國禪院을 당시 1억여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창건함으로써 한국불교사에 또 하나의 歷史를 이룩하게 된 것이다.⁸⁸⁾

불국선원의 선원장(조실)인 월산의 의도는 승려들의 참선뿐만 아니라 신도, 일반인까지 의도한 정신적 불사이였다.⁸⁹⁾ 즉 선의 현대화 대중화를 통한 국민성 개조 프로그램이었다.

위와 같이 월산이 불국사 사격을 사상적으로 고양시킨 행보는 그를 더욱 더 종단의 큰 스님으로 위상이 격상시킨 요인이 되었다. 그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1978년 5월 6일 종단 원로위원으로 추대,⁹⁰⁾ 1978년 9월 9일 종단 비상총회 의장으로 추대,⁹¹⁾ 그리고 1978년 10월 18일 총무원장으로 취임이었다.⁹²⁾ 월산이 총무원장을 다시 맡은 시기는 종단이 이른바 조계사파와 개운사파로 대립을 하였던 무렵이었다. 종단의 분열, 후퇴가 설왕설래 하던 때이었다. 그러나 월산은 종단 차원에서 소임을 보았다. 그래서 월산은 종단이 분열로 인한 불교계의 이미지 하락을 걱정하여 1979년 2월 14일 전격 사퇴하였다. 이는 종단 화합을 위한 결단이었다.

총무원장 월산스님은 지난 14일 총무원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월산스님은 법주사에서 의 「금오문중」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는데 이 회의에 참석했던 혜정 이두 스님 등도 중앙총회 및 총무원의 공직에서 사직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무원장 월산스님

88) 『대한불교』 1975.9.7, 「禪院 순례 : 불국사 佛國禪院-月山祖室 새 家風 진작」.

89) 『대한불교』 1976.12.26, 「불사의 현장을 찾아서 : 토함산 불국사」.

90) 『4·5·6대 중앙총회 회의록』, 조계종, 2001, p.921, p.937.

91) 『대한불교』 1978.9.24, 「비상총회 의장, 월산스님 선출」.

92) 『대한불교』 1978.10.29, 「제6대 종정에 윤고암대종사 추대」.

은 사퇴 의사를 밝히는 자리에서 “오늘날 장기적인 종단 불화가 하루 속히 수습되지 않고 있어 불자된 도리로 그 책임의 일단을 통감한다”고 말하고 “종단 분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사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미 “4부대중은 오늘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 佛教百年大計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월산스님의 주선으로 모인 금오대종사문도들은 현 금오문중이 이른바 조계사측, 개운사측으로 나뉘어 종단 불화를 주도하고 있는 듯이 보이고 있는데 대해 이를 불식하고 아울러 종단불화의 수습을 위해서는 금오문중이 양측에서 물러남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사퇴기로 결의한 것이다. 그러나 월주 설조 두 스님만이 이에 이의를 제기, ‘사퇴’치 않겠다고 밝혔다.⁹³⁾

즉 월산은 종단화합을 위해 금오문중의 승려들이 이해 당사자 측인 조계사파와 개운사파에서 모두 퇴진하는 결의도 주도했다. 그런 차원에서 그는 총무원장 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이처럼 그는 先公後私를 실행하였다. 그 이후인 1979년 11월 30일, 월산은 종회의장에 취임하였다.⁹⁴⁾ 마침내 종단은 1980년 4월 중순, 대타협을 고쳐 새롭게 종단 집행부를 출범하였다.⁹⁵⁾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종단화합에 헌신한 월산의 그런 행보는 종정 추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망에 오르고, 제일 많은 지지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정 당선, 확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당시 보도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종회는 이어 각 분과위원장을 뽑고 종정 추대 조례를 고쳐 중앙종회 의원과 원로의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추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종정 추대에 들어가 투표를 했으나 최월산 스님(불국사 조실)이 이성철 스님(해인사 방장)을 2차에 걸쳐 27:28 29:31로 앞섰으나 종정 추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5월 7, 8일 속개된 회의에서도 막후 절충을 통해 종정 추대를 시도했으나 8일 종회가 유회돼 종정 추대는 무산됐다.⁹⁶⁾

93) 『대한불교』 1979.2.25, 「月山스님 總務院長職 사퇴-門中회의 宗團분규 수습위해」.

94) 『대한불교』 1979.12.9, 「종회의장 최월산 스님」.

95) 『대한불교』 1980.4.27, 「종회의원 69명 당선 확정」; 『대한불교』 1980.5.11, 「총무원장에 송월주스님 당선, 새집행부 구성」.

96) 『대한불교』 1980.5.11, 「총무원장에 송월주스님 당선, 새집행부 구성」.

위의 내용에 나오듯이 월산과 성철의 투표수는 28:27, 31:28 이었으나 여타 지지표(2차 투표 : 석주 2표, 월하 2표)가 있어, 즉 과반수를 넘지 못해 종정에 당선되지는 못하였다. 당시 종회 회의록을 보면⁹⁷⁾ 월주가 총무원장에 당선되어서 같은 문중인 월산을 제외하자는 여론도 있었다. 즉 금오문중의 대립적 구도를 보인 용성문중의 성철을 종정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조계사파와 개운사파라는 이전 갈등의 앙금이 남아 있었다는 흐름이 보인다. 하여간에 종회에는 종정은 투표치 말고, 만장일치로 모시자는 여론도 있었다. 그리고 양측(조계사파와 개운사, 각 5명)의 막후절충까지 시도하였으나 끝내 종정 결정은 확정하지 못하였다.⁹⁸⁾

그러나 월산은 당신의 뜻과 무관한 종정 추대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종단 어른으로 굳건하게 불국사를 지켰다. 1980년 7월, 정휴는 월산을 “한국불교의 정신적 정상에 있다”는 평가를⁹⁹⁾ 하였던 바, 이 평가가 당시 월산을 대변하였다.

4. 불교사상(중도) 회향기(1986~1997)

월산은 1980년대 중반에도 종단 원로의원,¹⁰⁰⁾ 불국사 주지, 불국사 강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면서 불국선원 조실,¹⁰¹⁾ 대승사 선원 조실,¹⁰²⁾ 법주사 총지선원, 공림사 감인선원, 복천암 선원 등 여러 선원에서 조실 소임을 보았다.¹⁰³⁾ 월산은 이런 소임을 보

97) 『제4·5·6대 중앙종회회의록』, 중앙종회, 2001, pp.1295-1315.

98) 종회에서는 종정을 7명(암도), 6명(월주)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일부 원로와 종회 의원들은 월산을 종정으로 추대하자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그런 결정을 한 스님이 누구인지 전하지 않는다.

99) 『대한불교』 1980.7.13, 「해탈과 열반 사이 : 月山大禪師」.

100) 『제7대 중앙종회 회의록』, 조계종 중앙종회, 2002, p.579. 1982년 6월 2일, 중앙종회에서 추대되었다. 함께 추대된 고승은 지효, 관응, 서운, 동현, 종수, 경월 등이었다.

101) 『대한불교』 1980.7.20, 「선원순례 ⑦ : 불국사 불국선원」.

102) 『선원총람』, 조계종 교육원, 2000, pp.345-346. 불기 2530~41년까지 대승사 대승선원의 조실이었다고 방함록에 나온다.

103) 그는 문제선원(영일, 자장암), 죽림선원(산청, 정각사), 수정암(법주사) 선원, 사불선원(문경, 윤필암), 서래선원(금산사) 등이다. 『법보신문』 1997.9.17, 「특집 : 월산큰스님 원적, 연보」.

면서 그의 불교사상은 중도사상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월산의 소신을 들어보자.

큰스님은 말한다. 『중도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도이지. 나의 중도관은 일체것을 초월해서 일체 것을 여의지 않는 것이 나의 중도관이지』¹⁰⁴⁾

- 한국의 여러 큰스님이 중도사상을 주장하시는 분이 드물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나는 중도를 주장해요』

- 큰스님의 중도사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는 중도사상을 늘 강조해, 대개가 좋은 것은 받아 들이고 나쁜 것은 버리라고 하는 것이 중도인데, 나의 중도관은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 나의 중도관이지. 나쁜 것 버릴 것이 있어. 나쁜 것 고쳐서 써야지. 악이라고 버리면 돼 고쳐야지. 더군다나 언론기관에서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릴려고 하지 말고 나쁜 것도 고쳐서 요새 정부가 나쁜 일을 많이 하대.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백성들이 조그만 법을 어긴 것을 들쳐내고, 대가리 큰 놈은 큰 법을 어기로 나쁜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법을 엄하게 다뤄야 해』¹⁰⁵⁾

내 가풍은 한마디로 安貧樂道야, 글썄 누구에게 전한단 말인가? 法을 아는 사람이 전해 받았지.¹⁰⁶⁾

위와 같이 그는 자신의 불교사상은 중도사상임을 강조하였다. 이런 입론에서 그는 불교공부의 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불교공부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나니 하나는 향상일로(向上一路)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향하일로(向下一路) 하는 것이다. 향상일로는 참선정진을 말하고 향하일로는 중생교화를 말한다. 향상일로는 결국 향하일로로 나아가기 위함이요. 향하일로는 향상일로로 나아가기 위함이니 이는 손등과 바닥과 같으니라.¹⁰⁷⁾

104) 최석환, 「인물연구 : 불국선원 조실 월산선사」, 『불교춘추』 3호(1996.5), p.16.

105) 의림, 「인터뷰 : 불국선원 조실 월산큰스님」, 『불교춘추』 3호, 1996, p.29.

106) 『법보신문』 1988.8.30, 「解制 특별인터뷰 : 불국선원 조실 최월산 대종사」.

107) 『월산선사 법어집』, p.221.

즉 월산은 참선정진과 중생교화를 불이의 관점에서 인식하였다. 이렇듯이 그는 중도적, 온건적인 수행을 강조하였다.

모름지기 대중은 부처님 도량을 찾고 마음에 염할 것이며 간경과 염불을 게을리 하지 말고 선지식(善知識)을 찾아 바르게 사는 길을 물을 것이다.¹⁰⁸⁾

이와 같은 균형적인 수행(간경, 염불 등)을 강조한 그는 이런 인식과 행보를 대중에게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그가 1980년 6월¹⁰⁹⁾ 경주에 세운 부인선원을 1992년에는 지원을 강화하면서,¹¹⁰⁾ 더욱 더 대중교화에 나섰다. 그가 이처럼 대중교화에 나선 연유를 살펴 보겠다.

내가 경주에 왔을 때 사람들은 선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74년에 토함산 기슭에 불국선원을 개원하고 눈 푸른 수행 납자들을 지도해 오면서 몇 년 전에는 경주시내에 부인선원을 개원하여 선을 대중 속으로 전파했지.¹¹¹⁾

위의 어록에 보이듯, 그의 선을 통한 대중교화의 소신은 향상일로와 향하일로를 동일하게 인식한 관점 및 실천적 행보에서 구현된 것이다. 그의 대중에 대한 애정은 1991년 9월 개원한 경주 불교교육원의 개원에서도 찾을 수 있다.¹¹²⁾ 이런 그의 대중교화에는 중도사상이 깔려 있었다. 물론 그 자신도 중도사상에 입각에서 종단의 소임을 보고, 대중

108) 월산, 「생각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 『불교사상』 8호(1984.7), p.31.

109) 『월산선사』 연보에는 1988년 3월에 건립되었다고 나온다. 그러나 필자가 『법보신문』 보도기사에서 찾은 기록에는 1980년 6월이라고 나온다. 건립시점, 변화 등에 대한 후속 확인이 요청된다. 부인선원의 작명을 월산스님이 했고, 1975년에 시작된 불국사 선행회가 연원이라고 한다. 2021년 4월 26일, 경주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경주 시민이 참선을 하는 선원이다.

110) 부인선원은 1992년 5월 무렵 경주시 중앙로 16번길 11(노동동 49-2번지)로 이전했다. 『법보신문』 1992.5.11, p.14, 「광고」 참고. 대표는 이보명행이었다.

111) 최석환, 「인물연구 : 불국선원 조실 월산선사」, 『불교춘추』 3호, 1996. p.19.

112) 『법보신문』 1996.12.11, p.15, 「불국사 부설 불교교육원 새 보금자리 마련」.

교화를 하였다.

종단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대중처소에서 심부름 하는 사람들이 매양 다투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닦으려 하지 않고 존경받고 공양받는 형상만 닦으려 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찌 부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¹¹³⁾

그래서 월산은 종단 소임을 부처의 마음에서 행하려고 하였다. 나아가서 월산은 종단에서의 소임 보는 기준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였다.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지방 자치시대를 맞아 본사 중심제가 부활되어야 해요. 그리고 종정은 전 승려가 모여서 직접 선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임명이라는 없거든. 모든 문제가 누구를 임명하는데서 문제가 생기고 금전이 오가고 비리가 생기는 게야.¹¹⁴⁾

이렇게 월산은 부처의 마음에서 종단 소임을 보았기에 그가 총무원장, 원로회의 의장 등을 맡았을 때에 거의 잡음이 없었다고 이해된다. 위에서 나온 본사 중심제, 금권선거 배척은 지금에서도 탁월한 정책 이라고 하겠다.

한편 그는 1986년 6월부터 원로회의 의장 소임을 담당하였다.¹¹⁵⁾ 그 당시 원로회의 의장은 상당한 권한이 많았다. 1970년대에는 종정의 권한을 둘러싸고 수많은 분규가 노정되었다. 그래서 1981년 1월, 불교정화총흥회의에서 종정은 종단의 神聖을 상징하는 권위를 부여하고 원로회의에 종단의 중요한 권한을 부여하였다.¹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산은 원로회의 의장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비교적 온건하게 수행하였다.¹¹⁷⁾ 1991년과 1993년의 종정 선출 즈음에도 자신의 이름을 거론치 말아 달라고 당부하였다.¹¹⁸⁾ 이런

113) 『월산선사 법어집』, p.349.

114) 의림, 「인터뷰 : 불국선원 조실 월산큰스님」, 『불교춘추』 3호, 1996, p.29.

115) 『경향신문』 1986.5.21, 「최월산, 불국사주지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에」.

116) 김광식, 「조계종단 종정의 역사상」, 『대각사상』 19, 2013, pp.158-160.

117) 선원빈, 「본분을 망각했을 때는 누구보다 엄한 질책을」, 『대중불교』 1990년 12월호, p.27.

118) 『동아일보』 1991.2.4, 「성철, 월산 두 스님, “더 이상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종정추대 고

귀결은 그의 중도사상, 향상일로와 향하일로의 동일성, 부처의 마음을 실천하는 종단관, 종단통합 우선적인 행보 등이 어우러진 것에서 나온 것이다.

월산의 행보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1988년 5월, 『법보신문』의 창간이었다. 『불교신문』밖에 없었던 황무지와 같은 불교언론의 정황에서 “불교계에도 바르고 깨끗한 언론, 포교 활성화를 위해 참신하고 기획력이 빼어난 언론이 절실하다”는 원력으로 창간을 주도하였다. 1988년 5월 16일 ‘大慈大悲의 등불을 밝히겠다’를 모토로 내세우고 『법보신문』을 창간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월산의 창간사를 제시한다.

「법보신문」은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三千大千世界の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고자 태어났다. 저 해와 같은 광명을 빌어 무량의 소리를 담은 목탁을 깎았다. … (중략) … 「법보신문」은 다만 佛家の 通信일 수만은 없다. 佛者の 讀本일 수만은 없다. 나라의 구별이 없고 人種을 넘어서는 위에 宗教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大乘, 아니 大大乘의 초월을 실천하고자 한다.

첫째, 나를 淸淨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나라가 바르게 서야 한다.

셋째, 統畝를 이뤄야 한다.

넷째, 大慈大悲의 불을 밝혀야 한다.

… (중략) …

「법보신문」은 木鐸이 되어 영원할 것이다. 하늘의 새처럼 바다의 물고기처럼 自由로울 것이다. 부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公論을 이끌어 平和, 인류의 행복을 이룩하는데 거리낌 없이 나아갈 것이다.¹¹⁹⁾

월산은 초대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취임하면서 “오직 진리만을 받들고 공경하며, 업신 여기는 我慢을 굴복시켜 公明正大가 항상 하는 불국토를 구현하라”는 사훈을 제시하였다. 이는 중도사상을 불교 언론을 통해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의지가 아닐 수 없다.

사-새 변수로」. 이때, 월산은 원로의원 사퇴서까지 제출하였다. 『동아일보』 1993.11.16, 「원로의원 9명 참석」. 서암을 종정으로 선출한 이 회의에 월산은 참석하지 않았다.

119) 『법보신문』 1988.5.16, 「최월산 : 創刊辭」.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종단 및 대중에 대한 헌신, 불교문화 창달을 하던 월산스님은 1997년 9월 6일 입적하였다. 그의 영결식은 9월 10일 불국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거행되었다. 영결식에서 법어는¹²⁰⁾ 종정인 월하대종사, 영결사는 원로의장(혜암), 조사는 총무원장(월주), 조시는¹²¹⁾ 고은이 하였다. 그리고 49재는 불국사 무설전에서 거행되었다.

120) 盛林堂 月山大宗師 靈前.

嗚呼라!
月山大宗師시여!
山위에 달이신가
달말에 산이신가
本來 산과 달이 둘이 아니니
어찌 分別이 있으시겠습니까.
去來가 없고 生滅이 끊어진
자리로 돌아가시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日月도 曲穴에 不始光하고
淸風도 海底에 不損波라.
生도 이러하고 死도 이러하니
聾人也唱胡家曲하니
好惡高低를 總不聞이라.
吐舍山頂에 孤月明하고
佛國淨土에 萬人舞라,
토함산 위에 달이 밝으니
불국정토에 만인이 춤을 춥니다.

불기 2541년 9월 10일

曹溪宗 宗正 月下哭拜

121) 回向 月山大宗師.

앉으면 최고의 梵鐘이요,
일어서면 九層塔이셨습니다.
月山大宗師

젊은 날 북만주 별판 떠돌며
그 눈보라 속
가슴 복찬 사라
大地의 사람이셨습니다.

해방 직전 돌아와
한 나그네의 金剛經 독송에 눈 떠
옳거니

그는 치열한 삶을 마치고 적멸의 세계로 갔다. 그의 역사속에서의 자리매김, 평가는 후학에게 맡겨졌다.

生死를 뛰어넘자고
山中에 몸을 던지셨습니다.

경허
만공
金鳥의 법맥으로 하여금
버린 것은 망상이요,
가진 것은 이 뉘고 하나.

보름달 흰히 두둥실 떠올랐으니
만상이 괴괴함이어!

동방의 禪風 새로 짓기 위하여
그 결사로
청담 성철 향곡 등과 한 뜻이었고
동방의 법 떨치기 위하여
그 정화로
탄허 구산 관응 월하 경산 등과
애오라지 한 몸이셨습니다.

그 많은 진수성찬의 말씀 삼가셨습니다.
그 많은 청천벽력 할과 방
그대로 들어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토록 月山스님
새 떼 돌아간 적막일 줄이야.

거기 당신의 中道 가운데
닿고 닿은 신발 한 짝이셨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촉령 쪽입니까
덕숭 쪽입니까
개마공원 쪽
홍안령 쪽입니까
오늘 일은 댜숯 회상입니다.

Ⅲ. 결어

맺는말에서는 월산의 생애사를 본고에서 다룬 각 시기별의 내용 및 특성을 요약하겠다. 그리고 그 시기별 추후 연구할 내용을 거론하고자 한다.

첫째, 월산의 생애 1943~1954년을 수행기로 보았다. 이 시기에 월산은 선원, 토굴, 봉암사, 등지에서 간화선 수행을 하였다. 그는 금오, 만공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다. 월산은 종단의 외곽, 변두리, 오지에서 치열한 수행을 하였다.

둘째, 월산의 생애, 1954~1974년까지는 종단 활동기로 보았다. 이 시기 전반부는 불교정화운동에 참여하였고, 후반부는 정화운동의 성사로 인해 월산은 본사(법주사, 신흥사, 동화사) 주지, 종단 간부 등을 역임하면서 종단에 헌신하였다. 종단 간부는 감찰원장, 총무원장을 지칭한다. 총무원장 시절에는 종단 개신을 시도하였지만 너무 짧은 기간이어서 아쉬운 시도에 그쳤다.

셋째, 1974~1986년의 월산은 불국사에 주석하면서, 불국사 사격 고양에 주력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분규 및 갈등의 논란에 있었던 불국사를 수행 도량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노력하였다. 선원과¹²²⁾ 강원(승가대)의 개설은 그를 예증한다. 이로 인해 불국사의 명성은 회복되었고, 사격은 증진되었다. 경북의 명찰, 역사적인 사격이 유명한 불국사의 명예회복을 단행하였다. 이 구도에서 불국사에 강원, 선원을 개설하였다.

넷째, 1986~1997년의 월산은 그의 불교사상을 승가 및 사회에 회향시켰다. 그래서 회향기라 명명하였다. 그는 중도사상으로 후학(상좌, 수좌, 불자 등)을 가르치고, 지역 신도들을 수행(부인선원, 불교교육원)케 하였다. 이런 구도에서 『법보신문』의 언론창달을 통한 불교문화 진흥 활동을 하였다.

지금껏 본고에서 필자가 다루었던 시기별 월산의 생애를 정리하고, 그 핵심을 피력하였다. 추후에는 다양한 자료(이력서, 회고록, 증언 등)에 의거하여 월산의 생애, 사상, 문화,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122) 그는 중국총림의 재현을 염두에 두었는데,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무비, 「청규 편찬의 의의와 방향」, 『승가교육』 7집, 2008, p.130.

「월산큰스님의 생애사」에 대한 토론문

정수 - 불국사 승가대학 학장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큰 업적과 자취를 남기신 월산대선사께서 열반하신지 24주기를 맞이하여 개최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대선사의 생애사가 정립되고 현양되어 현대 우리들의 삶에 지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선사의 자취를 되돌아보면 수행, 정화, 종단소임, 신문창간, 포교, 도제양성, 불사 등 삶에 있어서 어느 하나 놓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방면에 혁혁한 성과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월산대선사께서는 다방면에 참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원효성사의 무애행처럼 이사 양변에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중도화합의 정신과 원융무애한 실천에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김교수님의 본 논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서술되어 있으며, 또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취합하여 대선사의 생애사를 정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되어 먼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토론자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대선사의 출생년도는 『월산선사법어집』에 행장과 연보 부분에 출생년도가 각기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월산선사법어집』 행장의 출생년도는 ‘1913년(계축)’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연보에는 ‘1912년(임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자인 김교수님은 지난 2019년 1차 세미나 발제문에서 월산대선사의 출생년도는 '1912년'이라고 하였는데 오늘 발제문에는 '1913년'으로 바뀌게 된 근거와 견해를 듣고 싶으며, 토론자인 저의 생각으로는 현재 문도 스님들께서는 대선사의 출생한 해의 십이지지가 축년인 소띠로 알고 있으며, 그래서 출생년도는 계축년인 1913년이라고 생각합니다.

2. 월산대선사께서는 평생토록 시종일관되게 만공대선사께 받은 '시심마' 화두만을 참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자의 발제문 p.21 하단에 '그 무렵 목포의 정혜원에서 은사인 금오를 만났고, 완도에서 다시 금오를 만나 금오에게 받은 '돌멩이' 화두를 들고 정진하였다.'고 주장한다면 대선사께서 재차 화두를 받고 수행하였다고 봐야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임제가풍에는 맞지 않으며, 또한 1700 공안가운데에 '돌멩이' 공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1952년경에 금오대선사께서 '돌멩이를 들고 제자에게 보이시면서 묻고는 바닷물에 던졌다.'라고 한 일화는 제자인 월산대선사께서 '시심마' 화두를 참구하는데 의정을 격발시키려는 기연으로서 직지인심의 방편적 비유라고 보며, 결코 금오대선사께서 월산대선사에게 화두를 새롭게 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3. 월산대선사께서 발심수행 할 때에 정처 없이 운수행각과 두타정진을 하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수행처에 계신 시기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도 적천사는 대선사께서 불법대의를 처음으로 깨달으신 매우 중요한 도량입니다. 『월산선사법어집』 연보에도 적천사에서 '구도자로서 방향을 정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고, 월산대선사의 부도 『성림당월산대종사지비』에는 대선사께서 봉암사 결사 직전에 적천사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아마도 1946년에서 1947년 사이라고 추정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산대선사의 부도와 비를 세울 때 당시 문도스님들은 비문은 만대의 역사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자의 발제문 p.21 하단에 대선사께서 청도 적천사에서 깨달은 시기를 전쟁이 끝난 무렵인 1953년으로 보게 되면 현재 비문기록과 상이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가능한 월산대선사의 생애의 큰 맥락은 비문을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 문도 스님들의 견해와 입장입니다.

또한 문도 스님 중에 증언하기를 월산대선사께서 1971년에도 적천사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천사는 대선사와 매우 인연이 깊은 곳이며, 여러 시기에 걸쳐서 수행한 도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남지장사에서도 대선사께서 1960년대에 월서스님께서 주지로 있을 때 산내암자인 청련암에서 매우 투철하게 용맹정진을 하였다는 여러 문도스님들의 증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남지장사 청련암에서 투철한 수행과 깨달음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4. 월산대선사께서는 당대에 큰스님들과 많은 교류를 하였으며, 특히 경봉큰스님, 전강큰스님과 교류가 많았습니다. 경봉큰스님을 평소에 고참 선배스님으로서 존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논자의 발제문 p.34 상단에 ‘월산의 경봉에게 배움 및 존경은 참회상좌의 인연으로 진전되었다.’고 한 ‘참회상좌’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경봉대종사탑비명』과 『삼소굴』 등에서도 ‘참회상좌’라고 언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수정을 요청합니다.

5. 1974년에 대선사께서 불국사에 오시면서 수행 및 포교 도량으로 일신하고자 선원과 강원을 개원한 이외에도 여러 업적이 있는데 발제문에는 빠져있어서 몇 가지 사실을 더 붙이고자 합니다. 논자는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대선사께서 불국사 주지로 부임하실 때에는 불국사 출입 정문이 현재 불이문을 통해서 경내로 진입하는데 사선의 비탈길이었습니다. 대선사께서는 불이문이 대가람으로서 정문에 맞지 않다고 간파하시고 경내지에 위치한 관광호텔과 우체국 등 민가를 철거·이전 하

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정문인 일주문과 사천왕문을 건립하고 사천왕상을 새로이 조성하여 봉안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문인 일주문으로 불국사에 들어오게 되면 일직선의 평행적 구도로 대웅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즉 일주문, 반야교, 사천왕문, 해탈교, 백운교, 청운교,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일직선의 가람배치의 구도가 이루어지게 되어 여법한 신라대가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내지 3만평을 5만평으로 확장하여 전체를 담장으로 도량을 정비하였으며, 토함산 정상부분에 육천관의 통일대종과 대종각을 세워 한반도에 통일을 염원하는 큰 서원의 불사도 이루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생각을 개진하였으며, 차후 연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교수님과 대중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논평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월산 큰스님의 중도선사상 (2)

한태식(보광) _ 대각사상연구원장, 동국대 명예교수

• 목 차 •

I. 머리말

II. 선수행지도 방법

1. 실참 지도법
2. 재가자 지도법

III. 월산스님의 중도선사상

1. 월산스님의 중도관
2. 월산스님의 중도선

IV. 바다의 실크로드 결실-토굴, 석굴수행, 청도 적천사 토굴

V. 맺음말

I. 머리말

월산큰스님(1913~1997, 이하 월산스님으로 약칭 함)의 선사상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바가 있다. 1차 발표에서는 주로 월산스님의 수행과정과 참구확두가 중심이었다.¹⁾ 그러나 2차로는 월산스님의 선사상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불국선원에서 결제, 해제의 선원법문과 기타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월산스님이 강조하였던 중도에 대한 개념과 이를 선수행에 어떻게 활용하여 수행자를 지도하였는지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스님은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중도를 주창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나 신도들에게도 많은 서묵 작품을 써주면서 이를 생활의 지표로 삼게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월산 큰스님의 중도선사상」을 구명하고자 한다.

먼저 이를 실천하는 선수행지도 방법으로 출가수행자를 위한 실참지도법과 재가자들을 위한 지도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월산스님은 재가자의 선수행을 위해 부인선원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월산스님의 중도선사상에 대해서 중도관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근세 우리나라 선사들 중에는 중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월산스님의 중도관의 특색은 무엇인지 구명하고, 이를 선수행과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월산스님의 선사상이 중국의 달마선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구명하고자 한다. 선의 전래는 바다의 실크로드로 전해졌고, 그 종착점이 바로 석굴암이며, 여기에서 수행한 월산스님이 결실을 맺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II. 선수행지도 방법

1) 한태식(보광), 「월산 큰스님의 선사상(1)」, 『大覺思想』 32집, 대각사상연구원, 2019, 12, pp.87-136.

1. 실참지도법

월산스님은 선원수좌들에게 오도송 작법을 가르치고 있다. 선원에서 수행했으나 자신의 見處를 밝힐 오도송을 짓지 못하는 납자들을 위함이다.

우리 선가에서 사구(四句)라 함은 단단구비(單單俱非)를 말한다. 예를 들면 제1구가 ‘모든 것은 하나다’라고 하면, 제2구는 ‘모든 것은 하나가 아니다’이고, 제3구는 ‘하나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제4구는 ‘하나가 아니면 아닌 것도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백비란 이런 부정이 백 번도 넘게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²⁾

스님은 친절하게도 오도송의 작법인 사구계송 작법의 원리를 일러주고 있다. 禪家の 四句는 제1구는 긍정에서 제2구는 부정으로, 제3구는 긍정과 부정을 겸하고 제4구는 부정에서 부정이니 긍정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렇게 백번을 부정해도 끝이 없음을 말한다. 이는 中觀學의 八不中道와 같은 논리이다. 특히 월산스님의 선사상에는 중도 사상이 저변에 깔려 있다. 우리나라의 선사들 가운데 수좌들에게 오도송 작법의 원리를 법상에서 설하신 분은 아마도 흔하지 않는 일이다. 논자의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아직 들어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수행자들의 오도송 작법은 반드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수행방법에 대해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설하고 있다. 이 예화를 육조혜능에서 들고 있다. ‘육조혜능의 吾有一物하니 上柱天下柱地하고 明如日黑似漆한다. 常在動用中 호대 動用中收不得이로다 是甚麼?’라고 하였으나 육조혜능의 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혜능의 ‘吾有一物’³⁾과 『從容庵錄』雲門의 上柱天下柱地⁴⁾와 함께 복합되어 있다. 그러면

2) 「此事를 모르면 咸興差事로다」,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94.

3) 宗寶 編, 『六祖大師法寶壇經』, 「頓漸第八」(대정장48, 359c01), “吾有一物。無頭無尾。無名無字。無背無面。諸人還識否”

4) 離知 錄, 『萬松老人評唱天童覺和尚頌古從容庵錄』 권2 第31則 雲門露柱(대정장48, 248a17), “一道神光 上柱天下柱地 初不覆藏淨裸裸赤 灑灑超見緣也”

서 설하기를,

이는 모든 불조의 말이니 결정코 의심하지 말라. 마음 밖에는 한 물건도 따로 건립된 것이 없다. 근본 마음에서 만 가지 법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인이 이르기를 ‘심생즉종종법생(心生則種種法生)이요 심멸즉종종법멸(心滅則種種法滅)이라’고 했다. 마음이 생기면 모든 법이 따라서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모든 법이 따라서 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리를 바로 알고자 하면 그대들은 一相三昧와 一行三昧를 닦아야 한다.

무엇을 일상삼매라 하는가. 온갖 형상에 머물지 않고, 미움도 사랑도 없으며, 갖지도 버리지도 않으며, 이롭거나 손해거나, 무너뜨리거나 세우지 않으면 저절로 안락해지기 때문에 일상삼매라 하는 것이다. 또 무엇을 일행삼매라 하는가. 온갖 곳에 다니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모두가 하나의 마음이 되면 그것이 곧 도량이며, 정토가 되니 이를 일러 일행삼매라 한다. 이렇게 닦는 사람은 언하에서 광명천지를 보게 되리니 따로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⁵⁾

월산스님은 선원의 결제상당법문에서 혜능의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를 인용하면서 ‘마음 밖에 따로 한 물건이 없다’고 설한다. 그리고 그 증거로 『대승기신론』의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법이 사라진다’⁶⁾라는 문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음을 바르게 알고자 하면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닦을 것을 말하고 있다. 一相三昧란 모든 형상에서 머무르지 않는 것이고, 一行三昧란 행주좌와 어묵동정간에 마음이 하나 되면 그것이 도량이고 정토이며 한 마디에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혜능의 『육조단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⁷⁾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성취하면 바른 마

5) 「하늘을 버티고 땅을 버티라」,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101.

6) 馬鳴菩薩 造, 眞諦 譯, 『大乘起信論』(대정장32, 577b20), “當知世間一切境界。皆依衆生無明妄心而得住持。是故一切法。如鏡中像無體可得。唯心虛妄。以心生則種種法生。心滅則種種法滅故”

7) 宗寶 編, 『六祖大師法寶壇經』 定慧第4(대정장48, 352c25), “師示衆云。善知識。一行三昧者。於一切處行住坐臥。常行一直心是也。淨名云。直心是 道場。直心是淨土。莫心行詭曲。口但說直。口說一行三昧不行直心。但行直心於一切法 勿有執著。迷人著法相。執一行三昧。直言常坐不動妄不起心。即是一行三昧”; 宗寶 編, 『六祖大師法寶壇經』 付囑第6(대정장48, 361a26), “師復曰。諸善知識。汝等各各淨心聽吾說 須達一相三昧一行三昧。若於一切處而不住相。於彼相中不生憎愛。亦無取捨。不念利益成壞等事。安閒恬靜。虛融澹泊。此名一相三昧。若於一切

음을 얻을 수 있고, 이와 같이 되면 하늘을 버릴 수 있고 땅을 버릴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월산스님은 수행의 방법에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수행의 방법으로 守本眞心이 第一修行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若欲修行인댄 先修頓悟하라. 守本眞心이 第一修行이니라. 迷心修道하면 但助無明이니 病盡藥除하면 還是本人이니라

만약 수행을 하고자 할진댄 모름지기 먼저 깨달으라. 본바탕이 천진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수승한 수행이니라. 마음을 모르고 도를 닦는 것은 무명만 도와줄 뿐이니 병이 없어져 약조차 쓰지 않는다면 앓기 전 그 사람이 아니겠는가.⁸⁾

스님은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아야하고 본래 참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수행이라고 한다.

이 守本眞心에 대해서는 오조홍인의 『最上乘論』에서 설하고 있다. 여기서는 수본진심을 중시하여 수차에 걸쳐서 말하고 있다. “문기를 守本眞心이 열반의 근본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반의 體는 寂滅無爲安樂이니 나의 마음이 곧 眞心이다. 망상을 끊고, 망상이 단절되면 곧 正念이니라. 正念을 갖추면 고요히 비추어 지혜가 생겨나느니라. 寂照生智하면 법성의 궁극에 도달하며, 곧 열반을 얻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守本眞心이 열반의 근본이니라.”⁹⁾고 한다.

또 서산대사의 『禪家龜鑑』에서도 守本眞心이 第一精進이라고 하였다.¹⁰⁾ 이어서 월산스님은 설명하기를,

處行住坐臥. 純一直心不動道場. 眞成淨土. 此名一行三昧. 若人具二三昧. 如地有種含藏長 養成熟其實. 一相一行亦復如是”

8) 「마음을 모르고 닦으면 無明만 깊어진다」,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170.

9) 弘忍禪師 述, 『最上乘論』(대정장48, 377c14), “問曰. 何知守本眞心是涅槃之根本. 答曰. 涅槃者體是寂滅無爲安樂. 我心既是眞心. 妄想則斷. 妄想斷故則具正念. 正念具故寂照智生. 寂照智生故窮達法性. 窮達法性故則得涅槃. 故知守本眞心是涅槃之根本”

10) 休靜 述, 『禪家龜鑑』(한불전7, 640a18-a21), “守本眞心 第一精進 若起精進心 是妄非精進 故云莫妄想莫妄想 懈怠者 常常望後 是自棄人也”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頓悟頓修냐 頓悟漸修냐 하고 물으려 할 것이다. 요즘 이 문제로 천하총림이 시끄럽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말이다. 돈수냐 점수냐를 놓고 解悟냐 證悟냐 하는 것을 간택하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즉심시불임을 먼저 알면 자연히 진심이 지켜질 것이니 이는 돈수라 할 것이요. 순차상으로는 이를 알고 지키는 것이니 점수라 해도 틀린 것이 아니다. 이는 다만 천하 총림의 노화상들이 공부인들의 병통을 다스리기 위해 한 방편이니 말끝을 쫓아서 안 될 것이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지 자꾸 손가락을 보니 시비가 생기는 것이다.¹¹⁾

스님은 수행의 첫발은 頓悟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卽心是佛에 두고 있다. 마음이 곧 부처이므로 이를 알고 이 참마음만 지키면 수행은 저절로 된다고 하면서 당시의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설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을 말한다. 돈점을 구분하여 解悟와 證悟로 시시비비가 분분하지만, 둘 다 틀리는 것이 아니라 선지식들이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방법상의 차이일 뿐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지 손가락만 보고 시비가 생긴다고 일갈하고 있다. 월산스님은 守本眞心과 卽心是佛로 당시에 크게 쟁점이 되었던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에 대해 알기 쉽게 설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自心에 대해서 설하고 있다.

화두는 언어와 문자를 초월한 것이다. 생사윤회를 면하고자 한다면 화두를 깨쳐나가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성불의 길이다. 성불은 自心이 곧 부처임을 깨닫는 것이다. 이 자심은 일체중생의 본성이요, 시방여래의 본래면목이다. 이 자심은 본래부터 청정하여 나고 죽음에 生滅相이 없고 男女相이 없으며, 善惡相도 없으니 무어라 이름 할 수 없고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다.¹²⁾

여기서는 自心을 설하고 있다. 이 자심은 위에서 말한 홍인의 守本眞心과 다르지 않다. 이 자심이 바로 부처이니 心卽是佛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本來面目이라고도 한다. 이어서 “자심을 알려면 우선 한 생각 일어나는 근원을 볼 줄 알아야 한

11) 「마음을 모르고 닦으면 無明만 깊어진다」,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170.

12) 「參禪學人이 새겨둘 法門」,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299.

다. 오직 행주좌와에서 ‘이것이 무슨 물건인고?’를 깊이 의심하여 깨달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수행이라 하고 공부라 하며 참선이라 한다.” 그러면서 깨달음을 믿고 죄업을 지어도 괜찮은가 하는 것이다. 즉 수행자는 철저히 계율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크게 후회한다고 하였다. 즉 수행을 하면서 오는 경계과정과 수행자도 계율을 중시해야 함을 설하고 있다.

자신이 선원에서 평생 참선을 한 경험과 실참수행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하면서 올바르게 수행하기를 독려하고 있다.

내가 평생 선방에서 참선을 해봐서 아는데 이 참선이란 것이 보통하기 힘든 중노릇이 아니다. 하루에 8시간, 10시간, 많게는 12시간도 넘게 선방에 앉아 있으려면 그것이 보통 고된 일이 아니다. 차라리 속가에 나가 농사를 짓는 것이 훨씬 편하지, 그저 청산이나 바라보며 하루 종일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 그런데 그대들은 출세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중노릇 중에서도 가장 힘든 참선을 하려고 하니 모르는 사람은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대들이 참선을 하려는 것은 그저 놀고먹기 위해서가 아니다. 생사일대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자기의 본마음을 찾아 부처가 되기 위해서다. 그 장한 일을 하려고 그대들은 중이 되었고, 중 중에서도 참선중이 되었다.

억!

그런데 이 참선수좌들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서 부처를 찾고 마음을 찾고 있는가?

마음을 떠나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를 떠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불제조가 그토록 간절하게 일렀거늘 지금 왜 그대들은 남의 허벅지를 긁고 있는고! 남의 다리 긁으면 거기서 부처가 보이고 마음이 보이는가?¹³⁾

스님은 평생을 참선수행하면서 본인의 체험과 어려움을 자세히 설하고 있다. 참선수행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루에 8시간, 10시간, 때로는 12시간까지 좌선을 한다는 것은 대근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냥 선원에 앉아서 청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13) 「남의 허벅지를 긁지 말라」,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208.

육체적인 조복을 받아야 하고, 졸음을 이겨내어야 하며, 번뇌망상을 걷어 내어야 한다.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여 수행하면서 참선화두에 전념하지 않고 마음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가라는 일침이다. 앞에서 守本眞心과 自心이 부처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마음 찾기에는 전념하지 않고,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으려고 하니 이는 남의 허벅지를 긁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질책이다. 중노릇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하였으면, 가장 훌륭한 승려가 되어야 하는데 왜 깨달은 자가 나오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반성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당시 선원의 실태에 대해 수행납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법문이 있다.

一人은 說過佛祖하되 一步行不得이요. 一人은 行過佛祖하되 一句不得이요. 一人은 說得行得하고, 一人은 說不得行不得이라. … (중략) … 이중에 어떤 사람이 뛰어난 사람인가? 자네들은 이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¹⁴⁾

즉 한 사람은 말 잘하기를 부처나 조사보다 낫지만, 한 걸음도 행하지는 못하고, 한 사람은 행이 부처와 조사보다 뛰어나지만, 한 구절도 말할 줄 모른다. 또 한 사람은 말도 잘하고 행도 잘하며, 한 사람은 말도 못하고 행도 못한다. 선원에서 수행하는 그대들은 이들 중 누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그대들은 이들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강하게 의문을 던진다.

스님은 불국선원의 반결제법어에서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설하면서 몸을 던져 공부에 전념하라고 한다. 그리고 경책하기를 서산대사의 鳥鼠僧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결제 때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섯 가지 도둑중으로 몰리게 된다. 다섯 가지 도둑중이란 어떤 중을 말하는 것인가. 서산대사가 이르기를 말세의 비구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조서승(鳥鼠僧) 아양승(啞羊僧) 독거사(禿居士) 지옥재(地獄宰) 피가사적(被袈裟賊)이라 했다. 조서승이란 박쥐중이란 말이니 중도 아니고 속도 아닌 모습으로 사는 자를 말한다.

14) 「납자가 해야 할 일」,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248.

아양승은 병어리 염소중이란 말이니 염소처럼 매앰매앰 할 뿐 허를 가지고도 설법을 못하는 자를 말한다. 독거사는 대머리 거사란 말이니 겉은 중인데 속으로는 속인의 마음을 쓰는 자를 말한다. 지옥재는 지옥찌꺼기란 말이니 죄가 하도 무거워 지옥에 떨어져 움짱달짝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피가사적이란 가사 입은 도둑놈이란 말이니 부처님을 팔아서 살아가는 자를 말한다.

이 어찌 부끄럽지 아니한가?¹⁵⁾

스님은 공부하는 사람은 달마대사의 가르침과 같이 밖으로 쉬고 안으로 험떡거리지 않으며, 마음을 장벽과 같이해야 도에 들어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서산대사의 가사 입은 도적에 대해서 설하고 있다. 증거를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에서 인용하고 있다.¹⁶⁾ 즉 조서승은 박쥐처럼 출가자의 정신도 속인의 정신도 없이 비승비속 생활을 하는 승려, 아양승이란 설법을 하지 못하는 승려, 독거사란 겉으로는 머리를 깎은 승려인데 속 마음가짐은 속인처럼 마음을 쓰는 승려, 지옥재란 죄를 많이 지어서 앞으로 지옥에 떨어질 승려, 피가사적이란 가사 입은 도둑이라고 하여 이와 같은 수행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책이다. 온 몸을 던져서 수행에 정진하라고 한다.

이어서 수선자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공부하라고 한다.

百尺竿頭不動人	백 척 장대 끝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
雖然得入未爲眞	깨달았다 하더라도 참이라 할 수 없다.
百尺竿頭須進步	장대 끝에서 모름지기 한 발 더 내딛어야
十方世界是全身	시방세계가 곧 자기의 온몸과 같이 되리라.

백척간두에서 뛰어내리라. 두 눈 딱 감고 뛰어내리라!

15) 「공부를 하려거든 몸을 던지라」,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264.

16) 休靜 述, 『禪家龜鑑』(한불전7, 641c16-p.642a8), “佛云云何賊人 假我衣服 裨販如來造種種業 末法比丘 有多般名字 或鳥鼠僧 或啞羊僧 或禿居士 或地獄滓 或被袈裟賊 噫 其所以以此裨販如來者 撥因果排罪福 沸騰身口 迭起愛憎 可謂慙也 避僧避俗曰鳥鼠 舌不說法曰啞羊 僧形俗心曰禿居士 罪重不遷曰地獄滓 賣佛營生曰被袈裟賊 以被袈裟賊 證此多名 以此二字結之 此二字文出老子”

백척간두에서 한 발 앞으로 내딛지 못하는 것은 죽을 것이 겁나서다. 욕심껏 모은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애착하는 마음 때문이다.¹⁷⁾

스님은 공부하는 방법과 공부인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설한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백척간두에서도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한다. 여기서 머뭇거리면 참으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선수행자가 무슨 애착과 욕심이 있어서 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느냐고 수행자들을 다그치고 있다. 또한 ‘그대들은 乾坤失色하고 日月無光한 그곳에 일단 몸을 던져야 한다. 크게 죽지 않으면 결코 크게 살 수 없나니라’고 한다.

결제법문에서 보조스님의 『誠初心學人文』¹⁸⁾을 인용하면서 수행자의 법문 듣는 자세에 대해서 설하고 있다.

법문을 잘 듣는 것도 공부하는 방법이니 이를 선문에서는 줄탁동시(啐啄同時)라 한다. 줄탁이란 달걀이 부화할 때 병아리가 안에서 툭툭 쪼으면 밖에서 어미닭이 탁탁 쪼아 마침내 껍질을 깨는 것과 같은 것을 비유함이니라. … (중략) … 그러나 줄탁동시는 다만 앉아서 시절 인연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병아리가 애써 분발하지 않으면 쪼아주지 않는 것이니 굳이 누가 먼저냐 하면 병아리가 먼저니라. 왜 그런고 하니 병아리는 껍질을 깨뜨리지 않으면 부화할 수 없고, 마침내 그 속에서 죽게 되기 마련이니 이는 공부인이 스스로 분발해야 할 이유이니라. 오늘 이렇게 결제를 하고 법문을 듣겠다고 모여 앉은 것은 줄(啐)이요, 산승이 법상에 오른 것은 탁(啄)이라 이 자리가 줄탁동시의 자리니 현애상(懸崖想)을 짓거나 관문상(慣聞想)을 짓지 말고 허회문지(虛懷聞之)하야 기발지시(機發之時)를 만들어야 하리라.¹⁹⁾

보조스님의 『誠初心學人文』의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법문 듣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聞法者は 법문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물러날 생각을 내거나, 평소에

17) 「百尺竿頭에서 한 걸음 더 나서라」,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261.

18) 知訥 述, 『誠初心學人文』(한불전4, 738b21-c04), “若遇 宗師陞座說法 切不得於法 作懸崖想 生退屈心 或作 慣聞想 生容易心 當須虛懷聞之 必有機發之時 不得隨語學者 但取口辦 所謂 蛇飲水成毒 牛飲水成乳 智學成菩提 愚學成生死是也”

19) 「法門 듣는 사람의 자세」,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272.

늘 듣던 법문이라고 하여 쉽게 생각을 내어서도 안 된다. 마음을 비우고 법문을 들으면 반드시 깨달을 때가 있다고 하면서, 법문은 바로 줄탁동시와 같다고 한다. 법문 듣는 사람은 끊임없는 정진으로 병아리가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선지식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쏘아 주어야 병아리가 탄생한다. 이와 같이 수행자는 늘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이 스승과 제자는 줄탁동시 라고 하지만, 그런데 월산스님은 줄탁동시이지만, 병아리가 먼저라고 한다. 공부인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스승이 쏘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결제법문이 바로 참선납자들은 깨어날 준비를 해야 하고 노승은 쏘아 주는 법문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수행자의 법문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설법이다.

또한 수행자의 自利를 위한 상구보리와 중생교화를 위한 하화중생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상구보리가 먼저임을 강조하고 있다.

불교공부에는 두 가지 길이 있나니 하나는 향상일로(向上一路)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향하일로(向下一路)하는 것이다. 향상일로는 참선정진을 말하고, 향하일로는 중생교화를 말한다. 향상일로는 결국 향하일로로 나아가기 위함이요. 향하일로는 향상일로로 나가기 위함이니 이는 손등과 바닥 같으니라.²⁰⁾

수행자들이 상구보리는 하지 않고 하화중생을 하려면 되지 않는다고 경계하고 있다. 물론 향상일로와 향하일로는 손등과 바닥 같이 모두 중요하지만, 참선수행자는 먼저 자신의 수행에 전념하여 득력을 한 후 중생구제나 남의 스승이 되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여야 한다. 산을 올라가 보지도 않고 어찌 산을 내려오려고 하느냐. 산은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내려올 때도 조심해야 한다. 날개 부러진 새가 어찌 거북이를 달고 하늘을 날려고 하느냐면서 향상일로한 후에 향하일로 할 것을 지도하고 있다.

이상으로 월산스님의 실참지도법은 ‘이뵈고’ 화두가 중심이지만, 다양한 상당법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첫째, 선원에서 수행자들에게 계송 작

20) 「向上一路和 向下一路」,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221.

법을 가르치고 있다. 둘째,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중시하면서 외연과 내연을 쉬게 하고, 卽心卽佛이기에 守本眞心은 바로 自心이며, 본래면목이라고 하면서 선수행자들이 계율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셋째, 참선이 참으로 어려운 수행인데도 도인이 못 나오는 것은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고 있기 때문이며, 선문답도 못하는 병어리 수좌들이 반찬 타령이나 해제비 타령만 하고 있다고 현재 선원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넷째, 공부인은 백척간두에서도 진일보해야 하며, 조사관을 투철하려면 대의심, 대분심, 대신심을 내어야 한다. 다섯째 참선수행자의 법문 듣는 자세는 항상 졸탁동시의 준비가 되어야 하고, 향상일로로 공부하여 향하일로의 중생구제를 회향하며, 시주물의 무서움을 일깨워주고 있다.

2. 재가자 지도법

스님은 재가신도들에게도 참선을 지도하고 부인선원을 개원하였다. 대중들에게는 근기에 맞는 법문으로 지도하였지만, 언제나 선수행으로 회통하고 있다. 특히 시의적절한 법문으로 참여한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식목일을 맞이한 법문에서 조주선사의 정전백수자(庭前柏樹子) 화두를 이야기 하면서,

조주의 잣나무는 그냥 잣나무가 아니다. 종자가 아주 귀한 것이어서 여간해서는 바람에 쓰러지거나 벌레먹는 일이 없다. 그러나 이 잣나무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어서 나무 주인이 잠시만 눈을 팔거나 외출을 하면 금방 시들시들 해서 말라 죽는다. 그래서 이 나무를 키우려는 사람은 한시도 잣나무에서 눈을 떼거나 바람을 피우면 안 된다. 그러므로 한 번 잣나무를 심으면 아예 늙어 죽을 때까지 잣나무 옆에서 살든가, 이사를 가더라도 반드시 파서 품속에 담고 다녀야 한다. 그러면 이 잣나무는 언제나 푸르러서 죽는 일이 없고 맛있는 잣도 주렁주렁 열린다.²¹⁾

21) 「뜰앞의 잣나무는 잘 크고 있는가」,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55.

식목일 법회에서 조주의 庭前栢樹子 화두로 잣나무 키우는 법문을 하고 있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선사다운 법문이다. 조주의 잣나무는 바로 화두이며,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어서 자나 깨나 이 화두에 전념하라는 법어이다. 조금만 방심해도 화두는 멀리 달아나며 시들어 죽고 만다. 항상 마음 깊이 새겨서 참구할 것을 설하고 있다. 그러면서,

月下栢樹無現影

달빛 아래 잣나무에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도다.

이것이 나의 잣나무니라.

대중들도 그대들의 잣나무를 잘 키우라.

그 잣나무 한 그루만 잘 키우면 삼세에 걸쳐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으리라.²²⁾

자신의 경계를 설하고 있다. 자신은 화두가 잘 들리고 있으니 그대들도 庭前栢樹子 화두를 잘 들라고 한다. 또한 이 화두만 잘 들면 깨달음을 얻어 삼세의 문제가 해결됨을 말하고 있다. 식목일 법문에서 나무를 잘 심자던지, 산림녹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사답게 조주의 庭前栢樹子 화두를 예화로 들어 화두의 나무를 심자고 하였다. 참으로 선사다운 모습이다. 불교의 연중행사 대중법문에서도 항상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또 성도재일 법문에서 대중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見明星悟道라.

석가대성은 납월 팔일 새벽 동쪽에서 떠오른 샛별을 보고 도를 깨쳤다. 석가는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그대들은 어떤 별을 보고 깨달을 것인가.

지금 그대들의 별은 어디에 떠 있는가?²³⁾

납월 팔일 성도절에 대중들에게 한 법문이다. 석가모니부처님은 샛별을 보고 깨달음을 성취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그대들은 어떤 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화

22) 위의 책, p.56.

23) 「그대의 별은 어떤 별인가」,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322.

두를 던졌다. 그대들의 별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보고 깨달을 것인가. 그대들의 별을 가져오라고 하는 화두는 참으로 성도재일에 맞는 선사다운 법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날 불자교수회의 교수들이 불국사를 찾아 와서 스님께 법문을 청하였다.

여러분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니 내가 한 가지 묻겠다. 셋은 둘에서 나오고 둘은 하나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 1,2,3은 0에서 나온다. 0이 없으면 1,2,3,4,5가 나오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잘 알 것이다. 이 산승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0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이다. 내가 수학을 잘 몰라서 그러니 아는 사람 있으면 좀 가르쳐주라.

(대중이 말이 없자 노사가 대갈하셨다.)

억!

0은 바로 여기서 나왔도다.²⁴⁾

불국사를 찾은 교수불자들의 법회에서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불교에 대한 설법이 아니라 수학에 관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숫자의 근원인 0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답하라고 다그치고 있다. 누구도 답을 하지 못하자 할을 하면서 이 할 속에서 0이 나왔다고 하는 선사다운 모습이다. 이를 알려면 참선을 하라. 참선을 하면 바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 스님은 틀에 박힌 정형화 된 화두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근기에 따라 그들만이 집중할 수 있는 화두를 대중들에게 제시하면서 정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상으로 재가자를 위한 법문에서 시의적절한 법을 설하면서도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식목일은 庭前栢樹子 화두를, 교수불자들에게는 0의 출처를 밝히라고 설하며, 성도절에는 너의 별을 찾으라고 한다. 전국신도회 간부들의 연찬회에서는 호법과 삼보의 외호를 부탁하면서 自性佛을 찾도록 하고, 일반신도들에게는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주인공 화두를 참구하며, 분별심과 집착심을 떠나 하루에 30분이라도 정진하는 生活禪을 설하고 있다. 따라서 각자의 본분이나 생업에 맞는 환경 속에서 분별심과 집착심을 여의고 매일

24) 「하나 이전에는 무엇이 있는가」,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340.

30분만이라도 화두참구를 하는 것이 생활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Ⅲ. 월산스님의 중도선사상

1. 월산스님의 중도관

월산스님의 선의 특색을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논자는 이 점에 많은 고민을 하였다. 예를 든다면 용성스님의 선은 “大覺禪”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철스님은 “頓悟禪”이라고 정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는 논자의 독자적인 견해이며 학문적으로 더 깊이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면에서 월산스님의 선은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많은 자료와 법문 등을 분석한 결과 “中道禪”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왜 월산스님의 간화선 특색을 “중도선”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그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본 항을 전개하고자 한다.

월산스님은 불국선원의 안거 중 법문에서 중도에 관한 상당법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 수행자들의 중도에 대해 바른 이해를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묵(遺墨) 중 “中道”라는 작품을 많이 남겼다. 스님들이나 신도들에게도 중도라는 서예작품을 많이 써주었으며, 지금도 불국사에서 이 글씨를 판각하여 중요한 곳에 걸어두고 수행의 지표로 삼고 있다.

월산스님은 언론사와 인터뷰를 좀처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입적 1년 전에 법체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성타스님의 간곡한 권유에 의해 『불교춘추』와의 인터뷰를 가지면서 세상을 향해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셨다. 어렵게 인터뷰가 이루어졌음을 발행인 최석환은 편집자주에서 밝히고 있다.

중도의 가르침을 전하라

큰스님께서는 몇 차례의 인터뷰 요청을 극구 사양하셨는데 성탁스님(불국사 부주지)의 배려로 큰스님의 법음을 청해 들을 수가 있었다.

3시간에 걸친 사상초유의 대담과 2차례에 걸친 인터뷰에서 중도사상을 통해 한국불교를 바로 세우고자 강조하셨다.<편집자주>²⁵⁾

이 인터뷰에 응하신 이유는 ‘중도의 가르침을 전하라’라는 월산스님께서 대중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월산스님께서 대중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중도라는 것이다. 중도사상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국불교가 바로 서며, 선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 『불교춘추』 최석환 발행인과의 인터뷰는 「참선만이 살길이다」는 주제로 제목을 삼았고, 편집위원 의림스님과의 인터뷰는 「중도를 지키면 모든 선악시비 사라져」라고 하였다.

1차 인터뷰에서는 탄생부터 출가수행의 전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여기서 중도에 관한 말씀은,

중도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도이지.

나의 중도관은 일체 것을 초월해서 일체 것을 여의지 않는 것이 나의 중도관이지요.²⁶⁾

월산스님의 1차 인터뷰 내용의 주제는 주로 참선에 관한 이야기와 중도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스님은 중도란 양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초월하지만, 여의지 않는 것이라고 자신의 중도관을 밝히고 있다. 2차 인터뷰에서는 중도에 관해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였다.

한국의 여러 큰스님이 중도사상을 주장하시는 분이 드물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나는 중도를 주장해요

25) 최석환 인터뷰, 「참선만이 살길이다」, 『불교춘추』 3호, 불교춘추사, 1996.5, p.15.

26) 최석환 인터뷰, 「참선만이 살길이다」, 『불교춘추』 3호, 불교춘추사, 1996.5, p.16.

큰스님의 중도사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는 중도사상을 늘 강조해. 대개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리라고 하는 것이 중도인데, 나의 중도관은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 나의 중도관이지요. 나쁜 것 버릴 것이 있어, 나쁜 것 고쳐서 써야지, 악이라고 버리면 돼, 고쳐야지. 더군다나 언론 기관에서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릴려고 하지 말고, 나쁜 것도 고쳐서. 요새 정부가 나쁜 일을 많이 하대.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백성들이 조그만 법어진 것을 들춰내고, 대가 리 큰 놈은 큰 법을 어기고 나쁜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법을 엄하게 다뤄야 해.²⁷⁾

기자가 중도에 대한 질문을 하자 1차 인터뷰 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답하고 있다. 다른 선지식들은 중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자신은 중도를 주장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중도설은 ‘대개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을 버리라고 하지만,’ 월산스님의 중도관은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라고 간단명료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어서 ‘나쁜 것은 버릴 것이 아니라 고쳐서 써야하고, 악도 버리지 않고 고쳐야 한다고 하였다. 대부분이 중도를 난해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비해서 월산스님은 중도관을 간결하게 정의하고 있다. 즉 선악을 막론하고 모두 수용하여 나쁜 것은 좋게 고치고, 좋은 것은 더 좋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언론기관에도 중도관적인 입장에서 좋은 기사만 쓰지 말고 나쁜 것도 고쳐서 좋게 될 수 있도록 쓰라고 한다. 또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정부가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 자신들은 빠져나가고 힘없는 백성들의 작은 죄만 들추어낸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월산스님의 이러한 중도관에 대해서 불국사회주 성탁스님과 관장 종상스님은 월산스님께서 평소에 자주 사 용하던 중도 계송을 소개해 주었다.

不捨一法이 中이요 한 법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이며
一心不亂이 道니라 한 마음도 산란하지 않는 것이 도이니라²⁸⁾

27) 의림 인터뷰, 「중도를 지키면 모든 선악시비 사라져」, 『불교춘추』 3호, 불교춘추사, 1996.5, p.28.

28) 『大覺思想』, 32집 화보, 「성림당 월산 대종사 中道觀」, 대각사상연구원, 2019.12.

<성탁스님, 종상스님과의 인터뷰>. 논자는 2019년 7월 22일 오후 5시 50분경 중국성지순례

중도에 대한 인터뷰 기사와 같이 나쁘고 좋은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는 것이 ‘中’이요. 어떠한 경계에도 마음이 산란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道’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中道’라는 붓글씨를 많이 쓰셨다고 한다.

2. 월산스님의 중도선

월산스님은 중도관에 입각해서 선원수행자들을 지도하였다. 결제법문에서도 중도법문을 하였는데,

佛法門中에는 不捨一法이라. 부처의 경계에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했다. 왜 그런가? 예를 들어 법당 하나 짓는다고 하자. 법당에는 기둥도 필요하고 대들보도 필요하고 석가래와 기와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먼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러나 祖師關門에는 不受一塵이라. 조사의 관문을 투철하고자 하면 티끌 하나도 용납할 수 없다. 왜 그런가? 일체의 경계는 환화요 번뇌이니 이를 버리지 않고서는 조사의 관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하나도 취할 것이 없다.

하나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취할 것이 없다.

하나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니 그러면 이 경계에 이르러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버려야 하는가?

오늘은 이 한 마디를 묻겠다.

이르라!²⁹⁾

월산스님은 불국선원에서 상당법문을 하면서 부처님 법에는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조사관문에서는 ‘한 티끌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으니 서로 다르지

후 귀국 중에 ‘이 문장을 월산스님께서 평소애 즐겨이 사용했던 게송이며, 中道라는 붓글씨를 쓸 때도 늘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불국사 승가대학장 정수스님과 같이 듣고 확인하였음.

29) 「日月은 東西에 一걸리지 않는다」,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91.

않는가? 조사관을 하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번뇌를 놓아야 하니 취할 것도 없다.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수좌들을 다그쳤다. 이 물음에 한 번 일러보라고 하면서 부처님과 제바달다의 이야기를 예를 들고, 또 通曉梵日국사가 중국의 鹽官齊安화상을 만나 참문한 일화를 소개 하였다.

어디서 왔는가?

東國에서 왔습니다.

陸路로 왔는가, 水路로 왔는가?

두 길을 모두 거치지 않고 왔습니다.

일월이 다니는데 동서가 무슨 장애가 되겠습니까?

이 말에 염관화상은 인가를 했다.

과연 동방의 보살이로다.

실로 그러하다. 좌우에 머물지 않고 시비선악을 벗어나며 그 마음이 한가로우면 극락과 지옥이 모두 쓸데없는 것이다. 여기에 이르면 不捨一法과 不受一塵이 손바닥이요 손등임을 알게 되리라.³⁰⁾

이 일화는 通曉梵日(810~889)이 鹽官齊安(?~842)을 참알하여 깨달음을 인가 받은 대목이다. 사굴산파의 개산조인 범일은 22세에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제안화상을 만나 거침없는 문답에서 선지를 보인 것이다. 제안화상은 범일국사를 동방의 보살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범일은 ‘어떻게 해야 성불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제안은 ‘도는 닦을 필요가 없고 다만 오염되지 말고 부처도 보려고 하지 말고 보살도 보려고 하지 말아라. 평상심이 도이니라’고 하였다. 이 말에 범일은 크게 깨쳤다고 한다.³¹⁾

왜 월산스님은 중도법문을 설하면서 제안과 범일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을까? 스님은

30) 위의 책, p.93.

31) 『祖堂集』, 권17(고려대장경영인본 45, 339a), 동국대학교 역경원, 1976, “尋善知識 參彼鹽官齊安大師 大師問曰 什摩處來 答曰 東國來, 大師進曰 水路來陸路來, 對云 不踏兩路來, 既不踏兩路閣梨爭得到這裏, 對曰 日月東西有什摩障礙, 大師曰 實是東方菩薩, 梵日問曰 如何即成佛, 大師答曰 道不用修 但莫污染 莫作佛見菩薩見 平常心是道 梵日言下大悟”

不捨一法과 不受一塵의 상반된 말씀을 하면서 범일의 日月은 동서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이어서 시비선악을 벗어나면 不捨一法과 不受一塵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이 하나임을 설하고 있다. 중도란 양변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서로 상반된 논리가 하나임을 말하고 있다. 그 하나는 바로 양변을 초월한 경지이다.

우리나라의 선수행자들은 남종선의 혜능이 신수보다 우수하고, 신수의 頓悟漸修보다 혜능의 頓悟頓修가 뛰어난 수행방법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월산스님은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시비에 휘말리지 말라고 하였다. 앞에 신수와 혜능의 두 계송을 읊은 후,

그러나 여러분은 이를 두고 신수와 혜능의 法器에 대해 가볍게 말하지 말라. 신수대사도 나중에 축천무후와 중종, 예종의 귀의를 받아 낙양과 장안에서 문풍을 크게 날려 뒷날 三帝國師 兩京法主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뒷날 사람들은 南能北秀라 하여 양자강 남쪽에는 혜능이요 북쪽에는 신수가 크게 떨친다 했다.

우리가 이 법문에서 배워야 할 것은 고인들이 먼지를 없애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진을 했느냐에 있다. 頓悟頓修냐 頓悟漸修냐에 매달려 시비를 하다보면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온 난리를 치던 저 남전문하의 烏舍維衆과 같으리니 내 문하에서는 그 같은 일을 삼가라. 다만 근기에 따라 공부를 하되 물러섬이 없어야 하리니 그것이 공부하는 이의 길이니라.

人人盡欲出常流	사람마다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길 원하지만
折舍還歸炭裏坐	편견에 치우치면 숯더미 속으로 돌아가리라. ³²⁾

한국선은 남종선의 전승자인 혜능의 선맥을 계승하다보니 그의 頓悟頓修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월산스님은 신수의 頓悟漸修도 대단히 중요한 수행방법임을 설하고 있다. 한 곳에 치우치다보니 남전참묘(南泉斬猫)와 같은 공안이 나온 것이다. 한 곳에 치우치므로 고양이만 죽이게 되었다는 말이다. 선수행자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양변에 치우치는 것이다. 자신의 근기에 따라 돈오돈수든지 돈오점수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반드시 돈오돈수만이 바르다는 것은 아님을 설하면서 중도적 입장에서 수행할 것을 강조

32) 「허공의 먼지를 쓸어내라」,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247.

하고 있다.

또한 중도란 말 이전의 소식이라고 한다.

참선 공부하는 남자가 항상 조심할 일은 말끝에 매달리는 일이다. 언어나 문자란 하나의 감옥이니 말끝을 따라다니다 보면 그르치게 되니라. 그래서 이르기를 ‘聲句以前の 소식을 알라’고 했느니라.

성구이전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가?

喚馬何曾馬	말이라 부른들 어찌 말이 되며
呼牛未必牛	소라 부른들 반드시 소가 아니니
兩頭都放下	두 가지를 모두 놓아버리고
中道一時休	중도도 한꺼번에 쉬어야 하리. ³³⁾

참선 공부하는 남자들은 말이나 문자에 매달려서는 안 되고, 언어나 문자는 하나의 감옥과도 같다고 하면서 말 이전의 소식을 아는 것이 불교라고 한다. 그러면서 中道라는 말에도 매이지 말고, 한꺼번에 쉬어라고 한다. 즉 중도란 말에 있는 것이 아님을 설하고 있다. 말 이전의 소식임을 알아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혜능과 신수에서부터 시작된 돈점의 논쟁은 1990년경 한국불교계의 수행방법에서 큰 이슈로 대두되었다. 당시에는 해인사 성철스님의 頓悟頓修와 송광사 보조스님의 頓悟漸修 논쟁이 불교계뿐만 아니라 학계의 관심사항이었다. 이에 대해,

요즘 학인들 사이에 돈오돈수가 맞느냐 돈오점수가 맞느냐로 시끄럽다. 나에게도 여러 사람이 견해를 물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시비에 휘말리지 말라.

頓悟頓修 無行足虎	돈오돈수는 움직일 발이 없는 범이요
頓悟漸修 無智目鳳	돈오점수는 바라 볼 눈이 없는 봉황이로다.

33) 「聲句以前の 경계」,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157.

돈오돈수와 돈오점수는 종문의 스승들이 근기에 따라 공부를 가르치기 위한 처방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공부가 방해가 되고 학인들이 말끝만 쫓아다니니 산승이 처방을 내리리라.

向上一路行禪子	향상일로로 걷는 참선학도는
頓漸兼去東海投	돈점을 모두 거둬 동해바다에 버려라.
咄!	애답구나! ³⁴⁾

이 법어는 당시에 불교계의 수행에 있어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고려시대의 보조선에 대해 성철스님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보조선은 조계종의 종지에도 어긋나며, 頓悟漸修의 수행방법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선지식들이나 학자들이 어느 한편을 지지하면서 자신의 수행방법을 밝힐 때였다. 이러한 시기에 월산스님은 돈오돈수와 돈오점수 모두에 문제점이 있다. 돈오돈수는 호랑이지만 발이 없어서 한 걸음도 앞을 못 가고, 돈오점수는 봉황이지만 지혜의 눈이 없어 앞을 못 본다고 지적하면서 頓漸의 논쟁을 모두 동해바다에 버리라고 일갈하였다. 당시의 교단으로서는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월산스님은 중도실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하고 있다.

佛法은 처음에는 恁麼也不得이요 不恁麼也不得이다. 그래서 總不得又不得이다. 그러나 恁麼也打요 不恁麼也打로다. 그러나 여기서 進一步하면 恁麼也得이요 不恁麼也得이니, 恁麼也不打요 不恁麼也不다가 된다. 이것이 中道實相이니 中道란 바로 二邊處中の 中道이기 때문이다.³⁵⁾

즉 월산스님의 중도관은 처음에는 이래도 맞지 않고 저래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모두다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니다. 이래도 한 방망이, 저래도 한 방망이 맞는 까닭이다. 그러

34) 「頓悟頓修와 頓悟漸修를 모두 버리라」,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135.

35) 「中道の 자리」,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232.

다가 더 나아가면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다. 그래서 이래서 안 때리고 저래도 안 때린다. 이것이 중도실상이며, 중도란 두 변을 떠나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중도라고 한다. 즉 중도관은 二邊處中이라고 한다. 이어서,

(처음에는)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래도 때리지 않고 저래도 때리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경계를 중도라 한다. 중도는 이것이라거나 저것이라거나 하는 양변의 집착을 모두 떠난 경계다. 유와 무를 떠나되 유와 무를 떠나지 않으니 비유하면 수레의 두 바퀴를 움직이는 것은 바퀴 자체가 아니라 두 바퀴를 움직이는 축이다. 이 축을 끌면 두 바퀴가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니 이는 좌우를 초월하되 그것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야 能生能活의 경지가 된다.

더 쉬운 예를 하나 들겠다. 출가한 사람은 처음에는 일체를 버리나니 일체는 유요, 출가는 무다. 그러나 공부가 익으면 다시 그 버렸던 일체를 제도하러 나서니 이는 유무를 초월한 세계다. 여기서 다시 그것을 떠나고, 떠난 것도 떠나게 되면 이는 還歸本處가 된다.³⁶⁾

월산스님은 이 앞에 전제로 黃龍祖心(1025~1100)의 제자인 靑原有信禪師의 상당법문인 山是山 水是水를 예화로 들고 있다. 有信禪師는 법상에 올라 ‘노승이 30년 전에 아직 참선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산을 보면 산이었고, 물을 보면 물이었지만, 그 뒤 선지식을 친견하고 깨달은 경계가 조금 있게 되자 산을 보아도 산이 아니었고, 물을 보아도 물이 아니었다. 지금 번뇌망상이 모두 없어진 경지가 되고 보니 이전 그대로 산을 보면 바로 산일뿐이고 물을 보면 물일뿐이다. 대중들이여, 이 세 가지 견해는 같은가, 다른가?’³⁷⁾

이 말이 우리나라의 온 국민에게 회자 된 것은 성철스님의 신년법어에서 비롯되었다. 그로인해 성철스님의 대표적인 법어처럼 알려졌지만, 실은 靑原有信禪師의 유일한 상당법문이다. 아무런 느낌도 없이 단순히 보았을 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 다시 한

36) 위의 책.

37) 元代 圓極居頂 編, 『續傳燈錄』 권22, (대정장51. 614b29), 『五燈會元』(만속장138, 670a8), “吉州靑原惟信禪師上堂。老僧三十年前未參禪時。見山是山見水是水。及至後來親見知識有箇入處。見山不是山。見水不是水。而今得箇休歇處。依然見山祇是山。見水祇是水。大眾這般見解是同是別”。

번 살펴보면 부정인식으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러나 그 부정의 단계를 넘어서면 다시 긍정으로 돌아 와서 還歸本處하면 참모습이 보인다. 이것이 眞如實相이며 中道實相이라고 월산스님은 설하고 있다. 월산스님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출가자의 수행방법을 예화로 들고 있다. 초심자에게는 일체를 버리라고 하지만, 수행이 무르익으면 중생구제를 위해 還歸本處해야 하라고 한다. 그리고 중도란 수레의 두 바퀴가 아니고 두 바퀴를 움직이는 축이라고 하면서 수선자들에게 중도적으로 수행정진할 것을 독려했다.

월산스님은 자신의 중도관적인 입장에서 선원대중들이 수행할 것을 설하고 있다. 스님의 중도적인 수선방법은 화두에 전념하되 첫째는 양 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여 二邊處中이라고 한다. 둘째는 자신의 근기에 따라 중도적 입장에서 頓漸修行을 하라고 한다. 셋째는 不捨一法과 不受一塵이 손바닥이요 손등과 같으니 둘이 하나라는 것이다. 넷째는 수레 두 바퀴의 축과 같으니 還歸本處하라고 한다. 이를 정리하면, 한 법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이며(不捨一法是中), 한 마음도 산란하지 않는 것이 도라고 하였다(一心不亂是道), 즉 월산스님의 中道禪이란 자신의 근기에 따라 최적의 수행방법을 선택하여 不捨一法과 一心不亂으로 용맹정진하는 수행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IV. 바다 실크로드의 결실-토굴, 석굴수행, 청도 적천사 토굴

월산스님의 선수행은 단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도 적천사 토굴에서 큰 체험을 한 스님은 회향을 토함산 석굴암과 불국사에서 회향한다. 이러한 회향은 바로 달마대사의 소림굴과도 같으며, 석굴암은 실크로드의 결실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바다의 실크로드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황순일은 해상 실크로드로 테라와다불교가 전파되었다고 한다. 이를 요약하면, 인도에서 부처님법이 전래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다. 구법자들의 목숨은 건 구도행

각도 있었지만, 불법을 전파하기 위하여 언어와 문자가 다른 이국으로 떠나 전법한 선지식들도 많이 있다. 특히 남방 쪽으로 간 소승불교는 바다를 이용한 해상 길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길은 단지 불법을 전파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무역로로 활용된 것을 구법승이나 전법승들이 불법을 전파하는데 이용하였던 것이다. 소승불교의 전파길인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주로 바다의 실크로드를 이용하였다.³⁸⁾

그런데 육로로는 초원의 실크로드와 사막의 실크로드가 있다. 이 두 실크로드의 교통수단은 말과 낙타이다. 특히 초원의 실크로드에는 기마민족을 중심으로 말이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고, 사막의 실크로드에서는 낙타가 중심이 되고 말도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크로드는 무역의 교역도 있었지만 여기에 못지않게 종교와 문화의 전파도 중요한 역할중 하나이다.

정수일 박사는 『문명의 루트 실크로드』에서

기원전 3세기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이 실론을 비롯한 3대륙에 공식 포교단을 파견 함으로써 불교의 전파가 시작 되었다. 성공적인 실론 전파에 이어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 불교는 서역지방을 거쳐 동북아 일대로 확산되었다. 불교는 주로 오아시스 육로를 통해 파미르 공원을 중심으로 한 서역 일원으로 부상한 후 동쪽으로 전해져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 까지 전파되어 최대의 동북아 불교권을 형성하였다.

1천여 년 간에 걸친 불교의 아시아 전파는 실크로드의 3대 간선은 물론, 佛陀路나 라마로 같은 지선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³⁹⁾

그는 실크로드를 통한 불교문명의 전파에 대하여 바다의 실크로드와 오아시스의 실크로드를 말하고 있다. 해로로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말레이시아반도, 자바 등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9세기경에 티베트 등 히말라야 산속을 중심으

38) 황순일 저, 『테라와다불교의 동남아시아 전파』, 「해상 실크로드」,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출판부, 1990, pp.23-29.

39) 정수일 저, 『문명의 루트 실크로드』, 효형출판, 2002, pp.94-95.

로 밀교가 전래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1천년동안 불교의 전파는 초원, 사막, 바다의 3대 실크로드를 통하여 전해졌으며, 이를 佛陀路라고 하였다.

그는 실크로드의 백미로 석굴암을 말하고 있다.

토함산 자락 해발 565m에 자리한 석굴암은 불교석굴의 연파(延播)선상에서 피어난 한 떨기의 꽃이다. 문명의 전파에는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연파와 여기저기 점점이 이루어지는 점파(點播)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중 연파는 전파의 연속성이 보장된 가장 확실하고도 효과적인 형태다. 인도에서 간다라미술과 융합되어 고유의 석굴미술을 구비한 채 출발한 불교석굴은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석불군, 우즈베키스탄의 테르메스 석굴, 중국 신장의 키질과 쿡투리 석굴, 투르판의 베제클리 석굴, 둔황과 뤼양, 원강의 석굴, 그리고 신라의 군위 삼존석굴 등 수많은 대소 석굴들로 이어짐으로써 동서에 걸친 하나의 긴 연파대를 조성했다. 석굴암은 이 연파대의 동쪽 끝에서 가장 완숙된 모습으로 그 대미를 장식한 석굴이다.⁴⁰⁾

이미 알려진 일반적인 학설이긴 하지만 정일수는 석굴암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인도의 간다라미술과 융합되어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석굴, 우즈베키스탄의 테르메스 석굴, 투루판 석굴, 둔황 석굴, 원강 석굴 등과 연결된 연파형 석굴의 마지막 백미라고 한다. 특히 다른 석굴들은 대부분 암석을 파고 들어가서 이루어진 석굴이지만, 토함산의 석굴암은 창의성을 발휘하여 외부에서 부분적으로 화강석에 조각하여 산에 굴을 파고 이를 조립하여 흙을 덮은 미증유의 시공법을 도입했다고 한다.⁴¹⁾

앞에서 불교학과 밀교의 전파에 대해서는 살펴보았다. 이어서 선불교의 전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선불교의 전래는 보리달마에서 시작되고 있다. 「景德傳燈錄」菩提達磨章에 의하면,

제이십팔조 보리달마는 남인도 향지국의 셋째 왕자이다. 종성은 剎帝利이고, 본명은 菩提多

40) 정수일 저, 「문명교류의 화신 석굴암」, 『한국속의 세계』(하), 창비, 2005, pp.26-27.

41) 위의 책, p.22.

羅이다. 후에 제이십칠조 반야다라를 만났다. (반야다라는) 본국에 이르러 왕한테 공양을 받고 보리다라[師]의 비밀스런 자취를 알고서 두 형들과 함께 시험 삼아 보시 받은 보주에 대하여 변론하게 하였는데, (이로써 보리다라는) 마음을 깨달았다. 그러자 이에 존자가 말했다.

그대는 이미 제법에 통달하였다. 대저 達磨란 通과 大의 뜻이다. 마땅히 이름을 達磨라고 해라.

이로써 보리달마라고 이름[號]을 고쳤다. 이에 달마는 반야다라 존자에게 고하여 말했다.

제가 이미 법을 얻었습니다. 장차 어느 나라로 가서 불사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바라건대 개시를 내려주십시오.

존자가 말했다.

비록 그대가 법을 얻었지만 멀리 유행해서는 안 된다. 잠시 남천축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나의 열반을 기다렸다가 이후 67년이 지나면 반드시 震旦으로 가서 大法樂을 시설하여 상근기를 직접 접화하라. 결코 너무 빨리 가서 햇빛에 시들어서는 안 된다.⁴²⁾

보리달마는 인도 향지국의 셋째왕자였다. 그의 스승은 27조 般若多羅존자였고, 그에게서 법을 받았다. 그는 반야다라가 입적한 후 인도에서 중국으로 갈 것을 스승으로부터 부촉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남인도의 香至國은 지금의 남인도 첸나이 인근이라고 한다.

논자는 2016년 3월 19일에서 26일까지 첸나이에 있는 힌두스탄 대학과 동국대학교의 교류협정관계로 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안나 대학도 방문하였다. 그리고 아잔타 석굴, 엘로라 석굴 등을 참배하고, 뭄바이까지 순례한 일이 있었다. 이 순례도중 3월 22일 달마대사의 고향이라고 알려진 캄치프람의 달마대사 사찰을 방문하여 주지인 스마다하스 스님과 불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달마대사의 석상을 조성하고 있는 조각회사까지 방문하였다. 이 주변에는 고대 불교유적지가 많았고, 2세기경의 팔라와왕조 때 조성한 불상으로 추정되는 곳도 참배하였다.⁴³⁾

42) 「景德傳燈錄」 권3, (대정장51, 217a), “第二十八祖菩提達磨者。南天竺國香至王第三子也。姓刹帝利。本名菩提多羅。後遇二十七祖般若多羅。至本國受王供養。知師密迹。因試令與二兄辨所施寶珠。發明心要。既而尊者謂曰。汝於諸法已得通量。夫達磨者通大之義也。宜名達磨。因改號菩提達磨。師乃告尊者曰。我既得法。當往何國而作佛事。願垂開示。尊者曰。汝雖得法未可遠遊。且止南天待吾滅後六十七載。當往震旦設大法樂直接上根。慎勿速行衰於日下”

향지국의 국왕은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는 여정의 준비를 잘 해주었다. 왕은 큰 배를 마련하여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는데 3년 동안 먹을 식량과 필수품을 가득 실어 보내면서 전송을 하였다고 한다.

왕이 곧 큰 배를 마련하여 갖가지 보배를 가득 채우고, 몸소 시료들을 거느려 해변까지 나가서 전송하였다. 달마대사는 바다[重溟]를 떠다니며 무릇 3년 동안 추위와 더위를 겪다가 남해에 도착하였는데, 그때가 梁의 普通 8년 정미년 9월 21일이었다.

광주의 자사 蕭昂이 主禮가 되어 영접하고 武帝에게 보고[表]를 드렸다. 황제가 보고[奏]를 살펴보고 사신을 파견하여 조서를 보내 迎請하자, 10월 1일 金陵에 도착했다.⁴⁴⁾

달마대사가 인도의 향지국에서 배를 타고 3년간 항해를 하여 중국에 도착한 것은 바다의 실크로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달마대사는 禪法을 전하기 위해 인도에서 배를 타고 험난한 바닷길을 통하여 중국에 왔다. 따라서 禪法은 바닷길을 이용하여 전래되었다. 그의 바닷길은 험난하였으며, 추위와 더위를 겪고, 파도와 싸우면서 3년 만에 중국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바다의 실크로드의 전법도 간단하지는 않다.

그는 금릉에서 武帝를 만나 법담을 나누었으나 마음이 기연에 계합하지 못함을 알고 혼자서 자리를 떠났다.

嵩山の 少林寺에서 머물면서 면벽하며 종일토록 묵연히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그 행위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를 壁觀婆羅門이라고 불렀다.⁴⁵⁾

달마대사는 무제와의 문답에서 인연이 아님을 알고 승산 소림사의 소림굴에서 오로지

43) 정토사 「万日念佛結社」 21호, 정토사, 2020.6.6, p.81.

44) 「景德傳燈錄」 권3, (대정장51. 219a), “王即具大舟實以眾寶。躬率臣寮送至海壖。師汎重溟凡三周寒暑達于南海。實梁普通八年丁未歲九月二十一日也。廣州刺史蕭昂具主禮迎接。表聞武帝。帝覽奏遣使齎詔迎請。十月一日至金陵”

45) 위의 책, (대정장51. 219b), “寓止于嵩山少林寺。面壁而坐<座?>終日默然。人莫之測。謂之壁觀婆羅門”。

面壁觀에 전념하였다. 그를 찾아 온 神光을 만나 慧可라는 불명을 주면서 正法眼藏涅槃妙心を 전하였다. 27대 반야바라의 법을 받은 28대 달마대사의 법은 29대 혜가에게 전해졌다. 달마의 壁觀에 대하여 柳田聖山은 『ダルマ』에서 ‘壁을 觀하는 것이 아니라, 壁이 觀하는 것이다’고 하면서 “벽을 관한다”라는 것은 『傳燈錄』의 달마전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한다. 그는 ‘달마의 벽관은 石窟寺의 벽면을 장식하는 千佛의 부처가 부처를 보고, 佛佛相念의 모습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壁觀이라고 하는 발자취는 千佛洞의 벽이 사막을 넘어서 온 호승 달마를 관한 것으로부터 시작 된다’고 한다.⁴⁶⁾

또한 柳田聖山은 선불교의 탄생에 대하여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민족은 하나의 독자의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켰다. 그것은 일찍이 인도의 불교도 중국고래의 종교와도 다른 새로운 중국사상의 탄생이라고 한다. 달마를 조사로 하는 禪宗의 발생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⁴⁷⁾ 柳田聖山の 달마의 面壁觀의 해석과 천불동과 석굴사원의 연계성은 새로운 학설이며, 달마의 선종이 중국불교의 새로운 탄생으로 보는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중국불교의 새로운 탄생인 선종은 바다의 실크로드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柳田聖山の 달마의 벽관에 대한 재해석은 인도나 중국의 석굴사원서만 아니고 우리나라 토함산 석굴암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중앙의 석불을 중심으로 둥근 석굴벽면에는 10대 제자·관세음보살·문수보살·보현보살 등이 벽면에 서로 둘러서 마주보고 있다. 이는 唯佛與佛의 경지로써 부처와 부처만이 서로 주고받는 以心傳心の 正法眼

46) 柳田聖山 저, 『ダルマ』, 일본 동경 講談社, 昭和56年, pp.84-85, “ダルマの教えの基本となる實踐を, 壁觀とよぶ. 壁觀とは, 壁が觀るのである. 往往にして, 壁を觀ることと混同されて, ダルマは終日, 壁に向かって坐禪していたとか, 九年面壁したとかいわれる. 誤解はすでに古く唐代にさかのぼる. 『傳燈錄』のダルマ傳に, 「嵩山少林寺に寓止し, 面壁して坐して終日黙然たり, 人は之を測る莫く, 之を面壁バラモンと謂う」, とあるのがそれである. 昔も今も, ダルマの壁觀の正體を測る人はいないのである. しかし, 壁觀は壁を觀ることではない. ダルマは, 西域を通過して北魏にくる. 西域に點在する千佛洞は, ダルマのあしあとにほかならぬ. ダルマの壁觀は, 石窟寺の壁面を飾る千佛の, 佛が佛を見る, 佛佛相念のけしきをはなれてはありえない. 壁觀という言葉は, 千佛洞の壁が, 流沙を越えて來た胡僧ダルマを觀たことから始まる.”

47) 위의 책, p.80, “この時以來, 中國民族は一つの獨白の新しい宗教を生む. それは, かつてのインドの佛教とも中國古來の宗教ともちがう, 新しい中國思想の誕生といえた. ダルマを祖とする禪宗の發生は, その延長線の上にある.”

藏涅槃妙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국 초기선종사인 『祖堂集』도 바다의 실크로드와 연관성을 지어 볼 수 있다. 『조당집』은 952년 五代시대인 南唐 泉州의 招慶寺에서 편찬 되었다. 천주는 지금 福建省의 무역항으로 국제교류가 활발한 도시였다. 특히 여기서 8기로 정도 떨어진 晉江변에는 신라원이 있어서 신라에서 내왕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며, 신라원에는 신라스님들도 거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과거칠불부터 당말 오대까지의 선사 253명의 행적과 법어, 계송, 선문답이 실려 있고, 신라선사들도 10여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을 편찬한 사람은 靜과 均의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柳田聖山은 ‘두 분 모두가 조선에서 입당한 승려가 아닐까라’고 한다.⁴⁸⁾ 그러나 변인석은 靜은 중국승려이고, 均은 해동구법승으로 보고 있다.⁴⁹⁾ 그런데 이 선종서가 중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려 고종 32년(1245)에 再彫大藏經 補板에 편입되어 있다. 이때 서문을 쓴 사람은 석광준(釋匡僞)으로 되어 있으나 그의 행적을 찾을 수 없다. 아마도 천주에서 신라인들에 의해 편찬된 선종서가 중국에서는 크게 호응을 받지 못했으나 고려에서는 귀중하게 여겨서 재조대장경 보유판에 편입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전등서는 50년 뒤 『경덕전등록』의 편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선불교도 바다의 실크로드로 전해졌으며, 그 증거는 구산선문의 유학승이 대부분 서해바다를 이용하여 구법이 길을 떠났고, 귀국 시에도 바닷길을 이용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실크로드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석굴암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달마대사가 바다의 실크로드를 통해 선법이 전해졌고, 천불동도 달마의 벽관과 연관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석굴인 석굴암에서 월산스님은 정진하였고, 이를 펴기 위해 불국선원을 개원한 것이다. 특히 월산스님은 청도 적천사 토굴에서 수행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석굴암에서 용맹정진 하였음을 볼 때 달마

48) 柳田聖山 저, 대승불교 13, 『조당집』, 일본 동경 中央公論社, 1990, p321.

49) 변인석, ‘한국선승 10인전기 『조당집』에 처음부터 수록’ 『법보신문』 2014.7.30.

의 소림굴의 수행과도 유사점이 있다고 유추해 볼 수도 있다.

V. 맺음말

이상으로 월산스님의 중도선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첫째는 월산스님의 화두는 ‘이 뭇고’ 화두가 중심이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크게 분류하면 전문선원의 수좌들을 위한 실참지도법과 재가자를 위한 근기에 맞는 지도법에 차이가 있다. 수행자의 見處를 표현하는 방법인 계송작송법과 守本眞心인 自心を 밝히고, 중생구제로 회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는 월산스님은 자신의 중도관적인 입장에서 선원대중들이 수행할 것을 설하고 있다. 스님의 중도적인 수선방법은 화두에 전념하되 양변을 버리고, 자신의 근기에 따라 중도적 입장에서 頓漸修行을 하라고 하였다. 월산스님의 中道禪이란 자신의 근기에 따라 최적의 수행법을 선택하여 ‘한 법도 버리지 않는 것이 中이고, 한 마음도 산란하지 않는 것이 道이다’고 한다.

셋째는 실크로드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석굴암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달마대사가 바다의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와서 소림굴에서 선법이 전해졌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석굴인 석굴암에서 월산스님은 정진하였고, 이를 펴기 위해 불국선원을 개원한 것이다. 특히 월산스님은 청도 적천사 토굴에서 수행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석굴암에서 용맹정진 하였음을 볼 때 달마의 소림굴의 수행과도 유사점이 있다고 유추해 볼 수도 있다.

「월산 큰스님의 중도선사상 (2)」에 대한 토론문

성웅 - 불국사 부주지

본 논문은 월산스님의 선사상에 대한 보광스님 논문의 제2편으로 전편에 대한 계승 내지 보완의 의미가 돋보인다. 논자의 말처럼 전편에서는 수행의 실참방법에 대한 것이 중심이었다면, 본 논문에서는 월산스님 중도선에 대한 교화 및 실천의 측면에서 실제로 적용되었던 점을 고찰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논자에 따르면 본 논문의 구상은 다음과 같다.

주제는 「월산 큰스님의 중도선사상」에 대한 것이다. 곧 중도의 개념에 대한 것, 그리고 중도의 개념을 선수행에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주요한 자료는 불국선원에서 결제 및 해제 때의 선원법문과 기타 등이 해당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 중도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수행지도 방법을 그 대상에 따라 출가수행자 및 재가자로 나눈다. ② 중도관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③ 월산스님의 선사상과 달마선의 관련성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논자의 구상에서 ③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과성이 희박하다. 다만 달마선과 월산스님의 중도선의 합치점을 도출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내용의 요약>

Ⅱ. 선수행지도 방법 :

① 출가자에 대하여 실참지도법을 고찰하고 있다. 여기에는 월산스님의 법어집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선원에서 수행자들에게 계송작법을 가르치고 있다.

둘째,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중시하고, 외연과 내연을 그치라고 하며, 卽心卽佛이기에 守本眞心은 바로 自心이고, 계율을 중시해야 한다.

셋째,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라. 현재 선원의 폐단을 지적

넷째, 조사관을 투철하려면 대의심, 대분심, 대신심을 내라.

다섯째, 줄탁동시의 준비가 되어야 하고, 항상일로로 공부하여 향하일로의 중생구제를 회향하라.

② 재자가에 대한 참선 지도법

기념일의 법어에서 시의적절한 화두를 제시하고 그것을 생활선으로 승화시켜야 함을 고찰하고 있다.

Ⅲ. 월산스님의 중도선사상 :

① 중도관에 대해서는 월산스님이 말한 중도 개념을 초월하되 여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② 중도선에 대해서는 중도의 이치를 설명하고 그것을 선수행의 실천에 적용하고 있음을 고찰하고 있다. 첫째는 돈오점수에 대한 중도선의 입장이고, 둘째는 중생구제를 위한 還歸本處로서 중도선의 입장이다.

Ⅳ. 바다 실크로드의 결실-토굴, 석굴수행, 청도 적천사 토굴 :

이 대목은 본 논문의 정합성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중도선의 수행과 그 실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월산스님이 수행했던 청도 적천사 토굴과 석굴암 불국사 선원

을 바다의 실크로드의 귀착지인 소림사에 투영시켜 그 重意的인 의미를 대비시킴으로써 불국사 선원의 의미를 강조하려는 포석으로 이해된다.

질문 1.

주석 2)와 관련된 四句·百非와 관련하여 離四句絕百非는 사구를 벗어나고 백비를 단절한다는 의미이다. 사구는 일체의 분별이고, 백비는 일체의 부정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구는 有句·無句·亦有亦無句·非有非無句이다. 백비는 有句·無句·亦有亦無句·非有非無句의 근본사구에 각각 四句가 있어 16가지가 되고, 다시 각각 과거·현재·미래가 있어 48가지가 되며, 다시 각각 苦와 樂이 있어 96가지가 되고, 여기에 근본사구를 합하여 100가지가 된다. 이들 사구와 백비에 대하여 그 판단과 논의를 초월하는 것이 중도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월산스님이 말하고 있는 주석 2)의 인용문의 설명과 차이가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논자의 입장이 궁금하다.

질문 2.

수행의 방식 혹은 수행의 장소 혹은 교화의 방식 등과 관련하여 월산스님의 중도선과 달마선의 접점 가능성 내지 상통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불국선원 건립의 사상적 의미와 특징

김종두(해명) -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 목 차 •

I. 서론

II. 불국선원 건립의 필요성과 건립발원

1. 불국선원 건립의 필요성
2. 월산 대선사의 불국선원 건립 발원

III. 월산큰스님의 해결제법문의 특징

1. 모든 중생의 불성(眞佛)과 수행정진
2. 참된 지혜의 완성으로서 일행삼매(一行三昧)와 중도(中道)

IV. 불국선원의 구조적 특징과 안거

1. 인도의 위하라(vihāra) 석굴사원
2. 중국의 칠당가람(七堂伽藍)
3. 선원안거 대중의 특징

V. 결론

I. 서론

불국사는 신라시대에 조성되어 지금까지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면서 우리에게 문화적 자긍심과 불교의 진리를 설파해주는 성지로서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불국사의 경내에 있는 불국선원은 월산 큰스님의 원력과 발원으로 이루어진 수행처이다. 월산큰스님은 선교율(禪敎律)에 정통하시면서 철저한 간화선수행과 지혜의 안목을 갖추시었고 이사(理事)에 원융무애한 명안종사이셨다.

큰스님은 모든 사람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차등이나 차별 없이 대하셨고 그래서 소중하고 존귀하며 열심히 수행하여 성불할 것을 강조하시었다. 그래서 진정한 인간존중의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셨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신 것은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면서 계로써 스승을 삼아야(以戒爲師) 한다고 하였고, 또한 계율이 있기 때문에 모든 비구들이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였다. 그러면서 공부를 할 때에는 목숨을 돌보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개인적인 편안함이나 한가함이 아닌 진정한 화두를 타파하기 위하여 정진해야 되는 것을 백 척이나 되는 장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큰스님은 교학공부에 밝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승경전의 공부에 힘써야 한다고 하시었다.

실제로 큰스님은 선사상(禪思想)에 정통하시면서도 교학의 깊이도 대단하시었다. 『유마경』의 불이법문(不二法門)을 좋아 하시었고 『문수설반야경』의 일행삼매(一行三昧)와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과거전생에 상불경보살(常不輕菩薩)로 수행하고 있었을 때, 모든 중생을 향하여 '나는 당신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처님이십니다.'라는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모두가 다 이렇게 인욕보살로서 살면서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여기면서 수행하면 궁극적으로 성불하게 된다는 말씀도 하시었다.

그리고 많은 대승경전들을 공부하면서 그 경전의 언어적 표현에 매이거나 집착하게 되면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중론』의 사구(四句)의 논리도 설파하시면서 중도(中道)의 이치를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선가(禪家)에서 수행의

정진과 가르침으로 활용하는 다도(茶道)의 이치를 조주스님의 깍다거(喫茶去)를 통해서 평상심의 마음이 진리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다 언급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내용을 모든 대중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려고 하는 큰스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뜻을 가진 큰스님께서 어떻게 불국선원을 만드시고 수행자들을 지도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불국선원이 만들어져야만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은 월산큰스님께서 불국선원을 건립하신 과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이후 불국선원의 구조적 특징과 사상적 연원, 결제와 해제 법문 그리고 방함록 등을 살펴보고 불국선원이 어떠한 사상적 특징과 역사를 가지고 조성되었는가를 논구해 보고자 한다.

II. 불국선원 건립의 필요성과 건립발원

1. 불국선원 건립의 필요성

불국사의 설선당(說禪堂)과 심검당(心劍堂)은 경을 강론하고 좌선을 하는 곳이다. 그리고 태인이 1749년에 중창한 광명당선실(光明堂禪室)도 좌선을 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불국사 창건 이래로 지금까지 그 정확한 위치를 알기가 어렵다. 대체로 신라나 고려 때에는 이런 이름의 건축물이 없었고 조선중기에 나타나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구산선문이 형성되고 남종선이 보급되면서 신라와 고려시대에 서서히 선이 알려지면서 전문적인 수행처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그런데 그 좌선을 하는 곳을 어떻게 지정하고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는 알기가 어렵다 이것은 불국사에서조차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설선당과 심검당, 그리고 광명당선실의 이름을 통해 살펴봤을 때 분명히 조선중기 이전부터 선수행이 면면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와 신라 중대인 8세기 중엽까지는 미륵신앙, 정토신앙, 밀교신앙, 법화신앙, 삼론학, 유식학, 화엄학 등 대승불교의 여러 신앙과 교학이 고르게 발전하였다. 그러다가 점차로 화엄교학이 성행하여 전국에는 화엄십찰(華嚴十刹)을 위시해서 화엄도량이 보편화하였다.

그러나 신라 하대에 이르러서 화엄학이 쇠퇴하고 당대(唐代)의 조사선풍(祖師禪風)이 수용되었다. 당시의 조사선풍은 신조류를 이루어 당에 가서 조사선법을 인가받고 귀국한 선사에게 대한 신뢰와 기대가 매우 높았다. 그리하여 전국에 걸쳐 여러 선찰이 개창되었다. 이렇게 개창되기 시작한 선찰은 신라 하대와 고려 초기에 가장 많이 건립되었으며, 고려 중, 후기에도 간헐적으로 건립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선종사찰을 구산선문(九山禪門)으로 불렀다. 조선시대에는 독립된 선찰은 없었으나 신라, 고려와는 달리 대찰에는 반드시 선당(禪堂)이 배치되었으며 산중의 사암에 소규모의 선우(禪宇)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걸쳐 건립된 선원은 그 위상과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고 큰 것이었다.¹⁾

특히 조선시대의 선원은 대찰에서 선원이 수행의 당우(堂宇)로 위상을 지키어 전체의 사격을 높여주었고, 산중의 사암에서는 선우(禪宇)가 법난시대에 법등을 이어주는 법연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선원의 위상과 역할은 한국불교사와 한국문화 속에

1) 첫째, 선원은 수행과 교육의 도량이었다. 선원에서는 구법대중이 운집하여 노역(勞役)과 좌선의 실천으로 수행을 연마했다. 수행도량으로서의 선원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선원에서는 상당법어(上堂法語), 입실참문(入室參問), 수시문답(隨時問答), 담선법회(談禪法會), 총림법회(叢林法會) 등을 통해서 중생의 미혹함을 깨우쳤으니, 이것은 특수한 방법의 훌륭한 교육행위였다. 둘째는 국가의 중요한 원찰(願刹)이었다. 한국의 역대 선찰에서는 국왕의 수명과 선왕의 명복을 위하여 불상을 조성하고 탑을 건립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신라 선찰의 주변에는 사방에 경계를 정하여 금살당(禁殺幢)을 세워서 사냥을 금하게 하고 특수영역으로 보호한 예도 적지 않았으니 이것은 국가의 원찰도량으로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고려의 선찰에서는 북벌의 침입을 막기 위해 담선법회를 격년제로 열었는데 담선법회가 중요한 호국적 염원이 담긴 행사였다. 선찰을 호국의 도량으로서도 중요시 되었다. 셋째는 국민의 복지(福地)였다. 한국의 명산에는 어디에나 보찰(寶刹)이 있고, 보찰은 항상 국민이 수명과 복을 기원하는 도량이었다. 이것은 선찰도 다를 바가 없었다. 복을 닦고 죄를 멸하는 것은 일반 사찰뿐만 아니라 선찰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이행해 왔다(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선원총람』, 「선원의 역사」, 불교시대사, p.76).

서 길이 주목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²⁾

아울러 신라시대 창건이후 불국사는 수많은 중수와 중창을 거듭하였다. 특히 18세기 말에는 중수가 집중되어 웅장한 가람을 지닐 수 있었다.³⁾ 1740년(영조 16) 동은(東隱)이 편찬한 『불국사고금역대기(佛國寺古今歷代記)』에는 가람을 5개 구역으로 구분하였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17개의 전각과 회랑, 극락전을 중심으로 11개의 전각, 비로전 일대에 3개, 관음전을 중심으로 7개의 문루(門樓)와 전각, 지장전을 중심으로 9개의 전각과 누각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⁴⁾ 그리고 이 외에 위치를 알 수 없는 건물을 언급하고 있다.⁵⁾

오백성중전(五百聖衆殿, 32칸), 천불전(天佛殿, 25칸), 시왕전(十王殿, 5칸), 십육응진전(十六應眞殿, 5칸), 문수전(文殊殿, 5칸), 동당(東堂, 4칸), 서당(西堂, 4칸), 동별실(東別室, 5칸), 서별실(西別室, 5칸), 청풍료(淸風寮), 명월료(明月寮), 영빈료(迎賓寮), 객실(客室), 왕자문설선당(王子問說禪堂), 심검당(心劍堂).

이러한 것들은 조선의 선조26년(1593)에 이곳에 침략한 왜병들이 불국사에 불을 질렀을 때까지 건립되었던 모든 건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불국사 창건 당시의 규모를 정확한 기록의 부재로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불국사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와 석불사(石佛寺)의 정교함과 그 크기를 보아도 아마 상당히 큰 가람으로 창건되었다고 보여진다.⁶⁾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1604년 관음전 중건의 시작으로 1659년 대웅전의 건립으로 재

2)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선원총람』, 「선원의 역사」, 불교시대사, 2000, pp.75-76.

3) 이강근, 「佛國寺의 목조건물과 修理·復原의 역사에 대한 연구」, 『경주문화연구』 7, 2000, pp.3-5.

4) 『佛國寺古今創記』,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6, pp.271-286.

5) 그런데 이상과 같이 언급한 모든 시설들이 과연 창건 당시의 것으로 속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창건 당시를 전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후대에 첨가하고 증축된 부분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으리라 추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불국사고금역대기』의 이 부분 기록을 보면 글씨도 일정하지 않고 크기도 달라서 후대의 가필(加筆)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임진왜란 이전의 장엄(莊嚴) 모두를 기록하여 오늘에 전해준 것으로 생각된다(한국불교연구원(1974), 24).

6) 한지훈, 「佛國寺 構造에 나타난 密敎的 要素 研究」,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5, pp.11-12.

건 공사가 일단락되었다. 그 후 실시한 공사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보수 및 단청 공사가 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100여 년간의 공사가 원래의 가람 구조를 제대로 복원한 것은 아니었다. 1729년 도승(道僧) 태인(太仁)이 호남으로부터 와서 보고 “절의 규모가 서역의 불국을 모방하기는 하였으나 깨끗하고 더러운 곳, 성스러운 곳과 범속한 곳을 구별하지 않아서 질서를 잃었다고 개탄하면서 3곳의 요사채를 경루 밑으로 옮겼다”는 기록으로 보아 승방이 불전 구역에 함께 배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태인은 1749년에 광명당선실을 중건하고 1765년에는 대웅전을 중창하였다. 이때 그는 호남의 승려 18인을 불러 모아 영남의 승려 10여 명과 함께 대웅전 중창 공사를 벌였다. 이때 명부전(1759년), 적광전(1768년), 자하문(1781년) 등이 함께 중창되고 불국사는 비로소 옛 모습을 복구하였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⁷⁾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왕자문설선당과 심검당이다. 이것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한 설립시기와 연대를 알 수 가 없다. 그리고 이 두 건물은 건축구조상 조선시대의 건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재 심검당과 설선당이 남아 있는 사찰은 영천 은해사(1264년 중창)인데 이 심검당은 대웅전 앞 동쪽에 있다. 큰 대중 방 뒤쪽에 부엌과 채공소를 ㄱ자로 꺾어 붙이고 북쪽에 작은 승방채가 접속되어 이루어진 ㄷ자 평면의 내정 동쪽에 따로 2층 목조 고루가 배치돼 전체적으로 트인 ㄱ자 형의 후원이다. 고루 북쪽 끝에서 다시 객실동을 ㄱ자로 꺾어 붙여 하나의 거대한 승료(僧寮)가 되었다. 설선당은 심검당과 앞뜰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내소사는 대웅보전의 좌측에 설선당(1640년 건립)이 있고 선암사에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심검당과 설선당이 배치되어 있다. 마곡사(1651년 중건)의 심검당은 대광보전의 노전, 또는 대방으로서의 역할을 겸하는 규모가 큰 요사로서 대광보전보다 조금 아래쪽 동편에 광장과 면하여 위치하고 있다. 장곡사의 설선당은 하대웅전(보물 181) 왼쪽에 있으며 조선 중기에 건립되었다.⁸⁾

7) 장지정, 「제3. 4공화국의 문화정책과 불국사 복원 과정을 통해 본 문화재 보존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14, pp.45-46.

대체적으로 조선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심검당과 설선당은 대웅전의 왼쪽과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선방과 강당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불국사고금역대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곳은 다른 사찰로 보면 대웅전의 좌우에 있어야 하는데 불국사에는 그 곳을 찾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신라시대에 만들어지고 임진왜란 이후 수많은 중건과 중수를 거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불국사에서는 전문적인 선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월산 대선사의 불국선원 건립 발원

1974년 초에 불국사 주지로 부임한 월산 대선사께서는 마무리 되지 않은 불국사를 복원하는데 온 힘을 기우렸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경주관광단지 발전 계획을 세우고 불국사와 석굴암의 복원 및 보문단지의 개발 계획을 직접 진두지휘하였다. 특히 박정희 정부는 불국사의 경내지를 중심으로 대웅전, 회랑 등 담장 안만을 복원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이때 불국사의 경내지는 약 3만여 평으로 그 속에는 승당이나 수행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월산 대선사의 생각은 달랐다. 정부에서는 대웅전, 무설전, 관음전 등 전각이나 회랑을 복원하여 관광 사찰로써의 모습을 갖추려고 하였지만, 대선사께서는 사찰은 관광지가 아니라 수행과 신행도량임을 중시하였다. 정부의 관심 밖인 수행처인 승당과 선원, 강원, 요사채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불국사의 진정한 복원은 수행처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력을 세웠다. 평생을 참선수행하고 전국 각 선원에서 오랜 정진을 한 월산 대선사께서는 무엇보다 선원건립의 원력이 첫 번째 불사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원력은 정부의 불국사 복원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은 황룡사와 왕궁 등을 복원하여 경주를

8) 박현정, 「사찰요사(要舍)의 특성과 변화에 관한 고찰」,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2008, pp.51-65 참조.

세계적인 문화유적지로 방문자들에게 손색이 없는 문화복합도시계획을 수립하라고 문화관광부에 지시를 하였다. 신라천년 고도인 경주를 관광사업화 하여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불국사, 석굴암의 복원과 함께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보문단지개발도 시작하였다. 즉 해외나 국내관광객이 경주에 와서 불국사, 석굴암을 참배하고, 보문단지에서 레저를 즐기면서 숙박하도록 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므로 박정희 대통령이나 문화관광부에서는 경주개발계획 및 보문관광단지개발을 하고 불국사, 석굴암의 성역화 사업도 병행하여 진행을 하였다.

따라서 월산대선사께서는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불국사의 복원과 관계없이 경내지 담장 밖의 토지 구입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이러한 불사는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불국사 독자적으로 진행할 것을 발원하였다.

그러나 경내지에는 이러한 시설을 건립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경외지인 주위를 살펴본 결과 포도나무 등 과실수를 심어놓고 농사를 짓는 집에 관심을 가졌다. 농막과 같았지만, 부부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농막과 전답을 구입하였다. 전답에는 소나무 등 숲이 무성하였고, 진입로조차도 없는 맹지였다. 먼저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선원본당, 요사채(조실실), 후원채, 화장실 등을 건립하였다. 불국선원 불사는 1974년 가을에 시작하여 1975년 말경에 회향하였다. 선원불사에는 많은 경비가 필요하였다. 초기에는 3억 원 정도로 예상한 것과 달리 약 7천만 원으로 마무리 하게 되었으며, 선원건립불사에는 행정 절차상에 많은 난관이 있었다. 당시 상좌인 성타스님, 종상스님, 종우스님 등은 은사인 월산대선사의 선원건립불사에 대한 큰 원력을 성취하여야겠다는 일념으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난관을 하나하나씩 어려움을 무릅쓰고 해결하여 오늘의 불국선원을 완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월산대선사께서는 경내지 3만평을 5만평으로 확장하여 전체를 담장으로 도량을 정비하였다. 이어서 일주문과 사천왕문을 건립하고 사천왕상을 새로이 조성하여 봉안하였으며, 선원과 강원 요사채도 마무리 하였다. 이로써 신라대가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천년이 넘는 문화유산 사찰임과 동시에 수행과 포교의 신행도량으로 일신하게 되

었다. 그 후 전 대중이 이어서 불국사문화회관, 불국유치원, 성림어린이집, 경주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성림요양원, 성림문화재연구원, 불국사복지재단, 원효재단, 경주선원 등을 건립하여 원만히 운영을 하고 있다.

불국선원은 사부대중이 함께 동참하여 원만히 불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불국사는 수행과 신앙의 귀의처인 불교 본래의 기능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는 문화재사찰의 인허가의 어려움과 불사비 화주 등 난관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작불사를 무사히 회향할 수 있었던 것은 월산대선사의 초지일관된 대원력과 사부대중의 노력이 함께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난한 과정을 살펴보면, 월산대선사의 원력과 종상스님의 은사에 대한 지극한 효심이 어울려져 불보살의 가피가 내려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불국선원 건립과 도량정비의 어려움에 대한 자료는 문도들이 모인 가운데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정리하였다.⁹⁾

Ⅲ. 월산큰스님의 해결제법문의 특징

1. 모든 중생의 불성(眞佛)과 수행정진

1) 제바달타(악인)도 성불할 수 있는 악인성불(惡人成佛)

『법화경』은 수기와 비유의 경으로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고 수행하여 성불할 수 있다는 기약의 경이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그 어느 경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인도의 카스트제도나 한국의 노비제도와 같은 비차별적인 인간단면의 참

9) 이 기록은 2021년 6월 28일 오후 6시 제37차 불국사발전위원회 회의장에서 대화한 내용이며, 기림사에서 성타스님, 법달스님, 덕민스님, 종상스님, 종우스님, 정문스님, 보광스님, 운성스님, 종성스님, 종천스님, 성웅스님 등 발전위원 13명이 참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토론한 것을 보광스님이 기록하여 작성하였음. 2차는 정문스님 차안에서 동일 오후 8시경 정문스님과 보광스님이 대화한 것을 기록함. 2021년 7월 23일 보광스님이 초안 정리하였고, 문도스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였음.

혹성을 자비적으로 포용하여 누구나 성불의 길로 이끄는 자애의 경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은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비롯하여 「묘음보살품」 등과 함께 민중의 아픔을 함께하고 쓰다듬으며 고향을 건너게 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 모습은 불국사의 대웅전과 그 앞의 석가탑과 다보탑과 법화전지로 상징되어 신라인의 혼에 영원히 각인되어 있는 구원의 화신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중생의 아픔과 함께하고 고통을 구제해주시는 관세음보살이 함께 있는 불국선원은 당연히 자신의 성불과 더불어 중생구제를 화두로 삼게 된다.

월산큰스님은 결제법문에서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여러 대중들은 그대로가 참다운 부처이니라, 부처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부처도 있고, 가섭도 있고, 조달(제바달타)도 있다. 소 끄는 견우도 있고, 베 짜는 직녀도 있다. 그래서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 즉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본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¹⁰⁾

여기서 심지어 악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제바달타도 성불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시고 있다. 사실 『법화경』에서도 제바달타는 부처님께서 악인의 대명사로 언급하고 있지만 수기를 주는데, 천왕(天王)여래라는 부처가 되어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바달타와 석가모니부처님이 전생부터 오랜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다.¹¹⁾ 이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때 세상 사람의 수명은 한량없었는데, 법을 위하는 까닭에 왕위를 버리어 정사(政事)를 태자에게 맡기고 복을 쳐 선포한 다음, 사방으로 법을 구하였느니라. ‘누가 나를 위하여 대승을 설하겠느냐? 내가 몸이 다하도록 공양하여 모시리라.’ 그때 한 선인(仙人)이 와서 왕에게 말하였느니라. ‘나에게 묘법연화경이라는 대승경이 있으니, 만일 내 뜻을 어기지 않는다면

10) 월산문도회, 『월산선사법어집』, 불국사, 1998, p.100.

11) 차차석, 『다시읽는 법화경』, 조계종출판사, 2010, p.206.

마땅히 설해주리라.’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뿔 듯이 기뻐하며 곧 선인을 따라가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되, 과실을 따고 물을 길고 나무를 하고 음식을 장만하거나 몸으로 그의 침상이나 앉는 자리가 되더라도 몸과 마음에 게으름이 없었느니라. 그 때 이렇게 받들어 모시기를 천 년 동안 하였는데 법을 위하는 까닭에 부지런히 힘쓰며 지성으로 시봉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 (중략) …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 때의 왕은 바로 지금의 내 몸이고, 그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이니라. … (중략) … 모든 사부대중에게 이르노라 제바달타는 이후 한량없는 겁을 지나서 마땅히 성불하리니, 이름을 천왕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며 그 세계의 이름은 천도(天道)이니라. … (중략) …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미래세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묘법연화경의 제바달다품을 듣고 청정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여 의심하지 않는다면, 지옥, 아귀, 축생에 떨어지지 않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 앞에 태어나며 나는 곳에서 항상 이 경을 들으리라.”¹²⁾

사실 부처님을 괴롭힌 제바달타도 성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마음의 미혹을 없애고 수행을 한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어떠한 악인이 라도 반드시 불성은 있는 것이기에, 부처님의 법을 접하여 마음의 표면에 덮여 있던 구름을 걷고 나면, 내면으로부터 진정한 자신, 즉 불성이 찬란히 빛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토록 자세하게 설해주신 불법에 대해서는 말세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큰 구원이라고 이라고¹³⁾ 할 수 있다.¹⁴⁾

12) 『妙法蓮華經』(T9, 34b-35a), “時世人民壽命無量 爲於法故 捐捨國位委政太子 擊鼓宣令 四方求法 誰能爲我說大乘者 吾當終身 供給走使 時有仙人來白王言 我有大乘 名妙法華經 若不違我當爲宣說 王聞仙言歡喜踊躍 卽隨仙人供給所須 採果汲水拾薪設食 乃至以身而爲床座 身心無倦 于時奉事經於千歲 爲於法故 精勤給侍令無所乏 … 佛告諸比丘 爾時王者 則我身是 時仙人者 今提婆達多是 由提婆達多善知識故 令我具足六波羅蜜慈悲喜捨三十二相八十種好紫磨金色 十力四無所畏四攝法 十八不共神通道力 成等正覺廣度衆生 皆因提婆達多善知識故 告諸四衆 提婆達多 卻後過無量劫 當得成佛 號曰天王如來應供正遍知明行足善逝世間解無上士調御丈夫天人師佛世尊 世界名天道 … 佛告諸比丘 未來世中 若有善男子善女人 聞妙法華經提婆達多品 淨心信敬不生疑惑者 不墮地獄餓鬼畜生 生十方佛前 所生之處常聞此經.”

13) 니와노 닛쿄, 『다시읽는 법화경』, 경서원, 1996, pp.270-271.

14) 또한 제바달타의 수기와 신앙은 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악이란 그 절대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죄란 자성이 없는 것이며, 다만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생길 뿐’이라는 『천수경』의 가르침이 그것을 알려준다. 즉 인간들의 약속과 사회적 관습에 의해

결국 『법화경』에서는 비록 제바달타는 악인이지만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불할 수 있고, 나쁜 사람이라도 우리가 친절히 대해주고 공경한다면, 우리자신도 성불할 수 있는 가르침을 제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제바달타는 악인이 아니라 선인으로 볼 수 있는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¹⁵⁾

2) 인간존중의 배려와 상불경보살(常不輕菩薩)

또한 월산큰스님은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 항상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법화경』의 상불경보살의 법문을 설하여 주시었다. 즉,

사람마다 구족한 참다운 부처는(人人具足天真佛)

곳곳에 모습을 나타내 광명을 놓네(處處開現放光明)

이렇게 이 세상은 부처로 가득 찼다. 왜 이들이 다 부처냐? 본래 부처이기 때문이다. 일월이란 아무리 구름이 가린다 해도 일월이 아닐 수 없듯이 비록 그대들이 외면하고 눈을 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일지라도 부처 아닌 자가 없도다.¹⁶⁾

실제 부처님의 과거전생의 상불경보살은 큰 인간을 존중하는 큰 서원을 세웠는데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수행하면서 세웠던 서원이기도 하다. 즉 부처님은 전생 위음왕불(威音王佛) 시절에 비구였다. 위음왕불이 열반하고 상법시대에 그 나라의 비구들은 증상만이 가득하고 큰 세력을 가진 비구가 많았다. 그 때 상불경보살은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들에게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선악이 갈리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과거의 선이 오늘의 악일 될 수도 있으며, 과거의 악이 오늘의 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절대적 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선악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절대적인 선은 열반과 구원뿐이라 말한다. 따라서 절대악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윤리적인 악도 인간이 어떠한 마음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차차석, 『다시읽는 법화경』, 조계종출판사, 2010, p.207).

15) 김종두, 『『법화경』의 신행(信行)에 관한 고찰』, 『한국불교학』, 한국불교학회, 2018, pp.102-104.

16) 월산문도회, 『월산선사법어집』, 불국사, 1998, p.65.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고 감히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다 보살도를 행하여 장차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¹⁷⁾

사람들은 이런 그를 보고 모두 경멸하여도, 상불경보살은 이런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그대들은 보살도를 행하여 마땅히 성불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상불경보살의 서원이다. 부처님이나 위대한 성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일반 중생들이 모두 존중 받을 대상이라는 것이다. 즉 상불경보살은 우리 모든 중생이 본래 청정한 불성(佛性)이 내재되어 있음을 자각시키고자 했던 것이다.¹⁸⁾

또한 상불경보살은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굳게 믿었다. 그의 실천행은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의 불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온 몸을 바쳐 정진하여 공덕으로 부처가 된 것이다. 상불경보살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을 모시고 존경할 것을 가르친다. 모든 인간이 불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임을 믿고 그들을 부처의 길로 이끄는 참다운 법화행자가 되라고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깨워야 하고, 이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더 나아가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이 나와 남을 구제할 수 있는 『법화경』의 가르침이다.¹⁹⁾

월산큰스님은 상불경보살님처럼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불성을 가진 부처로 보시며 수행을 하여 성불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셨던 것이다.

3) 불성과 깨달음의 노래인 『증도가(證道歌)』

월산큰스님은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지고 있고 부처라는 것을 영가현각의 『증도가』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이 영가 현각은 6조혜능의 법을 이은 상수제자로서 하택신희,

17) 『妙法蓮華經』(T9, 50c), “我深敬汝等 不敢輕慢 所以者何 汝等 皆行菩薩道 當得作佛.”

18) 신명희, 『『法華經』에 나타난 禪思想 一考』, 『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5, pp.180-181.

19) 이재수, 『『법화경』에 나타난 인간에 대한 이해』, 『천태학연구』, 천태불교문화연구원, 2016, p.352.

남악회양, 청원행사, 남양혜충 등과 함께 6조문하의 5대 선장 중의 한분으로 손꼽힌다. 영가스님은 내외의 경전에 두루 통달하였고, 본래 천태종 계통으로 『불조통기』 권10에는 천태지관(天台止觀)을 많이 익히고 항상 선관(禪觀)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천태종 제5조인 좌계현랑(左溪玄朗: 673~754)은 스님과 동문이었고 후에 6조문하에서 득도한 후에도 서로 서신 왕래를 하였다.²⁰⁾ 그리고 세키구치 신타이(關口眞大)도 『선종영가집』 등을 분석하여 현각을 천태종의 승려로서 분류하고 최초로 천태종과 선종의 모습이 보인다고 서술하고 있다.²¹⁾ 이러한 현각이 6조혜능을 만나서 일숙각(一宿覺)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 중요한 계기는 차(茶)와 관련이 되어 『조당집』에 잘 서술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²²⁾

월산큰스님은 법문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삼세제불과 천하 선지식과 여기 모인 대중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삼세제불과 천하 선지식은 무엇이 잘나서 부처이고 조사이며 여기 대중은 무엇이 못나서 범부 중생인가?

배움을 끊고 할 일을 마친 한가한 사람은(絶學無爲閑道人)
 망상도 없애지 않고 진리도 구하지 않는다.(不除妄想不求眞)
 무명이라 하는 것도 그 자체가 불성이고(無明實性卽佛性)
 환화공신 그대로가 법신이기 때문이다.(幻化空身卽法身)

너무나도 유명한 영가스님의 『증도가』 첫머리에 나오는 계송이다. 영가스님이 거짓 말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대중들은 그대로가 부처이다. 더 이상 무슨 증명이며, 인가가 필요하단 말인가? 그리고 범부노릇을 그쳐라. 성인공부가 따로 없느니라.²³⁾

20) 불교신문사 편, 『선사신론』, 우리출판사, 1991, pp.75-76.

21) 關口眞大 지음, 혜명 옮김, 『천태지관의 연구』, 민족사, 2007, pp.290-291.

22) 김종두, 「중국 선차(禪茶)의 연원(淵源)에 관한 고찰」, 『한국불교학』, 한국불교학회, 2019, pp.201-202.

23) 월산문도회, 『월산선사법어집』, 불국사, 1998, pp.111-113.

따라서 월산큰스님의 진리관은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중하며 존중과 배려의 대상으로 인자함과 자비심으로 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천한사람일지라도 가볍게 여기거나 천하게 대하지 않고 미래의 부처로 대하여 종국에 수행으로 이끌어서 성불의 길로 인도하심을 알 수 있다.

2. 참된 지혜의 완성으로서 일행삼매(一行三昧)와 중도(中道)

월산큰스님은 결제법문에서 일행삼매의 실천을 강조하시었다. 일행삼매는 양나라의 만다라선(曼陀羅仙)이 천감(天監) 2년(503)에 『칠백송반야(七百頌般若)』를 번역한 『문수사리소설마하반야바라밀경(文殊師利所說摩訶般若波羅蜜經)』 2권(『문수소설경(文殊所說經)』)으로 약칭)과 양나라의 승가바라(僧伽波羅, 460~524)가 천감17년(518)에 번역한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을 근거로 하고 있고 이외에도 『대지도론』에도 기초해서 설해져 있다.

일행삼매라는 명칭은 『대품반야경』의 108삼매 중에 81번째 삼매라고 간단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대지도론』 권 제47에는 일행삼매를 공삼매만을 닦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대품반야경』과 『대지도론』에는 일행삼매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서술되어 있지 않다. 일행삼매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문수소설경』은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²⁴⁾

문수사리가 말하길 세존이시여 어떠한 것을 일행삼매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법계는 일상이다. 연을 법계에 거는 것, 이것을 일행삼매라 이름 한다. 이 일행삼매에 들어가자 한다면 마땅히 먼저 반야바라밀을 듣고 설한바와 같이 수학하여야 한다. 그런 후에 능히 일행삼매에 들어간다. 법계의 불퇴(不退), 불괴(不壞), 부사의, 무애(無礙), 무상을 연하는 것과 같다. 또 일행삼매에 들어가자 하면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혼란한 생각을 버리고 모습에 취착하지 말고 마음을 한 부처님께 두고 명자를 오로지 부르고 부처님 계신 곳을 따

24) 김종두, 『마하지관의 이론과 실천』, 경서원, 2007, pp.275-279.

라 단정히 앉아 능히 한 부처님을 생각 한다. 곧 이 생각 속에서 능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본다.²⁵⁾

여기서 일행삼매란 ‘법계가 한 모습임을 깨닫고 생각을 그 법계에 고정해 멈추어 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일행삼매에 들어가고자 하는 수행자는 그 요건으로 반드시 반야바라밀을 듣고 그 설한대로 수행하여 배운 뒤에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먼저 한적하고 고요한 장소에서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뜻으로는 바깥 경계에 대한 분별망상을 버리며 오로지 일념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 이 가운데 앞의 것은 좌선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요건에 해당되며 일심칭명염불은 정토종에서 수용하기에 충분한 경의 전거를 제시해 준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일행삼매는 선에서는 일심칭명염불 대신 화두를 일심으로 드는 것으로, 그 밖의 다른 종파에서는 일행삼매의 요점을 나름대로 수용하여 발전시켜 온 전거를 제시해 준 것으로 생각된다.²⁶⁾

그래서 일행삼매는 선종의 도신뿐만 아니라 화엄종과 정토종에 있어서도 담란이 처음 『찬아미타불게(讚阿彌陀佛偈)』에 『문수소설경』을 사용하고 있으며²⁷⁾ 도작(道綽, 567~645)의 『안락집(安樂集)』 권하에는 반주삼매와 문수반야의 일행삼매의 뒷 구절을 인용해서 염불삼매로 하고 있다.²⁸⁾ 또 비석(飛錫)의 『염불삼매보왕론(念佛三昧寶王論)』 권하²⁹⁾등에 인용하고 있고 이어 선도(613~681)의 『왕생예찬게(往生禮讚偈)』에서 일행삼매를 오로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일행삼매로서 인증하고 그 의의를 두니 정토종의 입장이 명확히

25) 『文殊師利所說摩訶般若波羅蜜經』(T8, 731a-b), “文殊師利言 世尊 云何名一行三昧 佛言 法界一相 繫緣法界是名一行三昧 若善男子善女人 欲入一行三昧 當先聞般若波羅蜜如說修學然後能入一行三昧 如法界緣不退不壞 不思議無礙無相 善男子善女人欲入一行三昧 應處空閑捨諸亂意 不取相貌繫心一佛專稱名字 隨佛方所端身正向 能於一佛念念相續 卽是念中能見過去未來現在諸佛.”

26) 황금연, 「一行三昧의 淵源과 展開」, 『한국선학』, 한국선학회, 2005, pp.295-297.

27) 『讚阿彌陀佛偈』(T47, 420c).

28) 『安樂集』(T47, 14c).

29) 『念佛三昧寶王論』(T47, 142a), “則文殊所說摩訶般若經云 若人學射 久習則巧 後雖無心 箭發皆中 若人欲入一行三昧 隨佛方所 專稱名字 念念相續 卽於念中 見三世佛 如彼習射 既孰之後 無心皆中 非無念也何耶.”

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³⁰⁾

이상과 같이 『문수소설경』의 일행삼매는 천태의 『마하지관』을 비롯하여 중국불교의 여러 종파에서 특히 자기 종파의 실천행법의 근거로서 널리 주목되고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³¹⁾

월산큰스님은 이러한 일행삼매와 일상삼매를 강조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참된 지혜를 완성하여 온갖 형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미움도 사랑도 없으며 갖지도 버리지도 않으며 이롭거나 손해거나 무너뜨리거나 세우지 않으면 저절로 안락해지기 때문에 일상삼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온갖 곳에 다니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모두가 하나의 마음이 되면 그것이 곧 도량이며 정토가 되니 이를 일러 일행삼매라 한다. 이렇게 닦는 사람은 언하(言下)에서 광명천지를 보게 되리니 따로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다.³²⁾

이것은 참된 지혜로서 얻어지는 진리의 세계를 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로서 증득되는 사상은 중도의 가르침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큰스님은 이러한 중도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³³⁾

불법이란 처음에는 이래도 맞지 않고 저래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모두다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니다. 이것이 이래도 한 방망이를 맞아야 하고 저래도 한 방망이를 맞아야 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여기 한 발자욱을 더 나가게 되면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다. 그러니 이래도 안 때리고 저래도 안 때린다. 이것이 중도의 실상이니 중도는 두 개의 변을 떠나 가운데 머물기 때문이다.³⁴⁾

30) 『往生禮讚偈』(T47, 439a), 정토종의 일행삼매에 대해선 藤原凌雪, 「일행삼매について」(『龍谷大學論集』 제360호, 1959년 2월) 참조.

31) 김종두, 『마하지관의 이론과 실천』, 경서원, 2007, pp.275-279.

32) 월산문도회, 『월산선사법어집』, 불국사, 1998, pp.101-112.

33) 김광식은 월산큰스님의 사상을 선사상과 중도사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선교율을 분리시키지 않고 선이 중심이고 최선이라고 보았지만 교학, 율행을 배제하지 않고 균형적 수행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월산큰스님의 중도사상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월산큰스님의 불교사상, 선사상의 구현에는 중도사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광식, 「월산의 생애와 사상」, 『대각사상』 32집, 대각사상연구원, pp.80-81).

이러한 말씀은 경전에 밝으셔도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많은 일을 하여도 진정으로 그 어디에도 걸림 없는 대 자유인의 심지법문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참된 지혜와 중도의 논리를 알려주신 것으로 생각된다.

IV. 불국선원의 구조적 특징과 안거

1. 인도의 위하라(vihāra) 석굴사원

불국선원의 역사를 조명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총림선원의 연원뿐만 아니라 부처님 당시 인도의 수하좌부터 시작된 수행공간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된다.

부처님 당시의 초기 승가는 사의법(四依法)에 의지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는데 대표적인 주거문제의 해결방식은 수하좌(樹下坐)로 큰 나무 밑이나 동굴, 계곡, 노지, 묘지 등을 의지해서 비바람을 피하며 수행하는 형태였다. 이러한 장소에서도 3일 이상을 머무르지 못하게 했는데 이는 머무는 자리에 대한 애착이 생길 것을 염려해서 생긴 제도이다.

이후 수행자의 수가 늘어나고 빽비사라왕 등 국왕 및 거사, 장자 등이 귀의하면서 상주하며 정진할 수 있는 정사(精舍)가 지어지게 되었는데 죽림정사, 기원정사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³⁵⁾ 이 가운데 기원정사를 건립하는 과정을 기록한 『대반열반경』에는 다음과 같이 정사의 건립을 기록하고 있다.

바닥을 금을 깔고 금이 모자라는 부위는 문루(門樓, 출입 공간)를 세우고 300인이 거처하는 큰방과 선방(禪坊) 63개, 주방, 욕실, 발 씻는 곳, 크고 작은 변소 등을 완비하였다.³⁶⁾

34) 월산문도회, 『월산선사법어집』, 불국사, 1998, pp.232-233.

35) 덕문, 『알면 편하고 행복해지는 것들』, 불교신문사, 2017, p.243.

36) 『大般涅槃經』(T12, 786c), 405년 이후 동진에서 법현이 한역하였다.

이 경전에서는 석가생존 시기의 중심건물은 강당으로 설명되며, ‘중각강당’이라는 명칭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점에서 석가모니 사후 교단화시기의 금당과 동일한 위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³⁷⁾

그리고 정사(精舍)를 위하라(vihāra)³⁸⁾라고도 하는데 초기의 위하라는 간소한 규모였으나, 승가의 생활이나 승가를 둘러싼 일반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위하라의 규모도 커지고 설비나 외관도 갖추게 된다.³⁹⁾ 그리고 위하라는 후대 부파불교 시대를 기점으로 굴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 굴원은 위하라와 차이티야로 분류한다.

위하라 석굴은 중앙의 뜰의 공간을 중심으로 승려들이 수행을 할 때에 거처로 사용하는 작은 방들을 돌아가며 배치한 것이며 승방과 선당(禪堂)을 겸한 것이다. 위하라 석굴은 차이티야 석굴에 근접한 곳에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남아 있는 위하라 석굴은 수가 많으나 차이티야 석굴은 그 수가 적다.

당시에 개척하기 어려운 석굴건축을 만든 이유는 석굴건축이 영구적인 것이며, 굴 내부공간이 시원하고 조용하여 수도 생활에 적합한 까닭이었다. 또한 오랜 우기에도 비가

37) 최태선, 「경전으로 본 신라 사찰 공간의 배치」, 『신라사찰의 공간과 기능』, 국립 경주문화재(30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2020, pp.115-116.

38) 위하라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출가자의 주거’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지만, 율의 건축규정에 의하면 매우 큰 건축물들을 가리킨다. 위하라가 세워져 있는 장소는 변화가나 마을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아 걸식하러 가기에 적당한 거리에 위치한다. 게다가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하거나 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마을에 지나치게 가깝지만 않은 곳이라면 괜찮다고 한다. 구조는 벽을 바르고 지붕은 벽돌이나 돌, 풀 등으로 잇는다. 마루나 벽은 백, 흑, 적토색으로 나누어 바르고 보기 좋게 완성한다.(사사키 시즈카 지음, 원영 옮김, 『출가, 세속의 번뇌를 놓다』, 민족사, 2007, p.164)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위하라의 안뜰에 성스러운 유물을 안치한 작은 탑과 여러 불상들이 놓이게 되었고, 그래서 위하라는 신성한 장소로서의 특성을 갖추게 되었다. 위하라의 구조는 인도 서부에 있는 몇몇 위하라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곳의 위하라들은 종종 암벽에 굴을 파서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암벽을 깎아서 위하라를 건축하는 전통은 중앙아시아의 무역로를 따라 바미안을 비롯한 여러 곳에 널리 전파되어 다양한 조각과 회화를 지닌 수많은 훌륭한 기념물들을 남겨놓았다. 그리고 승려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자 여러 개의 위하라, 탑, 그리고 불당 등으로 이루어진 ‘마하위하라’(거대한 사원이라는 뜻)들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들 대사원은 학문의 중심지이자 고등교육기관으로서도 이름이 높았다.
(<https://m.cafe.daum.net> > BLDM > MMMs > MMMs)

39)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찬, 『계율과 불교윤리』, 조계종출판사, 2011, p.91.

새지 않으며 인도의 그 지방에는 석굴을 만들기 좋은 암산이 많았던 이유라고 생각된다.⁴⁰⁾

그 대표적인 위하라 석굴 예는 아잔타 석굴군의 제12호 굴이다. 이 굴은 1층으로 된 전형적인 초기의 위하라 석굴이며 각 승방 입구 상부에는 반원형 박공 형태가 조각되어 있다고 보여진다.⁴¹⁾



아잔타 제12굴(위하라 석굴) 내부

이러한 석굴은 불교의 북전로, 즉 중앙아시아 지역에 길게 펼쳐진 실크로드 상에 전파되어 각지에 위대한 석굴사원군을 만들어 냈다. 현 아프카니스탄의 바미안석굴을 비롯하여 지금은 중국 땅이 된 키질석굴, 베제클리크석굴 등을 거쳐 돈황 막고굴로 중국에 상륙했다.

중국에서도 석굴사원 조성 활동은 열풍과도 같아서, 용문석굴, 운강석굴 등 위대한 석굴군들을 창조하게 되었다. 고대 한반도에서도 불교가 전래된 이래 끊임없이 석굴 조성을 시도해왔다.⁴²⁾

따라서 이러한 석굴사원은 철저한 무소유의 정신에 기반한 수행자의 수행정신을 드러

40) 村田治郎, 『東洋建築史』, 彰國社, 1980, p.51.

41) 윤장섭, 『印度의 建築』,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pp.75-76.

42) 김봉렬, 『불교건축』, 솔출판사, 2005, pp.17-18.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산큰스님도 항상 무소유를 실천해 보이셨고 수행자의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수행자를 수행자답게 만들어 준다고 강조하셨는데⁴³⁾, 이러한 정신이 석굴사원과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2. 중국의 칠당가람(七堂伽藍)

중국 초기 사찰의 구조는 일반주택을 개조하여 사원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문적인 선원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총림선원은 당나라의 백장선사가 선원을 율원으로부터 독립하여 불전을 세우지 않고 법당을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이후에 중국과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실제로 중국역사에서는 400년 전후부터 인도나 서역에서 온 유행승들이 많아지면서 그 가운데 선정을 닦는 선승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인도나 서역의 영향을 받아 중국에서도 승려들이 거주하는 수행 공간으로 사원을 건립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사원에 선원(禪院, 禪堂)을 설립하기 시작했다.⁴⁴⁾

『고승전』에 전하고 있는 중국 초기의 수행자들은 주로 낙양이나 장안의 국립사찰에 마련된 선원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속고승전』에 전하는 초기의 선승들은 대개 산중에 석굴 등을 파서 좌선당(坐禪堂, 禪窟)을 만들어 선정을 닦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중국불교사에서 본격적인 선원은 송산 소림사의 창건이라고 할 수 있다. 『속고

43) 월산문도회, 『월산선사법어집』, 불국사, 1998, p.283.

44) 중국초기의 사원형태는 일반주택을 개조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스님들이 수행하는 장소로는 크게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건물은 불교적 특색을 나타내기에 부족하여 탑을 세워 불사(佛寺)의 특징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이때 탑이 건축의 정면 앞쪽이나 중앙에 배치되어 불사의 중심이 되었으며 불전(佛殿)은 부수적인 위치에 놓였다. 이러한 형태는 동한(東漢)에서 남북조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가 되면 불교는 더욱 융성하여 사찰의 규모가 커지고 화려해진다. 특히 불상의 조성이 성행하여 사원도 탑 중심에서 불전중심으로 변하게 된다. 당나라의 사찰건축은 복합중정(複合中庭)의 가람배치를 하였으며 회랑이 주위에 둘러져 있다. 서기 600년부터 800년까지 동아시아 사원의 가람형태에 이러한 변화는 중국, 한국, 일본의 사원 형태에서 쉽게 볼 수 있다.(신공, 『淸規와 禪院文化』, 붓다가야, 2008, pp.188-190).

승전』, 「불타선사전」에는 복위의 효문제가 태화(太和) 20년(496)에 불타선사를 위해 송산 소림사를 지어 기증하여 많은 선승들이 불타선사의 지도를 받으며 선정을 닦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는 사실 송산 소림사의 선원을 최초로 개설한 선승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이후 달마가 중국에 와서 중국선종이 만들어지는데 도신과 홍인에 이르러 대규모 교단이 형성되었다. 특히 백장회해에 이르러 선원을 울원에서 독립하고 울장에 기초한 독자적인 청규를 만들어 선종총림의 수행가풍을 유지해갔다.

선종가람의 구조는 칠당가람(七堂伽藍)⁴⁶⁾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특히 남송시대에 정형화 되었으며 일본선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칠당가람은 선종사원의 형태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선종사원에서 칠당은 산문(山門), 불전(佛殿), 법당(法堂), 고원(庫院), 승당(僧堂), 욕실(浴室), 동사(東司)인 칠당우(七堂宇)를 가리킨다.⁴⁷⁾

도충은 『선림상기전(禪林象器箋)』에서 칠당은 법당, 불전, 산문, 주고(廚庫), 승당(僧堂), 욕실(浴室), 서정(西淨)을 들고 있다.⁴⁸⁾

이 가람배치에서 실제로 선원의 역할을 했던 승당⁴⁹⁾은 선원총림에서 좌선을 행하고 재죽을 받으며 다탕(茶湯)을 행하고 수면을 취하는 등 수행자들이 수행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다. 많은 대중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생활한다는 뜻에서 운당(雲堂)이라고도 하고, 재당(齋堂)이라고도 한다. 또한 식당(食堂)이라고도 하며, 좌선을 행하는 곳이므로 선당(禪

45)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선원총람』, 「선원의 역사」, 불교시대사, 2000, pp.30-35.

46) 남송의 총림에 있어서는 산문, 불전, 불단이 일직선상에 놓여있고 오른쪽으로 욕실, 고원(庫院)이 왼쪽으로는 동사(東司), 승당이 좌우로 대조되어 늘어서 있어서 질서정연한 가람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송의 『선원청규』에서는 아직 이러한 가람배치는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최현각, 『선학의 이해』, 불교시대사, 2003, p.326).

47) 鏡島元降, 『百丈清規變化科程の一考察』, 駒澤大學, 1967, p.2.

48) 신공, 『清規와 禪院文化』, 붓다가야, 2008, pp.201-202.

49) 사실 부처님 생전시에는 이러한 승당의 역할은 강당이 했던 것으로 보이며 강당에는 설법을 위한 사자좌가 설치되어 있고(『경율이상』), 강당의 다른 명칭으로 승(勝, 『대루탄경』), 득승당(得勝堂, 『대반열반경』)으로 표현되며, 강당에서 좌선(『마하승기율』)을 하기도 하고, 공양을 받아 회합(『대반열반경』)하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들 경전의 내용을 종합할 때, 강당은 승단이 모이는 공식적인 곳으로 공양에서 좌선, 설법에 이르기까지 승단의 공식행사를 위한 곳으로 생각된다.(최태선, 「경전으로 본 신라 사찰 공간의 배치」, 『신라사찰의 공간과 기능』, 국립 경주문화재(30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2020, pp.124-125).

堂)이라고도 한다.⁵⁰⁾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불전(佛殿)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⁵¹⁾ 특히 백장은 당시 불교사원의 중심 건물인 불전(佛殿)의 기능이 국가와 황제에 대한 예의와 기도 중심이었던 것에서 법당을 세워 수행 중심도량으로 바꾸고자 했다. 이것은 선종사원의 가람 기능과 구조 변화에 있어 매우 획기적인 일로 선종사원의 가람구조에 있어 불전과 법당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된다. 불전은 부처님을 모시는 전당(殿堂)으로 불전의 기능은 단순히 불보살님께 귀의하는 도량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다. 당대에는 불전의 기능이 나라를 위한 기도와 모든 제왕의 수명장수를 축원하는 법요의식을 봉행하는 도량으로 나타났다.⁵²⁾ 그래서 백장은 당시 선종사원에 법당을 세워 의례 중심적 사원의 기능을 수행중심적인 선원의 가람구조로 바꾸고자 했던 것이다.⁵³⁾

이러한 점에서 월산큰스님도 불국사가 단순히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관광사찰의 이미지를 뛰어넘어서 본래 승가의 선 수행 풍토를 회복하려고 했던 곳에 그 접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백장은 수행자의 본분을 자각하고 끊임없이 수행의 본원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면서 국가권력과 불교와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수행자의 진정한 모습은 권력을 초탈한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월산큰스님도 마찬가지로 수행자의 본분사를 생각하시면서 끊임없이 수행에 정진하면서 그 공간과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러한 결실이 불국선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국선원의 건립 정신은 부처님 당시의 철저한 사의법(四依法)에 의지한 무소유의 철저한 수하좌의 정신에 바탕하고, 위하라의 석굴사원과 중국의 석굴 및 백장회해의 선원을 이은 칠당가람의 수행정신을 계승하였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부분

50) 적멸, 「慈覺宗蹟의 『禪苑清規』 研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5, pp.201-203 참조.

51) 백장회해에 의하면, 법당은 한 산의 주지가 상당(上堂)하여 부처님을 대신하여 설법을 하는 것이며, 이 설법을 하는 곳이 법당이므로 선종의 가람에서는 법당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백장은 현신의 부처님으로서의 주지가 상주하는 한 새삼스럽게 부처님을 모시는 당우(堂宇)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전의 기능은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앞의 논문, pp.173-175 참조).

52) 近藤良一, 「唐代禪宗における 佛殿の問題」, 『印度哲學と佛教』, 平樂社, 1982, p.667.

53) 신공, 『清規와 禪院文化』, 붓다가야, 2008, pp.203-204.

을 한국의 전통선원과 조화를 이루어 불국선원으로 조성되었다고 판단된다.⁵⁴⁾ 즉 불국선원은 인도와 중국과 한국의 선수행전통의 장점을 통시적 관점에서 계승 발전시켰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큰 스님의 커다란 지혜의 안목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이 선원안거 대중의 지속적 참여와 증가로 이어지는 동력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3. 선원안거 대중의 특징

불국선원⁵⁵⁾은 월산큰스님의 크신 원력과 자상하면서도 철저한 지도로 인하여 범룡(梵龍), 송담(松潭), 일타(日陀), 법달(法達), 혜정(慧淨)스님 등의 많은 명안종사께서 수행을 하시었고 선풍을 드날리셨다.⁵⁶⁾ 무엇보다 경허 만공 보월 금오스님으로 이어지는 덕숭선맥을 이은 월산큰스님의 지도와 가르침으로 불국선원은 일시에 번성기에 들었다. 선원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안착한 것은 무엇보다도 불국선원의 조실로서 바깥살림보다 안살림에 치중했던, 그랬기에 찾아드는 납자들의 제접에 소홀하지 않았던 스님의 원력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⁵⁷⁾ 그리고 전 총무원장이셨던 혜정스님께서는 1986년 하안거에도 선덕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4) 불국선원은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을 모신 방 가운데 방의 양 옆으로 한 층 높여서 좌선 장소를 만든 각자의 방에서 28명이 공부할 수 있게끔 특수구조로 꾸며진 선실은 재래식과 중국식을 절충하여 정진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젊은 시절 중국에 다녀온 바 있는 조실 스님이 직접 설계한 것이다. 이 선실의 구조에 대하여 6철을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범상(梵相) 스님은 “한 방이면서도 좌선과 포행실이 분리되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식당, 목욕탕 등 완벽한 위생시설 및 공부할 수 있는 뒷받침이 가장 잘되고 있음 또한 불국선원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선원총람』, 「선원의 역사」, 불교시대사, 2000, pp.502-503).

55) 『선원총람』에 의하면, 불기 2524(1980)년 하안거부터 불기 2543(1999)년 하안거까지 불국선원에서 안거를 난 대중의 인원수는 1981년 하안거와 1982년 하안거를 제외하고도 외호대중을 포함하여 총대중이 1048명에 이르고 있다. 월산큰스님은 불국선원 개원 이후부터 입적하는 1997년까지 선원을 이끄는 조실로 주석하면서 선원의 수좌를 제접함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석길암, 「성림월산과 불국사 선원」, 『대각사상』 32집, 대각사상연구원, p.196)

56)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선원총람』, 「선원의 역사」, 불교시대사, 2000, p.494.

57) 김종두, 「중국 선차(禪茶)의 연원(淵源)에 관한 고찰」, 『한국불교학』, 한국불교학회, 2019, pp.196-197.

불기2530년(1986) 하안거
큰방내 26, 큰방외 0, 외호 1, 총대중 27
조실: 월산
선덕: 혜정(慧淨, 법주사), 월은(月隱, 법주사), 능연(能然, 통도사) 입승: 원각(源覺, 해인사)

그리고 선원의 방함록에 월산큰스님은 열반하시기 바로직전인 1997년의 하안거까지 선원의 조실로써 납자들을 지도하시었다. 이것은 평생 큰스님께서 화두를 놓치지 않고 정진하신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였다. 그리고 항상 염화실보다 선원에 오셔서 대중과 함께 좌선에 들고 간혹 조는 수좌 스님들이 있으면 몸소 경책을 해주시었는데 월산큰스님의 부드러우면서 은은한 덕화는 많은 감화를 주시었고 무소유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다. 이로 인해 많은 후학들이 큰스님의 회상에 모이게 되었다.⁵⁸⁾ 이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불기2541년(1997) 하안거
큰방내 30, 큰방외 1, 외호 4, 총대중 35
조실: 월산
선원장: 종우(宗雨, 불국사), 입승: 대전(大田, 해인사)

그리고 1982년 하안거부터 1984년 동안거까지 월산큰스님의 제자인 법달(法達)스님이 선원장의 소임을 보고 있다. 이후 1995년 동안거부터 종우(宗雨)스님이 선원장의 소임을 보면서 1997년 동안거부터 설당(雪堂, 종우)스님께서 선원장의 소임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외에 입승스님과 대중스님들의 본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법주사와

58)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선원총람』, 「선원의 역사」, 불교시대사, 2000, p.503.

불국사를 중심으로 전국교구본사의 많은 스님들이 동참하여서 수행정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원방함록에는 2004년부터 외호대중이 기록되지 않고 큰방대중 스님들만 기록되어 있다. 지금까지 방부를 들인 스님들은 안거마다 대략 28명에서 41명을 전후로 하여 많은 납자들이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산큰스님이 주석하셨던 동안에도 그리고 현 선원장 종우스님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고수되는 선원 운영의 방침은, 월산스님이 지향하고 실천했던 가풍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준다. 특히 월산큰스님은 용맹정진과 가행정진을 못하게 막았는데, 그 의도가 “조실스님은 용맹정진을 하다보면 참선이라는 본질은 간 데 없고, 그 형식만 남을 것을 우려했다”는, 그리고 “참선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선원장 종우스님의 전언에서 스님이 지향하신 독특한 가풍의 여전함을 엿볼 수 있다.⁵⁹⁾

그리고 이것은 큰스님의 평상의 마음이 도(道)라는 법문에서 알 수 있다.

무자공안으로 유명한 조주스님도 한 소식을 얻기 전에는 바보천치나 다름없었다. 스승이 아무리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했다.

어느 날, 조주스님이 남전화상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이니라.”

그러나 조주는 평상심이 곧 도라는 말을 알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그러면 도란 나아가서 향하는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란 그대로다. 향할 바가 있어서 생각을 낸다면 그르치느니라.”

그래도 조주스님은 알 수 없었다.

“생각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도를 압니까?”

남전화상은 끝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도란 아는 것이나 알지 못하는 것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안다면 망각이요, 모른다면

59) 석길암, 『성림월산과 불국사 선원』, 『대각사상』 32집, 대각사상연구원, pp.190-199.

무기(無記)일 뿐이다. 만약 의심이 없는 도를 참으로 요달할 것 같으면 허공과 같이 활달하여 넓고 넓어서 옳다 그르다 시비할 수 없게 된다.”

이토록 자세히 일러주자 조주는 그때서야 활연대오 했다.⁶⁰⁾

큰스님은 마조도일의 제자인 남전보원이 조주스님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신 기연을 소개하시면서 모든 대중들의 이분법화 되어 있는 분별적 사유의 틀을 없애주는 평상심의 도를 법문으로 일러주고 계심을 알 수 있다.

V. 결론

불국선원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도 불구하고 월산큰스님의 원력과 발원으로 건립되어 한국선의 종풍을 드날리고 있다.

1974년에 주지로 취임하신 월산큰스님은 폐사나 다름없이 폐허된 불국사를 복원하는데 온 힘을 쏟았고 큰스님은 사찰은 관광지가 아니라 수행과 신行道량임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정부의 관심 밖인 수행처인 승당과 선원, 강원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후에 큰스님은 민가를 사고 선원을 건립하기 시작하였는데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큰스님의 원력과 종상스님의 은사에 대한 지극한 효심이 어우러져 수행도량으로 면모를 새롭게 하게 된다.

큰스님께서는 조실로서 열반에 드시기까지 납자들을 지도하시었고 그 누구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자비롭고 인자하게 지도하시었다. 이것은 평생 큰스님께서 화두를 놓치지 않고 정진하신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였다. 이러한 큰스님의 부드러우면서 은은한 덕화는 많은 감화를 주시었고 무소유를 몸소 실천해 보이시면서 이로 인해 많은 후학들이 큰스님의 회상에 모이게 되었다.

60) 월산문도회, 『월산선사법어집』, 불국사, 1998, p.155.

특히 선교율에 회통하신 큰스님은 해제와 결제 법문에서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행정진하여 성불할 것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상불경보살처럼 상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면서 모든 중생의 성불을 말씀하시었다. 이것은 모든 중생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적으로 대하면서 깊은 인간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반야의 지혜를 완성하여 완벽한 중도의 이치를 터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특히 큰스님은 선수행을 기반으로 교학과 율을 회통하여 완벽히 균형 있는 지혜의 안목을 갖게 지도해주시었다.

또한 백장회해는 율원에서 선원을 독립하고 당대에 국가와 황제에 대한 예의와 기도 중심이었던 불전(佛殿)을 없애고 법당을 세워 수행 중심도량으로 바꾸고자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큰스님의 원력도 불국사가 단순히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관광사찰의 이미지를 뛰어넘어서 본래 승가의 선수행 풍토를 회복하려고 했던 곳에 그 접점이 있었다. 백장은 수행자의 본분을 자각하고 끊임없이 수행의 본원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면서 국가권력과 불교와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수행자의 진정한 모습은 권력을 초탈한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큰스님도 마찬가지로 수행자의 본분사를 생각하시면서 끊임없이 수행에 정진하면서 그 공간과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러한 결실이 불국선원의 완성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불국선원의 건립 정신은 부처님 당시의 철저한 사의법(四依法)에 의지한 무소유의 정신에 바탕하고, 위하라의 석굴사원과 중국의 석굴 및 칠당가람의 수행정신을 계승하였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부분을 한국의 전통선원과 조화를 이루어 불국선원으로 조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즉 불국선원은 인도와 중국과 한국의 선수행전통의 장점을 통시적 관점에서 계승 발전시켰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큰 스님의 커다란 지혜의 안목이 있다고 판단된다.

불국선원은 많은 명안종사께서 수행을 하시었고 선풍을 드날리셨다. 1982년 하안거부터 1984년 동안거까지 월산큰스님의 제자인 법달(法達)스님이 선원장의 소임을 보고 있다. 이후 1995년 동안거부터 종우(宗雨)스님이 선원장의 소임을 보면서 1997년 동안

거부터 설당(雪堂, 종우)스님께서 선원장의 소임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외에 입승스님과 대중스님들의 본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법주사와 불국사를 중심으로 전국교구본사의 많은 스님들이 동참하고 수행정진하면서 한국선의 종풍을 드날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국선원 건립의 사상적 의미와 특징」에 대한 토론문

김호귀 -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혜명스님의 본 논문은 월산스님의 원력으로 현대에 형성된 불국선원에 대하여 그 건립 배경과 과정 등에 대하여 고찰한 논문으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불국선원이 계승하고 있는 선원의 정신과 이념, 또한 불국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했던 현대의 수많은 고승 대덕 등에 대한 고찰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나아가서 해제와 결제의 법문을 통해서 월산스님의 선사상 및 제접의 방법을 살펴본 점은 본 논문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의의 이고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인도로부터 유래된 석굴사원의 형성과 그 전승을 비롯하여, 중국선종에서 형성된 청규와 칠당가람에 보이는 정신을 계승한 점을 불국선원에서 찾고 있는 점 등은 눈여겨 볼만한 점이다.

위와 같은 점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 보이는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질문을 통해서 재고해봄으로써 보다 원만한 논문을 완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질문 >

1. 신라시대에 김대성에 의하여 불국사가 처음 조성된 이유는 내세와 현세의 부모를

위한 미타의 정토사상으로부터 연원하였다. 그와 같은 미타사상의 사찰에 오늘날 선원을 구축한 월산스님의 의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백장회해의 청구와 월산스님이 불국선원을 건립한 연결고리를 무엇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그 인과성 내지 연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2. ‘배움을 끊고 할 일을 마친 한가한 사람(絶學無爲閑道人)’에 대한 해석의 방식 :
여기에서 ‘學’은 ‘修’의 의미이다. 무위법을 수행한다[學無爲]는 것은 有修이고 有證에 속한다. 이에 비하여 絶學無爲는 學無爲마저 絶한다는 것으로, 조사선의 수증관에서 말하는 無修無證이고 沒修沒證을 의미한다. 따라서 ‘學無爲마저 초절한 한도인’ 정도의 의미가 드러나게 해석한다면 어떨지?

불국사의 강학 전통

한상길 -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 목 차 •

I. 머리말

II. 불국사의 역사와 강원

III. 불국사 승가대학

IV. 불국사의 강주와 강사

V. 맺음말

I. 머리말

불국사는 우리나라 사찰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 중의 하나이다. 찬란한 신라불교문화의 정수를 간직하여 신라의 역사와 전통, 나아가 한민족의 문화를 대표하는 으뜸가는 문화유산이다. 사실 불국사가 지금처럼 한국의 대표 사찰로 자리매김한 것은 불과 백년 정도에 불과하다. 통일신라 8세기 중엽에 창건한 이래 유구한 역사를 지녀오는 동안 수많은 중수와 중건, 중창의 과정을 거듭하였다. 때로는 이민족의 침탈을 맞아 폐사의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역불의 사회에서는 근근이 법등을 이어왔다. 근대들어 1910년 이전 불국사의 가람은 크게 훼손되었고, 사격도 저하되었다. 일제가 모든 사찰을 본말사로 구획하면서 절은 기림사의 말사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불국사의 사격 현창을 위한 노력과 관광 붐이 일어나면서 절은 옛 신라의 명성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신라의 고도 경주가 문화관광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특히 불국사와 석굴암은 신라문화의 실체를 확인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 되었다. 1970년대 들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발굴, 중창을 거치면서 절은 신라문화의 정수로서의 위상과 사격을 재정립할 수 있었다.

불국사의 이러한 위상은 외적인 가람의 중창과 더불어 내적으로 수행과 교육을 조화시킨 결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절은 기본적으로 참배와 수행의 공간이다. 예배와 공경을 위해 불상과 탑을 봉안하고 전각을 조성한다. 일상의 예경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더불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참회와 수행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즉 역사와 문화는 일상의 예경과 수행을 통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수행자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은 수행공간으로서의 불국사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절의 교학수행에 관한 역사를 찾아보고자 강학 전통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를 위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강원과 교학의 전통을 탐색하고, 현재의 승가대학 현황을 통해 불국사의 강학 전통이 오늘날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곳에서 교학을 펼친 강사들의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불국사가 과거의

문화유산을 간직한 명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강학 수행이 살아 숨쉬는 수행도량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II. 불국사의 역사와 강원

1. 최초의 강원 명칭, 불국사 삼성강원

삼국시대 불교의 전래와 함께 사찰에 강당이 들어서고, 이곳에서 교학을 강설하는 전통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강원’이라는 정식 명칭이 등장하는 것은 1342년(충혜왕 3)에 조성한 보은 법주사 자정국존비(慈淨國尊碑)라고 알려져 왔다.¹⁾ 비문 중에 “1318년(충숙왕 5) 법가(法駕)를 갖추고 (자정국존을) 대민천사(大旻天寺) 강원(講院)에 초청하여, 삼가(三家)의 장소(章疏)를 강경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²⁾ 민천사는 충선왕이 1309년(충선왕 복위 1)에 모후(母后)의 추복을 위해 개성에 창건하였다. 자정국존³⁾이 민천사 강원에서 강경하였다는 기록인데 이를 최초의 ‘강원’ 명칭으로 이해하였다.

강원은 일찍이 불교의 전래와 함께 시작되었지만, 대개는 그저 ‘강(講)’이라고 하였고, ‘강당(講堂)’, ‘강석(講席)’ 등의 명칭으로 쓰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강원’의 정식 명칭이 보이는 것은 1342년의 기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강원’의 명칭은 이보다 훨씬 앞선 9세기말 불국사의 기록에 처음 등장한다. 즉 최치원(崔致遠, 857~?)이 찬한 「왕비 김씨가 그의 선고(先考)와 망형(亡兄)을 위하여 명복을 빌며 곡식을 시주하는 발원문(王妃金氏奉爲先考及亡兄追福施穀願文)」에 ‘강원’의 명칭이 보인다.

1) 효단, 「한국불교 강맥전등의 고찰」, 『강원총람』,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 1997, p.53.

2) “戊午 備法駕 邀入大旻天寺講院 講三家章疏”, 「報恩法住寺慈淨國尊普明塔碑文」, 이지관 편,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편(4),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7, pp.324-329.

3) 자정국존 : 慈淨彌授(1240~1327)는 유식에 능통하여 국녕사·웅신사·장의사·중흥사·유가사·동화사 등에 주석하며 법을 펼쳤다. 1324년(충숙왕 11)에 국존에 책봉되었고 법주사에서 입적하였다.

이제 선고(先考)이신 이찬(夷絜) 및 망형(亡兄)을 위하여 명복을 빌고자 벼 3천 점(苫)을 서울 [경주]의 동쪽 산에 있는 광학침릉(光學寢陵)과 불국사의 표훈(表訓)·유가(瑜伽)·원측(圓測)의 삼성강원(三聖講院)에 함께 희사하옵니다. 감히 구명(求名)하는 보살을 끌어들이려 함도 아니요. 감히 무학(無學)의 비구를 멀리하려 함도 아니오며, 오직 濟濟多士들이 이 애타게 근심하는 것을 함께 염려해 주기를 바라옵니다. 혹여 우산을 들고 포교하는 스님들이나 책 상자를 지고 배움을 찾아가는 학승들에게 (물질적으로) 넉넉하도록 하면 시주하는 단월의 가문에 조금이나마 나음이 있을 듯하여, 드디어 향기로운 곡식을 희사하여 학림(學林)에 이바지하나이다.⁴⁾

왕비 김씨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형의 명복을 빌고자 ‘광학침릉’과 ‘삼성강원’에 곡식을 시주하였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구절이 ‘불국사의 표훈(表訓)·유가(瑜伽)·원측(圓測)의 삼성강원(三聖講院)’이다. 표훈은 김대성(金大城, 700~774)의 불국사 창건과 깊은 인연이 있었고, 유가는 당시 화엄종의 대덕이었다. 그리고 원측은 불국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이지만, 『80화엄경』 번역 과정에서 증의(證義)로 참가했었다. 즉 원측은 『80화엄경』 번역의 인연으로 불국사에서 숭배하였을 것이라고 한다.⁵⁾ 이 세 분의 성인을 기리는 의미에서 강원의 이름을 ‘삼성강원’이라고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발원문은 불국사의 역사와 사상 등을 헤아리는 중요한 자료로서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주로 「화엄사사적기」와의 연관성, 유가(瑜伽)의 존재 등에 천착하였지만, 이 ‘삼성강원’의 용례는 큰 주목을 받지 않았다.⁶⁾ 그러나 9세기말 불국사의 ‘삼성강원’은 현재까지 기록으로 확인되는 최초의 ‘강원’ 사례이다. 표훈과 유가 등의 고승이 불국사에서 『화

4) 최영성, 『역주 최치원 전집 2 고운문집』, 아세아문화사, 1999, pp.234-240, “今奉爲先考夷絜及亡兄追福 共捨稻穀三千苫於京城東山光學寢陵 佛國寺表訓瑜伽圓測三聖講院 非敢誘求名菩薩 非敢疎無學比丘 惟希濟濟之徒 共念熒熒之懇 或瞻於擔簦負笈 粗勝於施路檀門 遂使香秬 仰資學藪”

5) 김상현, 「석불사 및 불국사의 연구-그 창건과 사상적 배경」, 『불교연구』 2, 한국불교연구원, 1986, pp.11-13.

6) 김복순, 「최치원의 불교관계저술에 대한 검토」, 『한국사연구』 43, 한국사연구회, 1983, pp.157-173.; 김상현, 「불국사의 문헌자료 검토」,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1999, pp.453-501.; 이문기, 「최치원 찬 9세기 후반 불국사 관련 자료의 검토」, 『신라문화』 26,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원, 2005, pp.209-255.

엄경』을 강경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절에는 9세기말 이전에 이미 강원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위의 기록에 등장하는 ‘광학침릉’에 주목하게 된다. 광학침릉은 ‘광학장(光學藏)’을 말한다. 불국사의 창건 초기 사정을 자세히 전하는 『불국사고금창기(佛國寺古今創記)』에 당시의 주요 전각과 석조물에 관한 기록이 있다. 여기에 ‘광학장’이 등장한다.

광학장강실(光學藏講室) 21칸. 석가자수상(釋迦紫繡像) 1정(禎). 왼쪽 벽에는 헌강대왕의 화상(畵像)이 있는데 경문왕대의 선화니(善畵尼) 원해(圓海)의 필(筆)이다. 원해는 북사정공주(北寺定公主)의 딸이다. 그림 수로 세상의 제일이라고 알려졌다.⁷⁾

광학장강실은 21칸으로 안에는 자수로 조성한 석가여래상을 봉안하였다. 왼쪽 벽에는 원해라는 비구니가 그린 헌강왕의 초상을 봉안하였다고 한다. 최치원은 앞서의 기록에서 헌강왕의 초상을 봉안하였기 때문에 ‘광학침릉’이라고 표기하였다.⁸⁾ ‘광학장강실’은 이름에 그대로 나타나듯이 ‘빛나는 학문을 닦는 강의실’을 말한다. 이로써 불국사에는 창건 당시부터 강원이 설립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당시 절의 대웅전이 25칸, 극락전과 지장전이 각각 12칸이었음을 볼 때,⁹⁾ 광학장강실 21칸은 꽤 큰 규모로 볼 수 있다. 이후 1백여 년이 지난 9세기말 불국사의 강원은 표훈과 유가, 원측의 세 성인을 기리는 의미에서 ‘삼성강원’이라 이름 붙였고, 이 기록이 ‘강원’ 표기의 최초 사례가 된다.

2. 근현대 불국사의 강학

불국사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통일신라의 창건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김대성의 창건담, 불국사와 석굴암과의 관계, 석가탑과 다보탑의 우수

7) 『佛國寺古今創記』, 문화공보부, 출간년도 미상, p.7.

8) 최영성, 앞의 책, p.239, 각주) 122

9) 『佛國寺古今創記』, 앞의 책, pp.4-6.

성,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이 주요 주제였다. 이러한 편중 현상은 사실 고려중기 이후 조선시대까지의 역사기록이 거의 전하지 않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불국사의 근현대 사격을 조망한 연구가 있었지만¹⁰⁾ 절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연구 시각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절의 강학 전통이 근현대 시기에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불국사의 사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지하듯이 교학을 전수하는 강학의 체계는 우리 역사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전통시대에는 강학을 통할하는 종단이 없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사찰에 따라 또 강사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었다.

근현대 시기 불국사의 강학 활동도 이러한 한국불교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체계적 혹은 표준화된 승가교육 체제가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1930년대부터 비로서 사격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제대로 된 강학 활동을 펼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절의 강학과 교육은 단절되지 않았다. 191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몇몇 사례를 통해 절의 강학 전통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913년에 불교강숙(佛敎講塾)이 설립, 운영되고 있었던 사실이다.

불국강설(佛國講設)

경주군 불국사 주지 송설우(宋雪牛)화상은 사무(寺務)에 심동(甚勤)은 무론(無論) 우(又)에 불교강숙(佛敎講塾)을 당사내에 설립하고 열심교육은 모범가작(模範可作)이라더라.¹¹⁾

1910년대 불국사는 몹시 퇴락해 있었다. 18세기말에는 수차례의 중수가 진행되어 웅장한 가람을 지닐 수 있었다.¹²⁾ 1740년(영조 16)에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17개의 전각과 회랑, 극락전을 중심으로 11개의 전각, 비로전 일대에 3개, 관음전을 중심으로 7개의 문

10) 한상길, 「근현대 불국사의 사격」, 『대각사상』 32, 대각사상연구원, 2019, pp.139-170.

11) 『불교진흥회월보』 17, 1913.6, p.74.

12) 이강근, 「佛國寺의 목조건물과 修理·復原의 역사에 대한 연구」, 『경주문화연구』 7, 2005, pp.3-5.

루(門樓)와 전각, 지장전을 중심으로 9개의 전각과 누각이 장엄을 이루고 있었다.¹³⁾

그러나 1805년(순조 5)의 비로전 중수를 끝으로 더 이상의 중간·중수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이후 1902년 일본인 건축학자 세키노 타다시가 절을 조사하고 간략한 보고서를 남겼는데 대부분의 전각과 석조물이 손상된 모습이다.¹⁴⁾ 이후에도 절의 퇴락은 급속히 진행되어 1905년에는 자하문에 연결된 회랑이 붕괴되었고, 1910년 이전에 무설전도 무너졌다.¹⁵⁾ 1914년에 촬영한 사진을 보면 청운교와 백운교 앞으로 잡초가 무성하고 계단과 석축이 무너져 폐사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이때는 사찰령에 의해 기림사가 본산으로 지정되고 불국사는 일반말사로 규정되었던 시기이다. 이러한 지경에서 다보탑의 석사자와 비로전 앞의 부도 등이 일본인에 의해 도난 되기도 하였다.



1914년 불국사

13) 『佛國寺古今創記』,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6, pp.271-286.

14) 關野 貞, 『韓國建築調査報告』, 東京大學工大學術報告 6, 1902.

15)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 앞의 책, pp.35-36.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서도 승가교육에 대한 열의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1913년 주지 송설우는 절에 불교강숙을 설립, 교육에 매진하였는데 당시의 모범이라 칭송할만하다는 것이다. 송설우는 불국사에 앞서 1910년 통도사 명신학교 학감을 지낸 일이 있어 승가교육에 노력한 인물이었음을 알수 있다.¹⁶⁾

이후의 강원에 관해서는 1960년의 사실이 전한다. 대강백 무비스님이 1960년 출가 초기에 불국사 강원에서 수학하였던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 1960년도 출가하실 당시 불국사는 어떤 분위기였는지요?
- 당시 불국사에는 지효스님이 주지였고, 제 은사가 되는 여환스님이 총무 겸 재무 소임을 맡고 계셨지요. 원형스님, 허현스님, 일원스님, 관행스님, 무륜스님 등이 계셨어요. 나는 불국사에서 처음에는 공양주, 갯두 소임을 했어요. 밥 할 때는 당시에는 보리쌀을 섞어 먹었으니 미리 보리쌀을 삶아 또 밥을 했지요. 장작을 때서 가마솥에 밥을 할 때였으니, 일이 여간 많지 않았죠. 그런데 나는 가자마자 사미계 수계식이 있어 『천수경』도 제대로 외우지 않고 사미계 수계를 받았어요. 열흘도 안 되어 사미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아마 당시에도 매우 드물었을 겁니다. 하여간 행자 생활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미가 되어 바로 불국사 강원에 들어가 「초발심자경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불국사 스님들이 은해사 주지이자 강사였던 진용스님을 초청하여 행자와 사미들 대상으로 강의를 듣게 했는데 거기에 바로 들어갔어요.
- 당시에 출가하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 행자 생활을 혹독하게 했다는데, 불국사는 바로 강원 공부를 가르쳤다는 것은 의외입니다.
- 그게 아마 당시 범어사 스님들이 불국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범어사 스님들은 워낙 참선을 중시해서인지 행자에게 일보다는 경전을 가르치는 등 공부를 강조했어요. 불국사에서 그렇게 공부하다가 다시 범어사로 가서 강원의 사집반에 편입하여 본격적인 공부를 했어요. 비구계와 보살계도 범어사에서 받았죠.¹⁷⁾

16) “「양씨 열심」 경상남도 양산군 하북면 통도사 명신학교에서 거월에 제2학기 시험을 하였는데 그때에 관광하는 사람이 수백명에 달하여 성대한 정황이 있었고, 그 학교의 정도가 이렇듯이 확장함은 그 학감 장청호씨와 교감 송설우씨가 열심권면한 효력이라고 칭송이 자자하다더라.” 『대한매일신보』 1910.1.5. 스님은 1926년에는 통도사 주지에 취임하였다.

17) 『拈花室 그림자』, 여천 무비 엮음, 연화실, 2008, pp.151-153.

1959년 불교정화의 과정에서 비구측은 24개의 수사찰(首寺刹)을 확보하였다. 여기에 불국사가 포함되면서 절은 비로소 경복을 대표하는 수사찰로 공식 인정받기 시작하였다.¹⁸⁾ 1960년 1월 수사(首寺) 불국사의 주지를 석주(昔珠, 1909~2004)스님이 맡았다가¹⁹⁾ 곧바로 2월 25일에는 지효(智曉, 1909~1989)스님이 이어 받았다.²⁰⁾ 바로 이 무렵 무비스님은 은사 여환(如幻, 1924~2001)스님이 불국사의 총무 겸 재무 소임을 맡게 되자 불국사에 머물게 되었다. 그런데 무비스님은 이제 갓 출가한 행자 신분이었는에도 강원 에 들어가 「초발심자경문」을 공부하였다고 한다. 무비스님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행자와 사미 모두가 강원 에 입학하였다. 이때 강사는 은해사 주지였던 진용스님이었다. 이와 같이 불국사는 경복을 대표하는 수사찰로 거듭나면서 승가교육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실천하여 행자와 사미들에게도 강원교육을 시행하였다.

1961년에는 절에서 능엄학림을 개설하였다. 1961년 초 능가(能嘉, 1923~2020)스님이 주지를 맡아 당시 박정희사령관의 도움을 받아 가람을 정비하였다. 이 무렵 청운교·백운교 바로 앞까지 80여 채나 되는 상점과 민가들이 들어서 가람을 크게 훼손하고 있었다. 박정희사령관의 재정 지원으로 상점을 모두 이주시키고 가람을 정비할 수 있었다고 한다.²¹⁾

능가스님은 가람을 정비하는 한편 절을 강학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즉 설봉스님의 『벽암록』 강좌를 개설하여 수행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선어록 강의는] 범어사에서 하였지만, 내가 불국사 주지를 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하였어. 그거는 범어사 돈으로 내가 한거야. 내가 그런 것을 구상하게 된 것은 정화가 어느 정도 안정은 되어가는 데에도 여러 문제가 계속해서 생긴다 말야.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무슨 병일 까를 생각하게 되었지. 정화의 일선에 관여를 하다 보니, 서울을 자주 올라가고, 내려오다

18) 한상길, 앞의 글, pp.156-157.

19) 「광고」, 『대한불교』 1960. 1. 1.

20) 「首寺住持 發令名單」, 『대한불교』 1960.3.1.

21) 김광식, 「내 영혼을 뜨겁게 달구었던 정화운동」,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8, pp.71-73.

보니 자연 전국의 승려들의 수준을 알게 되고, 승려들의 사고방식도 이해하게 되었지. 그래서 나는 선풍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시작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지. 나부터도 중이 된 처음에는 뭐가 먼저 몰랐어. 그러니 나도 공부를 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내었지. 그리고 정화불사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파악했어. 불국사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내 생각은 우리 스님[동산스님]을 모실까, 설봉스님을 모실까, 그때에는 성철스님도 생각은 해보았지. 여러 생각은 하였지만 안 되겠다 싶어 설봉스님을 모시고 시작하였지. 그래서 그 강의한 것을 정리, 보완하여 책으로도 냈지. 그때에 전국의 승려들이 불국사에 안 온 사람이 없어.²²⁾

정화운동의 와중에서 당시 승려들의 수준을 절감한 능가스님은 교육과 수행이 교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였다. 1950년대 대부분의 명찰과 고찰은 대치승이 점유하고 있었다. 6백 명 남짓의 독신승은 교육과 수행의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²³⁾ 1953년 4월 불국사에서 개최된 조계종 법규위원회에서 18개 사찰을 수좌측에 할당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석주스님은 “만암스님이 불국사에서 회의를 했는데 나도 갔었지. 그 때 독신승에게 수행사찰 몇 개만이라도 달라 했지. 그것이 잘되었으면 일이 커지지 않았어.”²⁴⁾라고 술회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도 이러한 정화운동은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였다. 능가스님은 이러한 현실이 승려들의 부족한 자질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절에 『벽암록』 강의를 개설한 것이다. 강의를 개설하자, 전국에서 많은 학인들이 불국사에 모여들었다고 한다.

당시 이 강의에 참여했던 각원 선과(覺園善果)스님의 자세한 증언이 있다.

『벽암록』 이야기가 나왔으니, 우리나라 해방 이후 최초로 『벽암록』 강의를 하고 책을 낸 이야기를 해야겠다. 당시 불국사 주지였던 능가스님과 선방 수좌로 있다가 범어사 교무를 맡았던 진상스님과 광덕스님, 이 세 분은 삼총사로 불릴 만큼 서로 절친한 도반이었다.

22) 「내 영혼을 뜨겁게 달구었던 정화운동」, 앞의 책, pp.70-71.

23) 1941년 선학원의 전국선원방함록에 하안거 540명, 동안거 482명이 전한다. 『조계종사 근현대편』,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 2001, p.192.

24) 「석주스님 선학원과 함께 한 40년」, 『22인의 증언을 통해 본 근현대 불교사』, 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 선우도량출판부, 2002, p.50.

… (중략) … 그래서 1961년 동안거 때, 불국사에서 『벽암록』 강설을 준비하였고,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범어사) 조실스님의 염려를 감안하여 모든 동참 대중들은 불국사 선방에서 철저하게 정진하도록 규칙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 방을 짰다. 즉 참선 정진의 토대 위에서 하루 두 차례씩 『벽암록』 강설을 열었던 것이, 이것은 전적으로 조실스님께서 이르신 경책의 힘이였다. 조실스님의 말씀을 조금도 어기지 않았던 삼총사 스님들이 의논하고 협력하여 한국 초유의 『벽암록』 강의를 그렇게 막이 올랐다.

장소가 불국사였던 것은 능가스님이 주지인 때문이고, 진상스님은 대중을 모았고 광덕스님은 강사인 설봉큰스님을 모시는 일과 교재를 책으로 엮는 일 등, 기타 여러 일을 맡았다.

… (중략) … 나는 그때, 범어사 강원 강사이신 고봉스님께 능엄경을 듣다가 홍원, 선래, 정달 등 도반들과 함께 『벽암록』 살림에 동참하기 위해 불국사로 향했다. 내 나이 불과 스물셋 무렵이었다. 『벽암록』 강의는 하루에 두 차례씩 꼬박 3개월이 걸렸으니, 1961년 동안거는 그렇게 뜨겁고 숨 가쁘게 지나갔다. 당시 동참 대중들은 모두 불국사 선방에 방부를 들어서 소임을 정하여 대중생활을 여법하게 했고, 참선정진에 소홀함이 없이 하루 두 차례, 오전·오후에 열리는 강의에 참석하는 빈틈없는 일과가 결연히 진행되었다.

내가 알기로는 『벽암록』이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책 발간도 그때가 처음이었고 강의도 처음이었으며 현토도 처음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종문 제1서(宗門第一書)라고 칭송하는 『벽암록』 살림이 불국사에서 한겨울 내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나는 그때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탄 세상에 사는 것 같았다. 어쩌면 제불회상에 있는 듯 넘쳐 오르는 법열로 잠을 덜 자도 피곤하지도 않았고 졸립지도 않았다. 어떻게 하든 도인이 되겠다는 웅골찬 결의로 순식간에 석 달을 보냈다.²⁵⁾

25) 각원선과, 「범어사에서 광덕 사형님과 보낸 시절」, 『광덕스님시봉일기』 4, 도피안사, 2004, pp.159-164.



1961년 동안거, 『벽암록』 강의를 마치고

1961년 동안거 3개월 동안 불국사에는 이처럼 결사(結社)를 떠올리게 하는 교학 연찬이 진행되었다. 하루 두 번의 강의는 한겨울 내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모두가 제불회상에 모인 듯 법열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정화운동의 혼란이 거듭되는 와중에서도 이처럼 불국사에는 진리에 대한 열망과 배움의 의지가 가득하였다.

1966년에는 절에 전문강원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해 8월 30일에 사집과와 사미과의 수료식이 거행되었다.

불국사 강원 수료식

지난 (1966년) 8월 30일 불국사 전문강원에서는 사집과 및 사미과의 수료식이 채벽암 원장 주재 하에 거행했다. 채벽암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자 도제양성에 착안하여 김철수(金哲守)스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오늘에 와서 사집과 4명[아래 명단에는 3명이다. 필자 주], 사미과 3명을 배출하였다. 이 강원의 특색은 양보다 질을 위주로 하여 입원 희망자는 자격심사에 합

격하여야 입방하게 된다. 입방만 되면 전반적인 장학 혜택을 받아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게 되었다 한다. 반면에 강원 규칙을 엄수하여야 하며 승규에 어긋나면 가차 없이 퇴원 조처가 되도록 되어있다. 교과목도 전과 같이 고루한 것에 치우치지 않고 내외전을 배우게 하고 있다. 이번 수료자의 명단은 사집과 김법전(金法田), 김보산(金普山), 강성현(姜聖賢), 사미과 권일원(權一願), 이적광(李寂光), 최자행(崔慈行)이다.²⁶⁾

1962년 대한불교조계종이 출범하면서 종단은 종무 전반에 관한 체계적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승가교육에 관한 교육법을 제정하여 승가교육의 단조를 마련하였다. 당시 교육법에는 초등학교, 전문학교, 총리, 종비생 등의 일련의 과정을 성안하였다.²⁷⁾ 1964년부터 시작한 종비생제도에 의해 일부 승려가 동국대에 입학하였지만, 이 시기 동국대 입학 승려들은 이미 강원 교육을 마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동국대는 이른바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강원은 이처럼 조계종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실제 1960~70년대의 강원교육은 위상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이 시기 강원은 강원마다 학제가 달랐으며, 사찰 운영자들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설립, 폐지를 거듭하는 경우도 많았다. 당시 종단은 일정한 강원교육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시기 강원교육에서 대교과를 수료하는 학인들은 매우 드물었다고 한다.²⁸⁾ 또한 당시 불교계의 일반적인 분위기가 강원보다 선원을 선호하는 경향이어서 강원교육에 대한 체계적 발전을 모색하기가 힘들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1969년에는 총 12개의 강원에 5백여 명의 학인들이 수학하고 있었다. 당시에 강원을 운영하던 사찰은 해인총림·동화사·운문사·법주사·범어사·선운사·금산사·화엄사·통도사·동학사·백양사·화운사 등이었다. 이후 10년 지난 1979년에는 강원(승가학원)이 18개로 늘어나게 되는데, 봉녕사·화운사·봉선사·신흥사·월정사·법주사·동학사·직지사·동화사·운문사·해인사·대원사·범어사·통도사·표충사·석남사·금산사·선운사 등이다.²⁹⁾

26) 『대한불교』 1966.9.11.

27) 『불교신문으로 본 조계종단 50년사』,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 2012, pp.267-268.

28) 문순희(퇴후), 「한국 근현대 승가교육사 연구」, 중앙승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112.

29) 『조계종사 근현대편』,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1, pp.236-237. 이 책의 집계에는 모두 불

불국사는 조선시대의 강학 전통을 꾸준히 계승하여 1913년에는 불교강숙을 개설하였고, 1959년 수사찰로 지정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강원을 운영하였다. 1960년의 강원에는 행자와 사미에게도 강원교육을 진행하였고, 이듬해인 1961년에는 가람 주변의 유락시설을 일체 정비하고 능엄학림을 개설하였다. 동안거 3개월 동안 진행된 『능엄경』 강설은 전국의 많은 학인들이 동참하여 마치 결사와도 같은 열띤 분위기였다. 1966년에는 전문강원에서 7인을 배출하였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입학한 학인들은 장학 혜택을 받으며 내외전을 두루 섭렵할 수 있었다.

Ⅲ. 불국사 승가대학

1. 승가대학 개원

불국사 승가대학³⁰⁾은 1975년 8월 31일에 개원하였다. 불국사는 1969년부터 1973년까지 대대적인 발굴과 중창이 진행되었다.³¹⁾ 이후 1974년 6월에 월산선사(月山, 1913~1997)가 주지로 부임하여 수행과 전법도량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³²⁾ 그 첫 번째 과업이 승가학원과 선원의 설립이었다.

불국사 승가학원 개원

국사 강원이 누락되었다. 불국사를 포함하면 1969년에는 13개, 1979년에는 19개의 강원이 운영되고 있었다.

30) 승가대학 : 불국사 승가대학이 공식 명칭이다. 종단의 법령에 따라 강원 → 지방승가대학 → 사찰승가대학 등으로 명칭이 변하였다. 그런데 자료와 증언 등에는 ‘승가학원’, ‘강원’, ‘전문강원’, ‘학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한다. 원 자료의 취지에 따라 그대로 표기하지만 모두 승가대학을 가리킨다.

31)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6.

32) 김광식, 「월산의 생애와 사상」, 『대각사상』 32, 2019, pp.75-76.

제11교구 본사 불국사는 지난달[1975년 8월] 31일 주지스님을 비롯 대중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국사승가학원 개원식을 가졌다. 강사는 法空스님. 이날 식은 총무국장 月性스님의 개식사와 교무국장 性陀스님의 강사 약력 소개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사 법공스님은 인사에서 “항시 도제양성에 염원이 되어오던 바 본사 주지스님의 원력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으나 중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주지스님은 격려사에서 “종단 백년대계를 위해 도제양성이 시급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원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금년에는 선원을 신축하고 내년에는 강원을 증축하여 명실공히 모범적인 선·강원을 이룩하여 도제양성과 수도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한 “말사에 1인 이상 학인을 의무적으로 강원에 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국사는 그간 강원이 신설되어 있었으나 실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다. 불국사 말사는 50여 개로 알려지고 있어 강원생을 적어도 60~70명 이상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³³⁾

선사는 “종단 백년대계를 위해 도제양성이 시급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원했다.”고 하였다. 선사는 1968년 9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에 취임한 바 있으므로 종단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도제양성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 “금년에는 선원을 신축하고 내년에는 강원을 증축하여 명실공히 모범적인 선·강원을 이룩하여 도제양성과 수도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고 하였다. 당시 승가대학의 강사는 법공(法空)스님이었고, 총무국장 월성(月性)스님과 교무국장 성타(性陀)스님이 이 수행불사에 동참하였다.

월산선사는 일찍이 은사 금오선사의 가르침을 받으며 수행에 매진하였고 1948년에는 봉암사결사에서 치열한 구도에 진력하였다. 1968년 9월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에 취임하여 정화불사와 종단 유신안 등의 어지러운 현실을 점차 안정시켰다.³⁴⁾ 이와 같이 이(理)와 사(事)에 두루 형통하여 불국사의 중흥을 일궈냈던 것이다. 이때 입학한 학인들은 이듬해인 1976년 4월에 졸업하였다. 자세한 내용이 『대한불교』에 전한다.

33) 『대한불교』 1975.9.7.

34) 「5대 총무원장 월산스님」, 『법보신문』 2018.6.13.

불국사 승가학원 첫 수료식

제11교구 본사 불국사(주지 월산스님)에서는 지난 4월 15일(음 3월 16일) 제1회 승가학원 수료식을 동학원 강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서 학원장 월산스님은 수료생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경학에서 배운 바를 참선을 통해 직접 체득해서 계속 정진할 것을 당부했으며 강주 法空스님은 종단의 내일을 맡아갈 훌륭한 동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훈시했고, 그 외에도 교구말사 주지 대표 月南, 德庵스님과 신도회장 趙仁佐거사의 축사 등이 있었다. 불국사 승가학원은 지난 해 9월 1일부터 개원한 이래 그 첫 수료생을 배출하였는데 당사에서는 현재 신축 중인 선원 공사가 완공 되는대로 학원의 강의실도 새로 신축하여 강사진 구성 및 제반시설이 완료 되는대로 구(한)말 강원의 운영방식과는 다른 학교식 운영방식으로 바꾸고 徒弟教育의 새로운 기원을 세우고자 계획하고 있는바 차제에 많은 참신한 학인들의 입원을 바라고 있다. 이번의 수료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교과 졸업 宗厚, 사미과 수료 英丘, 觀性, 衆德, 一止, 大耕, 三玄, 虛求, 性坦, 宗水³⁵⁾

이날 승가학원 졸업생은 대교과 1인, 사미과 9인 등 모두 10인이었다.



제1회 강원생 졸업기념, 1976. 4. 15.

35) 「불국사 승가학원 첫 수료식」, 『대한불교』 1976.4.25.

한편 불국사에서는 강의실을 새로 신축하고 강사진을 구비하여 “구한말 강원의 운영방식과는 다른 학교식 운영방식으로 바꾸고 도제교육의 새로운 기원을 세울 계획”이라고 하였다. 즉 전통강원을 지양하고 현대식 학교교육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여 1978년 9월 새로운 강원을 준공하였다.

불국강원 완공 9월 10일 회향식

불국사 5천만원 들여 72평, 9월 10일 회향식, 9월 5일까지 학인 모집

불국사(주지 최월산스님)에서는 지난 4월 착공했던 불국사강원을 5개월간의 공사에 걸쳐 완공, 9월 10일 오전 10시에 준공식 겸 개강식을 갖는다. 총공사비 5천만 원이 소요된 새 강원은 건평 71평에 보일러까지 설비, 수용인원 30명의 대강원으로서 새출발 하게 됐다. 불국사는 지난 76년도에 이미 선원을 신축 금년 강원이 준공됨으로서 명실공히 선과 교를 집대성하여 꽃피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셈이다. 비록 관광붐으로 인해 사찰이 관광명소화되어 가는 시대 상황 속에서도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학업과 정진에 몰두하는 불가의 기풍을 진작시키겠다고 주지 월산스님은 소견을 피력, 내일의 불교를 위한 조용한 정화를 약속했다. 또한 동 강원은 裴雲起대강백을 강사로 9월 10일의 개강을 위해 학인모집을 공고, 희망자는 9월 5일까지 직접 불국사에 출두, 원서 제출을 바라고 있다.³⁶⁾

강원 중수는 1978년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진행되었다. 5천만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거액을 투입하여 건평 71평에 난방시설을 갖추고 30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강원으로 거듭났다. 강원의 외적 토대를 갖추고 이때부터 대흥사의 강주를 지냈던 배운기(裴雲起) 대강백을 강주로 초빙하여 내실을 갖춰 나가기 시작하였다.³⁷⁾

36) 「불국강원 완공 9월 10일 회향식」, 『대한불교』 1978.9.3.

37) “제11교구 본사 불국사(주지, 월산스님)에서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불국강원 신축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각 강원 강주스님 및 종단의 중진스님, 지방 기관장 등 사부대중 4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함께 열린 개강식에는 대흥사 강원의 전강주였던 석학 雲起스님이 새강주로 취임, 강원 출범에 의의를 더했다. 이날 주지 월산스님은 식사를 통해 간략한 공사내용 및 학사보고를 끝낸 후 학인스님들에게 면학을 당부하고 이들의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강주스님의 취임사, 그리고 香谷大禪師의 법어가 있었다.” 「불국강원 준공식」, 『대한불교』 1978.9.24.

1981년 조계종 총무원은 전국 강원교직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승가학원(강원) 설립령’을 발표하였다. 치문·사집·사교·대교과 등 전통강원의 교과과정에 불교사 및 선종사상사를 추가하고, 외국어와 인문학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공식적으로 승가교육에서 전통과 현대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부족한 강사와 미흡한 교재로 가시적인 결실은 그리 많지 않았다.³⁸⁾

이후 언론에서 80년대의 학인모집, 졸업 등에 관한 기사 광고 등을 통해 강원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978년 10월 「강원생 모집」 능엄반 보결생 모집³⁹⁾
- 1980년 3월 「불국사 승가학원 편입생 모집」⁴⁰⁾
- 1981년 2월 「불국사 승가학원 졸업식」, 제4회 졸업식으로 졸업생은 공연, 현섭, 법전, 법초, 수원, 혜봉, 득도, 처광 등 8인⁴¹⁾
- 1982년 2월 「불국사 승가학원 신입생 모집」, 시험과목은 초발심사경문, 의식, 국어, 외국어(한문·영어·일어 중 택일) 등이었다. 이 해부터 월서스님이 강원 원장 취임⁴²⁾
- 1982년 11월 「불국사 승가학원 졸업식」, 제7회 졸업식으로 졸업자는 무연, 정도, 법상, 종광, 황면 등 6인⁴³⁾
- 1983년 3월 「불국사 승가학원 학인모집」 사미과 신입학인 모집⁴⁴⁾
- 1984년 2월 「대교과 7명 졸업」 졸업자는 백성, 혜산, 지열, 지옥, 지현, 법상, 정심 등 7인⁴⁵⁾

이와 같이 불국사 승가대학은 정식 개원한 1975년 이후 변함없이 학인을 모집하고 교육시키며 많은 승가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강원 행정이나 종무 행정이 제대로 구비되지

38) 「통합종단 50주년 성과와 과제 ③ 도제 양성(승가교육)」, 『불교신문』 2012.4.5.

39) 「광고」, 『대한불교』 1978.10.

40) 「광고」, 『대한불교』 1980.3.30.

41) 「불국사 승가학원 졸업식」, 『대한불교』 1981.3.15.

42) 「광고」, 『불교신문』 1982.2.21.

43) 「불국사 승가학원 졸업식」, 『불교신문』 1982.12.12.

44) 「광고」, 『불교신문』 1983.3.13.

45) 「대교과 7명 졸업, 불국사 승가학원」, 『불교신문』 1984.2.29.

않았던 시절이라 아쉽게도 정확한 입학생·졸업생 수, 강사, 수업과목 등의 자세한 현황은 전하지 않는다.

한편 1984년 9월 승가대학 설립자인 월산조실스님의 인터뷰에서 당시의 수행과 교학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불국사라면 단순한 관광의 명소쯤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불국사는 강원과 선원을 갖춘 수도원이 있고 그 속에서 천 년 전의 찬란한 불교문화를 다시 일으킬 웅지에 불타는 수행승들이 모여 살고 있다. 이러한 수도원이 있게 한 장본인은 한국 불교의 원로 월산스님! 그 분이 이 땅에 새로운 가람을 이루어 수행승을 불러 모아 오로지 관광지 불국사에서 수행처 불국사가 되게 하신 분이시다. 75년에 개원한 선원은 별천지, 명산 토함산 아래 포근한 알자리 제2의 불국사인 이곳이 시끄러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준다. 불국선원이라 쓴 대문에는 오도자 불입(悟道者不入)이라고 쓴 편액이 우선 눈에 띄고 “이 문에 들려거든 분별망상을 버려라(入次門內 莫存知解)”는 글이 보인다. 해제철이라 선실은 조용하다. 고졸(高卒)한 경봉스님의 주련이 붙은 재가 염화실 즉 조실스님이 거처 하시는 방이다.

- 요즘 수좌들, 스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옛 스님께서 공부하시던 것과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내가 시원찮으니 우리 선원에는 공부 열심히 하는 수좌들은 안 오는 모양이야. 공부를 잘 하든 못하든 요즘 절망 메고 선방이라고 오는 것만 해도 여간 고맙지 않아요. 요즘 얼마나 세상에 팔리기 쉬워 명예와 쾌락과 돈 … 등 물질문명이 극도에 달하여 자칫 노예가 되기 쉬운 말세에 절망이라도 지고 다니는 것만 해도 대견스럽고 고맙지. 옛날에도 대근기(大根器)는 찾기 어려웠고 지금은 더욱 말할 것이 없지요.

- 스님께서는 어떻게 공부 하셨는지요?

- 우리가 젊을 때에는 다들 화두를 들고 공부를 했지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 부산 선암사에서 오래 지냈지요. 육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 내원사에도 있었고.

- 그 때는 아침저녁으로 선지식이나 조실 스님께서 계속 화두 점검을 하셨습니까?

- 그래 요즘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 수좌들도 게으르고 나도 마찬가지고 … 내 생각은 금강경 정도는 수좌들이 아침저녁으로 송경했으면 좋겠어. 신심도 나고, 그러나 통 할려고 해야지.

- 언제부터 우리나라 선원에서 불립문자 하는 풍조가 있었는가요?

- 진정한 수행승은 일체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지, 득도 할려면 화두 타파하는 것만이 그

전부여야 해. 물론 어록이나 부처님 말씀은 필요하지만 선원에서는 화두 타파하는 것에 전심 전력을 투구해야 해요. 그밖에 일체 것은 다 없애고 ... 선원에서는 오직 일념으로 화두 타파를 해야 합니다. 애써서 화두타파 할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부처님 말씀도 참고로 하고 조사어록도 좀 보고 깨달음과 연관 없는 것은 다 없애고 오직 화두 일념으로 가야 한다고 보지요.

- 그러면 포교 문제나 교학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와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시지요?

- 견성을 중심으로 하는 수좌들과 교학과 포교하는 학자나 포교사는 그 방법이나 소질을 개발하고 또 종단적인 지원도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한국 불교는 선종이 대표적인 것이긴 해도 선종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니까 염불종이나 그 밖의 의식의 문제도 더욱 찬란하게 하고 포교에도 더욱 힘써야 되리라고 봅니다.

- 견성과 포교문제 양분(兩分)적인 것에서 펍 젊은 수행자들이 고민하고 갈등을 가지는데 스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내가 불 때에는 견성이 급하고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은 곧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남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과 같지요. 내 발등의 불을 끈 연후에 남의 발등에 불이 보이는 것과 같이 내가 견성하고 난 연후에 포교도 있다고 보지요.

... (중략) ...

- 생활불교라는 말이 있는데 진정한 생활불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생활불교라는 말에 우선 생각나는 것은 원효스님이 신라 땅을 다니면서 바가지를 두드리며 노래도 하고 교화도 했는데 우선 불교가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연극이나 영화를 통해서 마스크를 통해서 미술이나 공예 ... 그밖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염불을 하더라도 옛날과 같이 복과 징을 치면서 더욱 신명이 나고 찬란하게 해서 그들과 우선 가까워져야 된다고 보지요. 그리고 동사섭(同事攝) 즉 동고동락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럴려면 그들의 기쁨과 아픔의 현장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그것에 따라 교화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산 이름을 전부 불교경전에 의하여 붙인 것을 보면 펍 현명한 생활불교 실천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으로는 화두 하는 것을 주장하지만 불교 전체를 봐서는 여러 가지 모든 종파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은 불교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의견이 전체 불교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장은 수도장답게 포교당은 포교당답게 각기 특징을 가지면서도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어야만 진정한 불교의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⁴⁶⁾

월산스님은 ‘선사’였다. 1945년 수덕사에서 만공스님으로부터 ‘이뿔고’ 화두를 받아 정진을 시작한 이래 금오스님으로부터 ‘돌맹이 화두’ 이뿔고를 재점검 받으면서 용맹정진의 결심을 굳혔다. 1948년 경 봉암사결사에 참석할 때는 ‘부처님 법대로 살자’라고 하면서 공주규약(共住規約)대로 수행하였다. 1953년 청도 적천사 도솔암 토굴에서는 가난과 허기에 고통 받으면서도 철저히 홀로 수행정진 하였다. 여기서 큰 힘을 얻고 오로지 ‘이뿔고’ 화두에만 몰두하였다. 이러한 참선수행 정신을 바탕으로 1974년 불국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석굴암에서 토굴수행과 불국선원을 개창하여 후학을 지도하였다.⁴⁷⁾

자신은 평생 철저한 참선수행자였으면서도 앞의 인터뷰에서 스님은 “내 개인으로는 화두 하는 것을 주장하지만 불교 전체를 봐서는 여러가지 모든 종파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은 불교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의견이 전체 불교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장은 수도장답게 포교당은 포교당답게 각기 특징을 가지면서도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어야만 진정한 불교의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종파의 다양성과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학과 의식에 대해서도 열린 의식을 지녔다. “견성을 중심으로 하는 수좌들과 교학과 포교하는 학자나 포교사는 그 방법이나 소질을 개발하고 또 종단적인 지원도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한국 불교는 선종이 대표적인 것이긴 해도 선종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니까 염불종이나 그 밖의 의식의 문제도 더욱 찬란하게 하고 포교에도 더욱 힘써야 되리라고 봅니다.”

2. 1990년 이후의 승가대학

1990년에는 상묵(象默)스님이 승가대학의 강주를 맡았고, 이듬해인 1991년에는 종원(宗圓)스님이 주지로 취임하면서 학장을 겸임하였다. 당시 승가대학은 3년 과정이었고, 20여 명의 학인이 재학하고 있었다.⁴⁸⁾

46) 「불국(佛國)선원을 찾아서, 월산 큰스님」, 『월간 해인』 31호, 해인사, 1984. 9.

47) 한태식(보광), 「월산 큰스님의 선사상(1)-수행과정과 참구화두를 중심으로」, 『대각사상』 32, 2019, pp.91-131.

1994년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이 출범하면서 종단의 교육행정이 일원화하기 시작하였다. 승가교육체계를 행자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특수교육, 연수교육의 다섯으로 구분하고 모든 출가자들은 법계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승가고시를 치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승가대학은 기본교육에 포함시켰다. 승가대학을 “행자교육을 이수한 사미·사미니에 대해 비구·비구니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고, 인천의 사표로서 지혜와 원력을 함양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사무교육을 실시하는 상설기관”으로 규정하였다. 이어 교육법 66조에서는 기본교육의 이념 및 목표는 스님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고, 인천의 사표로서 지혜와 원력을 함양하게 하기 위해 조계종지의 체득을 비롯한 8가지의 구체적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불교의 기본원리를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둘째, 불교교단의 전통정신을 체득하고 계승하도록 배려되어야 하며 셋째, 교화에 임해서 원만히 교화불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수련하는 훈업(勲業)이 있어야 하고 넷째, 내부적으로 교단을 수호하고 관리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과목을 개설한다는 것이다.⁴⁹⁾

이러한 교육법에 따라 전국의 강원들이 승가대학으로 인가되고, 학제와 교과과정이 동일화되었다.⁵⁰⁾ 불국사 승가대학은 1995년 이에 맞춰 ‘불국사 승가대학’으로 정식 개원하게 된다. 1997년 조계종교육원에서 강원들의 역사와 현황을 망라한 『강원총람』을 간행하였다. 이 가운데 당시의 불국사 승가대학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48) “63개의 말사를 두고 있는 80여 명의 대중스님들이 주석하고 있는 불국사가 교구본사로서의 위용과 활약을 크게 펼쳐 보이게 된 것은 1974년 현 조실 월산스님의 원력이 일궈낸 작품이다. 1백 평의 선원을 중수해 선방납자의 정진을 돕고 있고 3년 과정의 승가대를 개설, 현재 20여 명의 학인승려가 ‘이론실수’에 열중하고 있다.” 「미래사회 밝힐 한국불교의 법등」, 『불교신문』 1991.5.8.

49) 능허, 「강원의 교육이념 및 목표에 대한 고찰과 진단」, 『승가교육』 4,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1, pp.133-134.

50) 양관스님, 「통도사 승가대학의 역사와 문화」, 『대각사상』 15, pp.227-228.

『강원총람』(1997년) 중의 불국사 승가대학 주요 현황

- 원훈 : 인불학 불지도(人不學 不知道)
- 불국사 승가대학은 사미승가대학으로서 1975년 이전에 설치되었으나 실제로 1975년부터 법공스님이 강의를 맡으면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범룡(梵龍), 운기(雲起), 재선(在禪), 상묵(象默), 용문(龍門)스님으로 강의가 이어져 왔으며 현재는 지욱(智旭)스님이 강의를 맡고 있다.
- 강원(승가대학) 역대 강주·강사
 - 법공(法空, 1975~1978)
 - 범룡(梵龍, 1978~1979)
 - 운기(雲起, 1979~1982)
 - 재선(在禪, 1982~1984)
 - 상묵(象默, 1984~1994)
 - 용문(龍門, 1994~1996)
 - 지욱(智旭, 1996~)
- 학제 및 교과과정

사미과	치문, 외국어, 서예, 컴퓨터, 특강
사집과	서장, 도서, 선요, 절요, 외국어, 서예, 컴퓨터, 특강
사교과	능엄경, 기신론, 금강경, 원각경, 외국어, 서예, 컴퓨터, 특강
대교과	화엄경, 서예, 컴퓨터, 특강
특강	1. 학인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외래교수를 초빙, 특강할 수 있다. 2. 특강 내용은 행정, 문화, 교육, 복지, 포교 등으로 한다.

- 강원(승가대학) 학인 현황
치문반 13인, 사집반 3인, 사교반 2인, 대교반 0인
- 강원 졸업자 명단⁵¹⁾

졸업회차 / 시기	졸업자수(인)
제1회 ~ 제9회	누락
제10회 / 1988. 3.	3
제11회 / 1989. 2.	15
제12회 / 1990. 2.	8
제13회 / 1991. 3.	7
제14회 / 1991. 11.	5
제15회 / 1993. 2.	4
제16회 / 1994. 3.	8
제17회 / 누락	누락
제18회 / 1996. 2.	6
제19회 / 1997. 2.	6



제19회 졸업식, 1997. 2.

이와 같은 1997년 당시의 승가대학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 강주는 지옥(智旭)스님, 중강은 종천(宗泉)스님으로 학인은 모두 21인이었다. 졸업생 수는 1회부터 9회까지 즉 1976년 이후 1987년까지는 자료의 누락으로 확인되지 않고, 이를 제외하면 모두 62인이었다.

그런데 『대한불교』 등의 기사에서 제1회(1976년) 대교과 수료 1인, 사미과 수료 9인이 확인된다.⁵²⁾ 또한 제4회(1981년) 졸업생은 8인이었고,⁵³⁾ 제7회((1982년) 졸업생은 6인⁵⁴⁾, 제9회(1984년) 졸업생은 7인이었다.⁵⁵⁾ 즉 『강원총람』에서 누락한 1회~9회 졸업생 가운데, 1회, 4회, 7회, 9회의 졸업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모두 포함하면 82인이 된다.

51) 「강원졸업자 명단」, 『강원총람』 별책 부록.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 1997, pp.17-18.

52) 「불국사 승가학원 첫 수료식」, 『대한불교』 1976.4.25.

53) 「불국사 승가학원 졸업식」, 『대한불교』 1981.3.15.

54) 「불국사 승가학원 졸업식」, 『불교신문』 1982.12.12.

55) 「대교과 7명 졸업, 불국사 승가학원」, 『불교신문』 1984.2.29.

1999년에는 17인의 학인이 재학 중이었고,⁵⁶⁾ 2003년에는 16인이 재학하였다.⁵⁷⁾ 당시 학장은 응각스님, 교수는 종천·정묵·정수스님 등이었다.

2010년에 들어 종단은 승가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였다. 교육원은 2009년 승가 교육진흥위원회를 출범하여 승가교육의 현대화와 내실화라는 큰 틀에서 교육불사를 추진하였다. 이 가운데 교육불사의 핵심은 단연 교과과정 개편이다. 기왕의 한문 위주의 교재를 현대화·한글화하고, 교과목도 대폭 늘렸다. 학인들은 4년, 8학기 동안 48개의 과목을 배우게 된다. 한문불전을 강독하는 것 외에도 초기, 대승, 선, 불교사, 계율, 비교종교학, 불교문화, 사회복지학, 참선지도방법론 등을 익히도록 하였다. 교육 개편안은 그간 진행돼온 승가교육과는 차이가 크다. 기존 승가대학은 4년간 치문, 사집, 사교, 대교를 배우고 여기에 대승경전 몇 권을 공부하는 형태였다. 한문경전을 중심으로 한 훈고학적 수업 위주였기 때문에 원문해석에 많은 시간을 쏟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교과개편은 개별 승가대학 입장에서는 개혁과 같다고 한다.⁵⁸⁾ 이러한 교육법 개정에 따라 절은 2011년 신학기부터 채택하는 신교과과정 시행 승가대학에 선정되었다. 불국사를 비롯하여 동화사, 운문사, 수덕사, 해인사, 쌍계사, 범어사, 송광사, 봉녕사 등 9개소였다.⁵⁹⁾

이러한 개혁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불교신문』은 그 사례로 2010년 12월 불국사 승가대학을 집중 취재하였다.

변화하는 한국불교 - 승가교육 현장

승가교육개혁은 불교미래 밝히는 원동력

‘미래 人天의 스승 육성’ 교육시스템 구축하는 불국사승가대학

조계종 승가대학이 달라지고 있다. 교과개편과 전문승가대학원 설립을 필두로 한 승가교육진

56) 「승가대학(강원) 종합평가 사업 보고서」, 『승가교육』 3,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0, pp.64-91.

57) 「2002·3승가교육의 현황」, 『승가교육』 5, 2004, pp.41-57.

58) 「변화하는 한국불교 - 승가교육 현장」, 『불교신문』 2011.1.1.

59) 「조계종, 불국사 등 새 교과과정 시행 승가대 9곳 선정」, 『불교신문』 2010.11.30.

흥불사가 시작되면서 조선시대부터 300년간 이어온 강원의 교육법에 현대화 바람이 불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원은 지난해 수십여 차례의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구했고, 13개의 법령을 새롭게 제정해 운영근거를 마련했다. 변화의 중심은 교육원이지만, 변화의 결말은 각 승가대학이 맺는다. 3월 개강을 앞두고 전국의 승가대학은 지금 새롭게 개편한 교과과정에 맞춘 학제마련에 여념이 없다.

지난해 12월 24일 제11교구본사 불국사승가대학(학장 덕민스님)을 찾았다. 이맘때면 기말고사를 끝낸 대학이 방학에 들어간 것과 달리 승가대학은 아직 학기 중이다. 강사 스님들은 학인들 지도하랴 신입생 모집하랴 분주하다. 특히 이번 겨울은 어느 때보다 바쁘다. 신입 학인 모집에 앞서 교과개편에 따른 학교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타 총림에 비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스님들이 모여 탁마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육의 장을 만들자는 사중의 의지를 반영하려면 여유 부릴 새도 없다.

변화가 크니 준비할 것도 많다. 불국사 승가대학은 그간 운영위원장 성타스님을 비롯해 학장, 강사 스님들은 새로운 학사운영을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현대화된 커리큘럼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논의였다. 스님들은 새롭게 개편된 교과목을 지도할 강사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했다. 경주라는 지리적 장점을 십분 활용해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진각종에서 운영하는 경주 위덕대와 네트워크 조직에 나섰다. 지난 해 10월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승가교육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해 강사진 확보에 우위를 선점한 것이 시작이다. 강사 정수스님은 “개편된 교과과정을 따르려면 우수한 전문 강사진이 많이 필요한데 경주 동국대가 인접해있어 다른 어떤 승가대학보다 협조가 용이하다.”며 “종립학교의 교수진과 박사들이 승가대학에서 강의한다면 강의질도 담보되고 학사운영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원의 새로운 교과개편안 실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문경전 위주의 훈고학적 교수법을 터부시하지 않는다. 출가자 교육의 기본으로, 승가교육의 전통이기도 한 참회, 습의 예불, 간경 등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게 승가대학의 입장이다. 전통교육의 장점은 잘 계승하되 현대화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보완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불국사승가대학은 기존의 한문원전 교육과 함께 다양한 지식습득을 위해 전문적인 외래교수의 강의와 특강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위원장 성타스님은 “요즘 늦깎이 스님들이 많은데 세속의 묵은 때를 씻어내는데 정보와 지식 교육만으로 부족하다.”며 “예불, 간경, 참선 등 실참을 통해서만 청정한 수행자로 태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혜택도 제공한다. 승가대학 교수스님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인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할 방침이다. 학인스님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장학제도와 복리후생제도도 갖췄다. 우선 학인스님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한다. 기존 강원에서 사중의 행사나 율력 동참으로 학사운영이 일관적이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결정이다. 교재비 지급도 계획돼 있다. 정수스님은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되면서 교재 및 참고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재구입 일부를 지원할 것”이라며 “학인스님들의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도서관과 전산시설을 확충했으며, 체력단련을 위한 헬스장, 탁구장, 족구장, 전용축구장 등 편의시설도 완비했다.

“한국불교의 미래는 승가교육에 있다.”고 강조하는 성타스님은 “출가자는 누구보다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소양을 갖춰 국가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인천의 스승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수행에서도 이사겸수(理事兼修)하듯 승가교육도 이와 사가 겸비돼야 조화롭고 이상적인 교육이라 할 수 있다.”며 “이번 교육혁신을 계기로 불국사승가대학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출가자들을 기르는 터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⁶⁰⁾

이와 같이 불국사는 교육개혁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장 성타스님, 학장 덕민스님, 그리고 강사 정수스님 등이 전통교육과 현대교육을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성타스님은 “1970년대 초반까지 관광사찰에 불과했던 불국사가 수행도량으로 거듭나게 된 계기는 승가대학 설립”이라며 “월산스님의 원력으로 강원이 세워진 이래 불국사승가대학은 40년의 역사를 지닌 명문 강당이 됐고, 한문학의 대가 덕민스님이 학장 소임을 맡고 있어 학인들이 불전을 탁마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강조하였다.

불국사 승가대학은 역사가 오래 되지 않았으나 이처럼 종단의 승가대학 중에 우수한 곳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2012년에도 『월간 판전』에서 승가대학을 탐방하여 자세한 기사를 실었다.

강원을 찾아서 3. 토함산 불국사

걸을 보자면 불국사는 국내에서 가장 번잡한 사찰이다. 세계문화유산이란 명성에 걸맞게 늘

60) 「변화하는 한국불교 - 승가교육 현장」, 『불교신문』 2011.1.1.

관광객이 몰려와 새벽부터 절 문을 닫을 때까지 인파가 그치질 않는다. 어린 학생들 수학여행이라도 겹치는 때면 빈틈없이 사람의 물결을 이룬다. 어떤 이는 신라의 건축을 보고 가고 누군가는 화려한 석탑과 불상에 감탄한다. 그런 소란함을 뒤로 물리고 다보탑 석가탑을 지나 종각 아래로 내려가면 불국사 승가대학이 있다. 불국사는 조계종 교육원의 바뀐 교과과정을 일찍부터 받아들여 진작에 교육체계를 정비하였다. 담 하나를 돌렸을 뿐인데도 바깥의 소란과는 무관한 채 고요하고도 평안하다. 학인은 30명, 학인의 수는 예전 보다 늘어가는 추세이다. 강주인 학장스님은 일해 덕민스님, 학감은 현학스님이다. 불국사는 조계종의 강원중에서도 시설과 지원이 으뜸으로 꼽힌다. 사중 요사채의 절반 이상이 강원 용도로 쓰이고 있어 강의실이 부족하거나 학인들의 공부방이 모자랄 일은 결코 없다.

불국사 강원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은 편이다. 1975년 당시 조실로 오셨던 월산스님께서 선교쌍수를 강조하여 선방과 강원을 열었다. 강원에는 거는 기대와 투자도 커서 내놓으라는 강사를 두루 모셨던 전력이 있다. 불국사의 사격도 높아졌고 교구본사도 기림사에서 불국사로 옮겨왔다. 관광지의 어수선함을 딛고 강원이 안정된 것은 2002년[2005년이다. 필자 주] 겨울 덕민스님이 강주로 온 다음부터라고 전해진다.

… (중략) …

불국사 강원의 특색은 철저한 한문 원전 교육을 꼽는다. 덕민스님은 지곡서당으로 유명한 태동고전연구소[泰東書畵이다, 필자 주]에서 동양고전을 두루 익혔다. 학인들은 스승으로부터 밝은 눈으로 한문 경전을 새기고 익히는 경험을 배워갈 수 있다. 경을 읽을 때 불교 교리는 물론이고 유학과 노장 사상 뿐 아니라 한시까지 두루 겸하여 참조하는 것이 강주스님의 독특한 교육방식이다. 내전과 외전에 두루 강한 것이 불국사 승가대학 교육이다. “강주스님이 제일 강조하는 것은 경전을 마음으로 새기고 입으로 소리 내서 읽는 간경입니다. 간경을 하려면 우선 뜻을 환히 알아야 하고, 소리 내 음독하려면 한문을 철저히 새겨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뜻이 돌아가야 하고 마음이 집중돼야 제대로 된 간경이 가능합니다.” 학감 현학스님은 간경을 강조한 후부터 강원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덕민스님은 자신이 스승으로부터 배우던 시절 『서장』을 천 번을 읽으니 자연히 뜻이 통하여 문리가 생겼다고 하였다. 배운다는 것은 거듭거듭 반복하여 마음에 길이 나는 일이니, 길가는 법을 익히면 다른 길을 걸을 때도 쉬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는 알지 못하지만 후에 천릿길을 갈 때는 첫걸음마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마련이다. 강주스님이 간경을 강조하는 것은 배움의 방편 뿐 아니라 학인을 위한 수행의 방식으로 삼기 때문이다. 강원에서 학인이 잘못을 범하면 간경으로 참회를 삼는다. 스님은 “사고를 쳐야 배움의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불국사 강원에선 잘못이 큰 발심과 수행의 전기가 된다고 했다.

누군가에겐 허물이 되는 일도 어떤 이에겐 약이 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간경과 독경은 불국사 강원의 주된 일과이다. 학인들은 누구나 새벽예불이 끝나면 부처님 가르침을 소리 내 읽는다. 학과 시간이 끝나면 오후 2시간은 또다시 소리 내 경을 읽고, 저녁 예불이 끝난 후에 독경으로 일과를 마감한다. 덕분에 사중에는 부처님 경전 읽는 소리가 그칠 틈이 없고 관광객의 어수선했던 수행처의 답을 넘지 못하게 됐다.

사물(四物)을 치거나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일 외에 달리 학인들에게 놓인 일은 없었다. 그 래도 공부하는 이는 늘 모자라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사중의 장학금으로 학비의 어려움은 없었지만 몸이라도 아프면 학인의 처지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맞는다.

학인스님들의 선배이기도 한 강사 성화스님은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고 있었다. “어떤 학인이 아프지 않은가 늘 살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부처님 품안에서 병고를 겪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강사들이 십시일반 약값을 보태기도 하고 크게 아프면 사중에서 나서서 돕습니다.” 출가자가 고령화되는 추세는 불국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몸 약한 학인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됐다. 강사는 배움의 스승일 뿐 아니라 승가의 선배로서도 할 일이 많아졌다. 배우고 가르친다는 일이 스승으로부터 입은 덕을 제자에게 고스란히 갚는 일이니 그런 마음 씀씀이 없이 승가의 교육은 불가능한 일이다.

(중략)

“공부하는 학인들은 한국불교의 내일입니다. 강원에 대한 투자는 불교의 앞날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불국사가 강원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불국사 교무 정민스님의 말이다. 최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교단과 사중의 할 일이라고 강조 하였다. 현재 교계 내 강원의 입지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현실이지만,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것도 사실이다. 불국사 강원은 그런 점에서는 나은 편 이다.⁶¹⁾

학장 덕민스님, 학감 현학스님, 강사 성화스님, 교무 정민스님 등 강원 교역자들의 승 가교육에 대한 열정과 정성이 잘 드러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국사 승가대학 은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즉 입학하는 학인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계종의 <승가대학 운영에 관한 령>에서는 승가대학의 최소 정원을 ‘학년 당 10인 이 상, 총정원 4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0년에 제정한 규정으로 2019년 5월 총 7

61) 『판전』, 봉은사, 2012. 9.

차례의 개정 때까지 이 정원 규정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2018년 조사 결과 전국 14개 사찰승가대학 가운데 학년별 정원 10인 이상의 규정을 충족한 곳은 단 2곳(통도사·운문사)에 불과하였다.⁶²⁾ 삼보사찰이라고 하는 통도사는 48인, 해인사는 33인, 송광사는 23인에 불과하여 이곳마저도 종법령의 학인 정원수에 미달하였다.

사찰승가대학에 입학하는 학인수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입학생 현황을 보면 운문사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도사 12명, 송광사와 불국사가 8명, 해인사·동학사·범어사 7명, 봉녕사·화엄사·청암사 6명, 동화사·수덕사·법주사 3명, 쌍계사 2명 등이었다. 당시 진광스님(교육원 교육부장)은 이러한 현실에서 기본교육기관 수를 조정하는 등의 대폭적인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강원교역자들은 임의로 승가대학 수를 조정하는데 한결같이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과거의 전통강원과 같이 질적 향상과 내실을 기하는 자율 운영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출가자의 감소는 종단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지난 30년간(1991~2020년) 출가자[수계자]가 75% 가량 줄었다. 1997년에는 517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131명에 불과하였다.⁶³⁾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현대사회의 인구 감소 문제와 맞물려 있다. 사실 국가도 종단도 별다른 해결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국가가 나서서 인구 감소를 막아보려 온갖 노력을 기울여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종단과 사찰이 힘을 기울여 출가를 권장하지만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승가대학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IV. 불국사의 강주와 강사

불국사의 역사에 등장하는 강사는 매우 많다. 천 삼백년이 넘는 오랜 세월 화엄불국토

62) 「조계종 승가교육 개선 방안」 세미나,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교육위원회, 2018. 7. 12. 「10명 정원 채운 승가대학, 전국 14개 중 단 2곳 불과」, 『법보신문』, 2018. 7. 18.

63) 「조계종 30년 출가자 현황」, 『법보신문』 2021. 5. 12.

를 건설하고자 했던 명안종사(明眼宗師)들의 강경과 독경 소리가 무설전 곳곳에 깊이 서려 있다. 8세기에 등장하는 표훈과 유가는 이곳에서 『화엄경』을 강의하였고, 9세기말 삼성강원이라는 강원 이름의 주인공이 되었다. 고려·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강사들이 불법의 진리를 탐독하고 강설하였지만 아쉽게도 전하는 자료는 거의 없다. 절에 관한 기록들은 대부분 가람의 중수와 중창, 불상과 석탑의 조성에 관한 사실만을 적고 있다.

다만 근현대 이후 이곳에서 강석(講席)을 펼친 십 수 명의 강사를 확인할 수 있다. 절의 역사에 등장하는 강사를 모두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⁶⁴⁾

- | | |
|--------------|--|
| • 통일신라시대 | 표훈·유가대덕 |
| • 1960년 | 진용스님 「초발심자경문」 등 강의 |
| • 1961년 | 설봉스님, 능엄경 강의 |
| • 1966년 | 강주 김철수(金哲守)스님 |
| • 1975~1978년 | 강주 법공(法空)스님 |
| • 1978~1979년 | 강주 범룡(梵龍)스님 |
| • 1979~1982년 | 강주 운기(雲起)스님 |
| • 1982~1984년 | 강주 재선(在禪)스님 |
| • 1984~1994년 | 강주 상묵(象默)스님 |
| • 1994~1996년 | 강주 용문(龍門)스님 |
| • 1996~? | 강주 지욱(智旭)스님 |
| • 2002~2005년 | 학장 응각(應覺)스님 |
| • 2005~현재 | 승가대학원 원장 덕민스님, 승가대학 학장 정수스님,
학감 성화스님, 교수 상락스님, 일선스님 |

64) 종단의 법령에 따라 승가대학 소임자의 호칭은 강주, 강사, 중강에서 학장, 정교수, 부교수 등으로 변화하였다. 법령이 바뀌면서 불국사에는 강주와 학장이 병존하는 시기도 있었다. 여기서 사용하는 ‘강사’는 지금과 같은 직위의 뜻이 아니라 전통적인 의미의 ‘경을 설하는 스승’이라는 의미이다.

이 가운데 강주(학장)를 역임한 몇몇 분들의 간략한 행장을 소개한다.

○ 법공스님

법공 재학(法空在學, 1918~2002)스님은 1975년 불국사 승가학원 개원 당시 초대 강주를 맡아 1978년까지 역임하였다. 스님은 서울 출생으로 1935년 경기도 양주 봉선사에서 득도하였다. 1940년 서울 안암동 대원암에서 영호율사(석전 박한영, 1870~1948)를 계사로 보살계 및 비구계 수지를 하였다. 스님은 박한영스님 슬하에서 공부하던 시절을 가장 소중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겼다. “한영스님께서는 항상 출가할 때의 마음을 잊지 말고 틈나는 대로 머리를 만져보라고 했지. 또 경학을 하면서도 참선을 하라고 했어.”⁶⁵⁾ 스님은 스승의 말을 잊지 않고, 실천하여 수선안거 20하안거를 성만하였다. 당시 개운사 대원암은 최고의 강원이었고, 1회 졸업생 청담스님을 비롯하여 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1941년 동국대 문리대에 입학하였으나 일제가 학병을 차출하기 위해 기승을 부리자 이를 피해 광릉 봉선사로 은신하였다. 이곳 홍법강원(弘法講院)에서 운허강백으로부터 대교과를 수료하였다. “나의 은사인 운허스님께서는 선농일치를 주장하셨지. 낮에는 꼭 밭에 나가 일을 했지. 그렇지 않으면 수행자는 제대로 된 수행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많은 수행자들이 먼저 간 스님네들의 공부방식을 따르고 실천해야해. 이 시대 수행자들은 물질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그래서 수행이 어려운 거야. 물론 시대적 상황이긴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겠어. 이제 수행자들도 초발심으로 돌아가 일하고 수행하는 올곧은 정신을 통해 진정한 수행처로 되돌아 가야해.”⁶⁶⁾

스님은 1945년에 경기도 양주 석굴암 주지를 맡았고, 1947년에 경기도 교구 교무원 교무에 선임되었다. 1947년 불교중앙종회의원을 지내고 1948년에 불교중앙총무원 법계고시에 합격하여 대덕법계를 받았다. 1949년에 동국대를 졸업하였다. 1950년 경기도 가

65) 「수락산 도안사 법공스님」, 『불교신문』 1997.9.2.

66) 「우리스님, 도안사 법공스님」, 『불교신문』 2002.2.15.

평균 현등사 주지, 1952년 동국대 재단 서무와 도서관 사서주임 역임. 1964년 이후 법주사 강원 강주, 백양사 강원 강주, 불국사 강원 강주, 서울 청룡사 강원 강주, 전남 구례 화엄사 강원 강주를 역임하였다. 1981년 대구 동화사 직할 포교당 보현사 포교사를 지냈다. 1982년부터 1994년까지 도선사 신탄학원 강사를 맡았다. 1995년부터 도안사 조실을 지냈다. 스님은 생전에 “이생에서 사람 몸 받고 출가해 좋은 스승 복까지 받았으니 그야말로 나는 복이 터진 셈입니다. 그리고 평생이다시피 한 많은 시간을 강원에서 부처님말씀을 출가학인들에게 전달하면서 나름대로 선방에서 20안거를 마쳤으니깐요.”⁶⁷⁾라고 하였다.

○ 윤기스님

윤기(雲起, 1898~1982)스님은 1979년부터 1982년까지 강주를 역임하였다. 스님은 전북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에서 태어났다. 16~17세 무렵 선운사 주지 경암(炅庵)스님 문하로 출가하여 1915년에 사미계를 받았다. 경암스님은 윤기의 남다른 총기를 발견하고 순창 구암사의 박한영스님에게 보냈다. 구암사는 당시 교학의 중심지였고, 윤기는 이곳에서 교학을 정수를 전수받을 수 있었다. 이후 신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박한영의 권유에 따라 스님은 서울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24년에 졸업하였다. 1926년 박한영은 서울 개운사의 대원암에 ‘조선불교중앙강원’을 설립하여 교학을 전파하였다. 스님 역시 참여, 수학하였다. 1931년 박한영은 동국대의 전신인 혜화전문학교 교장에 선임되었고, 스님 역시 혜화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스님은 스승의 권유로 일본 유학을 다녀왔다. 박한영은 제자가 선진불교학을 배워와 대학강단에서 널리 펼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스님은 귀국 후, 옛날 백파 공선(白坡巨璇, 1767~1852)선사의 행장을 따라⁶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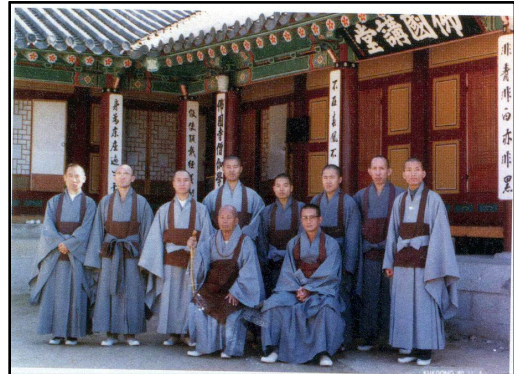
67) 「거울 먼저 닦듯 삼독 녹여야 불자의 삶, 법공스님」, <https://blog.naver.com/ppm0310/11712050>

68) 백파는 일생을 선운사와 지리산 화엄사, 장성 백양사, 해남 대흥사, 구암사 등 호남의 명찰을 오가면서 자신이 배우고 깨달은 선교를 후학들에게 전수하고, 구암사에서는 저술에 심혈을 기울였다. 선사는 『작법귀감』, 『선문수경』, 『법보단경요해』, 『고봉화상선요사기』, 『수선결사문』, 『오종강요기』, 『금강팔해경』, 『구암집』, 『여고가석』, 『식지변설』, 『선문염총집사기』, 『경덕전

전라도에서 교학을 강설할 계획을 스승에게 아뢰고 선운사로 낙향하였다. 1934년 선운사의 주지로 있으면서 교학을 펼쳤다. 1936년 38세에 백양사 강원의 강주가 되었고, 이해에 박한영을 법사로 대덕법계를 받았다. 이듬해 1937년에는 한국불교의 화엄종주인 설파상언, 백파 금선, 설두 유형, 그리고 박한영을 잇는 전강강백(傳講講伯)이 되었다. 한편 이 무렵 스님은 정읍포교당에 대원공민학교(大願公民學校)를 개설하여 야학을 시작하였다. 주권상실의 시대에 가난한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려는 민족의식의 발로였다.



운기스님 강의 중, 불국강원



운기스님 학인들과 함께

1945년에는 정읍 내장사에 머물렀다. 이 해에 스승 박한영이 내장사로 내려왔고 입적하는 1948년 2월까지 스승과 제자는 함께 지냈다. 박한영은 자신의 경책 등 일체의 유품을 스님에게 전하고 전강의 법맥을 잘 계승하라고 당부하였다.⁶⁹⁾ 박한영과 스님은 불가의 스승과 제자로서의 모범은 물론 영원히 전해져야 할 아름다운 선연(善緣)이다.⁷⁰⁾

1951년에는 종립학교인 전북 금산 중·고등학교 교장을 맡아 청소년 교육에 노력하였다. 스님은 이 시기를 회고하며 “대학에서 일하는 것보다 낙후한 시골의 청소년들을 교

등록사기』, 『다비설』 등 많은 저작을 남긴 대문장가였다.

69) 석전이 운기에게 내려준 법호와 전법계 실물이 선운사 정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영호 정호대종사 일생록, 석전 박한영』, 종결·혜봉 공저, 신아출판사, 2016, pp.596-597.

70) 법철, 『운기대강백 행장기』, 『독보건곤, 운기대강백 행장기』, 운기문도회 편, 도서출판 선운사, 2015, pp.65-66.

육하는 것이 백번 옳다고 판단하였다.”⁷¹⁾고 하였다. 1958년에는 다시 선운사 주지를 맡았다. 주지이지만 스님은 직접 대중을 이끌고 농사를 지었다. 사찰운영은 시주의 보시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였다. “수행자들은 근검절약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진정한 수행자는 신도들의 시주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 수행자들은 모두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의 정신으로 살고, 근검절약 정신으로 사찰운영을 하고, 경전을 손에서 놓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불교학을 공부하고, 계몽정신으로 후학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1970년부터는 서울 봉은사에 주석하며, 동국역경원의 역경위원으로서 대장경의 한글번역에 힘을 쏟았다. 1975년부터 1982년까지는 해남 대흥사와 경주 불국사 불국강원의 강주로 후학양성에 진력하였다. 스님은 1982년 세수 84세, 법랍 68년으로 입적하였다. 1986년에 미당 서정주가 비문을 찬하고 선운사에 비를 세웠다. 스님이 남긴 유묵과 유품 등을 선일(禪一)스님이 계승하여 현재 인천 법명사 명상박물관에 잘 보전하고 있다.

○ 상묵스님

상묵(象默, 1937~2000)스님은 1984년부터 1994년까지 11년간 절의 강주를 지냈다. 스님은 대전 가양동에서 태어났다. 천성이 영민하여 10세 이전에 사서삼경을 통독하였을 뿐 아니라, 출가 전부터 여운 노장에게 교학을 사사하였다. 1953년에 공주 마곡사 서운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출가 신분이었지만 뜻한 바 있어 부산 해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철학과에 진학하였다. 1961년 용주사 불교전문강원을 졸업하고, 같은 해에 김석농 스님을 법사로 전강을 받았다. 이 무렵의 스님에 관해 사제 세연스님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관응스님이 용주사 주지를 하실 때에도 강을 열었는데, 그때 배우신 스님에 의룡스님과 상묵스님이 있습니다. 의룡스님은 서운스님에게 건당을 하였는데, 안성에 토굴을 짓고 살다가 몇 년 전에 입적을 했습니다.

71) 『독보건곤, 운기대강백 행장기』, 앞의 책, p.69.

그리고 제 사형인 상묵스님도 용주사에서 배웠는데, 관응스님이 무문관에 들어가시는 바람에 오래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상묵스님은 지금은 잊혀진 스님이지만 이 스님은 머리가 천재와 같은 스님이었어요. 본래 동진출가를 해서 수덕사에 있었는데, 금봉스님이 “너는 서운스님 상좌가 되라.”고 해서, 인연이 되었다고 그래요. 정화 전에 운허스님이 진주 의곡사에서 월운스님, 지관스님, 봉주스님, 상묵스님을 가르쳤는데, 그때도 기억력이 비상하여 운허스님이 인정을 하였답니다. 그러다가 상묵스님은 성균관대 한문학과에 다녔는데, 지도교수가 동국대 대학선원장을 하시던 탄허스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 수좌가 매우 영특하다는 칭찬을 하였대요. 그래서 서운스님이 상묵스님을 박사를 만들려고 했어요. 내가 갑장사에서 행자를 할 때 방학이면 내려왔는데, 저는 그때 이 스님의 천재적인 기억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무렵 스님 중에는 최고라고 보고 싶어요. 상묵스님은 동화사 강사도 했고, 은해사 강사도 하셨지요.⁷²⁾



상묵스님, 1992년 대교과 졸업식

스님은 1962년에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였다. 1965년 대구 동화사 재무, 1966년 과천 연주암 주지, 1969년 서울 봉천동 관악사 주지 등을 역

72) 세연스님(전등사 조실), 「너무 존경스러운 스님」, 『관음대종사 황악일지록』, 관음대종사 문도회 엮음, 2018, pp.411-412.

임하였다. 1983년 무렵⁷³⁾ 불국사 강원의 강주를 맡았다. 1994년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97년 종립 승가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1995년부터 강화 전등사 조실로 머물며 오전에는 간경하고, 오후에는 『금강경』, 『법화경』, 『반야심경』을 금분 사경하였다. 스님은 1996년 은해사에 설립한 종립 승가대학원에서 후학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2002년 당시 승가대학원장 무비스님은 10명의 강사를 배출하는 1기 졸업식을 앞두고 <불교신문>과 인터뷰를 하였다. 무비스님은 “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해 아낌없이 강의의 맡아준 각성스님, 상묵스님, 지안스님, 통광스님, 덕민스님, 해남스님과 외국어 등 외전강의를 해준 분들께 무엇보다 고맙다”⁷⁴⁾고 밝혔다. 스님은 2000년 12월 28일 법랍 47세, 세납 64세로 전등사 극락암에서 열반하였다.

스님은 불교텔레비전(BTN)에서 60여 회에 걸쳐 『금강경』을 강의하였다. 2007년 전등사에서 이 영상을 녹취하고 글로 풀어 『상묵스님의 금강경』이라는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이 책의 추천사를 후배 덕민스님이 썼다.

상묵 강백은 대선각인(大先覺人)으로서, 나는 항상 묻고 질정(叱正)을 구하는 동반자 겸 후배였다. 승속을 넘나들면서 무애자재한 스님의 풍모는 처염상정(處染常淨)의 둥근 연잎과 같았다. 말년에 합천 초계(草溪)에서 1년 여 모시고, 당송팔가(唐宋八家) 주역전(周易傳) 구소수간(歐蘇手柬) 등을 강론했으며 『중용』의 ‘費而陰章 鳶飛戾天 魚躍于淵’의 소제(所題)로써 도의 중화(中和)를 얘기하면서 밤을 지새웠고, ‘水流濕 火就燥 雲從龍 風從虎’라는 역(易)의 이치를 선가의 초월적 인과로 승화시키면서 고전 속에 함께 우유(優游)하였다.

스님은 평범한 수행인은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하고 격조 높은 멋과, 물방울처럼 맑게 구르는 지혜를 지니셨다. 나는 스님 열반 후 불국사 강역을 이어 받았으며, 금년 봄 부도탑에 송(頌)을 지어 새겼고, 또 스님 유작 『금강경』 강의에 감히 추천사를 올리니, 이는 뒤에 남은 자의 몫인가? 만감(萬感)이 스쳐 지나간다.

불국사 학장 손제(損弟) 후학(後學) 덕민(德旻) 삼가 씀.⁷⁵⁾

73) 『상묵스님의 금강경』(조계종출판사, 2007) 행장 소개에서는 ‘1985. 10. 경북 경주 불국사 강원 강주 취임’이라 하였고, 『강원총람』(앞의 책, p.705)에서는 ‘1983년부터 1994년 4월까지 불국사 승가대학 강사’라고 하여 부임 시기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74) 「인터뷰 종립 승가대학원 원장 무비스님」, 『불교신문』 2002.2.15.

○ 응각스님

응각(應覺, 1945~)스님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강주를 역임하였다. 1971년 지종스님(원로의원, 불갑사 조실 역임)을 은사로, 서옹스님을 계사로 백양사에서 득도하였다. 1974년에 법주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였다. 법주사에서 우룡(雨龍)스님 강석에서 『서장』을 배울 때 탈진할 정도로 소리 내어 독송하였다. 그래야 잡념이 끼어들지 않고 내용이 제대로 머리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백양사 각성스님 강석에서 혜남, 통광, 혜권, 보광, 수진스님 등과 함께 처음 화엄을 배우기 시작한 이후 해인사 강원 대교반을 거쳤다. 다시 대흥사 운기스님 회상에서 혜남, 도형, 제선, 무착스님 등과 함께 『화엄경』을 공부하였다. 해인사 승가대학 강사, 학감을 거쳤고 1980년에는 불국사에서 운기스님의 강맥을 전수받았다. 1996년에는 은해사 종립 승가대학원에 1기로 입학, 1999년에 졸업하였다. 위암의 병마와 싸우면서도 승가대학원을 무사히 마쳤다. 스님이 넘은 나이는 배움의 의지에 별 문제가 아니었다. 2002년부터 도제양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주지 종상스님의 청으로 이곳 승가대학 강주를 맡았다.

강주를 맡은 지 1년 반이 지나 스님은 『불교신문』의 인터뷰에 응했다.

- 스님은 승가대학 강주로서 어떠한 덕목을 학인들에게 가장 강조하는지요.
- 수행자로서 계율을 가장 중시해 지켜갈 것을 가르칩니다. 자고로 수행자는 신심을 내어야 하고, 수행을 해야 하고, 원력을 보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은 커다란 솔을 떠받치는 발(足)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계율이 근본을 이룹니다. 성철스님께서는 “출가란 조그만 가정과 가족을 버리고 큰 가족인 온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다. 출가의 근본정신은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일체를 위해 사는데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요즘은 수행인들 가운데도 자리 이타(自利利他) 정신을 망각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자리(自利)에 치우치는 이들이 있는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계율을 여법하게 지켜나가는 수행자의 참 모습을 견지한다면 출가본연의 자세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⁷⁶⁾

75) 「추천사」, 『상묵스님의 금강경』, 조계종출판사, 2007, pp.2-3.

76) 「불국사 승가대학 강주 응각스님」, 『불교신문』, 2003.10.17.

○ 덕민스님

덕민(德旻, 1944~)스님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승가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1956년 범어사에서 우룡 종한(雨龍鍾漢)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8년 범어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였다. 1965년 청암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1970년 법주사 강사를 역임하였다. 고봉스님과 우룡, 고산스님 문하에서 정진하였다. 스님은 박한영 스님으로부터 고봉 태수스님, 우룡 종한스님으로 계승되는 전통강맥을 계승하였다.



덕민스님 강의 모습

1972년 태동고전연구원을 수료하였고, 1978년 울산 학성선원을 맡아 중창불사를 이룩하였다. 1973~1987년 추연(秋淵) 권용현(權龍鉉, 1899~1988)의 태동서사(泰東書舍)에서 한학을 사사하여 불경과 유학을 두루 섭렵한 독보적인 분이다. 1988년~1997년 쌍계사 강주, 1999년~2003년까지 범어사 승가대학 학장을 지냈다. 2005년 학장에 부임하여 현재까지 가장 오랫동안 불국사의 강원을 지켜오고 있다. 2017년 기림사에 개설한 성림금강 한문불전 승가대학원 원장을 맡았고, 2018년에 조계종단 최고의 법계인 대종사 지위

에 올랐다. 스님은 현대사회에서 세속적 학위를 일체 거치지 않고 대강백에 오른 드문 분이다. 산중에서 스님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하여 일반불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승가에서는 학문적 명성이 자자하다. 선시와 당·송대의 한시를 수백 편 암기하고 노장, 주역 등 한학에도 정통하다.⁷⁷⁾

저는 50년 전 경봉노스님께 와서 “저도 명정스님처럼 참선하겠습니다.” 하니까 “너는 강(講)하는 씨앗이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강 씨앗이 따로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이놈아, 너는 헛소리 말고 경을 봐라. 고봉스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강맥을 이어야지, 선방에 오지 말아라.” 하셔서 나이 80이 다 되어 가는데 뼈가 부러지도록 참선 못 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노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경을 잘 봐서 경안이 열리면 그것도 초견성하는 것이다.”⁷⁸⁾

2020년 12월 반산(盤山)스님이 30여 년 동안 『화엄경수소연의초(華嚴經隨疏演義鈔)』를 번역한 『화엄경청량소(華嚴經淸涼疏)』를 봉정하는 자리, 통도사 극락암에서 덕민스님이 법문한 내용이다. 근현대불교의 대선사 경봉스님(1892~1982)은 스님을 ‘강(講)하는 씨앗’이라고 하였다. 50년 전 20대의 젊은 승가는 대선사의 말 그대로 지금도 불국사에서 ‘강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V. 맺음말

출가자를 수행자라고 한다. 출가는 곧 수행이기 때문이다. 수행은 깨달음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수행의 완성은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고 하화중생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수행은 깨달음과 행화(行化)의 시작이다. 한국불교는 출가자의 수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선원과 강원이 대표적이다. 삼국시대 불교 수용기부터 교학수행

77) 『강원총람』, 앞의 책, p.707.

78) 「명법문 명강의, 불국사 승가대학원장 덕민스님」, 『불교신문』 2020.12.7.

은 출가자의 기본이었고, 통일신라말의 선 수행과 함께 한국불교의 선교겸수 전통을 이룩해왔다.

교학수행은 강원에서 이루어진다. 즉 강원은 승가교육을 대표하는 곳이다. 불교수용과 함께 강원이 존재하였지만, 이 ‘강원’이라는 정식명칭이 확인된 사례는 지금까지 9세기말의 불국사 기록이 최초이다. 처음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만큼 불국사의 강학전통이 오래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표훈·유가·원측의 세 성인을 기리는 의미에서 ‘삼성강원’으로 이름 붙이고, 화엄불국토의 교학을 펼친 곳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후의 강원에 관한 역사는 전하는 자료가 거의 없다. 1740년 절에는 47동이 넘는 전각과 누각, 회랑이 장엄을 이루고 있었다. 이 큰 가람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강원을 오가며 교학을 탐마하였다. 오늘날 강원교육의 사집, 사교, 대교를 축으로 하는 이력과목(履歷科目) 체계가 이미 17세기에 수립되어 있었으므로 불국사에서 이에 따른 강학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근대 불국사의 강원교육은 1913년부터 확인된다. 이때의 ‘불교강숙’은 통도사 명신학교의 학감을 역임한 송설우 스님의 원력이었고, 당시 승가교육의 모범이라 칭송받았다. 현대 들어 강원은 1975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1973년까지의 대대적인 중창을 토대로 도제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월산스님의 발원에서 비롯되었다. 이보다 앞선 1960년 행자와 사미를 망라한 강원교육을 진행하였고, 이듬해 1961년에는 능엄학림을 개설하자 많은 수행자들이 몰려들었다. 불교정화의 혼탁한 시기에도 정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서는 교학수행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다짐이었다. 1966년에는 전문강원에서 7인의 학인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강학전통을 계승하여 1975년 ‘불국사승가학원’으로 다시 개원하였다. 이후 대한불교조계종의 교육체계에 따라 승가대학으로 재편성하면서 1976년 제1회 졸업생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모두 45회에 걸쳐 수백 명의 젊은 승가를 배출하였다.

이러한 강학 전통의 중심에는 강주[학장]와 강사[교수]가 있었다. 선지식을 찾아 배움을 청하는 전통은 교학도 다를 바 없어 빼어난 강사를 찾아 많은 이들이 불국사 강원에서 경을 펼쳤다. 통일신라의 표훈과 유가, 1913년의 송설우 스님, 1960년의 진용스님, 1961

년의 설봉스님, 1966년의 김철수 스님, 1975년의 법공스님, 1978년의 범룡스님, 1979년의 운기스님, 1982년의 재선스님, 1984년의 상묵스님, 1994년의 용문스님, 1996년의 지옥스님, 2002년의 응각스님, 그리고 현재의 승가대학원 원장 덕민스님, 승가대학 학장 정수스님, 학감 성화스님, 교수 상락스님, 일선스님 등이다. 불국사의 강학 전통은 이들의 강석에서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

근래 들어 출가자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승가대학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조계종 교육원은 이러한 현실에서 사찰 승가대학을 축소하는 등의 개편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지혜로운 해결책을 강구하여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불국사와 같은 명찰의 강학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불국사의 강학 전통」에 대한 토론문

이재수 _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교수

경북 경주시 불국사 불교문화회관에서 2021년 불국사 월산문도회·대각사상연구원 학술 세미나 <월산 대선사 사상의 재조명>에 토론을 통해 만나게 된 모든 인연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술세미나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시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매진하셨던 월산 대선사를 오늘에 불러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찬란한 불국사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기틀을 잡고 복원 불사를 통해 한국불교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진흥하는데 온 힘을 쏟고 헌신하셨고, 불국사의 강원과 선원을 설립하신 월산 대선사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자리이다. 이를 위해 지난날의 월산 대종사께서 걸었던 발자취를 살피고, 현재에 불국사에 남아 있는 월산 대선사의 가르침을 함께 하는 기회를 갖으며, 앞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다.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월산 대선사의 사상을 살피고 업적을 계승하는데 함께 고민하여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기를 바란다.

논자의 논의의 출발점은 신라불교문화의 정수를 담은 불국사의 정신이 어떻게 계승되어왔는지를 교학수행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불교사적 맥락에서 강원의 원류를 찾아 불국사의 과거는 어떤 위치였으며, 근현대 시기의 불국사 강원과 교학 전통을 탐색하였다. 나아가 현재 승가대학의 현황을 통해 이러한 전통이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이에 교학전통의 맥을 이어서 발전시켜온 강사에 주목하였다.

논자의 논의는 불국사 강원에 대해 본격적으로, 역사적으로 규명한 최초의 논문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논자는 먼저 불국사의 역사와 강원에 대해 사료에 근거해 꼼꼼하고 세세히 살폈다. 현존하는 자료에 근거해 강원이라는 명칭의 유래와 그 전개에 대해 밝힌 것이다.

둘째, 현재의 강원인 불국사 승가대학에 대해 그 역사와 전개에 대해서 밝혔다. 이를 통해 불국사의 오늘이 있기까지 터전을 닦으신 월산 대선사의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셋째, 불국사의 강학 전통을 이어온 강주와 강사에 대해 밝혀 그 강맥의 전승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의를 통해 불국사 강원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그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혔다. 이에 수많은 기록을 섭렵하고, 역사적인 맥락을 짚어 불국사 강원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발로 뚫은 역작 앞에 별다른 반론이나 이견의 제시보다는 새로운 역사를 발굴해낸 논자의 연구에 존경과 찬탄의 박수를 보낸다.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논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린다.

1. 여태껏 강원이라는 명칭의 등장을 보은 법주사 자정국존비(慈淨國尊碑) 즉, 1342년 (충혜왕 3)이라고 하는 『강원총람』의 설을 정설로 받아들여 왔는데, 논자의 논의를 통해 9세기말 ‘불국사’ 관련 기록인 최치원(崔致遠, 857~?)의 「왕비 김씨가 그의 선고(先考)와 망형(亡兄)을 위하여 명복을 빌며 곡식을 시주하는 발원문[王妃金氏奉爲先考及亡兄追福施穀願文]」의 ‘삼성강원’으로 밝혔다. 아울러 「불국사고금창기」의 광학장강실(光學藏講

室) 21칸도 바로 강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불국사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뜻깊고 눈이 확 뜨이게 하는 놀라운 발견이다.

이에 초창기 강원에서 가르쳤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중세시기 불국사 강원과 관한 기록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길 바란다.

2. 불국사의 근현대 강학 전통에 대해 1913년 송설우스님의 불교강숙(佛敎講塾)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서 근대시기에도 불국사의 강원의 전통은 계승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송설우스님은 1910년 통도사 명신학교 학감을 지내면서 근대 불교 교육에 헌신한 인물인데, 근대시기 즉 일제 강점기의 승가교육 상황과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밝혀주시길 바란다.

3. 현대의 불국사 강원에 대한 기록을 강백인 무비스님의 구술 증언을 통해 살펴 볼 수 있었다. 1961년 능가스님에 의해 능엄학림이 개설되고, 『벽암록』 강좌가 이루어져서 대한불교조계종이 선종을 표방하고 선사상의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강의와 강원과 선원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보다 명확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1975년 불국사 승가대학의 개원은 1974년 6월 월산 대선사의 주지 부임 이후 승가 학원과 선원의 설립이라는 원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월산 대선사는 “종단 백년대 계를 위한 도제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건립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1976년 제1회 강원 졸업식과 관련한 교육의 성과를 밝혔는데, “전통강원을 지양하고 현대식 학교교육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는 목표로 1978년 불국강원을 완공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불사를 이루어낸 월산 대선사의 교육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밝혀주시길 바란다.

5. 월산 대종사가 기틀을 잡은 불국사 승가대학의 주요 현황을 소개하여 강원의 원훈, 교육과정과 역대 강주 및 강사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그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논자가 밝힌 것과 같이 현재 한국사회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인구감소와 종교인구의 급감으로 인한 출가자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의 파고를 넘어 불국사 승가대학의 과거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고 이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문일지는 몰라도 불국사 승가대학의 미래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

논자의 논의를 통해서 한국불교의 강원이 바로 불국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불국사 강원의 역사에 대해서도 다양한 자료를 발굴하여 소개하였다. 특히 불국사 강원을 이끌어 오신 강주와 강사들의 행장을 소개하여 불국사 강원의 역사를 밝히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이번 논문을 통해 불국사와 한국불교 강원교육에 대한 새롭게 역사적 사실을 밝혀낸 논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불국강원에 어려 있는 월산 대선사의 생애와 사상은 한국불교의 전통을 확립하고 발전을 이끄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더욱이 현재 불국사 승가대학에서 한국불교의 전통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주 및 강사 스님들께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올린다. 아울러 교학 연찬에 정진하고 있는 모든 학인들이 앞으로도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 이 땅을 부처님의 세상 불국으로 장엄하시길 기원한다.

월산 대종사와 <법보신문>

이재형 - 법보신문 편집국장

• 목 차 •

I. 시작하는 말

II. 창간 당시 불교계 안팎 상황과 <법보신문> 성격

III. 창간 과정에서 월산 스님 역할과 불교언론관

1. 월산 스님과 <법보신문> 창간 - 정휴 스님 인터뷰 중심으로

2. 월산 스님의 불교언론관

IV. <법보신문>의 월산 스님 유지 계승 활동

1. 탄생과 성장(1988~2005)

2. 독립언론의 길(2006~2021)

V. 맺는 말

I. 시작하는 말

20세기 한국사가 격변의 시기였듯 한국불교사도 마찬가지다. 송유역불의 500년 긴 암흑기를 빠져나온 불교계가 수많은 정치적 탄압과 편향을 딛고 급성장한 것은 기적이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배후에 있었던 개신교와 로마 교황청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던 가톨릭에 비해 불교는 아무런 지지 세력도 갖지 못했다. 미군정, 이승만 정권은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우대했고, 불교계에는 차별과 분열을 획책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의 적산불하(敵産拂下), 군종장교제도, 기독교탄신일 공휴일 제정, 종교방송 독점 및 장악, 형목·경목제도 등이 기독교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군사정권 때도 개신교계와 가톨릭계의 눈치를 보았던 반면 10·27법난과 같이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불교계를 이용하고는 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한국불교는 일제강점기 가장 세력이 컸던 천도교와 보천교를 넘어 꾸준한 성장을 거듭했다. 1960년 128만9000명(『서울연감 통계자료』), 1985년 국가차원의 첫 종교인구 통계에서는 불자가 805만 명에 이르는 등 한국의 주류종교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불교의 중흥은 저절로 이뤄지지 않았다. 수많은 스님과 재가불자, 불교단체들 그리고 종단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스님들은 수행, 계율, 법문 등으로 바닥까지 떨어졌던 불교의 위상을 높여나갔으며, 재가불자들은 지극한 신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술, 사회활동 등을 통해 불교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불교종단도 내부 갈등 및 불미스러운 일들이 적지 않았지만 포교, 교육, 복지, 문화, 사회참여, 성보의 국가문화재 지정, 신도들 결속력 강화, 사회적·정치적 역할 확대 등 다방면에서 불교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다.

성림당 월산 대종사(聖林月山, 1913.5.5.~1997.8.5)는 한국불교의 전환기에 산문에 들어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끈 대표적인 고승이다. 월산 스님은 금오선사의 법을 이은 선사로서 선풍을 진작시키고 선원과 강원을 개원해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 법주사, 신흥사,

동화사, 불국사 등 본사 주지를 맡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혼탁해진 사찰을 일신하려 애썼다. 또한 총무원장·종회의장·원로회의 의장 등 조계종의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종단의 기틀을 세우고자 했고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더불어 월산 스님의 뚜렷한 업적의 하나로 <법보신문> 창간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월산 스님의 일생에서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월산 큰스님의 조계종단 및 불교계에 대한 애정은 불교언론인 <법보신문> 창간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계에 오직 <불교신문>만이 제대로 활동을 할 때에 과감하게 <법보신문>을 창간하여 불교언론의 기반을 넓히고, 조계종단에 대한 애정을 구현한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월산큰스님의 결단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이런 측면도 큰스님의 생애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¹⁾

초대 발행인이었던 월산 스님은 1988년 5월 16일 <법보신문>을 창간하면서 ‘존경진리(尊敬眞理), 굴복아만(屈伏我慢), 공명정대(公明正大)’라는 사훈으로 <법보신문>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선양하고, 불교계 안팎으로 팽배해있는 아집과 교만심을 항복받으며, 옳고 밝은 것을 드러내고 널리 퍼라는 의미였다.

이는 불교언론이 현대불교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역할,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바람직한 수행·신행문화를 견인하는 전법사 역할, 불교계 안팎에서 벌어지는 비불교적 행위와 횡포에 적극 대응하는 호법신장 역할, 비판을 넘어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국불교 책임자 역할까지 다하라는 준엄한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법보신문>은 창간 이후 불교계의 폐단에 대한 과감한 비판으로 불교개혁을 주도했으며, 곳곳에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고자 했다. 기복신앙을 끌어안되 기복에 머무르지 않고, 지성불교·수행불교·주체적 불교로 나아가도록 이끌었다. 또 비불교적인 행위나 횡포에 맞섰으며, 비판을 넘어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공감과 격려, 비난과

1) 덕민 스님, 「월산큰스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토론문, <대각사상> 제32집, 대각사상연구원, 2019, p.210.

질책이 잇따랐으며, 끊이지 않는 민·형사 소송과 수차례의 폐간 위기를 겪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법보신문>을 창간할 당시의 불교계 안팎의 상황, 월산 스님의 역할과 언론관, <법보신문> 창간 과정 및 성격, 창간 후 지금까지 <법보신문>의 활동을 정리하고자 한다.

II. 창간 당시 불교계 안팎 상황과 <법보신문> 성격

<법보신문> 창간은 독재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는 변혁의 시대에 이뤄졌다. 1987년 6·10민주항쟁을 기점으로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기나긴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고 사회 각계에서 민주화가 급격히 진행됐다. 언론계도 큰 변화를 맞았다. 그동안 언론계는 신군부가 1980년 12월 국가보위입법부에서 제정한 <언론기본법>으로 인해 움짱달짝 못 했다. 이 법은 표면상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크게 달랐다. △ 정기간행물의 등록의무제, △ 문화공보부 장관의 발행정지 명령권 및 등록취소 권한 등의 독소조항을 두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한편, ‘편집인과 광고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정기간행물을 편집하거나 광고를 함에 있어서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을 배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언론에 대한 권력의 통제를 합법화했다.²⁾ 이 법은 신군부 시대를 종식시킨 6·29선언 이후인 1987년 11월에 이르러서야 폐지됐다. 대신 <방송법>,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신문 창간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불교계 내부에서도 민주주의 열망이 거셌다. 1970년대 중반 싹트기 시작한 민중불교운동이 1980년대 초반 본격화되면서 한국불교는 사회와 민중을 향해야 한다는 불교의 사회참여 의식을 확산시켜나갔다. 스님들도 1981년 7월 전국청년승려육화(六和)대회,

2) 「언론기본법」, 『한국근현대사사전』, 한국사사전편찬회, 2005.

1982년 6월 전국학인승가연맹 발족, 1983년 전국청년불교도연합대회 등을 통해 스님과 재가불자가 협력해 불교계 개혁을 이끌어 나갈 역량 확보를 적극 모색했다. 이런 노력들은 1985년 5월 민중불교운동연합의 창립으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전국 각지의 소장 스님들과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민중불교운동연합은 불순단체로 낙인찍혀 진행되는 난관을 겪으면서도 불교개혁 및 민주화운동을 주도해나갔다.

이와 함께 1986년 6월 221명의 스님이 발기해 창립한 정토구현전국승가회도 민주화운동을 이끄는 주축세력으로 성장했으며, 1986년 9월 7일 해인사에서 2,000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한 승려대회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 승려대회에서는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에 대한 진상규명과 불교계의 자율성을 박탈한 불교재산관리법의 철폐를 요구했다. 또 불교계 내부 문제만 아니라 부친경찰서 성고문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표명했다. 9·7해인사승려대회는 불교계가 정권의 예측에서 탈피해 자주화와 민주화를 선언하고 사부대중에게 불교계의 민주화가 사회민주화와 직결된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민중불교운동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³⁾

그러나 불교언론은 격변하는 시대적 흐름과 불교계의 새로운 요구를 담아내기가 버거웠다. 당시 불교언론을 대표하는 것은 <대한불교> 이었다. 1960년 창간된 <대한불교>는 조계종 기관지로 1980년 10·27법난을 겪으며 정기간행물 등록이 취소됐지만 곧바로 1980년 12월 <불교신문>으로 제호를 바꾸며 이어갔다. 그러나 <불교신문>은 종단 기관지라는 특성상 비판 기능이나 불교계 안팎의 진보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려웠다. 다만 1982년 4월 재단법인 화쟁교원이 발행주체로 창간한 격주간 신문 <불교회보>(1986년 5월 20일 <주간불교>로 제호 변경)가 불교계 내부 비판 및 범불교계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일정부분 담당했지만 규모나 확산력에서 한계가 있었다.

변혁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불교개혁, 불교민주화, 불교사회화, 불교대중화라는 열망과 특정 종단의 틀을 넘어 불교계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범불교 신문이 있어야 했다. 때마

3) 김순석, 『백년 동안 한국불교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운주사, 2009, p.330.

침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신문 창간이 수월해지는 시기이기도 했다. 경주 불국사는 새로운 언론의 산파 역할을 담당했고, 그것은 불국사 조실 월산 스님의 원력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월산 스님의 총괄 아래 실무는 정휴 스님이, 실질적인 재정지원은 종상 스님이 맡았다. 때로는 월산 스님이 정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 새로운 불교언론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⁴⁾ 이런 과정을 거쳐 3월 26일 문화공보부 등록(다-504호)을 필한 뒤 곧바로 직원들을 채용했고, 5월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인사동 본사에서 창간기념식을 개최했다. <법보신문> 제호는 한국 서예계의 권위자인 조정 권창륜이 썼으며, 창간호는 5월 16일자로 발행됐다. 창간호 1면에 게재된 사령(辭令)은 다음과 같다.

김종원 명 부사장 / 김종상 명 사장직무대행 / 김정휴 명 주간겸주필 / 조오현 명 상임논설위원 / 선원빈 명 편집국편집국장 / 배정학 명 업무국총무부차장 / 김춘송 명 업무국업무부차장 / 최승천 명 편집국기자 / 최중홍 명 편집국기자 / 김영태 명 편집국기자 / 이학종 명 편집국수습기자 / 김민경 명 편집국수습기자 / 김영렬 명 편집국수습기자 / 박정미 명 경리사원 / 곽덕현 명 사원 / 손혜자 명 사원(4월 25일자)

<법보신문>의 발간 취지와 배경은 창간호 2면 「사설-千手千眼의 巨步」에 잘 나타난다. 이 글은 ‘<법보신문> 창간에 대한 우리의 각오’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법보신문> 초대 발행인 월산 스님과 신문 창간을 주도한 당사자들의 시대인식, 언론관, 편집방향 등이 명확히 드러나 있어 전문을 제시한다.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새로이 열어야 할 중대한 전환기에 처해있다. 그리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혁의 질서를 정립하는 일이다. 한 생명이 탄생되는 데도 아픔과 진통의 과정을 거쳐야 하듯 역사의 변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

4) 당시 문화공보부 종무관으로 재직했던 이용부씨는 2021년 8월 3일 필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그때 기록한 메모장을 확인한 결과 1988년 2월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뉴월드호텔(현 라마다서울호텔)에서 월산 스님을 만났으며, 그 자리에 월탄 스님도 동석했다”고 증언했다. 또 “월산 스님은 범불교지의 필요성과 불교가 새로워지려면 새로운 신문이 필요함을 역설했다”고 회고했다.

두가 구시대 악습과 폐단을 청산하고 나아가 사회 구석구석 만연돼 있는 비인간적 병리를 제거하는 결의와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체질화시키는 思考의 전환을 할 때 창조나 자기색신이 이룩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우리가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다할지라도 모든 것을 서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걸맞는 시간이다.

그동안 유보되었던 인간의 자유와 기본권을 회복하고 진실한 표현의 자유로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존의 지혜로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과제와 불교인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범불교지인 <법보신문>을 창간한다.

<법보신문>은 앞으로 사회 속에 제기될 다원화된 가치의 혼란을 막고 이 시대의 참다운 정신사를 주도할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고 불교계 언론매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불교계 언론매체란 각 종단의 기관지로서 자기 교단 권익을 옹호하는데 국한되어 있어 진실한 언론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전 불교도의 목소리와 민족의 양심을 대변하는 용기 있는 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새 신문의 창간을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찬란한 불교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국민 모두가 향유할 정신문화를 창조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면 불교는 정치적으로 소외당하고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와 반면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해 護國安民의 정신을 발휘해 왔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법보신문>은 불교도의 권익과 중흥에 노력할 것이며 민족의 고통에 뜨겁게 동참하여 그 고통을 구제하고 중생을 饒益케 하는 서원을 지켜가면서 부처님 사상으로 참다운 인간정신을 깨우치는 진리의 公器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 본래 언론이란 민주적 사명을 지니는 사회적 공기이다. 신문에 권위와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도 국민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책무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은 사회의 옳고 그름을 가리고 정의를 바탕으로 역사적 양심을 수호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白眼의 巨人보다 더 광활한 보도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바로 그것은 바른 생각, 바른 말로 이 시대 인간 정의를 지키는 일이다. 千手千眼의 역할과 기능을 갖는 것이 <법보신문>의 발원이다. 그리고 편협한 보도와 편집을 지양할 것이며 명실공이 범불교지로서 전 불교도의 목소리를 담아 이천만 불자가 주인이 되도록 공정하게 진실을 보도할 것이다. 특히 붓에는 直筆과 曲筆이 있다. 우리는 阿世하는 지성을 배척하고 역사의 義와 不義를 준엄하게 분별하는 春秋筆法의 정신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교 언론은 단순한 사회의 公器로서가 아니라 부처님 法音을 전달하는 포교적 역할도 병행해야 한다. 포교의 현대화는

이 시대 불교인의 바램이다. 그리고 포교의 대중화가 이룩될 때 불교인의 의지도 새롭게 계도될 것이다. 현재 우리 불교는 역사와 전통은 깊지만 깨어있는 역사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 깨어있는 역사의식이란 부단한 노력과 새로운 가치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자기비판의 겸허한 정신이 있어야 한다.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국가와 사회는 비리와 야합하지 않고 건강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때로는 구조적 모순과 병폐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역사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 祖師들이 지녔던 用無生死의 기개와 신념을 바탕으로 言論大道의 본령을 지킬 것이다. 적당히 눈치나 보고 역사와 사회의 비리를 묵인하는 阿世의 지성을 배척할 것이며 진실을 위해서는 목과 棒으로 이 시대 비양심적 행위를 깨우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覺訓이 붓 끝에 솟아가 나왔다고 했듯이 바로 이것이 불교언론 정신임을 깊이 깨닫고 붓이 인간의 진실과 정의를 만드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의 원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범불교적 뉴스와 아울러 사부대중의 총체적 삶을 집합하고 수렴하여 현대불교 발전에 모체가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참신한 필자를 개발하고 불교와 관련 있는 사회 정보를 전하여 불교인의 권익을 사회 속에 높여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발원이 결실을 이루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사부대중의 적극적 동참과 협조이다. 전 불교도의 아낌없는 참여가 있을 때 <법보신문>은 새 역사의 목탁으로 책무를 다하는 정직한 언론의 길을 갈 것이다.

옛부터 문장은 經國大業이요 不朽盛事라고 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정치만의 일이 아니라 언론 그 자체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올바른 말과 글이 있을 때 참다운 經國이 이루어짐을 명심하면서 이 땅에 새로운 獅子吼의 첫 장을 연다.⁵⁾

창간 사설에는 변혁의 시기에 불교계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 각 불교언론이 종단의 기관지로서 자기 교단 권익을 옹호하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 불교도 전체의 권익과 중흥에 노력할 것, 편협한 보도와 편집을 지양할 것, 포교의 현대화 및 대중화에 적극 나설 것, 비리와 야합을 묵인하지 않을 것 등 각오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법보신문>은 이후 진보적인 스님들과 지식인들을 필진으로 기용하고 기관지에는 실리지 못했던 불교계 내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들을 수용해 기사화했다. 창간과 더불어

5) 창간호 사설은 당시 주간·주필이었던 정휴 스님이 썼다.

<법보신문>은 불교개혁의 구심점이었으며, 종단개혁으로 이어지는 가교였다. <법보신문>은 비판이 거세되고 찬양 일색이었던 종단 기관지들과 차별화되면서 불교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교계 내의 유력한 매체로 부상했다.

Ⅲ. 창간 과정에서 월산 스님 역할과 불교언론관

1. 월산 스님과 <법보신문> 창간 - 정휴 스님 인터뷰 중심으로

정휴 스님은 직지사, 동화사, 불국사, 법주사 승가대학 강사를 지냈으며, 1971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시조부문에 당선돼 『슬플 때마다 우리 곁에 오는 초인』, 『적멸의 즐거움』, 『백담사 무문관 일기』 등 많은 작품을 남긴 중진작가이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과 중앙종회 의원을 7차례 역임하면서 종단 운영에 깊이 참여했다. 또한 불교신문 편집국장·주간·주필·사장을 역임하고, 주간불교 창간 및 불교방송 개국의 주역이기도 하다. 정휴 스님은 <법보신문> 창간 과정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창간 발의·논의·기획의 첫 단계에서부터 참여했으며, 창간 후에는 편집 방향과 기사 게재 결정 여부를 주관하는 최고 책임자인 주간·주필을 맡았다.

필자는 이번 논고 작성을 위해 2020년 6월 10일 강원도 고성 화암사에서 정휴 스님을 만나 <법보신문> 창간 당시 상황과 월산 스님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정휴 스님과 인터뷰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월산 스님은 어떤 분이었나.

- 선과 교를 모두 갖추셨다. 한역 경전을 해석하는 능력도 탁월하셨다. 중국선사들 중에는 거칠고 야성적인 성품을 지닌 분들이 있는가 하면 부드럽고 자애로운 분들이 있다. 조실스님(월산 스님)은 자애로운 선사였다.

▶ <법보신문> 창간 당시 상황은 어땠나.

- 그때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권위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주적으로 개편됐다.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율분과 자유에 대한 열망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불교도 전통적인 의식과 제도 속에 갇혀 있다가 그 틀을 깨고 현대화의 첫발을 디딤과 동시에 사회참여의 문호를 대폭 확대해 불교의 자주화를 이루는 것이 과제였다. 불교계를 움직이는 법들을 폐지하고 자주적으로 종교 활동을 해야 했다. 사회참여의 길을 확대하고 현장의 소리와 민중의 소리를 들어야 했던 시점이었다. 다른 본사에서 그런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불국사는 깨달음의 가치추구와 자기완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깨달음을 현실에서 구체화하고 실천해야 하는 견인차 역할의 신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월산 스님은 신문 창간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나.

-노장께서는 일생을 선사로 지내셨는데 선이 깨달음에만 집착돼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셨다. 깨달음을 중생 속에서 회향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그 깨달음을 통해 중생이 번뇌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으셨다.

▶ 월산 스님이 창간과정에서 강조했던 것이 있나.

- 불교정화 이후 종단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역경, 포교, 도제양성이었는데 이 가운데 제일 안 되는 것이 도제양성이었다. 사람을 키우는 불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사람을 키운다는 얘기는 바로 깨달음을 통해서 열린 안목을 가진 눈 밝은 인물을 키워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조실스님의 원력이었다. 그런 의식을 깨우쳐주기 위해서도 신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신문을 창간하게 된 것이다.

▶ 월산 스님에게 <법보신문> 창간을 제안한 것이 스님이었나.

- 불국사 전체 불사를 추진하는 중심에는 종상 스님이 있었다. 조실스님에게 건의하고 뜻을 받들어 실행에 옮긴 분이였다. 그때 종상 스님과 내가 뜻을 같이 했고 조실스님께 건의했더니 좋은 일이라며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다. 내가 제안했다기보다는 나와 종상 스님의 뜻이 맞았고, 종상 스님이 건의한 것을 조실스님이 받아들이신 것이라고 봐야한다. 조실스님의 결단과 종상 스님의 실행의지가 있었기에 신문이 창간될 수 있었다.

▶ <법보신문> 제호는 누가 정한 것인가.

- 조실스님께 (신문제호를) 건의하니깐 이건 진리를 상징하는 신문이 돼야 하니까 <법보신문>으로 해야 한다며 제호를 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진리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에 불교언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였다. 횡불, 파불, 부조리에 맞서겠다는 것도 천명하고 계셨다. 예나 지금이나 <불교신문>은 기관지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다. 전체 불교를 아우를 수 있는 진리의 그릇을 담는 불교의 큰 목탁이 필요하다는 조실스님의 신념에서

범불교지로 출범한 것이다.

▶ ‘존경진리, 굴복아만, 공명정대’라는 사훈은 월산 스님이 직접 지은 건가.

- 그렇다. 존경진리는 모든 사람이 진리 앞에 평등하니까 진리를 존중·공경하라는 것이며, 굴복아만은 자기를 앞세우는 이기심에 굴하지 말라는 것이고, 공명정대는 어떤 상황이라도 공정한 보도를 하라는 뜻이었다.

▶ 월산 스님의 신문 창간 승낙 이후 창간 과정에 참여한 인물은 누구인가.

- 선원빈 국장이다. 선 국장은 <불교신문>에서 봉사하다가 나와 함께 <주간불교>를 창간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내가 <법보신문>을 같이 만들자며 데려왔다. 그분은 취재, 기사작성, 편집기술에 있어 최고 전문가였다. 창간을 하는 데는 2개월 정도 걸렸다. 선 국장이 글을 많이 쓰고 연재도 많이 했다. 그는 인간적인 자세가 속인이라기보다는 잘 다듬어진 운수납자와 같았다. 신문을 만들 때면 돌부처처럼 신문 제작하는 데에만 열중하고 누구하고 마찰해서 다투지 않았다.

▶ 무산(오현) 스님도 참여한 것으로 안다.

- 무산 스님은 정신적으로 기대는 사람이다. 무산 스님의 성격상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고 내가 글 한편 쓰라고 하면 썼다. 신문이 나오면 선 국장하고 무산 스님하고 같이 신문에 대해 총평하고 그랬는데 이때 무산 스님이 은유적으로 지적도 하고 방향도 얘기하고 그랬다. 이용부 문화공보부 종무관도 창간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

▶ 창간 이후 신문에 대한 평가는 어땠나.

- 평이 굉장히 좋았다. 기사와 필진에 있어 기관지와는 명확히 차이가 났다. 그곳에서 실릴 수 없는 비판적인 내용이 많이 실렸다. 조계종 기사가 무게가 떨어지고 다른 종단 기사가 비중이 있으면 그것을 톱으로 다뤘다. 종단의 벽을 허문 것이다. <주간불교>가 범불교지를 지향했지만 훨씬 더 구체적이고 폭넓게 간 것이 <법보신문>이었다. 세계일화, 일불제자, 통불교를 강조했던 조실스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창간 당시 어려웠던 점은.

- 편집상의 문제보다 경영상의 문제였다. 그 무렵 신문사 운영비가 매달 3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그런데 초창기다 보니 광고료와 구독료가 많지 않았다. 종상 스님이 그걸 뒤에서 다 뒷받침해줬다.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매달 2500만원의 운영비를 댔다. 조실스님의 지지와 종상 스님의 의지가 없었다면 신문사가 운영될 수 없었다.

▶ 조실스님이 편집방향이나 기사에 대해 말씀하신 적은 없나.

- 조실스님은 종종 신문사에 오셔서 전 직원들과 식사를 하시고는 했다. <법보신문>에서 (종단 실권자들을 향해) 불편한 소리와 가차 없는 비판을 하다 보니 조실스님에게도 이런저런

애기가 들어갔을 게 분명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언급하신 일이 없고 철저히 독립권을 지켜주셨다. 이런 점은 기자들보다 조실스님이 더 분명했고 늘 외풍을 막아주려고 하셨다. 다만 편집방향과 관련해 선에 대한 비중을 늘렸으면 하셨고 우리는 조실스님의 말씀을 신문에 많이 반영하려 했다.

정휴 스님의 인터뷰 내용에는 월산 스님이 단순히 발행인으로 이름을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법보신문> 제호와 사훈을 손수 정했으며 비판적 언론 및 불교계 전체를 아우르는 범불교지를 표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을 비롯한 불교의 대중화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신문의 편집권 독립을 인정하고 끝까지 지켜주려 했음이 잘 나타난다.

2. 월산 스님의 불교언론관

금오 스님(金烏太田, 1896~1968)은 경허, 만공, 보월 스님의 법을 이은 정통 선의 계승자이며 정화운동의 선두에서 비구승을 진두지휘했던 주역이었다. 금오 스님의 제자로 그 법을 이은 월산 스님도 정화 당시 목숨을 걸고 스승의 뒤를 따랐으며, 치열한 정진으로 화두를 깨쳐 스승의 법을 이은 선의 종장이었다. 금오 스님이 그랬듯 월산 스님도 종단 내 비불교적인 모습과 폐단에 대해서는 직설적인 비판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선의 틀에 스스로를 가두어 안주하지 않았다. 선을 대중화하고 선을 통한 깨달음을 사회 속에서 펼쳐나가고자 부단히 애썼다. 그것이 종단에 대한 애정과 중생구제의 비원에서 비롯됐으며, <법보신문> 창간도 마찬가지다.

월산 스님은 1988년 5월 16일부터 1991년 6월24일까지 약 3년간 <법보신문>의 발행인을 맡았다. 이 시기 <법보신문>에 스님의 신춘인터뷰 및 해제 인터뷰가 실리기도 했지만 스님의 친필이 게재된 것은 창간사가 유일하다. 여기에는 월산 스님의 언론관과 <법보신문>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 하는지가 잘 나타난다.

부처님은 큰 빛을 밝히시나 세상은 아직 어둡고 부처님의 말씀은 있으나 귀멸은 이들은 듣

지 못한다. 經을 외우고 道를 닦는 일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 行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위로는 하늘의 境界에서 아래로는 바다의 밖까지 사람이 사는 일은 물론 微物の 것까지도 골고루 幸과 福을 미치게 하는 것이 참 佛心이요 佛法이다.

法寶新聞은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三千大千世界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고자 태어났다. 저 해와 같은 光明을 빌어 無量の 소리를 담은 木鐸을 깎았다.

잠들지 않고 쉬지 않고 게으르지 않으며 굶힘이 없고 쓰러짐이 없고 부서짐이 없는 목탁을 만들었다. 둥그나 모나지 않고 곧으나 빼돌어짐이 없으며 아무리 써도 닳지 않는 샘물처럼 넘치는 목탁을 빚었다.

法寶新聞이 다만 佛家の 通信일 수만은 없다. 불자의 讀本일 수만은 없다. 나라의 구별이 없고 人種을 넘어서는 위에 宗教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大乘, 아니 大大乘의 超越을 실천하고자 한다.

첫째 ‘나’를 淸淨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썩은 齒牙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는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이들로부터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 나가는 일이 先決되어야 한다. 木鐸은 그 울림이 안으로부터 밖으로 퍼져 나가지 않는가. ‘나’부터 맑게 하면 그 소리가 밖에도 맑게 들릴 것이요, ‘나’를 깨끗이 못하면 소리가 濁해져서 아무도 귀 기울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둘째 나라가 바르게 서야 한다. 집이 새면 안에서 비를 막을 수는 없다. 부처님의 지혜는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서부터 힘을 갖는다. 自由며 平等이며가 모두 佛法의 根本이니 그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民主主義야 한낱 겉가지가 아니겠는가.

목탁을 두드리는 손은 다르나 그 소리는 한가지로 높고 낮음이 없어야 한다. 또한 멀고 가까움이 없이 한결같은 소리로 마음을 밝혀주어야 한다.

셋째 統攝을 이뤄야 한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는 斷絶의 不連續線 위에서 살아왔다. 南北이 갈라진 위에 다시 三分五裂하는 어리석음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빚어지는 不幸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木鐸은 하나의 圓일 뿐 둘로 쪼개지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조각난 마음을 하나로 묶는 木鐸이 되고자 한다.

넷째 大慈大悲의 불을 밝혀야 한다. 짓눌린 사람,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 木鐸은 제 소리를 내야 한다. 衆生을 救濟하는 眞理를 부처님은 깨달으셨고 行하셨다. 부처님의 사랑 안에 오늘의 백성을 구하고 사회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公器로서의 木鐸이 되고자 한다. 法寶新聞은 木鐸이 되어 영원할 것이다. 하늘의 새처럼 바다의 물고기처럼 自由로울 것이다. 부처님의 法道를 지키면서 公論을 이끌어 나라의 平和, 인류의 행복을 이룩하는 데에 거리낌 없이 나아갈 것이다.⁶⁾

월산 스님은 창간사에서 <법보신문>이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삼천대천세계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고자 태어났으며, 저 해와 같은 광명을 빌어 무량의 소리를 담은 목탁을 깎았다고 했다. 또한 불가의 통신, 불자의 독본을 넘어 나라의 구별이 없고 인종을 넘어서는 위에 종교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대승은 물론 대대승(大大乘)의 초월을 실천하려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창간사는 창간 사설과 더불어 <법보신문>을 만든 월산 스님의 원력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이 글은 월산 스님의 기명으로 게재됐다는 점에서 발행인으로서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월산 스님은 창간사에서 ‘나’를 청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라가 바로 서야 한다.’ ‘통합을 이뤄야 한다.’ ‘대자대비의 불을 밝혀야 한다.’의 4가지 큰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월산 스님이 <법보신문>의 초대 발행인으로서 언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나’를 청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비판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성찰하라는 뜻으로 불교정화운동의 이념과 상통한다. 여기에서 ‘나’는 청정해야 할 주체로 신문사 구성원은 물론 불교계 전체를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썩은 치아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는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이들로부터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 나가는 일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다음 구절에서도 그러한 의미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불교계가 먼저 자신의 썩은 치아를 뽑아내고 잘못을 바로 잡을 때 국가발전과 통합에 기여하고 중생구제의 역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언론이 비판정신을 견지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월산 스님 스스로도 1969년 8월 10일과 8월 17일 <대한불교>에 2회로 나누어 기고한 ‘비구는 다시 재검토할 때가 왔다: 종단은 사부대중의 것’이라는 글에서 당시 조계종단 내부에 횡행하는 무질서, 반승가적 활동, 무이념 등을 신랄하게 비판했었다.⁷⁾ 잘못된 일에 대해선 서슴없이 비판하고 기

6) 월산 스님, 발행인 창간사, “대자대비의 등불 밝힐터...”, <법보신문> 1988년 5월 16일자.

7) “조계종단 역사에 이렇듯이 공개적으로 종단을 비판한 고승은 매우 적다. 이는 월산이 금오의 정화정신을 계승하고, 그 자신도 정확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애종적인 차원의 결단이 아닐 수 없다.” 김광식, 「월산의 생애와 사상」, <대각사상> 제32집, 대각사상연구원, 2019, p72.

꺼이 비판을 받으려고 했던 월산 스님은 불교계가 비판을 하고 그 비판을 수용하는 데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역사 의식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 그것은 하나의 반성이며 책임이며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일이야. 正思惟, 正語란 바로 보고 생각하여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正語인데도 우리 수행인들은 올바른 비판을 하고 그 비판을 받아들이는데도 인색해. 이언적이란 선비는 忠諫하는 말과 정직한 이론은 신하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의 이익이라고 했듯이 오늘의 수행자도 약한 다수의 생존과 권익을 위해 헌신적 정신으로 깨어있어야 하고 지도자일수록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스승처럼 섬기고 아첨하는 사람이 있거든 선행을 흠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해.⁸⁾

월산 스님의 창간사와 창간사설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언론의 비판기능이다. 월산 스님은 비판문화가 종단을 청정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것이 새롭게 창간하는 신문이 지향해나가야 할 방향임을 제시하고 있다. 바람직한 신행과 수행문화를 제시함으로써 불자들이 청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둘째, 나라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은 불교 언론이 종교의 틀을 넘어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에도 기여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유, 평등, 민주주의라는 현대사회의 이념을 충분히 아우르고도 남는다는 월산 스님의 무한한 자긍심을 살펴볼 수 있다. 불교계가 대정치·대사회적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시대정신도 역설하고 있다. 월산 스님은 이후 <법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불교계가 그동안 국가·사회발전이라는 본래적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한국불교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제 불교도 소승적 안목과 집착에서 벗어나 사회구원의 지평을 넓힐 때가 됐지. 돌이켜보면 그동안 불교는 본래적 책무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집안싸움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했어. 80

8) 불국선원 조실 최월산큰스님 신춘인터뷰, 대담 : 김정휴, <법보신문> 1991년 1월 1일자.

년대 역사의 변화를 슬기스럽게 수용도 못했을 뿐 아니라 오늘의 변혁을 대처해 나아갈 개혁의 주체세력도 없고 90년대 불교의 좌표와 방향을 집행부와 종회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만약 지금처럼 사회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때에 불교가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역사의 변혁을 외면한다면 불교는 이 땅에서 새로운 위기를 맞을 거야. 지금이야말로 사고와 의식의 혁명적 전환을 통해 교단을 혁신해야지.⁹⁾

월산 스님의 관점은 오랜 세월 화두를 들고 깨달음의 길을 걸어온 선수행자라는 점에서 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선이 개인의 완성을 넘어 사회 속에서도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표명하고 있다. 월산 스님은 불교계가 국가와 사회 속에 뛰어 들 수 있도록 독려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을 불교언론의 중요한 역할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언론이 단절과 배타성에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포용성을 적극 지향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월산 스님은 출가 이후 참선수행을 지속했고 깨달음 이후에도 입적 때까지 납자들을 지도했던 선승이다. 자신이 머무는 방에 육조진영을 모셨으며, 하동 쌍계사 육조정상탑을 매년 거르지 않고 참배했을 정도로 스스로 육조해능의 후학임을 늘 자부했다.¹⁰⁾ 그럼에도 월산 스님은 놀랍도록 열린 사고를 견지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기복불교나 무당불교에 대해서도 포용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기복(祈福)이란 말은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봅니다. 누구든지 복 받고 건강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중생들은 모두 노독심이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승화하느냐가 문제가 되지요. 개인의 행복과 영달에서 사회전체의 행복과 영달을 추구하게 하는 보살 사상도 역시 차원 높은 기복이지요. 흔히 기복불교를 욕하는데 진정한 기복의 의미를 아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봐요. 부처님도 중생의 의원이 되고 빛이 되고 식량이 되고 그렇게 되라고 했거든. 그런 의미에서 불교가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도 하고 병원도 만들고 무당불교든

9) 불국선원 조실 최월산 큰스님 신춘인터뷰, 대담 : 김정휴, <법보신문> 1990년 1월 1일자.

10) 운성 스님, 「금오문중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토론문」, <대각사상> 제32집, 대각사상연구원, 2019, p.207.

무엇이든지 부처님의 명호아래 모여서 갖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참선하는 이는 참선 잘하고 사판(事判)하는 이들은 일 잘하고 그게 다 불교 발전이라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야지요. ... 내 개인으로는 화두 하는 것을 주장하지만 불교 전체를 봐서는 여러 가지 모든 종파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은 불교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의견이 전체 불교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장은 수도장답게 포교당은 포교당답게 각기 특징을 가지면서도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어야만 진정한 불교의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¹¹⁾

월산 스님은 서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만드는 획일적인 통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그대로를 인정한 채로 중생의 이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통합이라고 보았다. 그럴 때 화합할 수 있으며 불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보신문>이 특정 종단의 입장에서 벗어나 범불교지를 지향하겠다는 선언은 시대상황에 따른 즉흥적인 방편이 아니라 월산 스님의 평소 지론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대자대비의 불을 밝혀야 한다는 것은 언론이 중생구제에 앞장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중생은 짓눌린 사람,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국민과 인류 전체까지 포괄하고 있다. 실권자들이나 저명한 이들의 목소리만 담아낼 게 아니라 고통 받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이것이 곧 부처님이 깨닫고 실천한 진리라는 것이다.

월산 스님이 창간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정, 사회참여, 통합, 대자대비는 곧 수행, 포교, 화합, 보살행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출·재가를 막론하고 모든 불교인들이 지향해야 할 실천 강령인 동시에 불교언론이 존재해야 할 당위성이기도 하다.

11) 「불국선원을 찾아서 ; 염화실의 미소 - 월산」, <월간 해인> 31호, 1984.9.

IV. <법보신문>의 월산 스님 유지 계승 활동

1. 탄생과 성장(1988~2005)

<법보신문>은 1988년 5월 16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33년째 매주 발간해오고 있다. 초대 발행인 월산 스님이 밝힌 ‘존경진리, 굴복아만, 공명정대’의 실현을 목표로 한국불교가 청청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자비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길을 걷고자 했다. 교계 상황을 냉철히 파악하고 비불교적, 비승가적인 요소들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지 않았다. 외압에 꺾이지 않으려 했으며,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해묵은 관행의 고리를 끊고자 했다. 불교계 내부에서 자정의 목소리와 새로운 불교 흐름을 만들어갈 비판그룹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기사를 비중 있게 다뤄 불자들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대승불교승가회가 추진하는 노동·인권운동이나 불교인권위원회의 보안법 폐지 및 양심수 석방 등 재야단체 활동을 머리기사로 실었다. 인권·재야·청년단체 및 일반불자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관련 기사를 적극 담아냈고, 그 목소리를 결집시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창구가 되고자 노력했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 타종교계의 종교편향에 대해 과감한 비판과 시정을 요구했다. 이 같은 시도는 공감과 찬사를 받는 동시에 총무원 출입 금지를 비롯한 불교계 내부는 물론 외부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예의주시토록 했다. 당시 활동했던 <법보신문> 기자의 회고는 그때 상황을 잘 보여준다.

정부 집권층에서 보면 달갑지 않은 기사가 1면 머리를 장식하기도 했지요. 당시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종로서 등의 ‘관선기자’(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기관원의 별칭)들은 이번 신문엔 어떤 기사가 나오느냐며 물어오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법보신문> 기사의 크기나 논조, 그리고 기자들의 움직임이 기관 정보 보고의 대상이 되는 시절이었습니다.¹²⁾

12) 「창간 30주년 특별인터뷰 - 최승천 조계종출판사 부문사장」, <법보신문> 2018년 11월 28일자.

이 같은 상황에서 기자들은 위기의식을 느꼈고, 언제든 연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법보신문> 기자들은 1992년 4월 7일 불교계 언론 최초로 기자윤리강령 선포식을 가졌고, 이를 통해 비불교적·비승가적 행위와 타락·부정부패를 거부하고 부단한 자기혁신과 도덕적 결단으로 언론 본연의 자세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 외부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과 국민과 불자들이 알아야 할 진실을 밝히며, 불의와 부정에 대한 비판자로서 봉사하고 정법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¹³⁾ 이는 월산 스님의 <법보신문> 창간 이념으로서 지금도 <법보신문사 사규 및 취업규칙>의 제97조(윤리강령)에 ‘언론 본연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법보신문> 기자 윤리강령을 채택, 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에 대한 심의는 편집국장, 부·차장을 위원으로 하는 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고 명시해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다.

<법보신문>은 윤리강령 제정 후 파사현정의 비판에 더 적극 나섰다. 1992년 MBC가 10년 넘게 지속해오던 조용기 순복음교회 목사의 선교방송 저지를 위해 김재일 보리방송

13) <법보신문 기자 윤리 강령>

1. 언론자유 의 수호

- 가. 우리는 외부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 나. 우리는 수사 정보기관의 신문사 출입 및 신문제작과 관련한 불법연행을 거부하며, 부당하게 연행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위해 힘을 합쳐 대처한다.

2. 보도의 책임

- 가. 우리는 상업주의 선정주의 언론을 배격한다.
- 나. 우리는 국가와 민족 등 모든 부문의 중대사에 관하여 국민과 불자들이 알아야 할 진실을 밝힌다.
- 다. 우리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비판자로서 봉사하며, 정법구현에 앞장선다.
- 라. 우리는 독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 마. 우리는 잘못 보도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이를 인정하고 바로 잡는다.
- 바. 우리는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기사내용을 제공한 사람을 보호한다.

3. 품위유지

- 가. 우리는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금품을 정중히 사절한다. 금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되었을 때에는 되돌려 보낸다.
- 나. 우리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밖의 개인적 이득을 꾀하지 않는다.
- 다. 우리는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 라. 우리는 언론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지도,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모니터회장 등과 연대해 2개월에 걸친 끈질긴 보도를 통해 부당함을 알림으로써 결국 방 송중지를 이끌어냈다. 1993년에는 17사단 전차대대에서 불상을 쌀 포대에 담아 야산에 버린 훼손사건이 벌어졌을 때 <법보신문>은 사건의 전말을 알리고 불교계의 공분을 담은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국방부장관의 사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장로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정권(1993~1998)이 부활절을 내세운 검정고시 일정 변경, 대통령 국방부 예배 참석 등 종교편향 행위에 대해 집요하리만치 파고들어 정부의 사과를 받아냈다.

1994년 종단개혁 때도 <법보신문>은 두드러졌다. 신문발행 중단이라는 초유 사태를 겪으면서도 기자들은 <편집국뉴스>를 발행해 개혁의 염원을 모으고 실천을 이끌어냈다. <법보신문>은 종단개혁의 진행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히 알렸으며, 이로 인해 뜨거운 지지와 후원이 이어졌다.¹⁴⁾ “조계종분규가 종단개혁의 물꼬를 튼 데는 분규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곳곳한 자재로 필봉을 휘둘렀던 <법보신문> 기자들의 공도 크다”는 일반 언론의 평가도 있었다.¹⁵⁾ <법보신문>은 불교개혁의 상징이었으며, 불교의 자주성과 권익을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 치 물러섬이 없는 한국불교의 든든한 외호세력으로 인식됐다.

<법보신문>은 불교계 내의 여성 차별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1990년 7월 ‘불교계 여성 지도자가 없다’는 1면 기사를 시작으로 여성 불자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다뤘다. 특히 1992년 11월 2일자 기사를 시작으로 9회에 걸쳐 ‘불교의 여성관 - 성의 속박에서 평등으로’이란 제목으로 해주 스님이 여성성불 의미, 초기경전 속의 재가여성상, 여성 출가와 비구니교단, 장로니들의 수행과 득도, 불신관(佛身觀)의 변천과 여성성불, 대승경전에 보이는 여성상, 중국 전등사에 보이는 여성들, 한국불교사를 통해본 여성불자, 현대

14) <법보신문> 1994년 6월 6일자에 따르면 1994년 4월부터 5월 30일까지 총 18,789,320원의 후원금이 답지했다. 편집국뉴스 제작 · 발송비 · 교통비 등에 11,381,950원을 지출했으며, 나머지 7,407,370원은 한국불교기자협회에 전달해 1993년 10월 27일 별세한 <법보신문> 선원빈 편집국장의 이름을 딴 ‘선원빈기자상’을 신설, 불교언론발전을 위한 공익기금으로 회향했다.

15) 「법보신문 종단개혁 “큰공”」, <한국일보> 1994년 4월 14일자.

여성과 한국불교 등 여성불교와 관련된 제반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후로도 출·재가 여성불교 단체 및 여성불자의 활동을 꾸준히 소개했으며, 지금까지도 여성불교는 <법보신문> 지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⁶⁾ 이와 함께 이기영, 리영희, 고은, 박완서, 이이화, 도법 스님, 신경림, 윤청광, 공종원, 박성배, 백경남, 한승원 등 뛰어난 논객과 문인들이 담당했던 「법보정론」, 「법보시론」 등도 불자들에게 불교와 세상을 보는 바른 견해를 제시했다.

<법보신문>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을 돕기 위한 노력에도 주력했다. 1994년 르완다 난민 돕기, 1995년 거룩한 만남, 1996년 북한동포돕기, 2001년 통일 자비릴레이 캠페인, 2002년 콩고난민 돕기, 2003년 무의탁 소년소녀 가장 돕기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한국불교계의 자비 손길이 세계 곳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불교여론을 선도해나갔다.

그러나 <법보신문>도 불교계의 부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불국사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은 신문사의 안정된 운영에 크게 기여했지만 상대적으로 지원여부에 따라 신문사가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는 취약한 구조임을 의미했다. 첫 위기는 1993년 4월 1일 <법보신문> 직원들이 불교계에선 처음으로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4월 3일 종로구청에 설립신고를 마치면서부터다. 직원들은 고용 안전,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지원 사찰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노조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불국사는 “만성적자 누적”을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고, 직원들에게 통보됐다. 신문 발간도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불과 몇 해 만에 괄목할 성장을 해왔던 <법보신문>이 폐업에 내몰림에 따라 세간의 관심으로 모았다.¹⁷⁾ <법보신문> 폐간에 따

16) 1991년에는 하춘생 기자가 교계 언론 최초로 비구니스님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한국의 비구니’를 매월 1회씩 총 10회에 걸쳐 연재했으며(1991.1.28.~1991.12.9.), 2016년에는 남수연 기자가 ‘한국불교 비구니 리더’라는 제목으로 약 15개월간(총 27회) 격주로 원로 비구니스님을 취재해 전면에 다뤘다(2016.1.1.~2017.3.22.).

17) “<법보신문>은 개혁을 주창하면서 현 총무원체제에 반기를 든 이론가들의 결집장 노릇을 해 ‘법보사단’이라는 별칭을 날기도 했다. 이 와중에서 최고부수 2만7천여 부를 기록하는 등 조계종이 직영하는 불교신문과 쌍벽을 이루면서 개혁지향지로서의 위상을 굳혀왔다. 그러나 올해 초 구성된 10대총회를 전기로 세력판도가 현 총무원쪽으로 기울자 광고수주격감 등 재정압

른 교계 안팎의 여론이 극히 악화됨에 따라 당시 발행인이었던 종원 스님은 4월 11일 “그동안 각지의 스님들로부터 <법보신문>의 필요성과 영향력을 확인했다”며 사실상 폐간 철회의사를 밝혀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와 관련해 <법보신문>이 제14대 대선정국과 횡불 사건 당시 불교계 여론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기에 폐간철회가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¹⁸⁾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렵게 정상화된 <법보신문>은 5년 뒤인 1998년 8월 불국사 주지 교체 이후 “3개월 해고예고” “신문사 출입금지” 등 조치가 단행되고 이에 맞서 “언론탄압”을 주장하며 다시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치달기도 했다.¹⁹⁾ 그리고 2005년 11월 9일 새로운 발행인 종상 스님이 <법보신문> 재산권 및 운영권 일체를 직원들에게 전격 이양하면서, 불교계에서는 최초로 특정 사찰이나 종단의 독점적 영향권에서 벗어나 사부대중 모두가 진정한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독립 언론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법보신문>의 독립은 불교언론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독립 언론은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중단됨을 뜻했다. 그 문제를 타개할 해답은 초대 발행인 월산 스님이 천명했던 ‘존경진리, 굴복아만, 공명정대’라는 창간 정신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수봉행(信受奉行)하며, 비판과 자비의 양 날개를 견지하고, 치우침 없이 공정한 언론을 지향하는 것이 불교언론의 본령이며 그럴 때 불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법보신문>은 2005년 12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법보신문> 새 출발 축하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부정과 불의, 부패와 타협하지 않을 것,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한 태도를 견지할 것, 불우하고 소외된 힘없는 이들의 후원자가 될 것, 청렴하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을 것을 대중 앞에 약속했다.²⁰⁾

박이 표면화된 상태다. 이 때문에 <법보신문> 폐업 소식이 나돌자 총무원 안팎에서는 불국사 쪽이 효용가치가 떨어진 신문 적자를 빌미로 용도 폐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불국사 내부에서는 아직 폐업 여부에 관해 견해차가 가시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파동 법보신문 폐간 모면」, <한겨레신문> 1993년 6월 13일자.

18) 「노조파동 법보신문 폐간 모면」, <한겨레신문> 1993년 6월 13일자.

19) 「법보신문이 흔들린다」, <한겨레신문> 1998년 9월 12일자.

2. 독립언론의 길(2006~2021)

<법보신문>은 독립 후 바람직한 수행·신행문화 확산에 주력했다. 2006년 ‘7인 선사 초청법회’, 2008년 ‘5인 선사 초청대법회’ 및 ‘5인 대강백 초청법회’를 열었으며, 2013년에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힐링 멘토인 법륜, 정목, 마가, 혜민 스님을 조계사에서 초청해 힐링 열풍을 주도했다. 2014년 <법보신문>이 조계종 신행수기를 기획, 발의, 시행한 것도 매우 뜻깊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법보신문>과 불교방송이 공동주관하는 신행수기 공모에는 매년 수백 명이 참여하면서 불자들의 신심고취와 신행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불자답게 삽시다’ 캠페인을 전개해 불자들의 신행이 사찰을 벗어나 가정과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교학자들의 논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 37개의 실천항목을 제시하고 집·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를 제작 배포했다. 그 결과 그해 ‘불자답게 삽시다’에 82,055명이 동참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2016년부터는 매월 불교미술사학자와 떠나는 ‘삼국유사 성지순례’를 기획해 3년간 실시했으며, 부탄·스리랑카 등 불교국가 성지순례를 열어 신심고취와 불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왔다.

2008년 1월 시작한 ‘이주민에게 희망을 보시 합시다’ 캠페인은 우리사회의 새로운 소외계층인 200만 명의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을 돕는 새로운 시도였다. 매달 모금운동을 전개해 2015년까지 약 10억 원의 성금을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에 전달할 수 있었다. 2016년 8월,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위해 공익법인 일일시호일을 출범해 2021년 8월 현재 17개국 160여명 각각에 300만원~2,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4월에는 일일시호일이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단체로 선정됐으며, 향후 지원·위탁시설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법보신문> 주최로 2019년 12월 1일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몽골, 줌머인(방글라데시) 등 8개 국가의 법당 및 공동체들이 참여하는 한국다문화불교연합회를 창

20) 「법보신문 독립언론 새 출발 공표」, <법보신문> 2005년 12월 28일자.

립해 이들이 자율적인 활동을 이어가도록 돕고 있다.²¹⁾

<법보신문>은 출판을 통한 전법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1991년 『깨침의 미학』, 『큰스님』을 시작으로 간헐적으로 출판을 했지만 2014년에는 도서출판 모과나무를 설립해 이를 본격화했다. 『불교, 기독교를 말하다』, 『성철평전』, 『한국의 사찰숲』, 『마음밥상』 등 40여 종이 넘는 책을 펴냈고, 불교출판계 최고상인 불교출판문화대상과 세종도서(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에 다수 선정되는 등 불교전문출판사로 성장했다. 2020년 6월 모과나무와 조계종출판사의 합병을 통해 <법보신문>은 출판 관련 지적재산권과 콘텐츠 등 일체를 조계종출판사에 양도하고, 출판사 주식 30% 양도, 출판사 대표이사 추천권 및 대표이사 경영권 보장 등 항목에 합의해 출판사업의 전문성과 영역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3월부터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시작으로 법보신문을 교도소, 군법당, 관공서 등에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해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법보신문>은 독립 후 소외 이웃돕기, 신행과 전법에 매진하되 불교계 안팎에서 잇따르는 훼불과 비불교적 행위에 대한 비판의 고삐도 늦추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서울시 봉헌”,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부인의 범명 거짓말을 보도하는 등 불교편향을 지적했다.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토해양부의 대중교통시스템인 ‘알고가’에 사찰이 누락된 사실을 단독 보도하고, 경기여고에서 일어난 불교문화재 매립 사건도 가장 먼저 보도해 심각한 종교편향의 실태를 알려나갔다. 종교편향에 대한 잇따른 보도들은 2008년 8월 27일 서울광장에서 20만 불자들이 동참해 정부를 규탄하는 범불교도대회로 이어졌으며, <법보신문>은 이 같은 공로로 그해 12월 17일 조계종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을 수상했다.

이후에도 2014년 4월 한국연구재단이 종교분야 책임전문위원 선정과정에서 기독교와 가톨릭은 포함하면서 불교는 배제한 사실을 알리고 이를 심층 취재했다. 그 결과 한국연구재단은 5월 20일 종교분과 불교학 전문위원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약속했다. 또 기독교계가 자행한 전국 사찰에서의 ‘땅 밟기’, 인도 마하보디사원 대탑 훼불행위를 비롯해

21) 「이주민 향한 편견 허무는 마중물 되겠습니다」, <법보신문> 2019년 12월 11일자.

올해에도 부산·창원 등 지역에서 3월말까지 크리스마스트리를 존속하는 행위, 국·공립 합창단 찬송 공연, MBC의 나눔의집 편파방송을 집중 보도하는 등 공권력·방송사의 종교편향과 타종교계의 훼불행위로부터 불교를 외호하는데 앞장섰다.

불교계 내부의 자정 노력에도 앞장섰다. 2007년 4월,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가 종헌종법을 무시한 산중총회를 잇달아 강행하고 해당 말사 주지의 동의 없이 측근을 조계종 총무원에 말사주지로 품신 신청을 하는 등 제주불교를 파행으로 몰아넣고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종단의 대응을 비롯해 지역 사찰과 불교단체들의 개혁요구, 소송과정 등 4개월간 50여 건의 기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집요하게 다룸으로써 특징인 이 좌지우지했던 ‘회주 중심제’를 폐지하고 제주 관음사가 정상화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2007년 2월, 조계종유지재단이 위탁받아 부천 석왕사가 운영하던 부천 스포피아에서 발생한 억대의 공과금 미납분 등을 조계종에 떠넘겨 종단 복지사업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비판받은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2009년 4월 또다시 부천 스포피아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석왕사 주지가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조계종 유지재단의 통장이 압류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를 비판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이로 인해 긴 소송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2011년 법원이 <법보신문>의 비판보도가 정당했다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일단락됐다.

2008년에는 태고종 총무원장이 사찰을 교회에 매각한 것을 비롯해 각종 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태고종 개혁의 단초를 마련했으며, 2010년에는 당시 해인사 주지의 부동산매각과 무리한 납골사업으로 고불암 무량수전이 경매에 넘어간 일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법보종찰의 파행을 막고자 했다. 2010년에는 값싼 납·FRP 소재의 불상이 매년 10만여 건이나 유통되는 상황과 이것이 환경 및 인체에 유해해 예배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으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도 직접 개최해 이 같은 그릇된 관행을 끊고자 했다.

2013년에는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의 부실화를 우려

하는 기사를 연이어 다뤘으며, 2014년에는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의 파행운영과 폭언을 고발하는 기사들을 보도해 불교학술원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특히 2012년 선학원 이사장이 불통과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법보신문>은 온갖 소송을 감수해가며 이사장과 10여 명의 이사들이 정관과 분원관리규정을 통해 분원장을 옴아매고 이의제기조차 못하도록 만드는 비불교적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를 10여 년째 다루어 오고 있다.

이에 앞서 2012년 문화재청이 연등회를 일제강점기 이후 정통성이 훼손됐다고 문화재 지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법보신문은 연등회의 기원, 전래과정 등을 조명한 기획 기사를 잇따라 보도해 문화재지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결국 문화재청은 이 같은 불교계 여론을 수용해 연등회를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했으며, 법보신문은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법보신문>은 지성불교 견인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2009년 권오민 경상대 교수의 “대승경전을 불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교사상사에 대한 무지와 폐쇄적인 신념에 기초한 것이며, 아함경과 니까야 또한 붓다의 친설로 볼 수 없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보도했다. 이를 시작으로 마성 스님, 전재성, 황순일, 조성택, 안성두 교수 등 많은 학자들이 논쟁에 동참하면서 불교학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들을 받았다.²²⁾ 또 <불교평론>이 2015년 여름호(통권 62호)에서 특집으로 다룬 ‘현대 한국불교 10대 논쟁’에서 대승불교 정체성·기복불교·사띠·민족불교 논쟁 등 <법보신문> 지면을 통해 이뤄졌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가 절반이어서 <법보신문>이 지성불교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2020년 11월 전국선원수좌회가 해인사에서 개최한 좌담회에서 제기된 “좌선 일변도의 수행만으로는 못 깨닫다”는 기사를 시작으로 이와 관련한 기사 및 관련 기고들을 통해 한국선수행의 새로운 변화 방향과 가능성을 모색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²³⁾

22) 조인숙, 「불설과 비불설 논쟁에 관한 소고」, <문학/사학/철학>, 2009, 가을 제18호; 황순일, 「초기불교의 시원론 논쟁」, <불교평론> 2015년 여름호.

23) 「좌선 일변도 수행만으로는 못 깨닫는다」, <법보신문> 2020년 11월 25일자.; 윤창화, 「전등록 1000여 선승 중 좌선하다 깨달았다는 이가 있나」, <법보신문> 2020년 12월 16일자.; 윤창화, 「한국 선은 지금 지독한 ‘좌선병’에 걸려 있다」, <법보신문> 2021년 2월 3일자.; 일진 스님, 「한국 스님들 못 깨닫는 결정적인 이유 있다」, <법보신문> 2021년 2월 10일자.; 윤창

이 같은 노력은 한국불교를 외호하고 불교계의 많은 변화를 주도했으며 긍정적인 평가들로 이어졌다. <법보신문> 논설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보광 스님의 평가는 <법보신문>이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이자 향후 지향점이며, <법보신문>이 월산 스님의 창간 이념을 유지·계승하는 일이기도 하다.

<법보신문>은 파사현정의 기치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혹은 누가 대단히 미워하더라도 바른 소리를 하고, 잘못된 것을 파헤치고 만다. 어느 누구도 말하기를 기피하는 것을 과감히 말한다.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다. 불교를 엉망으로 만들고 훼손행위를 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썩은 부분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불교가 큰일 나겠다 싶은 것을 가려서 파헤친다. 불교를 상처내기 위해서나 혹은 어느 개인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교를 올바른 정법으로 인도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펜을 잡는다. 그래서 그들의 논지는 반드시 불교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길만을 선택하고 있다.²⁴⁾

V. 맺는 말

<법보신문>은 격변의 시기에 탄생했고, 그동안 불교언론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법보신문> 이후 <한국불교>, <해동불교신문>, <대한불교>, <시대불교>, <관음불교>, <동국불교>, <경기불교>, <한라불교>, <대구불교>, <정토불교>, <현대불교>, <우리불교> 등이 잇따라 창간했다. 그러나 대부분 신문들은 재정난 등으로 2000년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발행이 중단됐으며, 종이활자의 사양 흐름 속에서 남은 신문들도 성장보다 침체를

화, 「한국선불교는 불립문자 고향해 무지 정당화했다」, <법보신문> 2021년 3월 10일자.; 윤창화, 「선원에서 자취 감춘 법거량 … 지금 한국선이 위험하다」, <법보신문> 2021년 6월 23일자.

- 24) 보광 스님, 「법보신문이 사랑 받는 이유」, <법보신문>, 2009년 6월 3일자. 보광 스님은 이 글에서 “법보신문은 나에게 오면 일단 난도질을 당한다. 갈기갈기 찢겨져서 다른 대중들이 볼 수 없을 경우가 많다. 이리 오리고 저리 오려서 필요한 부분을 스크랩한다. 나는 어느 신문이 나 잡지를 만나게 되면, 먼저 무엇을 스크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읽는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의 기준으로는 나에게 난도질을 많이 당하는 신문일수록 필요한 신문이다.”라며 <법보신문>의 자료 가치도 높이 평가했다.

면치 못하고 있다.

<법보신문>은 그동안 논란과 쟁점의 한가운데서 어느 언론 못지않게 치열하게 지냈으며, 그것은 재정적으로 기댈 곳 없는 독립언론의 숙명이기도 했다. 특정인, 특정사찰, 특정종단에 과도하게 치우칠 경우 스님들과 불자들의 외면을 초래하고 결국 존립이 어려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직설적인 비판을 표방하는 인터넷 매체의 등장 속에서 종이 신문은 불교계 부조리에 대한 비판과 불교계 전체의 이익 실현이라는 두 축의 경계선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자칫 비판에 과도하게 치우치면 비판 그 자체 만에 몰두하고 수용자를 감정적으로 자극해 불교에 대한 불신감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²⁵⁾ <법보신문>은 이를 인식하고 비판과 호교(護敎)의 경계선에서 균형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불교계에 꼭 필요한 언론이 되고자 노력했고, 다행히 다수의 조계종 불교언론문화상과 한국불교기자협회의 한국불교기자상을 비롯해 재)대한불교진흥원의 대원상, 묘엄불교문화재단의 묘엄불교문화상, 부산불교사회복지·청소년기관협의회의 사회복지언론상, 재한쑤머연대의 감사장, 주한네팔대사관 감사패, 재 대한민국 스리랑카 대사·일동의 감사패 등을 받는 영예를 누릴 수 있었다.

월산 스님은 발행인 창간사에서 “잠들지 않고 쉬지 않고 게으르지 않으며 굶힘이 없고 쓰러짐이 없고 부서짐이 없는 목탁을 만들었다. … <법보신문>은 목탁이 되어 영원할 것이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법보신문>이 불교적인 정체성²⁶⁾과 불교언론의 사명을 잃지 않을 때 가능하며, 사훈인 ‘존경진리, 굴복아만, 공명정대’의 구체적인 실천이기도 하다. <법보신문>은 단순히 신문을 만들고 기사를 쓰는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불자들이 행복하고 불교계가 건강하고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뜻깊은 불교언론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이 초대 발행인 월산 스님과 그동안 <법보신문> 창간을 이끌고 유지해왔던 이들의 숭고한 뜻과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기도 하다.

25) 김관규, 「불교언론, 어떻게 비판해야 하나」, <법보신문> 2015년 11월 4일자.

26) <법보신문>은 불교정체성 강화를 위해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10분 전 직원들이 법당 겸 다실에 모여 법회를 올리는 것으로 한 주를 시작한다. 또 매달 1회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불서 등 독서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를 비롯한 신입사원의 경우 불교교양대학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월산 대종사와 <법보신문>」에 대한 토론문

이필원 - 동국대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교수

‘언론은 사회의 목탁’이란 소리가 있다. 사회를 일깨우고, 실효를 경계하여 바름을 추구하는 것을 한 마디로 표현한 말이다. 그런데 요즘 그 ‘목탁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작 언론인들이 모르는 것 같다. 오히려 외부에서 이러한 걱정의 소리들이 나오는 실정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 언론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시점에서, 이재형 법보신문 편집국장(이하 논자)의 본 논문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논문에서 언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답안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범답안이 가리키는 지점은 ‘월산대종사’의 정신임을 논문은 보여주고 있다.

<법보신문>은 불교계에서는 <불교신문>과 더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사이다. 그리고 불교계 밖에서도 항상 주시하는 언론사이기도 하다. 이러한 <법보신문>이 어떻게 탄생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담담하게, 때로는 걱정적으로 때로는 자부심 넘치는 어조로 그려내고 있는 논문이다. 논문의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한국 불교계 언론의 역사를 기록한 ‘기록물’이기도 하다.

논자는 논문에서 월산대종사의 언론관과 역할에 대해서 증언을 채록하고, 이를 기록함으로써 월산스님의 덕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논문을 읽다 보면, 월산스님의 정신

이 오늘의 <법보신문>의 뿌리로서 굳건히 자리하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논문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III장과 IV장에서 논자는 월산스님의 언론관과 역할, 그리고 <법보신문>이 월산 스님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 온 발자취를 기술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논문의 주요 논지를 중심으로 논문의 개요를 평자 나름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법보신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대 발행인이었던 월산 스님은 1988년 5월 16일 <법보신문>을 창간하면서 ‘존경진리(尊敬眞理), 굴복아만(屈伏我慢), 공명정대(公明正大)’라는 사훈으로 <법보신문>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p.165).

이를 논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이는 불교언론이 현대불교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역할,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바람직한 수행·신행문화를 견인하는 전법사 역할, 불교계 안팎에서 벌어지는 비불교적 행위와 훼손에 적극 대응하는 호법신장 역할, 비판을 넘어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국불교 책임자 역할까지 다하라는 준엄한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p.165).

하지만 이를 언론 일반에 적용해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 보면, 진리를 존경한다는 것은 ‘언론은 사실을 기록하며, 사실 앞에 겸손하며, 사실만을 받든다’고 할 수 있고, 아만심을 굴복시킨다는 것은 ‘펜을 쥔 자의 교만을 경계한 것이고, 펜으로 상징되는 권력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으로도 이해되며, 공명하고 정대함은 ‘숨김이 없어 명명백백하고, 사회의 바름이 되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이는 <법보신문>의 발간 취지와 배경으로 논자가 소개하고 있는 「사설-千手千眼의 巨步」의 한 단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인간의 자유와 기본권을 회복하고 진실한 표현의 자유로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존의 지혜로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과제와 불교인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범불교지인 <법보신문>을 창간한다. … (중략) … 적당히 눈치나 보고 역사와 사회의 비리를 목인하는 阿世의 지성을 배척할 것이며 진실을 위해서는 땀과 棒으로 이 시대 비양심적 행위를 깨우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p.169).

이를 논자는 “① 변혁의 시기에 불교계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 ② 각 불교언론이 종단의 기관지로서 자기 교단 권익을 옹호하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 ③ 불교도 전체의 권익과 중흥에 노력할 것, ④ 편협한 보도와 편집을 지양할 것, ⑤ 포교의 현대화 및 대중화에 적극 나설 것, ⑥ 비리와 야합을 목인하지 않을 것 등 각오”의 6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휴스님과 인터뷰 내용이 주목할 만하다. 이 내용에서 <법보신문> 창간과 관련된 월산스님의 정신, 그리고 종상스님과 정휴스님을 비롯한 불국사 대중의 노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논자는 월산스님의 창간사를 분석하면서, 스님의 언론관을 주목하고 있다.

월산 스님은 창간사에서 ‘나’를 청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라가 바로 서야 한다.’ ‘통합을 이뤄야 한다.’ ‘대자대비의 불을 밝혀야 한다.’의 4가지 큰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월산 스님이 <법보신문>의 초대 발행인으로서 언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p.176).

그리고 오늘날 이념으로, 경제적으로, 세대 간으로 분열되어 있는 사회에 가르침을 주는 듯한 내용도 논자는 소개하고 있다.

월산 스님은 서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만드는 획일적인 통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그대로를 인정해 채로 중생의 이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통합이라고 보았다 (p.179).

이러한 월산스님의 정신은 불교계 언론 최초로 기자윤리강령 선포로 이어진다고 논자

는 분석하고 있다.

<법보신문> 기자들은 1992년 4월 7일 불교계 언론 최초로 기자윤리강령 선포식을 가졌고, 이를 통해 비불교적·비승가적 행위와 타락·부정부패를 거부하고 부단한 자기혁신과 도덕적 결단으로 언론 본연의 자세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 외부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 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과 국민과 불자들이 알아야 할 진실을 밝히며, 불의와 부정에 대한 비판자로서 봉사하고 정법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p.181).

윤리강령 제정 후 <법보신문>은 파사현정의 비판을 더욱 강화하여, “불교개혁의 상징이었으며, 불교의 자주성과 권익을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 치 물러섬이 없는 한국 불교의 든든한 외호세력으로 인식됐다(p.182).”고 <한국일보>의 기사를 바탕으로 논자는 신문사의 가치를 정의하고 있다.

이후 <법보신문>은 1993년 노동조합을 결성함으로써, 불국사와의 갈등이 부각되고, 결국 국 신문 폐간에 이르렀다가, 우여곡절 끝에 철회되고, 2005년 새로운 발행인인 종상스님이 신문사의 재산권 및 운영권 일체를 직원들에게 전격적으로 이양하면서, 불교계 최초로 독립언론이 탄생되게 된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후 신문사의 ‘독립언론의 길’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다.

이상이 본 논문의 대략적인 개요로 파악된다. 일단 논문을 읽으면서, 논자는 <법보신문>의 정체성과 가야 할 이정표의 지향점은 언제나 “월산대종사의 정신”이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논문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평자의 입장에서 보면, 본 논문은 <법보신문>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서 신문사의 밝은 면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말인즉, <법보신문>의 한계와 반성이란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사실 “한계와 반성”이 꼭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일 필요는 없다. 말 그대로 ‘돌이켜 성찰하는 것’이 반성 아닌가. 오늘날 언론이 처한 현실에서 <법보신문>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신문사가 갖고 있는 한계는 무엇인지가 분석되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평자로서의 의무를 대신하고자 한다.

1. 논자도 결론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종이활자의 사양 흐름 속에서 남은 신문들도 성장보다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보신문>은 향후 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다.

2. 가톨릭이나 개신교의 경우 일간지 언론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불교계는 아직도 일간지 언론이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다. 만약 일간지 언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도 묻고 싶다.

3. 논자는 월산스님의 창간사와 창간사설의 내용을 ① ‘언론의 비판기능’ ② ‘종교의 틀을 넘어 국가 발전과 국민행복에도 기여해야 함’으로 분석(p.177)하고 있다. 이는 사실 모든 언론이 지향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 평자가 보기에 <법보신문>은 언론으로서의 비판 기능을 충실히, 그리고 파사현정과 불법수호라는 가치를 균형감 있게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불교라는 틀을 벗어나는, 즉 불교와는 직간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국가 발전과 국민행복에 대한 기사는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든다. 이 부분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사실 일간지로 나아가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일간지로서의 성장은 월산대종사의 숨은 뜻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다. <법보신문> 데스크로서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평자는 이재형 국장이 갖고 있는 언론인으로서, 불자로서의 자긍심과 소명감을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존경의 엄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논자의 자긍심과 소명감이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글에 논평이라는 이름으로 덧칠을 한 것

은 아닌지 염려되는 바가 크다. 좋은 글을 읽을 기회를 준 이재형 국장과 대각사상연구원에 감사드린다.

월산대종사 연보

김광식 작성 - 동국대 교수

서기	월	일	비고
1913	음 5	1	함경남도 신흥군 동산면 원풍리에서 출생 부친 최흥규와 모친 노씨 사이의 3남 2녀중 둘째 아들로 태어남. 속명은 崔鍾列. 유년시절 : 서당 및 근대교육 이수 청년시절 : 일본과 중국 巡遊 우주와 인생의 근본에 대한 의문이 강열 석왕사에 잦은 왕래, 불교의 인연 智冠編, 「慶州佛國寺聖 林堂 月山大禪師碑文」, 伽山佛教文化研究院, 2000, p.1338. 월산門徒會편, 『月山禪師 法語集』, 1999년 개정판 연표에서 참고.
1943			부친 사망 석왕사 입산 조실인 환공스님(양안광) 소개로 치악산 상원사의 전금초 스님을 찾아감 - 수행 및 승단 현황 파악 상원사에서 망월사로 가라는 소개 서찰을 받음 - 도중에 소요산 자재암 1개월 체류 망월사에서 춘성스님을 만남 선원빈, 「스님을 찾아서」, 『법륜』 98호, 1997.4.
1944			망월사에서 금오스님을 은사로 수계 및 출가 최석환, 「인물탐험, 월산 대선사」, 『선문화』, 2009.4.
1945			흥국사에서 정진 수덕사, 만공회상(정혜선원)에서 정진 - 만공스님에게 ‘이뤄꼬’ 화두를 받아 정진 공양주 소임 - 금봉, 전강 선사와 정진 최석환, 「인물연구, 불국 선원 조실 월산 선사」, 『불교춘추』 3호, 1996.

1946		보길도(전남) 남은사 정진 - 비룡, 서암, 경산, 도광, 도천 등과 함께 탁발 수행, 용맹 정진 - 금오스님에게 ‘돌맹이’ 화두 받음	『月山禪師法語集』, p.306.
1948		봉암사 결사 동참 - 성철, 청담, 자운, 혜암, 법전 등과 함께	「1947년 봉암사 결사」, 『수다라』 10호, 1995.
1949		범어사 선원, 수행 - 조실인 동산스님을 모시고 소임, 淨桶	『근대 선원 방함록』, 조계종 교육원, 2006, p.360.
1950		금정사(부산) 선원장 - 홍경, 석주, 무불 등과 함께 정진	『월산선사법어집』
1951	5	선암사(부산) 주지 - 발령, 이종욱 총무원장 - 지월, 서옹, 홍경, 무불, 설봉, 도광, 운문, 인환 등과 함께 정진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 운동』, 영광도서, 2008, p.267.
1952		통도사 내원사 정진 정혜사(목포) 정진 - 은사인 금오스님을 만남 미래사(통영)의 효봉 회상에서 정진	『월간 해인』 31호, 1984, 「불국선원을 찾아서 : 월산」
1953		적천사(청도) 도솔암 정진 - 대구에서 탁발, 거지들에게 보시 - 깨달음	종원스님 증언. 김광식, 「월산의 생애와 사상」, 『대각사상』 32집, 대각사상연구원, p.60, 주32 참고. 이지관, 『한국고승비문총집』,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0, p.1339.
		선학원, 팔달사(수원)에서 정진 - 은사 금오스님을 시봉	장이두 회고록, 「18. 금련사 토굴」
	5	20 불교정화운동 이승만 대통령 유시	
1954	6	21 교단 정화 대책위원회 발족(금오, 위원장) - 금오스님 시봉	장이두 회고록, <해동불교> 김광식, 「월산의 생애와 사상」, 『대각사상』 32집, 대각사상연구원, p.63, 주42 참고.

1954	8	24~25	선학원에서 전국 수좌 대표자 대회, 참가 - 연고 사찰은 법흥사로 나옴 - 전형위원 종헌 제현위원의 전형위원 추진위원의 전형위원 대책위원의 선출위원	김광식, 『전국비구승대표자대회 의 시말』,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민도광, 『한국불교승단정화사』, 1996.
	9	28~30	선학원의 전국 비구승니 대회 참가 - 종회의원으로 선출(소속, 팔달사)	민도광, 『한국불교승단정화사』, 1996, p.72.
1955	8	12	전국승려대회(조계사) 참가 - 종회의원으로 선출	민도광, 『한국불교승단정화사』, 1996, p.547.
			봉은사 주석, 금오스님 시봉	장이두 회고록, <해동불교>
1956			마곡사·동학사 주지	
1957			법주사 주지	<법보신문> 1997.9.17, p.4.
1958			조계종단 재무부장(금오 총무원장 재직) 충북 총무원장	장이두 회고록, <해동불교> 설석우, 『장의회보』, 1958
1959			신흥사(설악산) 주지	<대한불교> 1060.1.1, p.2 광고
1961			동화사 주지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8, pp.495-460.
			조계종단 감찰원장	<대한불교> 1962.1, p.1.
1962			비상종회 의원(소속, 망월사)	불교재건 비상 종회의원 - 비상 종회 회의록
			자재암(백운암) 정진(주지, 권진정, 할복 6비구)	자재암 정진 - 자월(이광준 박사) 증언

1963		각화사 동암, 수행 정진	현해, 『오대산 노송』, 민족사, 2020, p.159.
		조계사 대웅전 보수불사 추진위원회, 회장으로 추대됨	
1968	5	법주사 불교전문강원 원장	<대한불교> 1969.5.25, p.1 광고 『월산선사법어집』
	6	6 해동사(월성) 창건 회향식, 법어 - 주지로 추대됨	<대한불교> 1968.6.18, p.3.
	9	법주사에서 금오선사의 법을 전수받음	『월산선사법어집』
1969		법주사 주지 법주사 총지선원 조실	
	8	10, 17 <대한불교>에 종단관, 기고 - 「비구는 다시 재검토 할 때가 왔다 : 宗團은 四部大衆의 것」	<대한불교> 1969.8.10, 8.17 : 2회
	8	30 조계종단 종회, 총무원장으로 선출	
	9	7 총무원장 취임 - 조계사 주지 조계종 기획위원회 위원장	<대한불교> 1969.9.21, p.1.
	11	1 승가학사회 주최 세미나 (주제 : 한국불교의 진로), 법어 - 대구 보현사	<대한불교> 1969.11.9, p.3.
1970	11	19 선학원 이사에 취임	
	11	23 조계종단이 합법적인 종단임을 대법원에서 판결 받음 - 「담화문 : 종단 소송의 승소에 즈음하여」 기고 - <대한불교> 1969.11.2. p.1 광고란 「勝訴 담화문」 기고	『법륜』 19호(1969.12)
	1	『법륜』에 「중흥위해 끊임없는 정진을」 기고	『법륜』 1970년 1월호
1970	2	21 한국 종교협의회 창립, 초대 회장 추대	<대한불교> 1970.3.1, p.3.
	5.10~8.16	조계사 『금강경』 독송기도 법회, 지도	

1970	6	20	대한불교청년회 기념 대강연회, 기념 법회 법사 - 만해 한용운 선사 추모의 밤, 조계사	<대한불교> 1970.6.14, p.3.
	8	24	총무원장 사임	<대한불교> 1970.7.19, p.1
1971			상원사 조실	『처처에 나툰 보살행 : 석암스님의 수행과 가르침』, 2011, p.407.
			흥경대종사, 49재(통도사) 참석	
1973	5	2	분황사, 원효대사 봉찬대제 증명	
	8		불국사 주지 직무 대행 - 수덕사 토굴(전월사)에서 부임 불국사 석굴암에서 정진	『월산선사법어집』
1974	2	3	『대한불교』에 「금주의 법문, 시심마」 게재	
	5	21	분황사, 원효대사 봉찬대제 증명	
	5	29	금산사 개금불사 회향, 위령제, 예수재의 법사	<대한불교> 1974.5.19, p.2의 광고
	6	23	불국사 주지 발령	<대한불교> 1974.7.7, p.3
	7	23	종단 유신 방안 건의 - 보승사(서울, 수유리)에서 고승(서옹, 관응, 자운, 동헌 등)과 함께 종회의원 겸직 금지, 비구니와 신도 대표 종회의원으로 선출 등 7개항	<대한불교> 1974.7.28, p.3.
	9	20	이차돈 聖師 대제(흥륜사, 백율사), 추모사	<대한불교> 1974.9.29, p.1
	10	2	『金鳥集』 발간, 발문 지음	『금오집』
	10	18~20	제13회 신라문화제 주최, 호국 대법회에서 설법	<대한불교> 1974.10.27, p.1.
	11	15	불국사 경주포교당으로 법장사 지정, 현판식	<대한불교> 1974.12.8, p.1

1975	1	17	전강선사 영결식(용주사), 護喪	<대한불교> 1974.1.19, p.2의 부고
	2	24	불국사 관음상 등 개금불사 회향식 주관	<대한불교> 1975.3.2, p.3.
	4	13	불국사 천일기도 회향식, 주관	<대한불교> 1975.4.27, p.1.
	5	31	동국학원 이사, 재선임	<대한불교> 1975.6.8, p.1.
	6	20	만성비구니 영결식(범어사), 고문	<대한불교> 1975.6.22, p.3의 부고
	8	31	불국사 승가학원 개원식, 격려사 - 불국사 승가학원장	<대한불교> 1975.9.7, p.1.
	9	20	금오선사 부도비 제막식(법주사)에서 문도 대표로 인사 - 금오선사 부도비 건립, 총괄	<대한불교> 1975.9.8, p.1.
	10	15	동국학원 이사로 선임	<대한불교> 1975.10.19, p.1.
	4	15	불국사 승가학원 제1회 수료식, 치사	<대한불교> 1976.4.25, p.1
	5	29	불국사 선원 개원 - 불국선원 선원장, 조실	<대한불교> 1976.6.6, p.1.
1976	7	4	<대한불교>의 「염화실 탐방 : 월산대선사」 인터뷰 - 이향봉 대담 및 집필(오현, 정휴 동행)	<대한불교> 1976.7.4, p.1.
	8	29	이차돈 성사 대제(흥륜사), 고문	<대한불교> 1976.9.12, p.3.
	9	10	금오선사 8주기 추모법회(법주사), 법어	<대한불교> 1976.9.19, p.1.
	11	17	동화사 금당선원 개원식, 참가	<대한불교> 1976.11.28, p.3.
	1977	1	백련사(제천) 특수 禪關長 설립, 증명 조실	<대한불교> 1977.1.16, p.4의 취지문

1977	4	『법륜』, 「스님을 찾아서, 불국선원 조실 월산대선사」 인터뷰 - 대담, 선원빈(대한불교신문사 편집부장)		『법륜』 98호(1977.4)
	8	24	춘성선사 영결식(화계사), 다비위원장	<대한불교> 1977.9.4, p.1.
1978	4	17	소천대종사 영결식(범어사), 고문	<대한불교> 1978.4.23, p.1의 부고
	5	6	원효성사 대제(분황사), 법어	<대한불교> 1978.5.14, p.3.
	9	9	비상종회 의장 선출	<대한불교> 1978.9.24, p.1.
	9	10	불국사 강원 건물 불사(증축), 준공식 기념 식사(式辭) - 불국강원 원장	<대한불교> 1978.9.24, p.1.
	10	18	총무원장으로 선출됨 - 종단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대한불교> 1978.10.29, p.1.
	11	11	종단 원로위원으로 선출됨	<대한불교> 1978.11.19, p.1.
	1	5	제운당 대선사 영결식(범어사), 증명	<대한불교> 1979.1.21, p.1의 부고
	1	12	향곡선사 영결식(묘관음사), 고문 겸 장의부위원장	<대한불교> 1979.1.28, p.4의 부고
	2	14	총무원장 사임	<대한불교> 1979.2.25, p.1.
	3	16	철우대종사 영결식(직지사), 고문	<대한불교> 1979.4.1, p.1의 부고
1979	3	20	만해 탄신 100주년, 대한불교청년회 강연회 : 법어 - 경주 동원 예식장에서	<대한불교> 1979.4.1, p.1.
	11	30	종회 의장으로 선출됨	<대한불교> 1979.12.9, p.1.
	12	29	경산대종사 영결식(조계사), 장의위원장	<대한불교> 1980.1.6, p.2의 부고

1980	4~5	종정 후보자로 물망(성철스님과 함께) - 종회에서 종정 선거 시행 투표에서 과반수 미달, 미결정(27:28, 29:31로 성철스님보다 많은 득표)	<대한불교> 1980.5.11, p.1 『제4,5,6대 중앙종회 회의록』, pp.1295-1315.
		경주 부인선원 개원 - 불국사 선행회(1975)를 발전시킴	<법보신문> 1992.5.11, p.14의 광고
		불국사 불국선원, 조실 법주사 총지선원, 조실	
1981	7	13	<대한불교>, 『해탈과 열반사이, 월산대선사』 인터뷰 - 정휴 대담, 집필
			『경허집』 발간, 후원 - 鏡虛惺牛禪師 法語集 刊行會, 부회장
			『경허법어』, 인물연구소, 1981.
1982	6	2	원로의원, 추대
			불교신문 인터뷰, 원로스님의 근황 - 대담 : 최정희 기자
			<불교신문> 1982.7.18, p.1.
1982	12	4	내원정사 창건 불사 회향식 참석
			<불교신문> 1982.12.12., p.7.
			복천암 선원, 조실 불영사 천축선원, 조실
1983	6	9	공림사(괴산) 감인선원, 조실
			『선원총람』, 조계종, p.296.
			탄허 대종사 영결식(월정사) - 조사
1984	7	8	『방산굴 법어』, 월정사, 2003, pp.482-484.
			『불교사상』 8호, 권두법어 「생각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 기고
			『불교사상』 8호, 1984.7.
1984	8	9	비상 종단 대책 협의(해인사) - 원로 모임 : 성철, 자운, 석주, 일타, 혜암 등
			『해인』, 『염화실의 미소』 인터뷰
			흥륜사(경주) 천경림선원, 조실 『월간 해인』 31호, 1984.9.

1985	3	11	불국사 주지, 발령	<경향신문> 1985.3.12, p.5.
1986	6	4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경향신문> 1986.5.21, p.5.
	6	7	영암대종사 영결식, 영결사 대승사 대승선원, 조실	『봉은』 26호, 1987.7. 『선원총람』, 교육원, 2000.
1987	6	26	시국 수습 건의 - 청와대에서, 불교계 지도자와의 대화 대승사 선원, 조실	<동아일보> 1987.6.26, p.2.
1988	5	14	<법보신문> 창간, 기념식 - 인사 말씀	<법보신문> 1988.5.23, p.1
	5	16	<법보신문> 창간, 발행인 겸 편집인 취임 - 창간사 기고	<법보신문> 1988.5.16, p.5.
	5	23	부처님오신날, 봉축사 기고 - <법보신문> 2호	<법보신문> 1988.5.23, p.9.
	8	7	불국사 석굴암 통일대종 종각 상량식 - 법어	<법보신문> 1988.8.9~15, p.7.
	9.30~10.1		신라불교 문화 영산대재(불국사), 법어 - 보살계 수계, 전계아사리(법주)	<법보신문> 1988.10.11~17, p.7.
	10	19	법주사 청동미륵대불 복장성물 봉안 설명회 - 법어(증명 법사)	<법보신문> 1988.10.25~31, p.7.
	10	19-20	법주사 보살계 수계식 - 전계사	<법보신문> 1988.9.27~10.3, p.5.
	10	29	고암대종사 영결식, 조사	<법보신문> 1988.11.1~7, p.6.
1989	1	2	<법보신문>, 「신춘대담 : 원로회의 의장 최월산스님 - 대담 : 김정휴 주필	<법보신문> 1989.1.2, p.3.
	1	15	경주시군 불교연합회, 성도절 기념 대법회(서라벌회관) - 법어	<법보신문> 1989.1.17~23, p.1.
	4	21	불국사 석굴암 통일대종, 타종식 - 법어	<법보신문> 1989.4.25~5.1, p.1.

	6	13	불교방송 설립 기금, 1천만원 기탁	<법보신문> 1989.6.13~19, p.1.
1989	10	2	지효선사 영결식(범어사), 영결사	<법보신문> 1989.10.10~16, p.1.
	11	13	불국사 정혜료(노덕스님 복지시설) 준공식, 개최	<법보신문> 1989.11.14~20, p.7.
	1	1	<법보신문>, 「신춘인터뷰 : 불국선원 조실 최월산 대종사」	<법보신문> 1990.1.1, p.3.
	4	11~12	법주사 청동미륵대불 준공 회향법회 - 법어	<법보신문> 1990.4.16, p.1.
1990	4	30	<법보신문>, 「부처님오신날 특별 대담, 불국선원 조실 최월산 대종사」 - 선원빈 편집국장 인터뷰	<법보신문> 1990.4.30, p.4.
	9	9~10	영산대제(불국사) 개최 - 법어	<법보신문> 1990.10.15, p.1.
	10	16~17	법주사 미륵십선 수계 산림법회 - 전개 아사리, 법어	<법보신문> 1990.10.22, p.3.
	1	1	<법보신문>, 「신춘 인터뷰 : 불국선원 조실 최월산 큰스님」 - 대담 : 김정휴 주필	<법보신문> 1991.1.1, p.5.
	1	16	월남선사 영결식, 법어 - 장의위원장	<법보신문> 1991.1.21, p.1.
	3	27	불국사 주지 퇴임, 후임 종원	<법보신문> 1991.4.8, p.1.
1991	4	29	불국사 영산회상도 점안식(무설전) 개최	<법보신문> 1991.5.6, p.10.
	7	1	<법보신문> 편집인 겸 발행인, 퇴임 - 후임 : 발행인은 종원, 편집인은 성타	<법보신문> 1991.7.1
	9	1	불국사 경주 불교교육원 개원식 - 법어	<법보신문> 1991.9.2, p.10.
	10	22	불국사 호국영령, 선망부모 천도법회 - 증명, 법어	<법보신문> 1991.9.2, p.10.
	11	10	안강 불교반야회, 불자 5계 수여(64명, 불국사)	<법보신문> 1991.11.18, p.10.

1992	2	13	자운대종사 영결식(해인사), 장의위원	<법보신문> 1992.1.14, p.1.
	4	18	법주사 호국 청동미륵대불 봉안 2주년 기념 미륵십선계 및 영가천도 대법회, 전계사	<법보신문> 1992.4.7, p.10
	10	9	불국사 신라문화 영산 대법회, 법어 - 전계아사리, 보살계 수계	<법보신문> 1992.10.19, p.2.
	10	30	법주사 대승보살계 법회, 전계대화상	<법보신문> 1992.10.26, p.10.
	11	2~3	제1회 금오문도 수련법회(법주사) - 증명, 법어	<법보신문> 1992.11.9, p.1.
	11	6	불국선불원(佛國禪佛院, 서울 서초구) 개원, 법어 - 불국사 운영, 선원장(종상)	<법보신문> 1992.11.16, p.11.
	11	27	동화사 약사여래대불 점안식 - 법어	<법보신문> 1992.12.7, p.1.
불영사 일주문 개송 지음				
1993	2	9	불국선불원, 동안거 해제 회향법회 - 조실, 법어(참선으로 '참나'를 깨달아야)	<법보신문> 1993.2.15, p.2.
	3	5	한·미 해병 합동 출전 법회 및 수계식(해룡사 대웅전) - 증명 법사, 법어	<법보신문> 1993.3.22, p.10.
	5	24	「큰스님을 찾아서, 특별 인터뷰 : 불국선원 조실 최월산 대종사」 - [법보신문], 선원빈 국장 인터뷰	<법보신문> 1993.5.24, p.3.
	11	4	금오문도 수련법회(불국사), 증명	<법보신문> 1993.10.11, p.2.
1994	4		종단개혁 지지 성명, 범종추로 전달	
	5	3	종단 원로의원 사의 명예원로의원, 추대됨	<법보신문> 1994.5.9, p.1.
	7		한국불교발전연구원(이사장, 월탄), 고문	<법보신문> 1994.7.4, p.1 광고
	9	21	제3차 금오문도 수련법회(법주사), 증명	<법보신문> 1994.9.19, p.1 광고
	11	15	월산큰스님 친견법회, 불국사	<법보신문> 1994.10.31, p.1 알림

1995	8	금오스님 구도소설 책, 추천사(「풍요로운 삶의 지혜 가꾸시기를」) 기고 - 윤청광, 『큰 생각 크게 먹고 크게 살아라』 (언어문화사 발간)	
	10	21	원효학연구원 개원식, 법어 <법보신문> 1995.11.1, p.4.
	10	20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수륙대제 (문무왕 수증릉), 증명 <법보신문> 1995.10.18, p.11.
	11	19	서운대종사 영결식(직지사), 장의위원 <법보신문> 1995.11.22, p.2.
1996	12	19	불국사·석굴암, 세계문화유산 등록 고불법회(석굴암) - 법어 <법보신문> 1996.1.1, p.23.
	1	1	「새해 특별 대담, 큰스님께 듣습니다 : 불국선원 조실 최월산 대종사」 - <법보신문>, 박경훈 주필 <법보신문> 1996.1.1, p.11.
	2	22	이수성 국무총리 예방, 접견(불국사) <법보신문> 1996.3.6, p.4.
	5	24	부처님오신날 봉축 특별 법어 - <법보신문> 게재 <법보신문> 1996.5.22, p.4.
	5		『불교춘추』, 「인물연구, 불국선원 조실 월산선사」 인터뷰 『불교춘추』 3호, 1996.5
	6	27	조계총림 방장 승찬대종사 영결식(송광사), 증명 <법보신문> 1996.7.3, p.1 부고
	9	28	제5차 금오문도 수련법회(법주사) - 증명, 법어(탄성스님 대독) <법보신문> 1996.10.9, p.4.
1997	1	17	『만해세얼』 신년호, 축하 기고 「만해의 자유·생명 사상은 불교사상에서」 『만해세얼』 3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5	14	<법보신문>, 「봉축 특집 법어」 기고 <법보신문> 1997.5.14, p.3.
	9	6	입적 - 세수 85세, 법랍 54세 <법보신문> 1997.9.17, p.1.

1997	9	10	영결식(불국사), 원로회의장 - 법어(종정, 월하대종사), 영결사(원로의장, 해암대종사), 조사(총무원장, 월주대종사), 조시(고은)	<법보신문> 1997.9.17., pp.4-5, p.17.
	10	24	49재(불국사 무설전) - 법어(고불총림 방장, 서옹대종사)	<법보신문> 1997.10.29, p.15.
1998	9	25	월산문도회, 『월산선사법어집』 발간	<불교신문> 1998.9.29.
2000	9	8	불국사, 성림당 월산대선사 비석 건립 - 비문, 고은 지음	
2005	9	8	불국사에 월산스님 부도 및 행적비, 제막식	<불교신문> 2005.9.14, p.4.
2006	3	21	청계사에 부도탑 조성, 제막식 - 매년 5대 선사(경허, 만공, 보월, 금오, 월산) 추모 다례제 봉행	<불교신문> 2006.3.26, p.4
2007	9	15	법주사에 월산스님 부도탑 조성, 제막식	<불교신문> 2007.9.22, p.4.
2019	9	1	‘월산 대종사의 생애와 삶’ 학술세미나 개최 - 주최 : 불국사, 월산문도회 - 주관 : 대각사상연구원 - 장소 : 경주, 불국사 불교문화회관	
	12	30	‘월산 대종사의 생애와 삶’ 특집논문 게재 - 김순석, 「금오문중의 위상과 성격」 - 김광식, 「월산의 생애와 사상」 - 한태식(보광), 「월산 큰스님의 선사상(1)」 - 한상길, 「근현대 불국사의 사격」 - 석길암, 「성림월산과 불국사 선원」	『대각사상』 32집, 대각사상연구원
2021	9	9	‘월산 대선사 사상의 재조명’ 학술세미나 개최 - 주최 : 불국사, 월산문도회 - 주관 : 대각사상연구원 - 장소 : 경주, 불국사 불교문화회관	